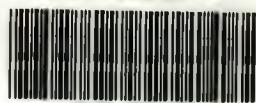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남서부편

문화재청



EM017966

국립문화재연구소

<정 오 표>
(正誤表, Correction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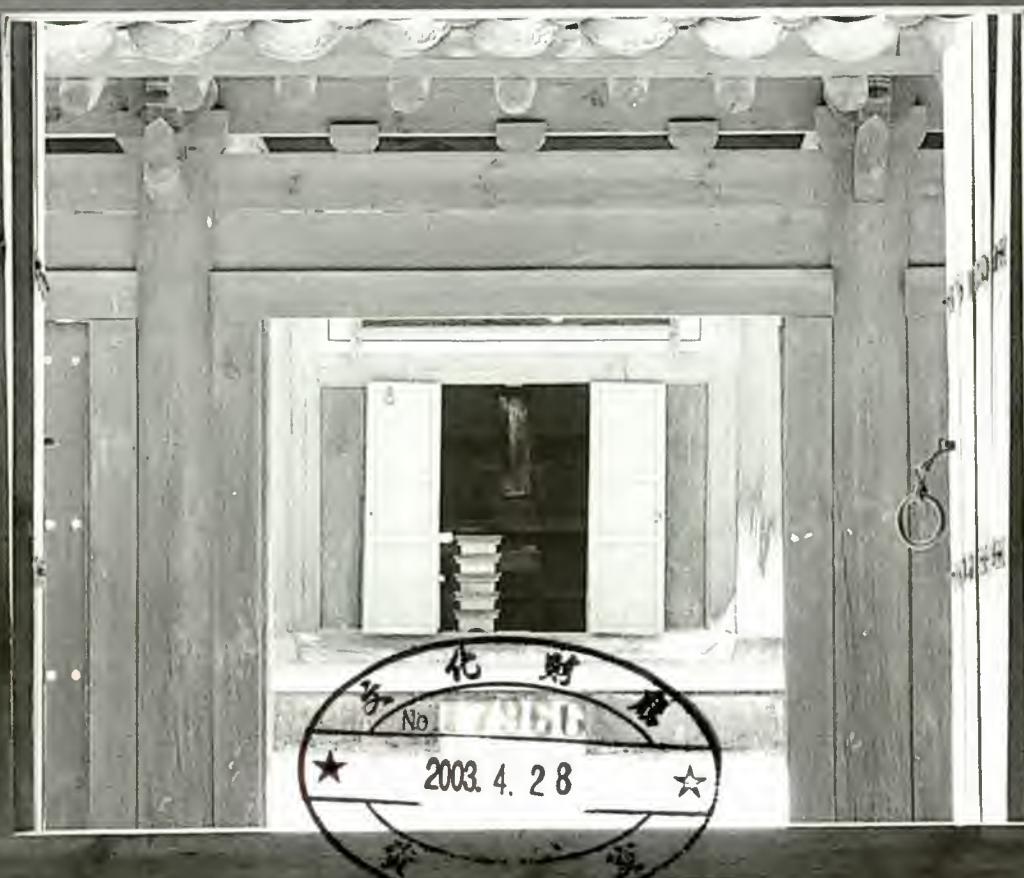
	현 재 現在, present	수 정 修正, amend
P. 364 사진캡션 寫眞名, Photo caption	대성전 내부 협칸 가구 대성전 내부 종대공 대성전 내부 종대공	명륜당 내부 협칸 가구 명륜당 내부 종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P. 381 하단 오른쪽 사진 수정 下段右側寫眞部分修正 Amendment of 2 photos, lower part, right side	<p>스티커를 하단 오른쪽 귀퉁이에 맞추어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p> <p>寫眞附着, 所下段右側隅</p> <p>You should stick a enclosed sticker along the lower part of right-down way corner.</p>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남서부편

慶尚北道鄉校建築
昌寧縣大連路龍烈里根
道府文書局于澤用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러두기

- * 각 향교별로 수록된 도면의 축적은 각 향교마다 다른데, 이는 향교의 규모가 서로 다르고 도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면이 혼용하는 만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 * 경상북도 지역 향교를 조사한 시기는 2001년과 2002년이며, 보고서 발간시기는 2002년 12월이므로 각 향교 별 내용이 현재의 상황과 약간 다를 수도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향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 향교 관련 보수 연혁 및 기타 자료는 향교자(鄉校誌), 문화재청 소유 보수 기록, 각 지방 차차 단체 소유 문화재 관리 대장 및 보수 기록, 조사 당시의 면담 내용 등을 종합 정리하였으며, 문화재 담당 직원, 전교(典校) 등 향교 임원과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 및 관련 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았다.
- * 특히 경산향교, 고령향교, 인동향교, 의흥향교 등 4개 향교는 기존에 발간된 실측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도면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옮겨 CAD 도면으로 작성하였고, 일부 주간의 치수가 표현되지 않은 도면의 경우 축적을 표기하였다. 그러나 실측 조사 이후 변경된 부분은 현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경산향교와 의흥향교는 이전 및 증개축 계획에 따라 향후의 변경이 예상되었고, 정우건축사사무소로부터 이에 관한 도면 협조를 받았음을 밝혀둔다.
- * 본문에 수록된 古地圖는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발간된 『海東地圖』를 인용하였으며, 지형도는 1:25,000 축적의 시도를 사용하였다.



▲성주향교 전경



▲함창향교 전경



▲ 청도향교 전경



▲ 김산향교 전경



▲상주향교 전경



▲하양향교 전경



▲ 현풍향교 전경



▲ 풍기향교 전경



▲성주향교 제향영역



▲인동향교 제향영역



▲현풍향교 제향영역



▲칠곡향교 제향영역



▲ 고령향교 제향영역



▲ 상주향교 제향영역



▲대구향교 제향영역



▲ 의흥향교 강학영역



▲ 상주향교 강학영역



▲인동향교 강학영역



▲신령향교 강학영역

목 차

〈일러두기〉	2
〈원색도판〉	3

I. 개설

1. 조사 개요	16
2. 조사 보고서의 구성	19

II. 향교건축 해설

1. 대구향교(大邱鄉校)	24
2. 칠곡향교(漆谷鄉校)	46
3. 청도향교(淸道鄉校)	62
4. 경산향교(慶山鄉校)	82
5. 하양향교(河陽鄉校)	100
6. 자인향교(慈仁鄉校)	120
7. 인동향교(人同鄉校)	138
8. 상주향교(尙州鄉校)	158
9. 풍기향교(豐基鄉校)	180
10. 김산향교(金山鄉校)	198
11. 예천향교(醴泉鄉校)	214
12. 지례향교(知禮鄉校)	232
13. 고령향교(高靈鄉校)	250
14. 문경향교(聞慶鄉校)	272
15. 함강향교(咸昌鄉校)	290
16. 성주향교(星州鄉校)	308
17. 현풍향교(玄風鄉校)	330
18. 의흥향교(義興鄉校)	350
19. 신령향교(新寧鄉校)	370

〈참고문헌〉	390
〈Abstract〉	391

I. 개 설

1. 조사 개요

2. 조사 보고서의 구성



I. 개설

1. 조사 개요

본 보고서는 한국 전통 건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교 건축물 가운데 향교 건축물에 대한 세 번째 일제 조사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에는 일제 조사시 작성한 실측 도면과 상세한 사진, 건축 양식 및 가구 기법 등에 대한 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수록하고 이를 발간하여, 관계 기관과 학계에 배포함으로써 향후 문화재 보수·복원시의 고증 및 학술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북지역 향교 조사는 문화재 관련 학술 단체의 전문인력 배양 및 학술 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술 용역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5월 24일 복조건축물조사 자문회의를 국립 문화재연구소에서 개최하였으며, 용역계약대상 및 연구원 구성 방안,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 급액, 기타 협조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결과, 용역 수행은 전통건축관련 학술단체가 주축이 되어야 하고, 해당지역 향교에 대한 연구업적이 많은 사람이 사업의 책임연구원이 되어 조사인력구성을 해야 하며,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관련 인력 참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관련 인적 자원 및 연구 활동이 풍부한 문화재청 산하 국내 유일의 전통건축 학술단체인 (사)한국건축역사학회가 용의 수행자로 선정되었다.

경상북도 지역에서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전체 조사 대상 향교는 모두 39건이며, 이 가운데 (사)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 학술 용역 조사로 대구향교 등 30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영천향교 대성전(보물 제616호) 등 9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다.

경북지역 향교 조사 보고서는 남서부편과 북동부편으로 나누었으며, 본 보고서는 그 가운데 남서부편으로 경상북도 납부 및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향교 건축 19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11월까지로 크게 3차례 걸쳐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수록된 향교 건축 19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본문 계재순)

명칭	지정사항	소재지
1 대구향교(大邱鄉校)	문화재자료 제 1호(대성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34-5
2 칠곡향교(漆谷鄉校)	문화재자료 제 6호(대성전)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600
3 청도향교(淸道鄉校)	유형문화재 제207호(일곽)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교촌리 48
4 경산향교(慶山鄉校)	문화재자료 제105호(대성전)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62
5 하양향교(河陽鄉校)	문화재자료 제107호(일곽)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158
6 자인향교(慈仁鄉校)	문화재자료 제106호(일곽)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230
7 인동향교(人同鄉校)	문화재자료 제 20호(대성전)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409-3

	명 칭	지 정 사 항	소 재 지
8	상주향교(尙州鄉校)	유형문화재 제155호(대성전)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203-1
9	풍기향교(豊基鄉校)	유형문화재 제211호(대성전, 동·서무)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147-1
10	김산향교(金山鄉校)	문화재자료 제257호(일곽)	경상북도 김천시 교동 437
11	예천향교(醴泉鄉校)	문화재자료 제138호 (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199-1
12	지례향교(知禮鄉校)	문화재자료 제118호(대성전)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교리 739
13	고령향교(高靈鄉校)	문화재자료 제229호(일곽)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608
14	문경향교(聞慶鄉校)	문화재자료 제132호(대성전)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322
15	함창향교(咸昌鄉校)	문화재자료 제124호(일곽)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면 교촌리 304-1
16	성주향교(星州鄉校)	문화재자료 제114호(대성전) 유형문화재 제165호(명륜당)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31
17	현풍향교(玄風鄉校)	문화재자료 제 27호(대성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326-1
18	의흥향교(義興鄉校)	유형문화재 제198호(대성전)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217
19	신령향교(新寧鄉校)	문화재자료 제102호(대성전) 유형문화재 제168호(명륜당)	경상북도 영천시 신령면 화성리 525

(사)한국건축역사학회의 학술조사는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조영화·정명섭 교수팀(이하 1팀)이 상주향교 등 24건을, 배병선 교수팀(이하 2팀)이 대구향교 등 6건을 담당하였다. 이 가운데 1팀은 상주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배치측량팀을 지원받아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향교는 조사 일정 및 기후 조건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었으나 평균 3~4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배치 조사, 건축 조사, 문헌 조사 및 사진 촬영을 병행하였다. 학술조사 내역 및 참여 조사원, 조사내역 그리고 조사에 사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소속 상황은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음)

■ 학술조사 내역

- 용 역 명 : 경상북도 향교 조사 학술 용역
- 계약금액 : 28,000,000원(일금 이천팔백만원)
- 과업기간 : 2001년 7월 5일 ~ 12월 1일 (작수일로부터 150일)

■ 참여 조사원

- (사)한국건축역사학회
 - 책임연구원 : 김동욱(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연 구 원 : 조영화(대경대학 건축디자인과 교수, 경상북도 문화재전문위원)
: 정명섭(상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경상북도 문화재전문위원)
 - : 배병선(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교수, 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 연구보조원 : 김태훈(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 : 오신진(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 : 이용호(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 : 정종민(군산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 최원욱(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 : 신귀현(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 : 김영아(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재준(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건축주사)
- 류성열(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현 국립중앙박물관 건축주사)
- 조상순(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연구원)
- 문승현(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연구원)
- 한주성(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연구원)

■ 조사 내역

조사차수	조사시기	조사대상
학술 조사	2001년 7월 18일 ~ 8월 18일	대구향교 등 30건
보완 조사 1차	2002년 9월 14일 ~ 9월 19일	고령향교, 경산향교 등 2건
보완 조사 2차	2002년 11월 11일 ~ 11월 17일	상주향교, 인동향교, 의릉향교 등 3건

■ 조사 방법

구 분	내 용	소요인원/시간
배치조사	○ 광파측거기를 이용한 일곽 배치 정밀 측량	2인 / 0.5일
건축조사	○ 개별 건축물 평면 실측 ○ 중요 부재의 조사 및 탁본 ○ 향교별 발간 향교지 협조 ○ 지방 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부서 자료 협조	2인 / 1일
문현조사	○ 전교(典校) 등 향교 운영자 면담 ○ 중요 기록 및 향교 소장 문서 필사(筆寫) ○ 기타 건축 관련 기록 조사	1인 / 0.5일
사진촬영	○ 향후 보수 및 복원 시 고증에 필요한 일곽 전경 및 개별 건축물의 건축 요소 파악이 가능한 사진 자료 확보	2인 / 0.5일

이상의 조사과정에서 1팀은 상주대학교 토목공학과 대학원(지도교수 장상기, 대학원생 김희동 외 7명)의 지원을 받아 일곽을 측량하였으며, 위에 언급된 조사보조원 외에 복민규·손정길(이상 대경대학교), 권영진·정경재(이상 상주대학교) 등이 조사과정에 참여하였다.

2. 조사 보고서의 구성

본문에서 각 향교별 서술 내용은 먼저 향교의 창건 시기를 기점으로 현재까지의 중건(重建) 및 이건(移建), 보수(補修)의 시기와 내용을 연혁 부분에서 먼저 서술한 다음 향교의 위치와 입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고, 이어서 구체적인 건축물의 구성과 그에 대한 해설을 건축 구성 및 현황 부분에서 서술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각각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향영역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영역, 그리고 기타 등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향교 조사 기록표를 첨부함으로써 본문과 도면에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를 일괄 목록화 하였고 문화재 보수 및 복원과 학술적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본문의 서술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연혁
2. 입지 및 배치
3. 건축 구성 및 현황
 - 가. 제향영역
 - 나. 강학영역
 - 다. 기타
4. 향교 조사 기록표

이상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술되었다.

먼저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실측 도면과 상세 정보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실측도면은 전체 일관 배치도, 대성전 평면도 1매, 명륜당 평면도 1매 등 향교별로 각각 3매의 도면이 수록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주요 외관과 건축구조 등에 대하여 상세한 사진을 수록하였다.

둘째, 건축물과 관련된 중수기문이나 현판에 기록된 기록 등은 건축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중건(重建), 이건(移建) 및 보수 등에 한하여 간략히 제작 시기 등을 중심으로 원문을 삽입하였다.

셋째, 향교별 조사 내용은 객관적인 사항을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건축물의 건립 연대 등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의견을 함께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향교지(鄉校誌)나 기타 문현상에 등재된 상량문 등 이미 발간된 문현 기록 외에 현지 조사시 습득한 관련 기록을 포함함으로써 좀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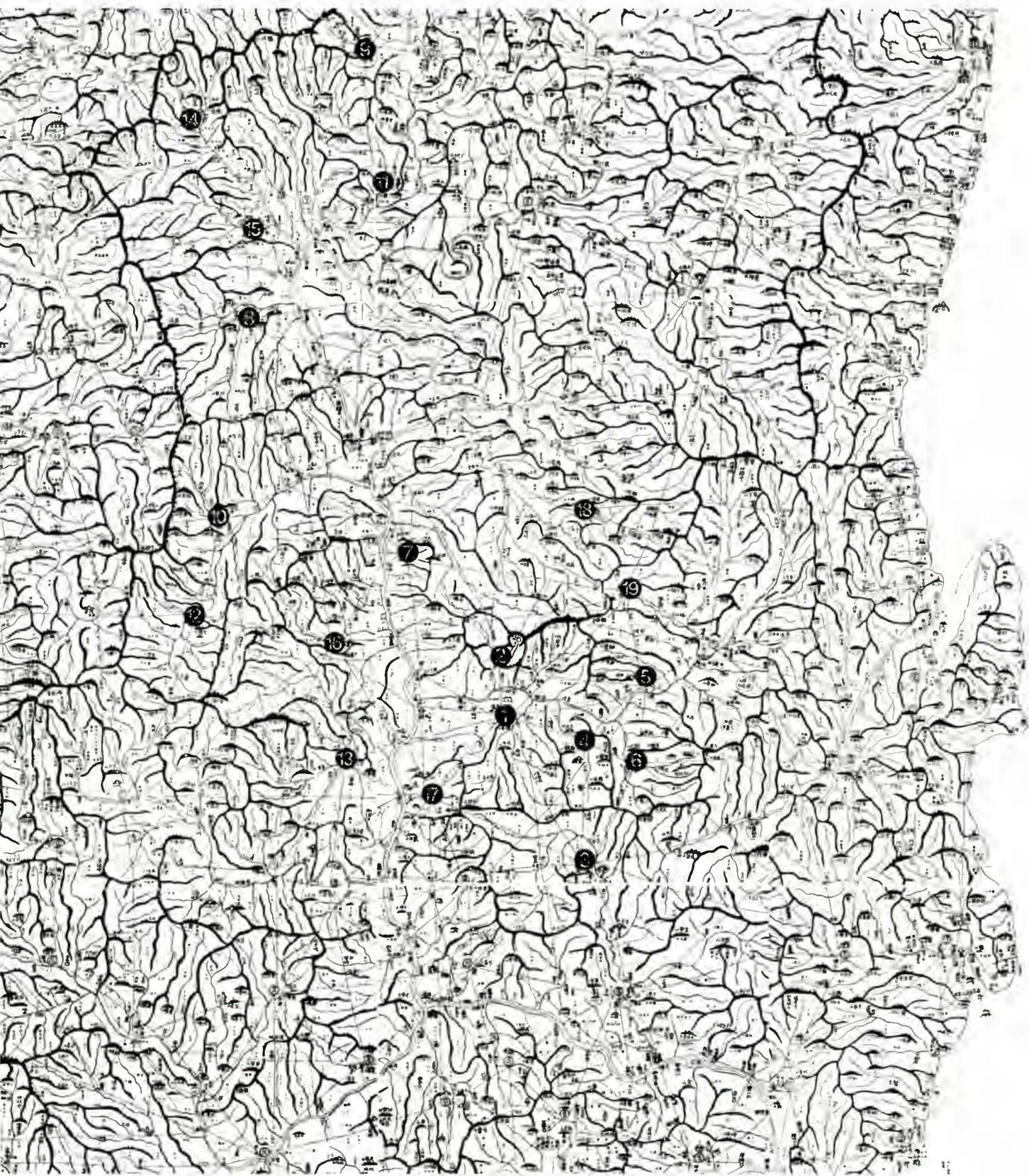
본 보고서는 기존에 발간되었던 『서울·경기도의 향교건축』(2000년 간행), 『강원도의 향교건축』(2001년 간행)에 이은 유교건축총서 제3집이며, 기존에 발간되었던 향교 조사 보고서와 다른 점은 학술용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향교별 보고서의 집필도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연구원의 조사 보고서를 수록하였으며, 집필자 간에 약간의 다른 서술방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 보고서는 본 보고서의 수록 순서에 따라 내용 일부가 달라진 경우도 있으며, 기존에 정밀실측 조사보고서가 발간된 향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건축적 내용 등 조사 당시와 다른 변경 사항에 관한 것과 본 보고서의 발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 첨가 혹은 삭제되었다. 본 보고서의 조사 보고서 작성은 다음의 필진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영화 : 김산향교, 문경향교, 성주향교, 예천향교, 지례향교, 청도향교, 풍기향교, 함창향교 등 8건

배병선 : 대구향교, 신령향교, 자인향교, 칠곡향교, 하양향교, 현풍향교 등 6건

조상순 : 경산향교, 고령향교, 상주향교, 인동향교, 의흥향교 등 5건(이상 가나다순)



大東輿地圖. 1861

- | | | |
|---------------|----------------|----------------|
| 1. 대구향교(大邱鄕校) | 8. 상주향교(尙州鄕校) | 15. 함장향교(咸長鄕校) |
| 2. 칠곡향교(漆谷鄕校) | 9. 물기향교(豐基鄕校) | 16. 성주향교(聖州鄕校) |
| 3. 청도향교(淸道鄕校) | 10. 김신향교(金山鄕校) | 17. 현풍향교(玄風鄕校) |
| 4. 경신향교(慶山鄕校) | 11. 예천향교(醴泉鄕校) | 18. 의릉향교(義興鄕校) |
| 5. 하양향교(河陽鄕校) | 12. 지례향교(知禮鄕校) | 19. 신령향교(新寧鄕校) |
| 6. 자인향교(慈仁鄕校) | 13. 고령향교(高靈鄕校) | |
| 7. 인동향교(人同鄕校) | 14. 문경향교(聞慶鄕校) | |

II. 향교건축 해설

- 
1. 대구향교(大邱鄉校)
 2. 칠곡향교(漆谷鄉校)
 3. 청도향교(淸道鄉校)
 4. 경산향교(慶山鄉校)
 5. 하양향교(河陽鄉校)
 6. 자인향교(慈仁鄉校)
 7. 인동향교(人同鄉校)
 8. 상주향교(尙州鄉校)
 9. 풍기향교(豊基鄉校)
 10. 김산향교(金山鄉校)
 11. 예천향교(醴泉鄉校)
 12. 지례향교(知禮鄉校)
 13. 고령향교(高靈鄉校)
 14. 문경향교(聞慶鄉校)
 15. 함창향교(咸昌鄉校)
 16. 성주향교(星州鄉校)
 17. 현풍향교(玄風鄉校)
 18. 의흥향교(義興鄉校)
 19. 신령향교(新寧鄉校)

1. 대구향교(大邱鄉校)

- 지정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호(대성전)
- 지정일 : 1982년 3월 4일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35-4번지
- 건축구성 :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외삼문, 양사재, 낙육재, 동소문, 유림회관, 유도회사무실 등

지형도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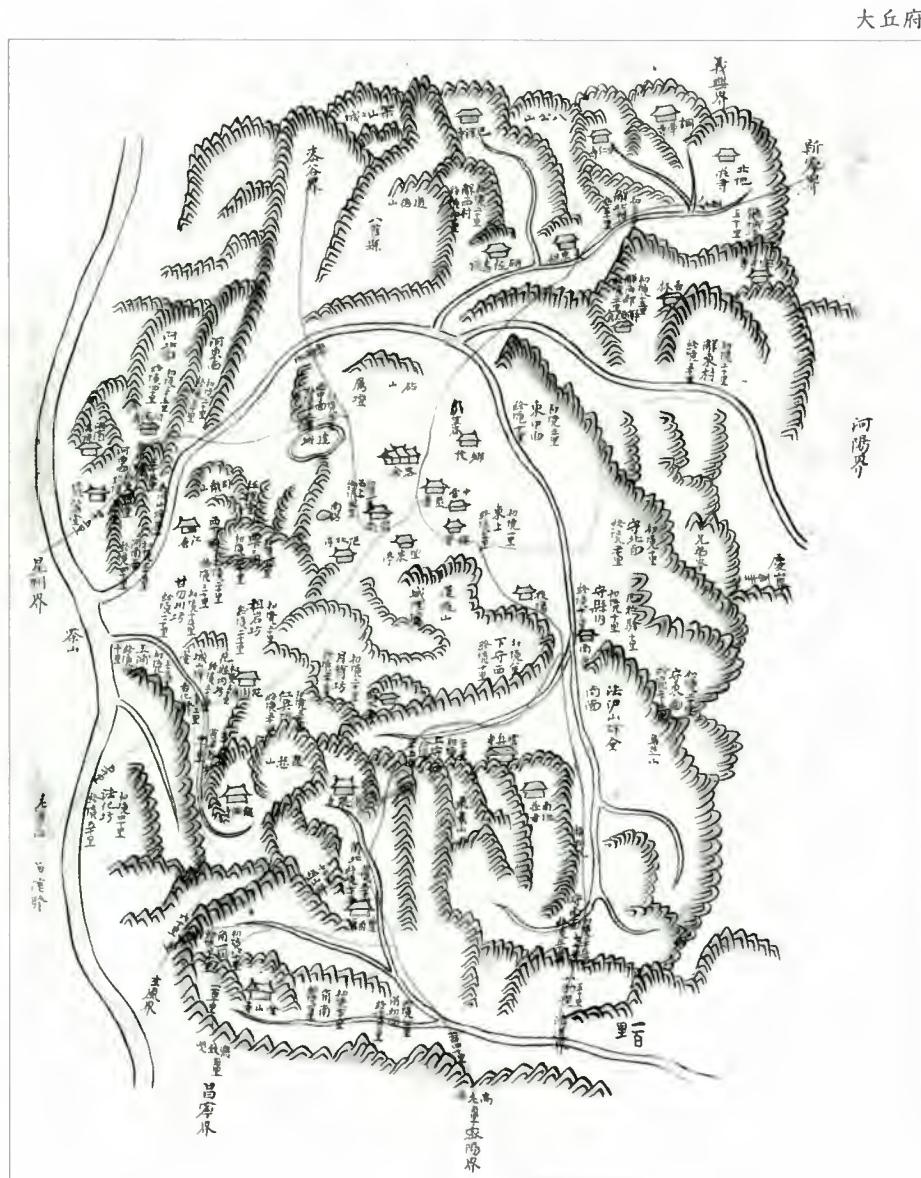
대구향교의 관할은 대구광역시의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의 7개 구와 달성군의 가창면, 화원읍, 옥포면, 다사면, 하빈면 등 1읍 4개 면이다. 설위는 과거에는 중설위(中設位)로서 공자(孔子)와 사성(四聖), 십철(十哲), 동국십팔현(東國十八賢) 등 39위를 봉안하였으나 현재는 25위만을 봉향(奉享)하고 있다.

대구향교는 조선 태조 7년(1398)에 부(府)의 동쪽으로 2리 떨어진 교동(校洞)¹⁾에 처음 건립되었으나 선조 25년(1592)에 있은 임진왜란의 병화(兵火)로 모두 소실되어 선조 32년(1599)에 당시 관찰사였던 한준겸(韓浚謙)과 부사였던 김구정(金九鼎)이 사림(士林)과 협력하여 달성 남각(南角)²⁾으로 이전하여 중건하였다.

그러나 선조 38년(1605)에 관찰사 겸 부사 유영순(柳永詢)이 사갈(蛇蝎) 등 불상지물(不祥之物)이 나타나므로 향교의 터가 좋지 않다고 장계(狀啓)를 올리고 왕의 윤허를 받아 구지(舊址)인 교동으로 다시 옮겼는데 명륜당은 짓지 못하였다. 인조 2년(1624)에는 사림이 역부족으로 건립하지 못했던 명륜당(明倫堂)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을 부사 한명조에게 건

의하여 즉시 착공하였고 이듬해인 1625년 부사 조국빈(趙國賓)의 재임시 명륜당을 완공하였다³⁾. 이후 삼백여 년 동안 향교는 그곳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1930년에는 향교의 직제(職制)를 개정하여 도유사(都有司)를 직원(直員)으로 개칭하고 장의(掌議) 2명을 9명으로 늘렸는데 당시 직원은 이현주(李玄澍)였다. 그 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주변이 시가지로 변해 복잡하므로 1932년에는 지사 김시규(金瑞圭), 군수 박제륜(朴濟輪), 직원 전병곤(全柄坤) 등이 상의하여 현



재의 위치인 아미산록으로 이건하였는데 동년 4월에 개기하고 6월에 상량하여 9월에 완공하고 10월 8일에 낙성식을 가졌다. 그러나 이전할 당시 대구유림단체에서 항일운동이 심하였으므로 동서재(東西齋)가 있으면 유생(儒生)들이 독립운동할 장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하여 일제의 반대로 이를 짓지 못하였다고 한다⁵⁾. 이듬해에는 직원 전병곤 등이 대구향교재록(大邱鄉校齋錄)을 발간하였다.

1945년에는 명륜당에 대성중학원(大成中學院)⁶⁾을 설립하여 이듬해 대성중학교로 승격되었다. 1947년에는 대구대학(大邱大學)의 설립인가를 받아 명륜당에서 강의를 시작하였고 향교의 직제를 개정하여 직원을 전교(典校)로 개칭하였는데 당시 전교는 신태문(申泰文)이었다. 이듬해인 1948년에는 군정법령 제149호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이 창립되었고 대구향교의 재산 전부가 이에 귀속되었다. 1949년에는 전국유림대회의 결의를 따라 오성(五聖)과 정백자(程伯子), 주자(朱子), 동국십팔현을 제외한 나머지 위패를 매안(埋安)하였다. 1950년에는 한국전쟁으로 국군이 후퇴하여 이곳 향교에 잠시 주둔하던 중 위패가 모두 소실되었으므로 1952년에 유도회장 양하갑(楊夏甲) 등이 이를 다시 만들어 봉안하였다. 1955년에는 장의(掌議)를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였고 1965년에는 다시 70명으로 증원하였다.

1972년에는 전교 전병조(全炳朝) 등이 총회를 개최하여 도내 32향교의 동의를 얻어 향교재단의 운영권을 대구향교로 귀속시켰다. 1973년에는 전교 전병조 등이 도지사 구자춘(具滋春), 재단이사장 우종식(禹鍾植) 등에게 대성전과 동서무의 전면 보수, 신삼문(神三門)과 동소문 이건, 유림회관과 정문 신축, 주사(廚舍)와 담 개축 등 대구향교 일곽의 정비를 건의하였고 동년 11월에 시도의 지원금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이듬해 10월에 낙성하였다. 1976년에는 전교 양태열(楊泰烈)이 향교재단의 보조금으로 명륜당을 개수하였으며 1978년에는 대구향교 재록을 발간하였다.

1981년에는 대성전의 단청을, 이듬해에는 동서무(東西廡)의 단청을 보수하였다. 1982년에는 대구향교가 대구직할시 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고 1982년에는 향교의 직제를 개정하여 직할시 승격에 따라 장의를 100명으로 하였다. 1988년에는 정문 계단 양측의 축대 및 난간 공사를 실시하였고 1990년 3월에는 동서재(東西齋) 및 낙육재(樂育齋) 복원공사를 기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다. 이듬해 5월에는 양사재(養士齋) 복원공사를 기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다. 1994년에는 4월에 유림회관과 정문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이듬해 9월 낙성식을 가졌다.

1996년에는 명륜대학(明倫大學)을 개교하여 초대학장으로 전교 구경회(具璟會)가 취임하였으며 1997년에는 중국 청도(青島)와의 자매결연으로 기증된 공부자상(孔夫子像)을 교정에 봉안하였다.

1398	창건
1592	임진왜란 병화(兵火)로 소실
1599	달성 남각(南角)으로 이건
1605	구지(舊址)인 교동으로 재차 이건, 명륜당은 짓지 못함
1625	명륜당 완공
1930	향교 직제 개정, 도유사(都有司)를 직원(直員)으로 개칭
1932	현 위치인 아미산록으로 이건
1945	명륜당에 대성중학원(大成中學院) 설립

1946	대성중학교 승격
1947	대구대학(大邱大學) 설립인가, 명륜당에서 강의 시작
1948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창립
1949	전국유림대회의 결의를 따라 오성(五聖)과 정백자(程伯子), 주자(朱子), 동국십팔현을 제외한 나머지 위패 매안(埋安)
1950	위패 소실
1952	위패 제작 및 봉안
1974	대성전, 동서무 전면 보수 및 신삼문, 동소문 이전, 유림회관과 정문 신축, 주사(廚舍)와 담 개축
1976	명륜당 개수
1978	대구향교 재록 발간
1981	대성전 단청
1982	동서무 단청 대구직할시 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 향교 직재 개정, 직할시 승격에 따라 장의 100명으로 확대
1988	외삼문 계단 양측의 축대 및 난간 공사
1990	동서재 및 낙육재 복원
1991	양사재 복원
1994	유림회관 건립
1996	명륜대학(明倫大學) 개교
1997	중국 청도(青島)와 자매결연, 공부자상(孔夫子像) 교정 봉안

2. 입지 및 배치

대구의 지세는 남으로 비슬산(琵瑟山)의 준령이 뻗쳐 대덕산(大德山)이 솟아있고 서로는 와룡산(臥龍山)이 의젓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북쪽에는 팔공산(八公山)산이 높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쪽으로 신천(新川)이 시내 동북을 관류하여 금호강(琴湖江)과 합류하여 그람개와 강창(江倉)을 거쳐 강정(江亭)에서 낙동강(洛東江)과 합류하고 있다. 대구향교는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의 아마산(峨嵋山) 자락의 경사진 터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원래 개설 당시에는 풍광이 수려하였으나 지금은 주변이 주택지로 변하여 시의 중심가가 되었다⁷⁾.

도로에 인접한 높은 터에 2단의 대지(垈地)를 조성하였고 건물들을 동학서묘(東學西廟)의 형식으로 배치하여 매우 특색 있는 형식을 보여준다. 약간 높은 대지에는 넓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대성전(大成殿)과 동서무(東西廡), 내삼문(內三門) 등의 건물이 사동중정(四棟中庭) 형식을 이루고 그 사방에는 담을 둘러 신성한 제향공간(祭享空間)을 이루었고 그보다 약간 낮은 대지에는 명륜당(明倫堂)과 동서재(東西齋)가 'ㄷ' 자형으로 놓여 강학공간(講學空間)을 이루고 있다. 내삼문과 동서재의 앞쪽에는 넓은 마당을 격하고 양사재(養士齋)와 낙육재(樂育齋)가 놓여 제향과 강학 두 공간으로 진입하는 동선을 연결하는 매체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재(東齋)의 뒤

편으로는 대지 끝에 유림회관과 정문, 여성유도회 사무실 등의 건물이 위치하여 전면의 도로 쪽에서 보면 상당히 위압적인 경관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의 복원과 정비공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창건이나 중건 당시의 원래 모습과는 매우 달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대구읍지」에는 '문묘(文廟) 뒤쪽에 명륜당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중건 당시에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전묘후학의 배치는 서울 성균관(成均館), 전주향교(全州鄉校), 정읍향교(井邑鄉校), 나주향교(羅州鄉校) 등 비교적 규모가 크고 평지에 위치한 향교에서 볼 수 있으므로⁸⁾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기 전에는 거의 평지와 같은 지형에 입지(立地)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향교의 서북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활한 대지에 자리잡았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로 다포(多包) 형식의 단층 맞배집이다. 기단은 장대석(長臺石)을 3단으로 쌓아 마련하고 바닥에는 내외부에 전(博)을 깔아 마감하였는데 전면쪽에 다시 작은 단을 만들어 2중의 형식을 이룬 점은 매우 특이한 구성이다. 기단의 진면 쪽에는 중앙과 동서에 계단을 각각 두었는데 중앙의 계단은 중정 가운데로 난 신도(神道)와 연결되며 동계(東階) 옆에는 수세위가 설치되어 있다. 기단의 양측면에는 앞쪽에 치우쳐 계단이 위치하는데 서측면의 계단 끝에는 망료위(望燎位)까지 박석(薄石)을 깔아 연결하였다. 기단 위에는 초석(礎石)을 덤벙주초 형식으로 놓았는데 초석은 대부분 방형(方形)의 떠낸 돌이나 일부는 사찰의 탑(塔) 옥개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를 사용한 곳도 있다⁹⁾. 초석 위에는 민흘림 원주(圓柱)를 세우고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을 짜올려 축부(軸部)를 구성하였는데 전후면의 평방은 제대로 된 것이나 측면에는 길이가 짧은 단평방(短平枋)을 설치하였다. 벽체는 중앙에 외엮고 안팎으로 흙을 바른 회사벽(灰砂壁)이다. 창호는 전면 각 주간마다 2분합의 울거미 널문을 달았는데 어간은 문얼굴을 중앙 부분에, 양협간은 양쪽의 평주에 붙여 문얼굴을 꾸미었다. 또한 양협간에는 문설주(門楔柱)와 귀기등 사이에 격자살로 된 광창(光窓)을 달았다. 건물의 기능상 측면과 후면에는 창호를 설치하지 않았다.

평방 위에는 공포(拱包)를 짜 올렸는데 주심(柱心)과 주간(柱間)에 공포를 모두 배열한 다포계(多包系) 형식이다. 이와 같이 대성전 건물에 다포 형식을 채택한 예는 매우 드물며 경북 지역에서는 이곳 이외에 성주향교(星州鄉校) 밖에 없다¹⁰⁾. 세부 수법으로 미루어 볼 때 대성전의 공포는 17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진왜란으로 모든 건물들이 소실된 후 중건 공역들이 앞다투어 일어나서 재목(材木)과 장인(匠人)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건물임을 감안해볼 때 당시 대구향교 대성전이 가지고 있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전형적인 다포계 맞배집의 방식대로 공포는 전후면에만 배열하였고 공간포는 각 주간마다 2구씩 두었으며 귀공포는 주간포와 동형(同形)으로 처리하였다. 내외 2출목의 형식인데 제공(諸工)은 초제공과 이제공을 앙서(仰舌)의 형태로 단부(端部)를 사절하였고 삼제공은 초가지를 파형(波形)으로 길게 빼내어 단부를

날카롭게 깎은 수서(垂舌)로 처리하였다. 삼제공 위에는 대량(大樑)을 걸치게 하여 외목도리를 올려놓고, 보머리는 외목도리 밖까지 빼내어 삼분두(三岔頭)로 깎아 놓았으며 첨차는 모두 교두형(翹頭形)으로 처리하였다.

가구(架構)는 이고주오량(二高柱五樑) 형식이다. 대량(大樑)은 2본(本)을 사용하였는데 전후면 평주(平柱) 위의 삼제공에 걸치고 그 위에 동자주(童子柱)를 세워 주두(柱頭)를 올리고 첨차와 보아지를 끼운 후 종량(宗樑)을 올려놓았다. 종량 위에는 파련대공(波蓮臺工)을 세워 종도리를 받았는데 종도리 장혀 하부에는 소로와 뜬창방을 써서 결구를 보강한 이중장혀 방식이다¹⁰. 대량은 양 볼을 깎아 직재로 반듯하게 치목(治木)하여 시원한 감이 있으며 동자주에 꽂힌 보아지는 삼제공 살미와 같은 형상으로 처리하였고 첨차(檐遮)는 하부를 초각한 것으로 처리하여 특이하다. 상부에는 반자를 설치하지 않고 서까래가 노출되도록 한 연등천장으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법은 다포계 건축에서는 그 유례가 많지 않은데 인접한 지역의 성주향교(星州鄉校) 대성전도 이와 같은 처리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그 연관성이 주목된다. 처마는 전후면 모두 겹처마이며 지붕은 맞배 형식인데 양측면에는 방풍판(防風板)을 설치하였다.

(2) 동서무(東西無)

대성전의 앞쪽 양편에 위치하여 각각 서향과 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현재 내부에는 신주(神主)가 모셔지 않고 비어 있으며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이며 익공계(翼工系)의 단층 맞배집이다.

기단(基壇)은 장대석을 외벌로 놓아 마감한 간단한 형식인데 외부 바닥에는 전(搏)을 깔았고 내부 바닥은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였다. 기단 위에 떠낸 방형(方形)의 돌로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민흘림 원주(圓柱)를 세워 창방을 결구하여 축부(軸部)를 구성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으며 전면에만 창호(窓戶)를 설치하였는데 어간에만 문얼굴을 내어 2분합 을거미 널문을 달았고 양협간에는 중방 위에 격자살의 광창(光窓)을 1짝씩 설치하였다.

(3) 내삼문(內三門)

대성전 일곽의 남쪽에 위치하는 문인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홀처마 맞배집이다. 기단은 장대석을 외벌대로 놓아 마감하였으며 바닥에는 전(搏)을 깔았다. 기단 위에는 방형의 떠낸 돌로 초석을 놓았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탑재로 추정되는 석재도 끼어 있다. 전후면의 기둥렬은 민흘림 원주(圓柱)를 사용하였고 중앙의 기둥렬만 방주(方柱)를 세워 축부(軸部)를 구성하였다. 중앙의 기둥렬에는 각 주간마다 모두 쌍여닫이 띠장 널문을 달았고 문 위에는 머름과 홍살(紅箭)을 세웠다.

기둥 위에는 초익공(初翼工)의 공포를 짜올렸는데 창방 없이 첨차만으로 주심도리와 장혀를 받아 매우 특이한 구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형식의 공포는 초익공이면서도 이익공과 같은 화려한 첨차 형식을 보여주는 장식적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서울 동묘의 동서무와 인접한 칠곡향교(漆谷鄉校)의 내삼문,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안태사묘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익공의 외단과 내단의 초각(草刻)은 동서무와 거의 비슷하게 처리되어 조각수법상의 통일성을 보여준다.

제대로 형식을 갖춰 자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가구(架構)는 평삼량(平三樑) 형식이며 지붕의 물매도 낮아 매우 특이하다. 전후면 평주 위에 대량(大樑)을 설치하고 그 위에 파련대공(波蓮臺工)을 놓아 종도리를 받쳤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서까래가 노출되어 있다. 처마는 전후면 모두 홀처마이며 측면에는 방풍판이 없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 맞배집인데 한식 목조건축을 흉내내서 지은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이다. 내부에는 강단(講壇)과 책상이 배열되어 있고 벽 상부에는 '향교이전상량문(鄉校移建上樑文)' 등의 현판(懸板)이 걸려있다.

기단은 잘 다듬은 인조석(人造石)을 쌓아 마감하였고 바닥은 외부에 전(埠)을 깔았고 내부는 인조석 물갈기로 마감하였다. 기둥은 배흘림 형식인데 초석(礎石)은 설치하지 않았다. 전후면의 어칸과 좌우 협간에는 4분합의 세살문(細箭門). 양끝의 뒤칸에는 4분합의 세살창을 설치하였고 그 위에는 4짝의 교살 광창(光窓)을 두었다. 측면에는 중앙칸에 3분합의 세살창, 전후 협간에 2분합의 세살창을 설치하였고 그 위에 각 칸마다 3짝과 2짝씩의 광창을 두었다.

공포(拱包)는 1출목의 이익공(二翼工) 형식인데 주심(柱心)에만 배열되어 있으며 주간(柱間)에는 화반(花盤)을 설치하였다. 첨차(檐遮)는 하단을 쌍S자 형식으로 깎은 화각첨차(花刻檐遮)이고 익공은 끝이 아래로 약간 내려오는 수서(垂舌) 형태이다.

가구(架構)는 평오량(平五樑) 형식인데, 전후면 평주 머리의 익공 위에 대량(大樑)을 설치하였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량(宗樑)과 중도리를 받쳤으며 종량 위에는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宗道里)를 받쳤다. 대량의 단면은 모서리를 말각한 방형(方形)인데 뱃바닥을 상당히 크게 들어올린 월량(月樑)의 수법을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 천장은 반자(盤子)를 설치하지 않은 연등천장으로 서까래가 노출되어 있고 처마는 전후면 모두 홀처마이며 측면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지 않아 측벽의 가구가 드러나 있다.

(2) 동서재(東西齋)

명륜당의 앞쪽 양편에 대칭으로 위치하여 각각 동향과 서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평면은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이며 민도리 단층 맞배집인데 중앙의 두 칸은 대청이나 바닥에는 전기 온돌을 설치하였고 좌우 끝부분에는 방을 들였다.

기단은 장대석을 두벌대로 쌓은 것이며 바닥은 강회다짐을 하여 마감하였다. 기단 위에는 춤 낮은 방형(方形) 초석을 놓고 방주(方柱)를 세워 도리와 장혀를 결구하여 축부(軸部)를 구성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으며 전후면에만 창호(窓戶)를 설치하였는데 중앙의 두 칸에는 4분합 세살문(細箭門)을 달았고 좌우의 온돌방에는 머름 위에 두 짹의 세살창을 설치하였다.

가구(架構)는 평삼량(平三樑) 형식인데, 전후면 평주 위에 대량(大樑)을 설치하였고 그 위에 제형(梯形)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쳤다. 천장은 온돌방 부분에만 지반자(紙盤子)를 설치하였고 대청 부분은 연등천장으로 서까래가 노출되어 있다. 처마는 전후면 모두 홀처마이며 측면에는 방풍판을 두지 않았다.

(3) 외삼문(外三門)

대구향교의 정문으로 높은 축대 끝에 자리잡고 있으며 앞쪽으로 불국사의 계단을 맑은 석조계단을 두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민도리 맞배집이다. 기단은 화강암(花崗巖) 판석으로 마감하였으며 그 위에 원형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워 창방을 결구하여 축부(軸部)를 구성하였다. 기둥은 전후면에는 원주(圓柱)를, 중앙렬에는 방주(方柱)를 사용하였다. 각 주간마다 쌍여닫이 띠상 널문을 달고 홍살(紅箭)을 세웠다. 가구는 평삼량(平三樑)

구조이고 공포는 초익공(初翼工) 형식인데 익공의 끝을 직절한 물익공(勿翼工)의 형태를 보여준다.

(4) 낙육재(樂育齋)

명륜당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익공계(翼工系) 맞배집으로 내부는 모두 마루로 되어있다. 장대석으로 마감한 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놓고 약한 배흘림 원주(圓柱)를 세우고 창방을 결구하여 축부(軸部)를 구성하였다. 공포는 초익공(初翼工) 형식이며 주간에는 소로(小累)를 두어 장식하였다.

가구는 평오량(平五樑) 형식인데, 전후면 평주 머리의 익공 위에 대량(大樑)을 설치하였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량(宗樑)과 중도리를 받쳤으며 종량 위에는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宗道里)를 받쳤다. 천장은 반자(盤子)를 설치하지 않은 연등천장으로 서까래가 노출되어 있고 처마는 전후면 모두 홀처마이며 측면에는 방풍판(防風板)을 설치하지 않아 측벽의 가구가 드러나 있다. 1990년에 재건되었다.

(5) 양사재(養士齋)

내삼문의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중층건물이다. 하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상부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목조로 된 혼합구조의 건물이다. 상부의 목조건물은 인접한 낙육재(樂育齋)와 거의 유사한 형식을 보여준다. 1991년에 재건되었으며, 하층은 여성유도회 및 대구향교, 여성학예연구원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 1) 지금의 중구 동성로 교동으로 추정된다.
 - 2) 대구향교 연혁, 『대구향교재록』, 대구향교, 1978. 장3에는 이조(李朝) 초 건립이나 건립연대는 미상이라고 되어있다.
 - 3) 현재의 달성공원 자리이다.
 - 4) 대구향교, 『대구향교지』, 1998, 407쪽.
 - 5) 경상북도, 『경북향교지』, 1991, 803쪽.
 - 6) 현 덕원중학교의 전신임.
 - 7) 대구향교, 『대구향교지』, 405쪽
 - 8) 박강덕, 「전북지역 향교의 공간구성」,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52쪽.
 - 9) 이와 같은 탑재는 현재 명륜당과 여성유도회 사무실 사이에 있는 불상 대좌(臺座)나 탑신석(塔身石) 등의 유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원래 이곳에 폐찰(廢刹)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10) 대성전에 다포계 공포를 채택한 경우는 서울 성균관(成均館)과 대구향교(大邱鄉校), 성주향교(星州鄉校), 익산향교(益山鄉校) 등으로 그 유례가 매우 적다.
 배병선, 「다포계맞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05쪽.
 - 11) 배병선, 앞 논문, 184쪽.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대구향교(大邱鄉校)	지정현황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호(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태조 7년(1398)	입 지	평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리자	대구향교	
좌향	남향	배치형식	左學右廟 / 前齋後堂 병렬축	
중건시기	1605년 이건 1932년 현 위치로 이건	대지조성	없음	
설위	5聖 / 宋朝 2賢 /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외삼문 / 동소문 / 낙육재 / 양사재 / 유림회관 / 공자상 등			
특기사항	현재 터가 사찰터였을 가능성이 높음 대성전이 별도의 영역을 구성하고 전체적으로 두 개의 병렬축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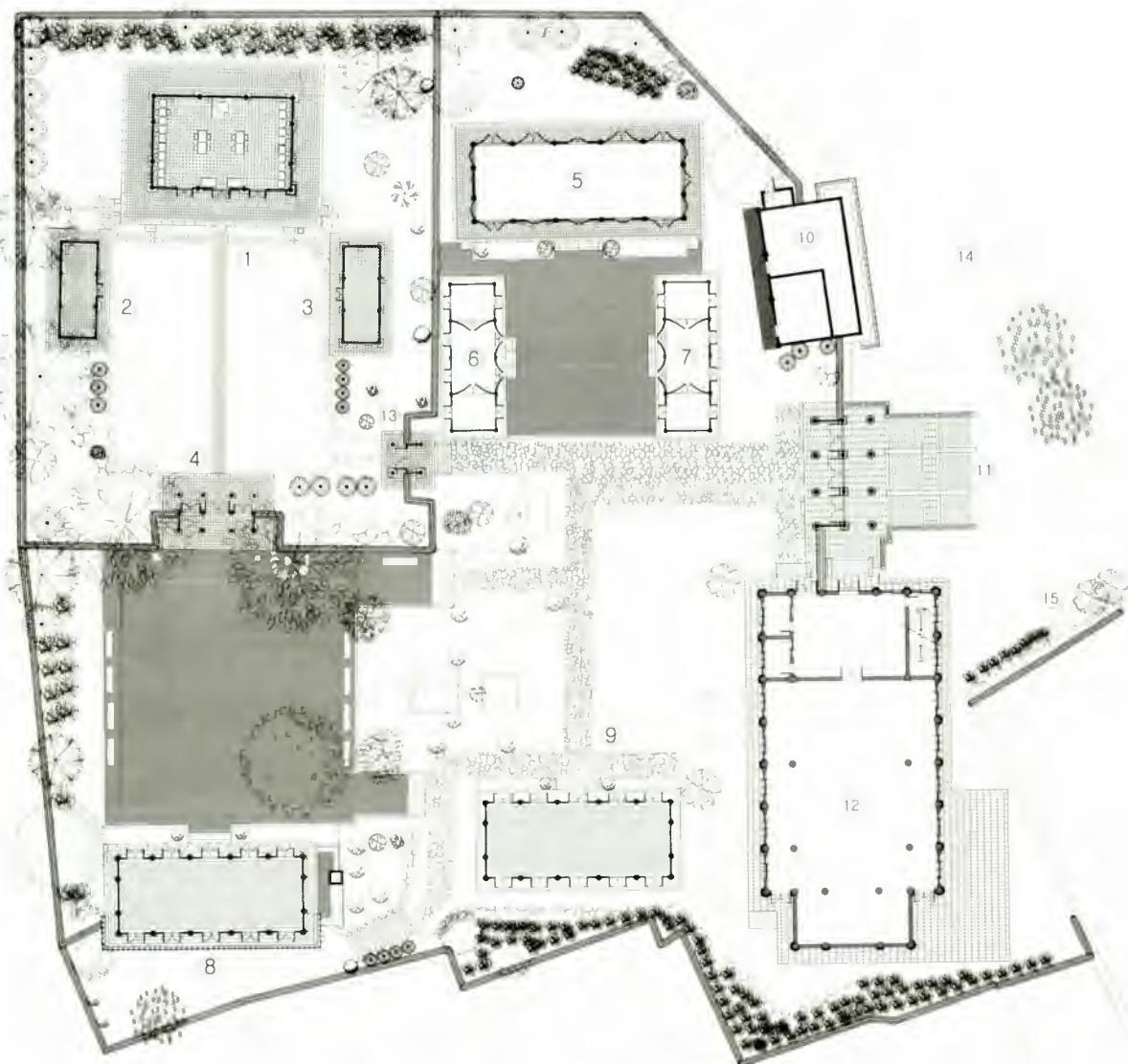
대성전 건축 요소

개요	3×3칸 / 다포계 내외2출목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어간) / 전돌 / 연등천장 주고 3110 / 주칸 4100 / 수장폭 106 / 도리단면 Ø=305 / 보단면 450×450 주심처마길이 2900 / 기단높이 690 / 초석크기 약 810×810 전후		
기단	단층기단 / 이벌대 전면 3개, 측면 각 1개(각 4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보 : 4분변작
초석	정평주초 / 자연석+가공석 여러 형태가 섞임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 평균 Ø=370	대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화반(파련)대공
공포	다포계 내외2출목	창방	말각방형 / 뺨목 초각
처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전돌 / 연등천장		
특기사항	다포계 건물로 조선중기 (17세기)에 해당함 초석 일부에 탑재를 사용함		

명륜당 건축 요소

개요	5×3칸 / 이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측벽 2고주) / 연등천장 주고 3090 / 주칸 4050 / 수장폭 120 / 도리단면 Ø=310 / 보단면 360×600 / 주심처마길이 2240 기단높이 h=460		
기단	단층기단 / 장대석 바른층쌓기 3개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보 : 4분변작
초석	전돌에 덮여 알 수 없음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 배흘림 있음 원형 콘크리트, Ø=450 전후	대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공포	이익공	창방	말각방형 / 뺀목 직절
처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지붕	맞배지붕
수장	벽돌벽 / 모로단청 / 인조석 / 연등천장		
특기사항	콘크리트 건물로 형식은 전통건축을 지향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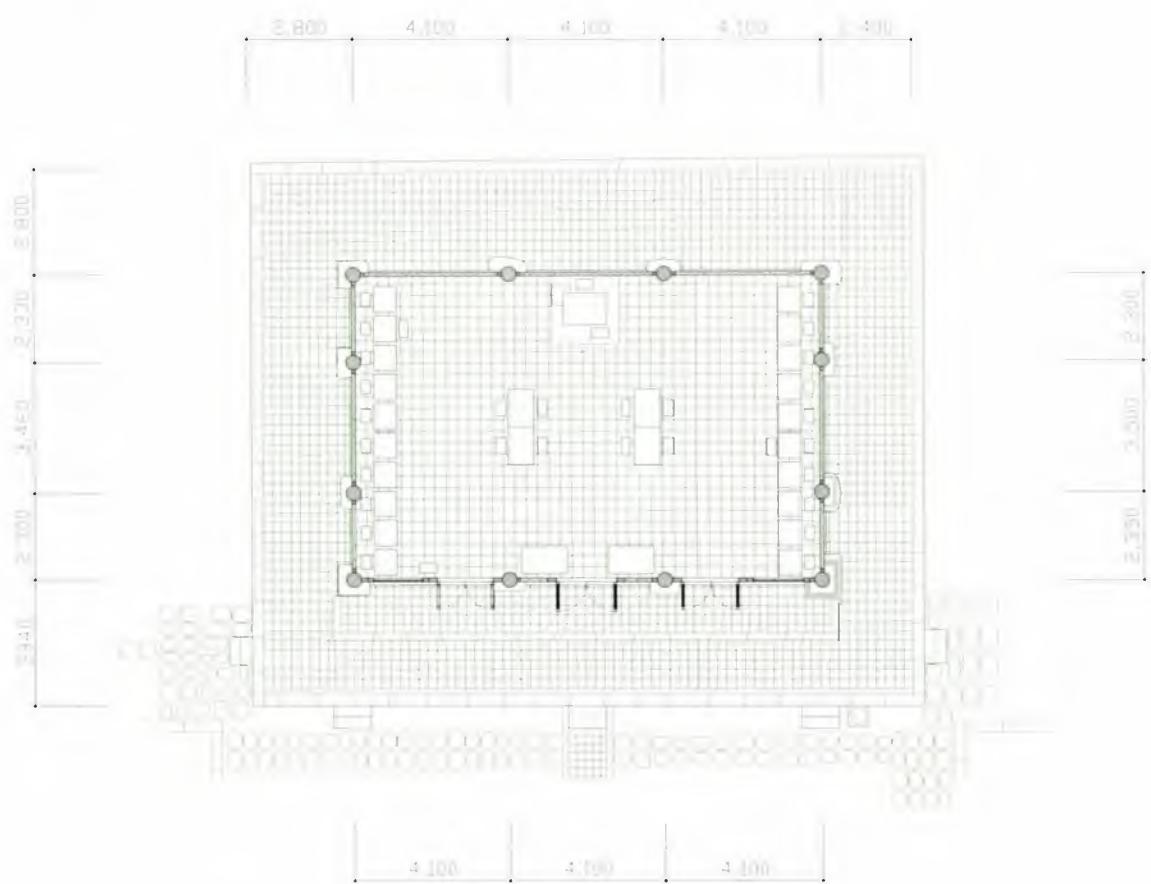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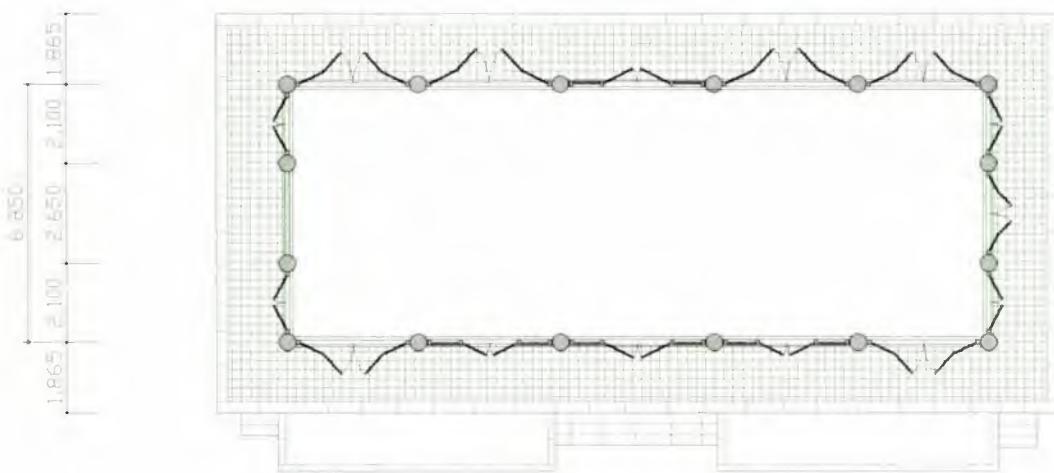
- | | |
|----|------|
| 1 | 대성전 |
| 2 | 무서 |
| 3 | 동내 |
| 4 | 삼문 |
| 5 | 명륜당 |
| 6 | 서동재 |
| 7 | 재 |
| 8 | 양사재 |
| 9 | 낙육재 |
| 10 | 부속실 |
| 11 | 외삼문 |
| 12 | 유림회문 |
| 13 | 휠 |
| 14 | 하마비 |
| 15 | 안내판 |

대구향교 배지도

0 2 5 10 20 M



대구향교 대성전



대구향교 명륜당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 대성전 전면 공포대



▲ 대성전 후면 공포대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전면 주간포



▲ 대성전 전면 귀포 및 창방 빨록



▲ 대성전 전면 구성



▲ 대성전 현판



▲ 대성전 측면 초석



▲ 대성전 내부 가구



▲ 대성전 내부 중대공



▲ 대성전 내부 중대공



▲ 명륜당



▲ 명륜당 전면 주상포



▲ 명륜당 전면 주간 화반



▲ 명륜당 내부 가구



▲ 명륜당 내부



▲ 동무



■ 서무



▲ 동재



▲ 서재



▲ 내삼문



▲ 내삼문 후면 평주



▲ 내삼문 전면 주상포



▲ 내삼문 전면 우주 초석



▲ 낙육재



▲ 공자상



▲ 여성유도회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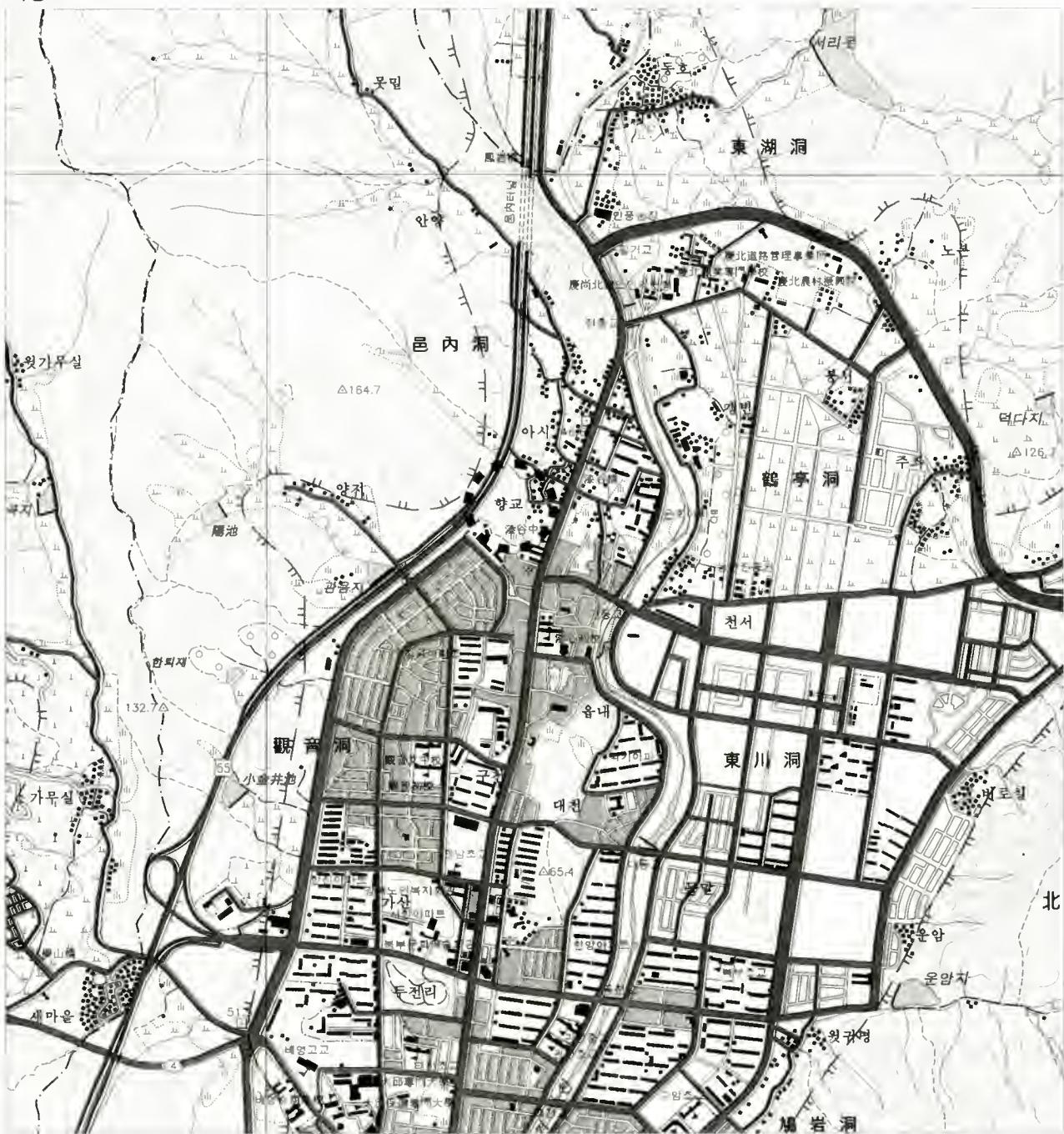


▲ 오상지

2. 칠곡향교(漆谷鄉校)

- 지정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6호(대성전)
- 지정일 : 1982년 3월 4일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600
- 건축구성 :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 외삼문, 교직사, 외문 등

지형도



1. 연혁

칠곡(漆谷)은 본래 신라 팔거리현(八居里縣)이었으나¹⁾ 경덕왕때 팔리(八里)로 이름을 고쳐 수창군(壽昌郡)²⁾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초에 팔거(八居)로 고쳤으나 뒤에 거(居)의 음이 거(居)로 전이되었고 고려 현종9년 (1018) 성주현에 소속되어 별호를 칠곡이라 하였다. 조선 인조 18년(1640)에 순찰사 이명옹(李命雄)이 가산(架山)에 성을 쌓았으나 산성이 주치(州治)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그곳에 칠곡도호부(漆谷都護府)를 둘 것을 청하여 도호부가 되었다. 진관의 현이 4개였으니 즉 군위·의흥·하양·신령이었다. 기묘에 이르러 국가의 명령으로 읍치를 팔려구기에 옮기고 별장이 가산성에 유진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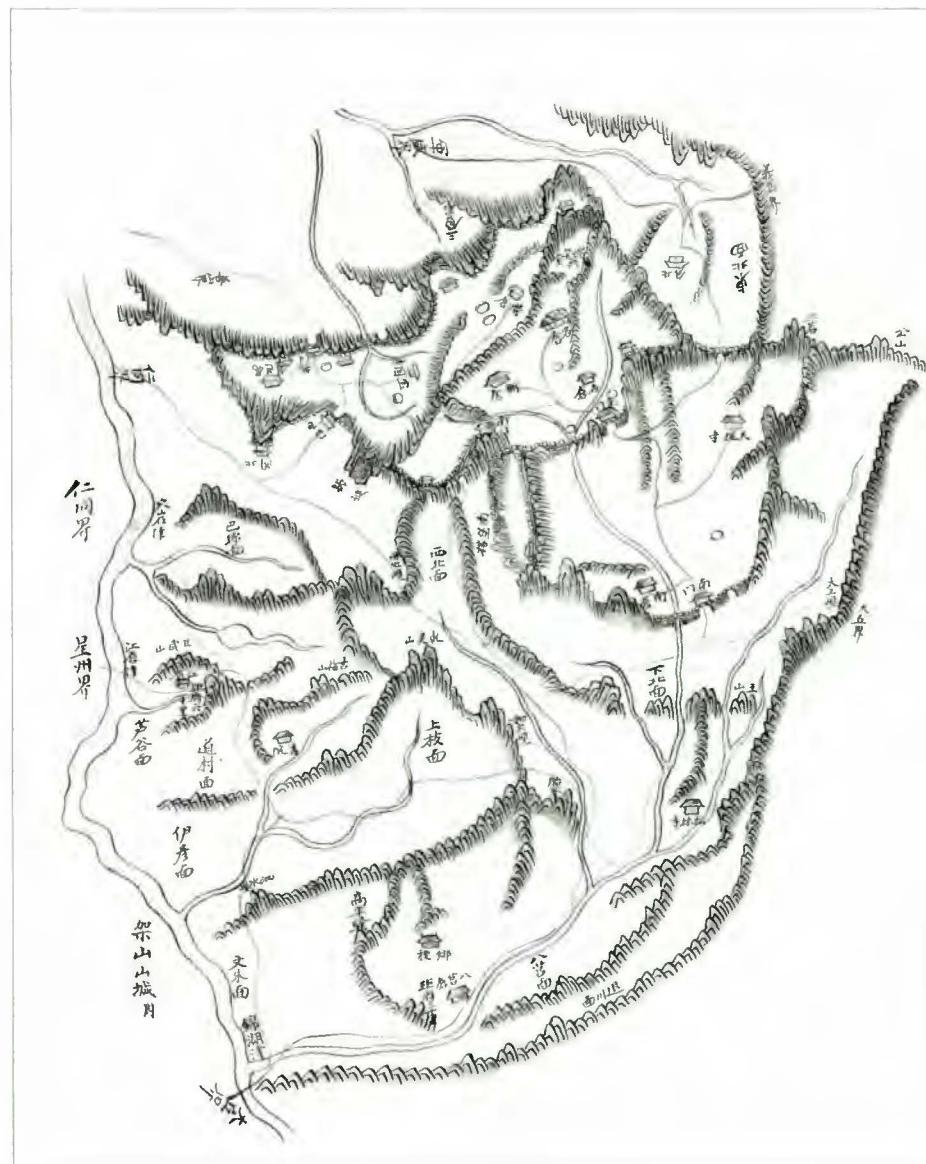
이와 같이 연혁을 지난 칠곡의 향교는 관계자료의 일신로 말미암아 그 설치연대 및 그후의 중수·개수를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다만 「향교등록(鄉校謄錄)」을 통하여 1652년 4월 10일의 향교건설과 1722년 2월 30일 (음력)의 향축사실을 엿볼 수 있다.

칠곡 도호부는 원호

3,820호이며 남자 7,082 구, 여자 7,822구의 주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성씨로는 도씨, 현씨 등이 있다.

칠곡향교의 전답 등 기타 재산의 현황과 그 운영에 대하여 상고할 자료가 없으나 전 569평, 답 1,015평, 기타387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전답을 소유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본 향교의 지출규모를 알 수 있는 각종 제수물품을 통해서나마 본 향교의 경제 규모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칠곡부사례 거행 질 예방 명제물행이식」을 보면 사직대제, 석전제, 성황 발고제, 여제, 사작

漆谷府



단, 도덕산 기우제의 제수물품이 매우 다양하며 또한 양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 입지 및 배치

칠곡향교는 대구에서 안동으로 통하는 국도변에 위치한 칠곡 중학교의 북편에 자리잡고 있다. 향교 전체는 남향하고 있으며, 전학후묘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명륜당의 대성전의 축에서 서쪽으로 약간 벗어난 병렬 축을 이루고 있다. 대성전은 동·서무와 함께 내삼문과 담으로 둘러싸인 방형 곽내에 배치되어 있으나 명륜당은 칠곡중학교의 운동장 확장으로 운동장의 한구석에 담 없이 놓여진 상태였는데, 최근에 외삼문과 담장을 신축하였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명륜당보다 한단 높은 대지를 평탄하게 하여 잡석쌓기로 한 기단을 높게 축조하여 덤벙주초를 놓고 두리기등을 높직하게 세웠다. 평면의 구성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하여, 기단 전면에 두 군데 계단을 놓아 오르게 하였으며 전내는 모르타르마감을 했다. 건물 전면에만 3칸에 1개소씩 쌍여닫이 울거미널문을 달아 출입문을 하게 하였다.

기둥상부에 창방을 짜 돌리고 주두 위에만 공포를 형성한 외2출목의 주심포식 건물이다. 창방 위에는 주간에 1구씩의 화반을 소로를 끼워 받친 소첨과 대첨을 중첩시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주심첨차와 꼭 같은 형상으로 출목은 없지만 다포계의 간포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살미의 형상은 초제공과 아래공은 살미를 등글게 하여 단부를 직절한 양서이고 삼제공은 삼분두형상으로 한 다포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법이다. 주심대첨 위에는 뛴창방을 올려 결구시키고 화반을 끼워 주심도리 장혀를 받고 있다. 창방 뺨목은 좌우측 기둥 바깥으로 짧게 내밀어 네 번 궁굴린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구는 2고주 5량으로 구성하고, 대량은 2본을 사용하여 원목을 약간 치목하고, 3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를 세워 보아지와 교두형의 첨차를 끼우고 주두를 올려 포대공으로 만들어 종량을 받치고 있다. 종량위에는 첨차를 끼운 파련대공을 올려 장혀와 마룻도리를 받치고 설치한 일반적인 지붕 수법이다. 본 건물은 타향교 대성전 보다 격식 있게 꾸미면서도 검소하게 처리하려 한 도목수의 의도를 느낄 수 있다. 1907년에 한 차례의 증수를 거쳤다.

(2) 동서무(東西廡)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홀처마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낮은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원형 단면 기둥을 세워 3량가를 구성하였다.

기둥 위에는 간략한 초익공을 구성하였으며, 익공재의 외단은 직절하고 하단을 약간 궁글려 보 머리 내민 길이와 동일하게 짧게 처리하였다. 도리는 굴도리로 하였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에 전후면 모두 홀처마로 처리하

였다. 정면 어칸엔 쌍여닫이 울거미 널문을 달고 양 협칸은 같은 형태의 외여닫이문을 설치하였는데 영 협칸은 열리는 방향이 각각 좌우측으로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단청은 축부 이하는 석간주 가칠로, 상부는 모로 단청으로 마무리 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이며, 좌우측 풍판은 달지 않았다.

(3) 내삼문(內三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지형의 단차이를 이용하여 좌우 협칸 중앙으로 두 개의 계단을 조성하였다. 야트막한 기단 위에 원형 기둥을 세우고 3량으로 가구한 초익공 집이다. 기둥 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각각 초익공재와 첨차를 결구하였으며, 그 위에 주두를 놓았다. 창방은 생략하고 첨차를 꽂아 놓았는데 대구향교 내삼문과 같은 수법이다. 살미의 형상은 촛가지를 파형으로 내어 끝을 날카롭게 빼내고 있다 측면 가운데 기둥 옆에 문을 3개소에 달고 위는 홍살을 만들어 놓았다.

가구는 전후평주에 대들보를 얹은 간략한 3량가로 상부 중앙에는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기단 상면은 시멘 몰탈로 마감하였고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기둥 이하는 석간주 가칠, 상부는 모로단청으로 마무리 하였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평활한 대지에 막돌로 기단을 높이 쌓아 덤벙주초를 놓고 원주를 세워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구성하였다. 기단 전면 우측에 계단을 1군데 놓고, 배면에는 양 끝에 계단을 설치해서 오르게 했다. 평면의 구성은 전면 가운데 3칸을 대청마루로 꾸미고 양 옆에 정면 1칸, 측면 2칸 규모의 온돌방을 들이고, 방 앞에는 퇴를 두어 퇴마루를 깔고 측면은 벽체로 막아 놓았다. 방 전면은 2짝 궁널 띠살문을, 대청부분에는 외여닫이문을 1개소에 달아 놓았다.

대청 전면은 개방되었는 것은 최근에 4분합문을 신설하였고, 배면은 각간에 1개씩 쌍여닫이 띠장 널창문이 둔테에 달려 있으며 또한 좌우 온돌방이 배면에도 각각 같은 크기의 쌍여닫이 세살창을 두었다. 기둥 상부에는 창방을 결구시키고 소로를 올리고 있으며, 초익공으로 하였는데 초각하지 않은 물익공형태이다. 가구는 어간에서 무고주 5량, 좌우 실에서 2고주 5량으로 내진주는 평주를 사용하였다.

대량은 2본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맞보를 취하고 있다. 내부 고주 상부에는 사괘를 트고 맞보를 대들보 방향으로 짤막한 익공재를 얹어 전면 평주의 익공재 내단과 같은 형태로 초각되어 있고, 도리방향으로도 짤막한 익공재를 결구하였다. 대량 위에는 3분변작의 위치에 짧은 동자주만 올리고 종보, 장혀 및 종도리를 받고 있으며, 종보 위에는 제형판대공을 세워 마룻대를 받치고 있는 매우 간결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온돌방 상부는 다락으로 꾸며 방진면으로 개구부를 내었는데 계단시설은 하지 않았다. 지붕은 홀처마로 하여 맞배지붕을 채택하여 풍판을 양 박공부에 설치하였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양 실만 온돌로 처리하였다. 현재 책걸상을 마련하여 내부에서 유교와 관련된 교육 행사에 사용되고 있다.

(2)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어칸을 좌우 칸보다 높인 솟을삼문으로 되어 있다.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두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기둥 상부에는 간략한 초익공을 구성하였으나 어칸과 좌우 협간의 형상은 서로 다르다. 정면 어칸에 두 짹 판문을 달고 상부에 화반과 비슷한 장식된 부재를 끼워 놓았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좌우 측에 실(室)을 구성하였다.

다. 기타

이외의 시설로 현재 외삼문 안쪽에 가건물로 지어진 관리사가 1동 건립되어 있으며, 외삼문 전면 우측에 간이 화장실 2동이 건립되어 있다. 그리고 외삼문 밖 좌측 담에는 하마비(下馬碑)를 비롯하여 다수의 비석군이 자리잡고 있으며 향교 영역 동편 담 밖에는 '漆谷鄉校重修記念碑' 1개가 자리잡고 있다.

1) 북치장리(北恥長里) 또는 인리(仁里)라고도 하였다.

『칠곡지(漆谷誌)』 권지일 견치연혁(建置沿革) 참조.

2) 현재의 달성군임.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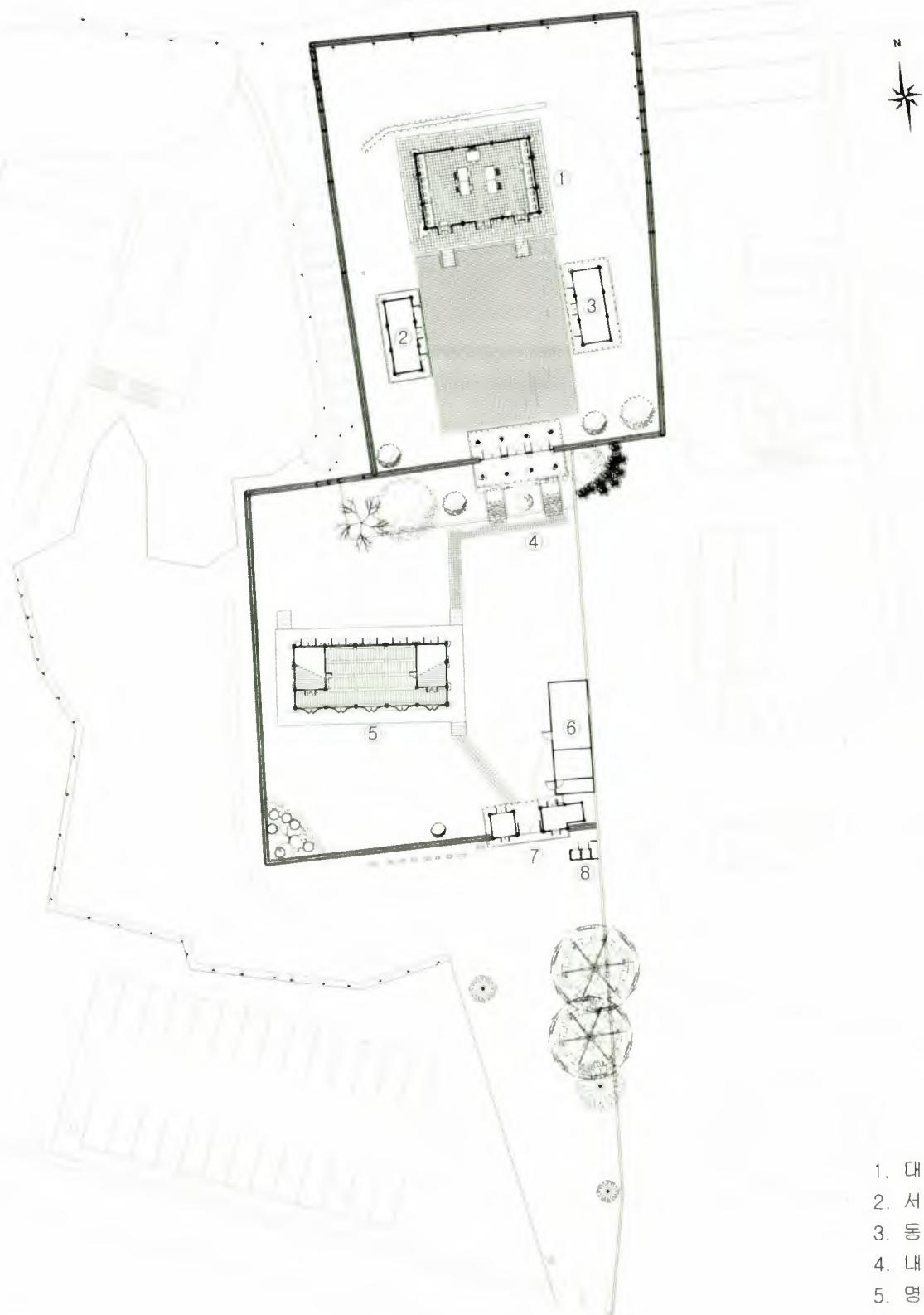
향교 일반				(처수단위=mm)
지정명칭	칠곡향교(漆谷鄉校)	지정현황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6호 (대성전)	
창건시기	연대 미상	입 지	평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 리 자	칠곡향교	
좌향	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종축 2개	
중건시기	알 수 없음	대지조성	2단구성 / 내삼문 기준	
설위	5聖 / 宋朝 2賢 /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내삼문 / 명륜당 / 외삼문 / 관리사 / 화장실 등			
특기사항	명륜당이 주축에서 벗어나 별도의 축을 형성하였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요	3×3칸 / 외2출목 주심포계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어칸). 2고주 5량가(측벽) / 전돌 / 연등천장 주고 3380 / 주칸 4050 / 수장폭 120 / 도리단면 Ø=320 / 보단면 약 500×600 전후 주심처마길이 2800 / 기단높이 1300 / 초석크기 약 800×1000 전후		
기단	단층기단 / 전면 네벌대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단	전면 2개(각 5단)		종 보 : 4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 윗부분이 평평하며 기둥에 비해 큼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 평균 Ø=370	대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파련대공
공포	외2출목 주심포계	창방	말각방형 / 뺨목 초직
처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약하게 사절	지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전돌 / 연등천장		
특기사항	주심포적 요소(뺨목 첨차 없음)와 다포적 요소(식서, 간포와 유사한 주간 부재 구성)가 혼합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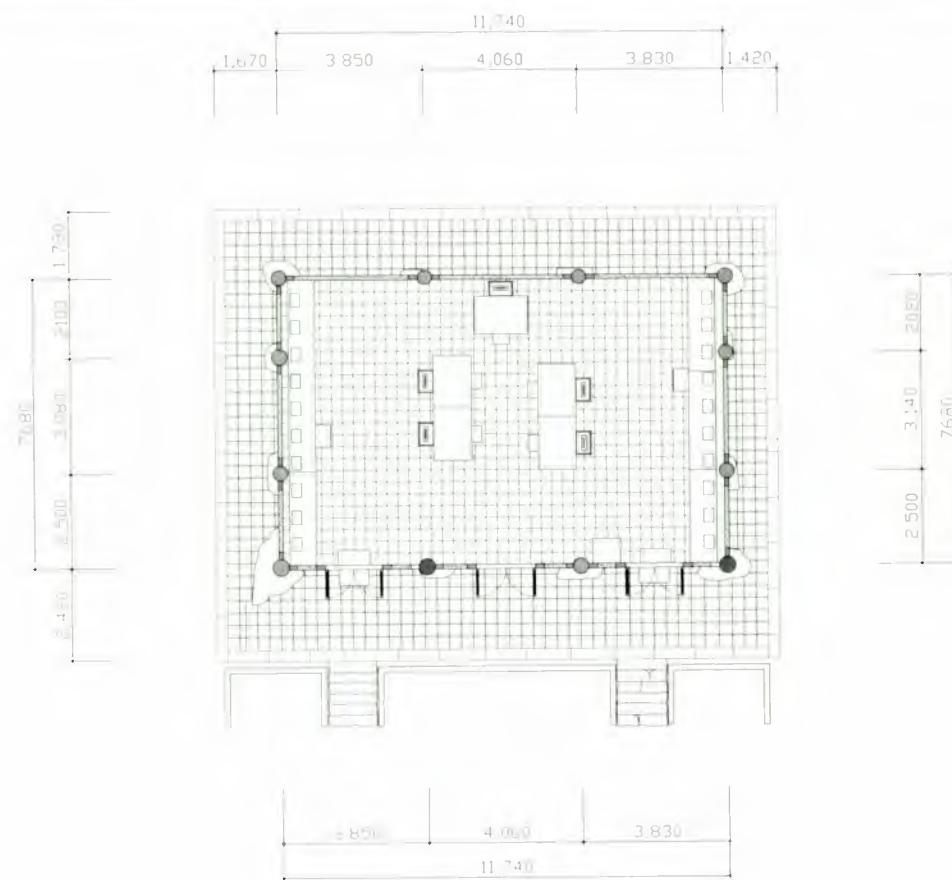
명륜당 건축 요소

개요	5×3칸 / 초익공 / 훌처마 맞배지붕 / 5량가(측벽 2고주) / 우물마루 · 연등천장(堂). 온돌 · 지반자(室) 주고 3370 / 주칸 3140 / 수장폭 120 / 도리단면 Ø=330 / 보단면 400×430 전후 주심처마길이 1750 / 기단높이 880 / 초석크기 약 530×790 전후		
기단	단층기단 / 막돌 평축 쌓기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단	3개(전면 협간 1개, 후면 2개)		종 보 : 3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 민흘림 있음 Ø=370 전후	대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공포	초익공, 외단은 간략하게 하단 궁글림	창방	말각방형 / 뺨목 직절
처마	훌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장	회사벽 / 가칠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특기사항	대성진의 축과 평행하지도 직교 하지도 않는 각도로 별도의 축을 형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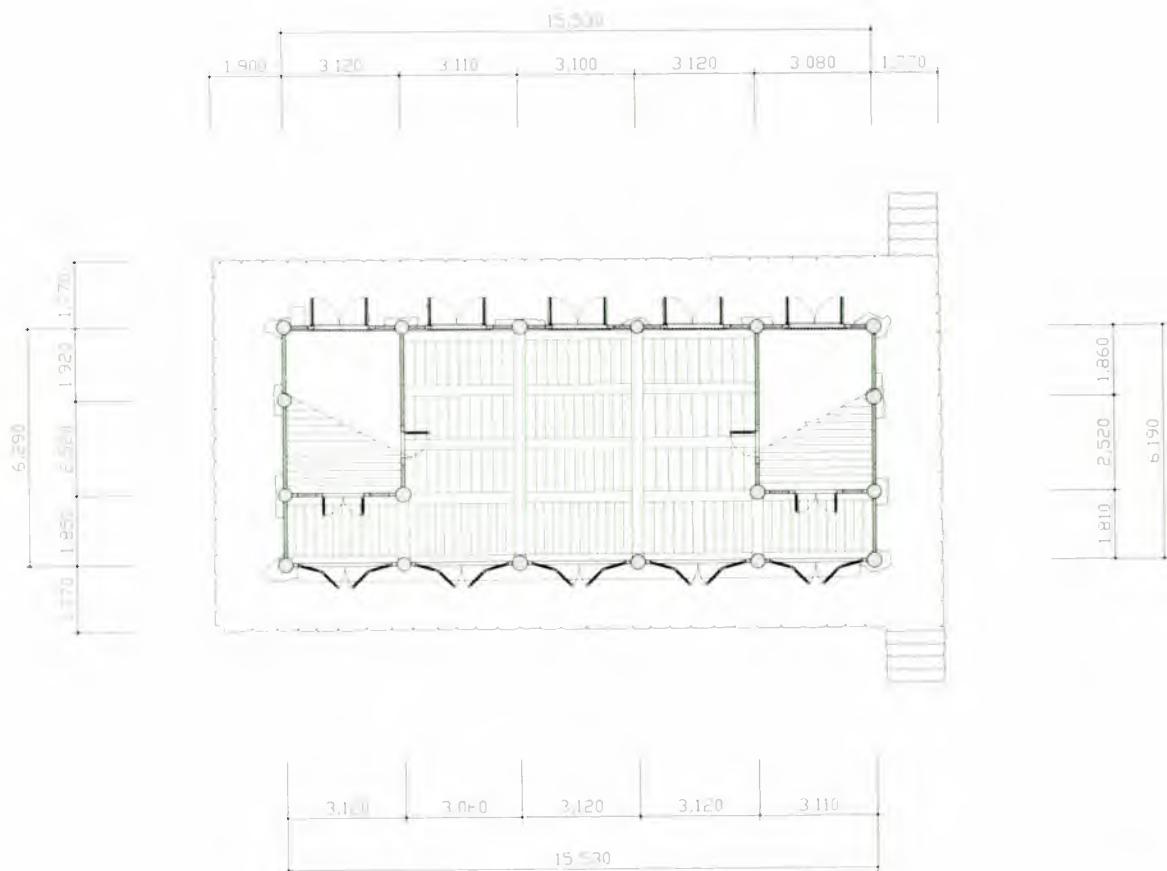


칠곡향교 배치도

0 2 5 10M



칠곡향교 대성전



칠곡향교 명륜당





대성전



대성전 내부



▲ 대성전 전면 공포대



▲ 대성전 전면 어칸 창호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전면 귀포



▲ 대성전 내부 가구



▲ 대성전 내부 대량 결구



대성전 내부 중대공



▲ 명륜당



▲ 명륜당 전면 어칸 평주



▲ 명륜당 전면 주상포



▲ 명륜당 전면 창호



명륜당 내부 어간 가구



명륜당 내부 협칸 가구



동무



서무



▲ 내삼문



▲ 외삼문



명문와1 (암막새)



명문와2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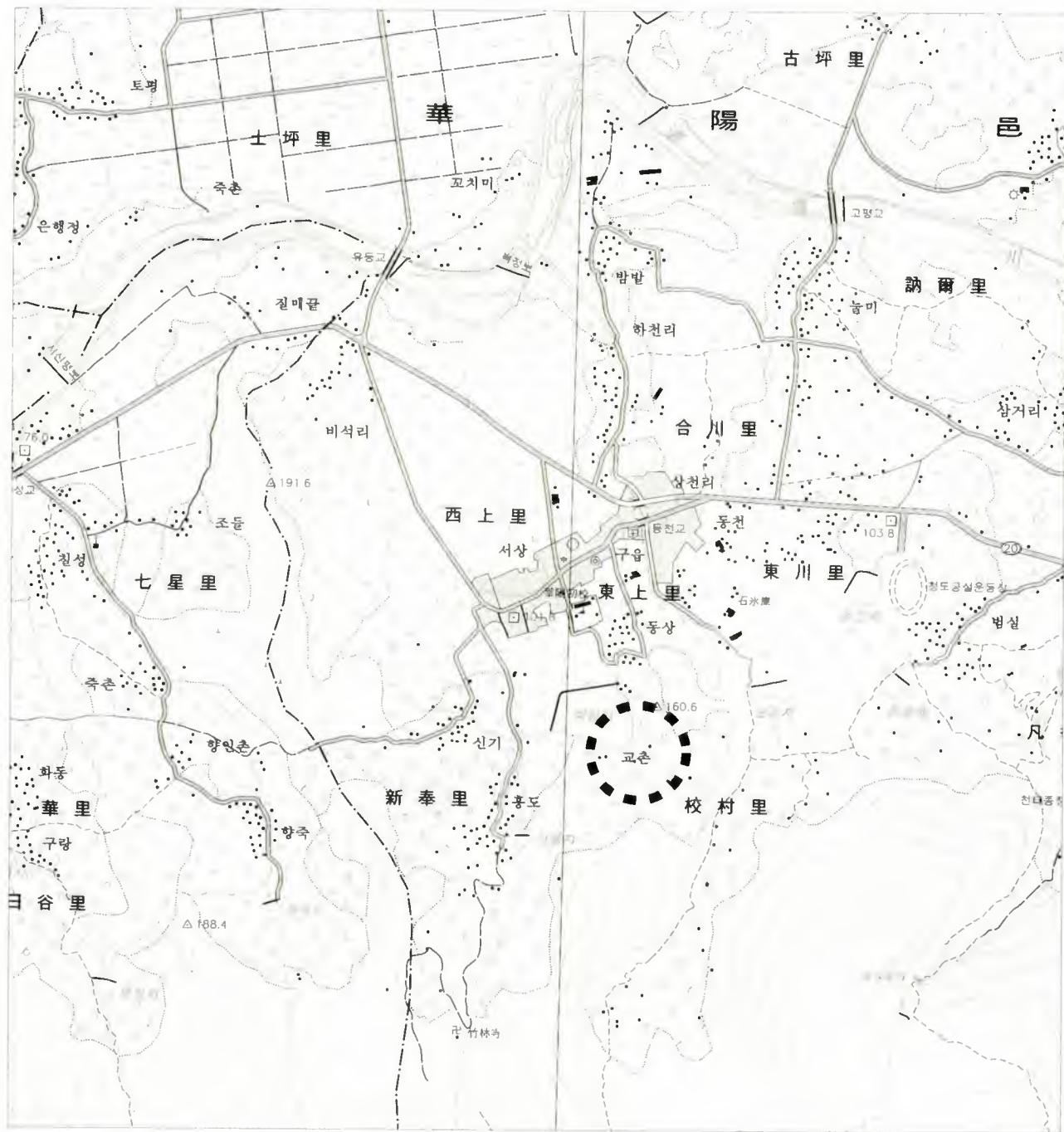


◀ 비석군

3. 청도향교(淸道鄉校)

- 지정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7호(일곽)
- 지정일 : 1985년 10월 15일
- 소재지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교촌리 48
- 건축구성 :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사락루, 지인재, 교직사 2동, 사주문 3동, 협문 등

지형도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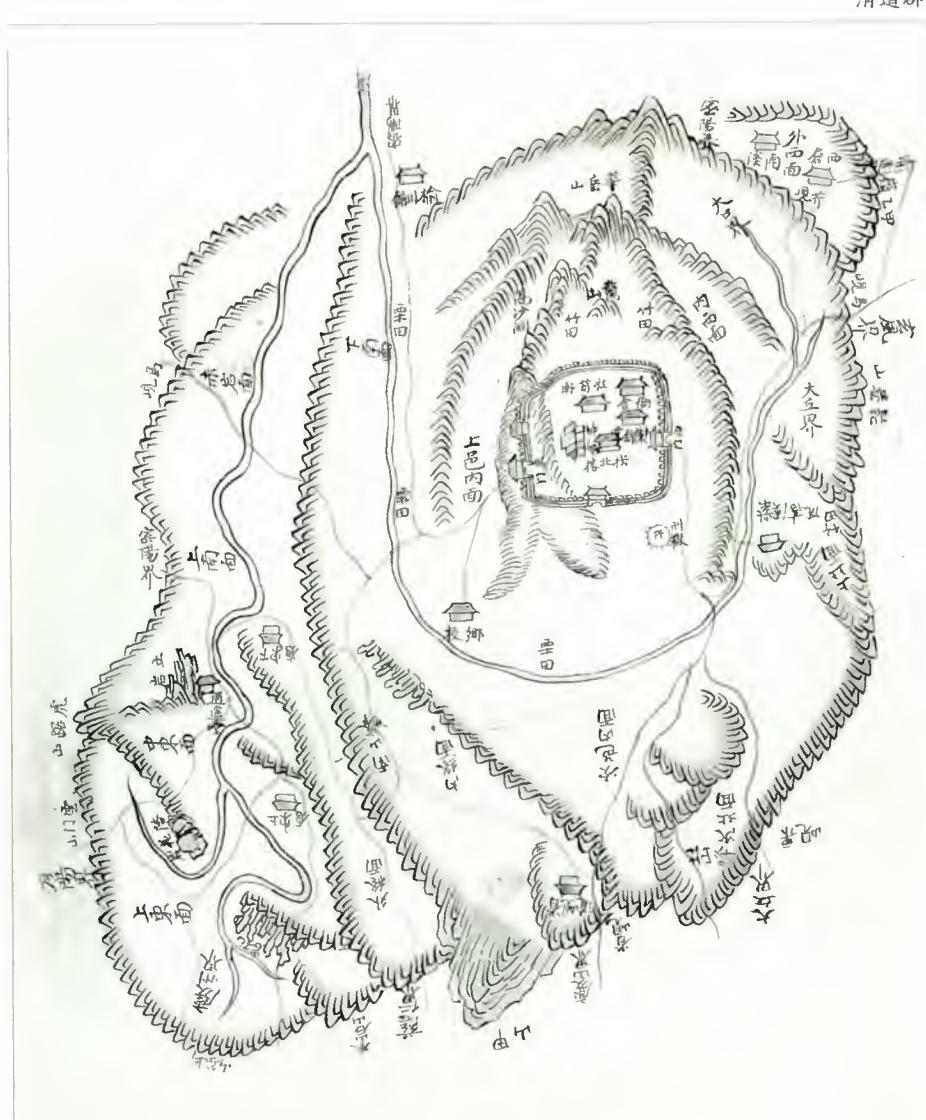
청도향교는 화양향교라고도 불리며,『鰐山誌(오산지)』에 '在鄉校鰐山北麓平峰' 라 기록하고 있으니 현재 화양읍 교촌동 48번지이다.

청도는 원래 이서국(伊西國)으로 신라 유리왕 때에 병합되어 경덕왕 때 오악현(烏岳縣), 형산현(荀山縣), 소산현(蘇山縣)을 두어 밀성군(密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소속되었다. 그 뒤 고려 초에 세 현을 합하여 도주(道州, 일명 清道)라 명하고 밀성군에 소속시켰다가, 고려 예종 4년(1109)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충혜왕 때에는 지군사(知郡事), 공민왕 15년(1366)에 비로소 군(郡)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청도군에 향교가 설립된 것은 충혜왕 이후 공민왕 년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말에서 조선 성종 16년(1485)까지 5차례나 옮겼다고 하니 향교 건물이나 향교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 상황을『訂正鰐山誌(정정오산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향교는 고려 때부터 여러 번 옮겼다. 탁영선생이 이르기를 다섯 번이나 옮겨 그 거처가 정해지지 않았다가 국초에 군의 북쪽 1리쯤의 높고 평평한 곳으로 옮겼으니. 이 곳은 옛날 행리의 다섯 아들이 등과한 개인의 터이다.”

그 뒤 선조 원년(1568) 군의 북쪽 1리쯤에 있던 향교를 화양읍 고평동(古坪洞)에 옮겨지어서 60여 년간 존속하였다. 그러나 향교 사이에 큰 하천(大川)이 가로 흘러서 향례(享禮) 때에 제품봉대(祭品奉帶)가 어렵고 물에 빠져 죽는 교노(校奴)까지 있었다. 이에 인조 4년(1626)에 군수 송석조(宋碩祚)가 옛 향교 터에 가까운 화양읍 합천동으로 옮겼고 58년 후인 숙종 9년(1683)에 군수 홍수량(洪受亮)이 중수하였다. 그러나 향교가 대로



변에 위치하여 차마(車馬) 다니는 소리가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성묘반수(聖廟泮水)도 불결하였다. 그러던 중 군수 정흠선(鄭欽先)이 현몽에 느낀 바 있어 지금의 향교 자리로 영조 10년(1734)에 이전하였다. 그후 현종 9년(1843)에 동서무, 명륜당, 재사 등의 건물이 황폐하게 되어 군수 송계백에 의해 대대적인 중건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후 1929년에 군수 최병철이 대성전을, 1978년에 군수 최형수가 명륜당을 각각 보수하였다.

이어 1985년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1986년에 동서재를 보수하였다. 1990년에 동무를 보수하였으며, 아듬해인 1991년에는 내삼문과 협문을 연목 이상 해체 보수하고, 사주문(외문)은 해체보수 하였다. 1992년에는 지인재를 전립하였으며, 1996년에는 사락루를 중건하고 2000년에 서재를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공민왕 창건(추정)

~1485 이건(5회)

1568 이건

1626 이건

1683 향교 일곽 중수

1734 현 위치로 이건

1843 향교 일곽 중건

1922 명륜당 중건

1929 대성전 보수

1959 향교 일곽 중수

1978 명륜당 보수

1985 유형문화재 지정

1986 동서재 보수

1990 동무 보수

1991 내삼문 · 협문 연목 이상 해체 보수, 사주문 해체보수

1992 지인재(충효관) 신축 및 주변 정비

1993 향교 일곽 정비

1994 향교 일곽 보수

1996 사락루 중건

2000 서재 보수

2. 입지 및 배치

청도에서 창녕으로 가는 20번 국도를 따라 가면, 청도읍 사무소를 지나 자동차 정비공장을 만나게 되며, 여기서 우회전하여 약 400미터 가량을 오르게 되면 이곳에 청도향교가 자리잡고 있다.

화양읍 교촌동의 마을 뒤편 경사가 거의 없는 대지에 건물을 앉혔는데, 마을 전체가 북향(北向)인 관계로 향교 역시 같은 향을 하게되었다. 향교의 정문인 사주문을 들어서서 넓은 공간을 지나면 정면에 내삼문이 위치하고 있고, 우측에 명륜당의 입구인 사락루(思樂樓)가 높이 서있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대성전이 낮은 기단 위에 건립되었고 그 앞에 동서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대성전의 향좌측 약간 낮은 터에 담을 경계로 하여 명륜당이 위치하고 있다. 그 앞에 동서재가 마주보고 있다.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은 병렬 축으로 구성하여 방형의 담을 둘러 공간을 분리시킨 좌학우묘(左學右廟)의 배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찰 혹은 불교와 관련된 부재 및 특징들이 많이 남아 있어 현재의 건립된 터가 원래 사찰이었거나 사찰에서 사용되었던 부재를 가져다 썼을 가능성이 놓후하다. 향교와 관련된 것인지 정확 하지는 않으나 향교 일곽에는 萬曆(만력) 44년 丙辰(병진)년에 만든 명문암막새(萬曆四十四年成材丙辰仲春日造)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명문와가 남아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가장 안 쪽에 위치하며 건물로, 잡식 쌓기한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아 원형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 어칸에는 두 짹 띠살문을, 좌우칸에는 외짝 문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출목이 없는 이익공을 구성하였는데, 살미의 형상은 모두 양서로 하여 끝을 직질 시켰고 살미 위에는 연꽃과 연봉을 첨가시켜 초각 하였다. 주간에는 화반을 수장하였다.

내부가구는 5량가의 구조로 대들보 위에는 3분변작의 위치에 포대공을 놓아 종보를 받았고,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고 있다.

내부는 장마루를 깔았으며, 상부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과 해동 18현의 위패를 모셨다.

(2) 동무(東廡)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낮은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단면이 기둥을 세웠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살미의 외단은 대성전이나 명륜당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 주는데 약간 쇠서로 하여 활달하게 뺀어 나가지는 못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 어칸에는 두 짹 띠살문을, 좌우칸에는 외짝 띠살문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위에 파련대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받게 한 간단한 구조이다. 내부는 우물마루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 좌우 측면에 방풍판을 달았다. 현재 3종류 이상의 명문(銘文)이 기록된 막새가 남아 있으며, '권(만)'자가 새겨진 숫막새도 사용되고 있다. 좌우 뺨복이 방풍판 면 밖으로 돌출 되어 있으며, 모로단청의 흔적이 남아 있고 주두 일부에는 당초문도 남아 있다. 전체적인 특징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서무(西廡)

서무는 동무와 동일한 입면 및 단면 형태를 갖고 있으나, 내부 마루가 우물마루가 아닌 장마루로 되어 있다.

(4) 내삼문(內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3단으로 조성한 계단이 있고 건물 자체는 낮은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벽체 없이 좌우 측벽은 중방으로만 전후 기둥을 연결하였고, 각 칸 모두 전면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화반대공을 얹고 종도리를 받았다. 판문 전면에는 각 칸 모두 크기가 약간 다른 2태극 문양을 도채 하였으며 문 상방 상부에 흥살을 꾸몄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막돌쌓기한 2중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다. 외부기둥은 모두 원주를 쓰고, 내부기둥은 모두 방주를 사용하였으며, 평면형식은 중당협실(中堂夾室)형이다. 전면 가운데 3칸을 모두 우물마루를 깔고, 양 측칸의 전면은 반간 가량 뒤로 물려 온돌방을 구성하였으며, 방의 앞부분은 뒷마루를 대청마루보다 10cm 가량 높게 하여 시설하였다. 마루 전면은 모두 개방시키고 배면 3칸은 모두 삼벽으로 하여 문얼굴을 내었는데 하부에 머름을 들이지 않고 하인방위에 쌍여닫이 울거미 널문을 달고 키를 높게 하였다. 문틀과 문은 모두 개체된 것으로 보이며, 기둥 중간 정도 높이에 모두 인방 혼적이 남아 있다. 좌우측 온돌방의 문구성을 서로 상이한 것으로 후대에 개체된 것으로 보인다.

기둥 위에는 창방을 짜 돌리고 각 칸에 1구의 화반을 올렸으며, 기둥 위에는 재주두를 놓은 이익공으로 포를 구성하였다. 살미의 형상은 쇠서를 길게 빼내어 끝을 날카롭게 하여 하부를 초각 하였다. 첨차의 형상은 하부를 쌍S자로 초각하고 마구리는 사절시켰다. 한편 주심첨차와 화반은 전후면의 형태가 각각 다르며, 전면 어간 좌측과 후면에서는 재주두를 생략하였다.

가구의 구성은 5량으로 하여 대들보 위에 3분변작의 위치에 포대공을 세우고 그 위에 종보를 놓은 후 파련대 공을 올렸다. 대들보는 모두 4본을 사용하였는데 단면이 원형에 가까운 자연곡재를 사용하였는데 건물 좌측에서 2번째 대들보는 굵기와 치목수법이 틀려 교체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전면 기둥과 창방하부에 많은 장부 혼적이 남아있고 여러 곳에서 부재가 탈락한 혼적이 있어 많은 중수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고, 처마는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최근에 번화보수 하였다. 모로 단청으로 마무리하였고, 좌우 실 아궁이는 전면 기단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내부에는 '道州明倫堂重建記(도주명륜당중건기)'가 걸려 있는데 말미에 '孔子誕降二千四百七十三年甲子孟秋'라고 되어 있어, 1922년에 중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淸道鄉校重修記(청도향교중수기)' 말미에는 '孔子誕降二千五百十年八月下澣'이라 되어 있어, 1959년에 향교 일곽을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文廟重建記(문묘 중건기)'는 '孔子誕降二千四百八十年己巳九月下澣'으로 끝맺고 있어 1929년의 중건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해에 기록된 '大成殿重建記(대성전중건기)'와 '道州大成殿重建序(도주대성전중건서)'도 내부에 계액되어 있다.

(2) 동재(東齋)

동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막돌쌓기한 낮은 기단 위에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으며, 평면은 가운데 2칸을 마루로 하고 양쪽에 방을 둔 중당협실(中堂夾室)형이다. 당 후벽 하부는 판벽으로 되어 있으며, 대들보 중앙에 판대공을 두고 종도리를 받았다. 가구는 3량가이며, 흙처마로 구성한 맞배지붕으로 풍판은 두지 않았다.

(3) 서재(西齋)

동재와 유사한 입면 및 평면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동재와 달리 당 후벽을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2000년에 기둥 등 일부 부재에 대한 보수를 거쳤다.

(4) 사락루(思樂樓)

사락루는 명륜당의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2층 누각 건물이다. 자연석으로 1단을 쌓은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상하층 별재로 되어 있으며, 누 하부는 출입문을 달아 외삼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부 중앙 기둥렬에 각 칸 모두 두 짹 판문을 달았으며, 벽체는 좌우측 후면칸 후면 우측칸에 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두었다.

상층에는 우물마루를 깔고 주위에 계자각 난간을 둘렀는데, 좌우 협칸 전후측면에 가새를 하였다. 기둥머리에는 2익공의 공포를 구성하고 주간에 소로를 수장한 화반을 두었으며, 어간 상부에 '思樂樓' 현판을 달았다. 익공재의 외단은 각각 연봉과 연화로 장식되어 있고 보머리는 직질한 다음 봉황두를 끼워 넣었다.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대들보 중앙에는 좌우 측면에서 결구된 충량 머리를 얹었으며 충량 머리는 용두(龍頭)로 초각 되었다. 중대공은 포대공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모로 단청을 하였으며, 하층 어간 판문 정면에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내부에는 병자(丙子)년 명의 '思樂樓重建記(사락루증건기)'가 있으며 1996년에 해당한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지인재, 교직사 2동, 사주문 3동 및 협문, 화장실 등이 있다.

지인재(知仁齋)는 강학영역 전면 담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5량가 맞배지붕 건물이다. 1922년에 신축한 건물로, 내부는 통간으로 되어 있다. 원형 단면의 기둥을 사용하였고,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가구는 어간에서 5량가, 측벽에서 2고주 5량가로 되어 있다.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4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내부는 우물반자를 하여 상부의 가구는 알 수 없다. 내부 어간 후벽에는 가정(嘉靖) 20년(1541) 신축(辛丑)년에 지은 '鄉老堂記(향로당기)'가 남아있으며, 동측협칸 후벽에는 '知仁齋記(지인재기)'가 걸려 있는데, '(전략)... 歲光復後初壬申至日下灘'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 건물이 1992년에 건립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교직사는 전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3량가 맞배지붕 건물로, 향교 전면에 돌출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이루고 있다.

사주문은 모두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향교 일곽의 정면에 위치하여 외문(外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방 단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야트막한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자연재로 된 대들보 중앙에 판대공을 놓았다. 전면에 두 짹 널문을 달았으며,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고 좌우 측면에는 벽체 없이 문상방 상부에 홍살을 꾸몄다.

두 번째 사주문은 사락루 전면에 위치하여 같은 향을 취하고, 동일 축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 사방 단칸 규모의 3량가 맞배지붕 건물로, 창호는 없으나 문 둔테의 흔적이 남아 있다.

세 번째 사주문은 두 번째 사주문의 측면에 위치하고 있되, 향은 직각으로 놓여 서향하고 있고, 향교 바깥 주차장과 면하여 있다. 사방 단칸 규모의 3량가 맞배지붕 건물로, 전면에는 원형 단면의 기둥을, 후면에는 방형 단면의 기둥을 사용하였다. 좌우 측면에는 중방 하부에 회사벽을 꾸몄고 전면에 두 짹 널문을 달았다.

협문은 제향영역과 강학영역을 가르는 담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형 단면의 기둥을 사용한 맞배지붕 건물로, 명륜당에서 대성전으로 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화장실은 명륜당 후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청도향교(淸道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7호 (일곽)
창건시기	고려 공민왕 연간(추정)	입 지	평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 리 자	청도향교
좌 향	북향	배치형식	左學右廟 / 前齋後堂 종축 1개
중건시기	1568년 이건 1626년 이건 1734년 현위치 이건	대지조성	단 차이 없음
설 위	5聖 / 海東 18賢	인접시설	청도읍 사무소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사락루 / 지인재 / 교직사 2동 / 사주문 3동 / 협문 등		
특기사항	좌학우묘(左學右廟)의 횡축형 배치를 형성하였음 양재 이외에 별도의 재사(齋舍)건물을 두었음 전체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석재들이 많아 건립된 터가 사찰터였을 가능성이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x2칸 / 이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무고주 5량가 / 장마루 / 연등천장		
기 단	단층기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 단	전면 2개(각 4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둉	원형기둥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 포	2익공 / 주간 화반 수장	창 방	말각방형 / 직절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지 봉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장마루		
특기사항	익공재 외단 위에 연꽃과 연봉을 두었음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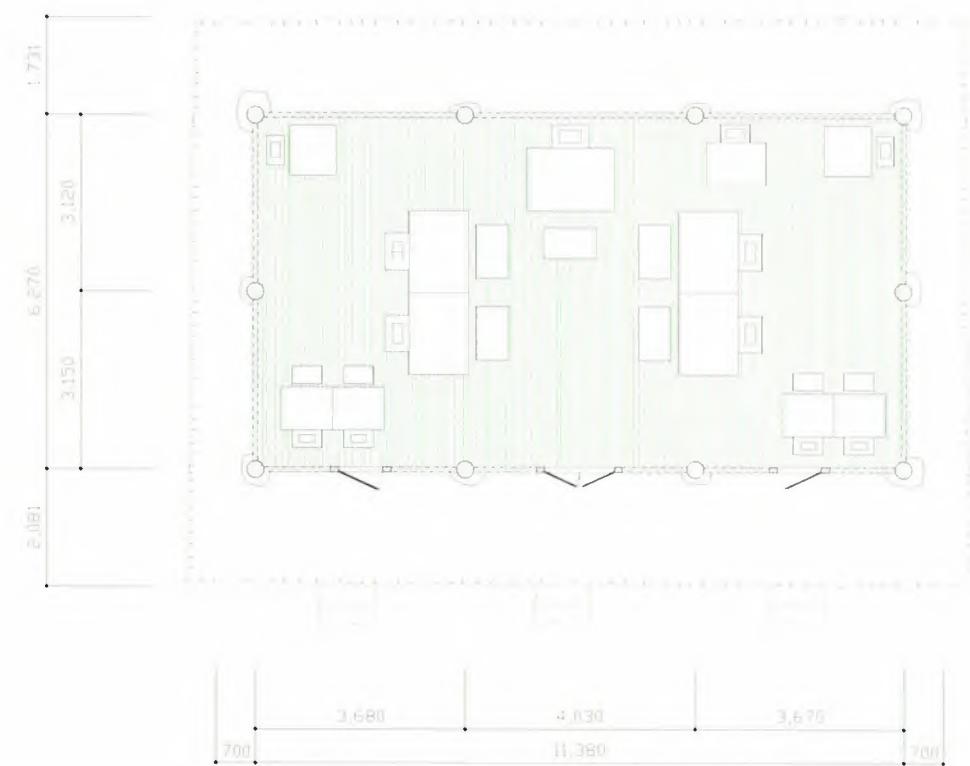
개 요	5칸x3칸 / 이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기 단	단층기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둉	원형기둥 - 외부 방형기둥 - 내부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 포	이익공 / 주간 화반	창 방	말각방형 / 직절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봉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특기사항	좌우실 전면 뒷마루는 중앙의 마루 보다 10cm 가량 높게 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다수의 보수 과정을 거치면서 창호의 형식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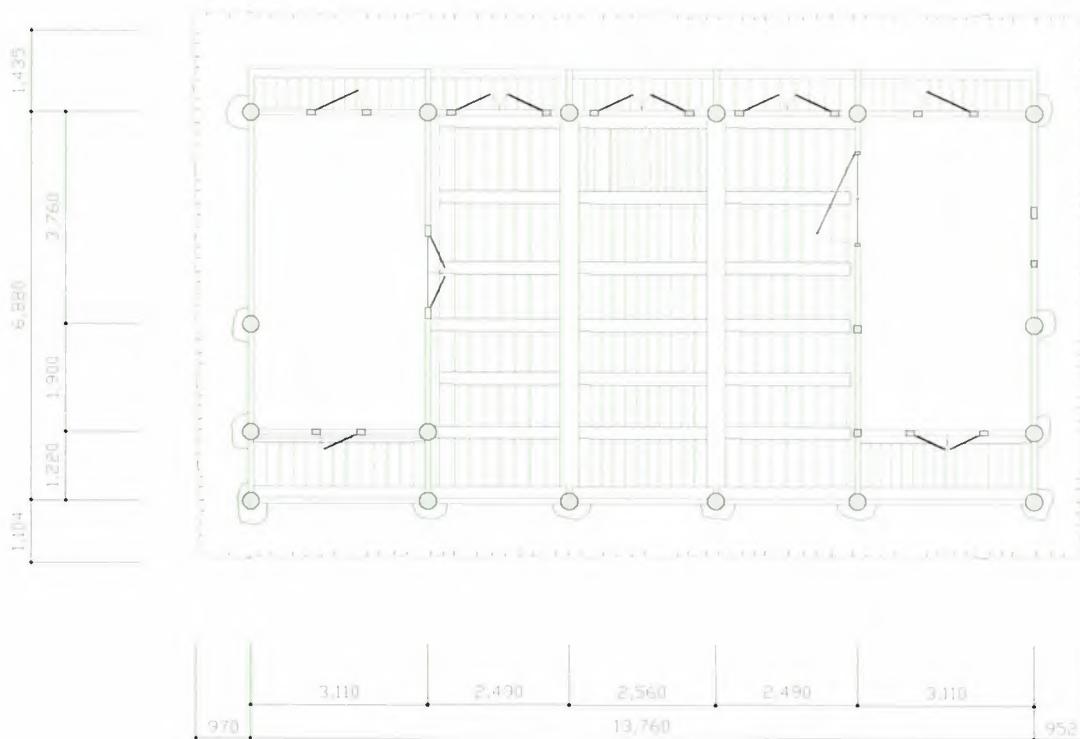
1. 명륜당
2. 동재
3. 서재
4. 사락루
5. 대성전
6. 동무
7. 서무
8. 내삼문
9. 사주문
10. 교직사
11. 교직사
12. 지인재

청도향교 배치도

0 2 5 10M



청도향교 대성전



청도향교 명륜당

0 0.5 1.0 2.0 4.0M



▲ 대성전



대성전 내부



▲ 대성전 내부 가구



▲ 대성전 전면 평주



▲ 대성전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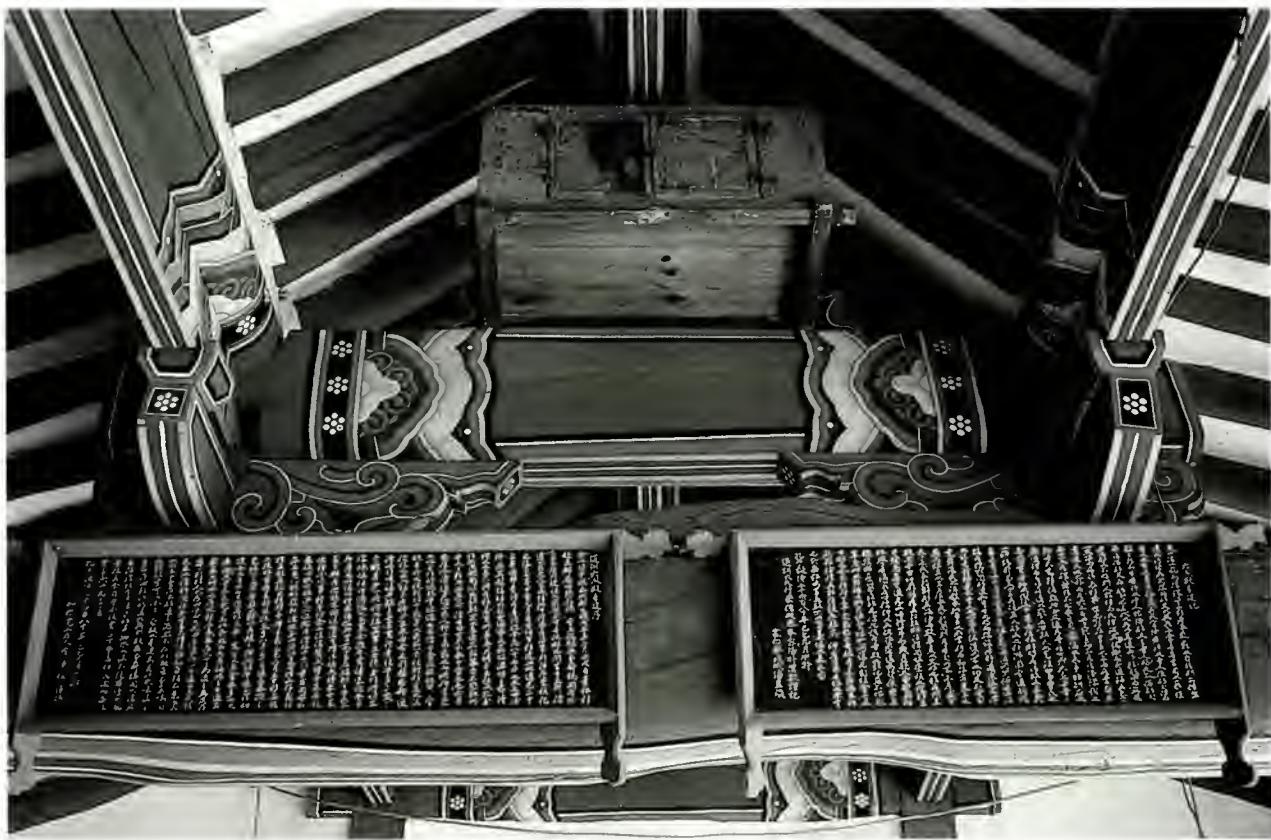
▲ 대성전 기단



명륜당



명륜당 내부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전면 평주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주간 화반



▲ 동무



서무



▲ 동무 내부 가구



▲ 서무 전면 창호



▲ 동무 전면 주상포(외부)



▲ 동무 전면 주상포(내부)



▲ 동재



▲ 서재



사학루



사학루 2층 내부 가구



내삼문



외문



지인재



▲ 전경



▲ 사주문



▲ 명문와1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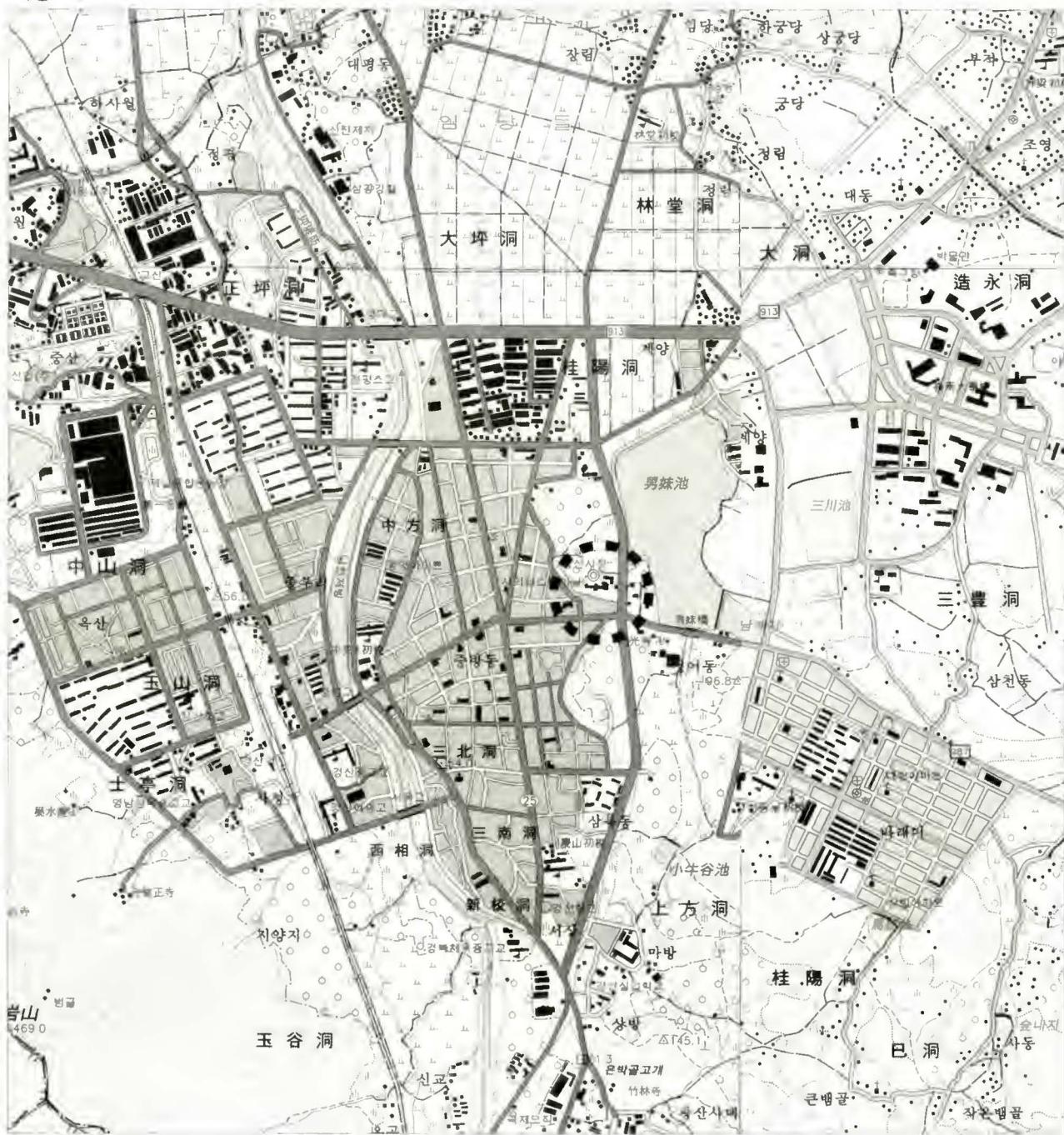


명문와2 (암막새)

4. 경산향교(慶山鄉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5호(대성전)
 - 지정일 : 1985년 1월 17일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62
 - 건축구성 : 대성전, 명륜당, 동서재, 정신문, 사주문, 교직사 등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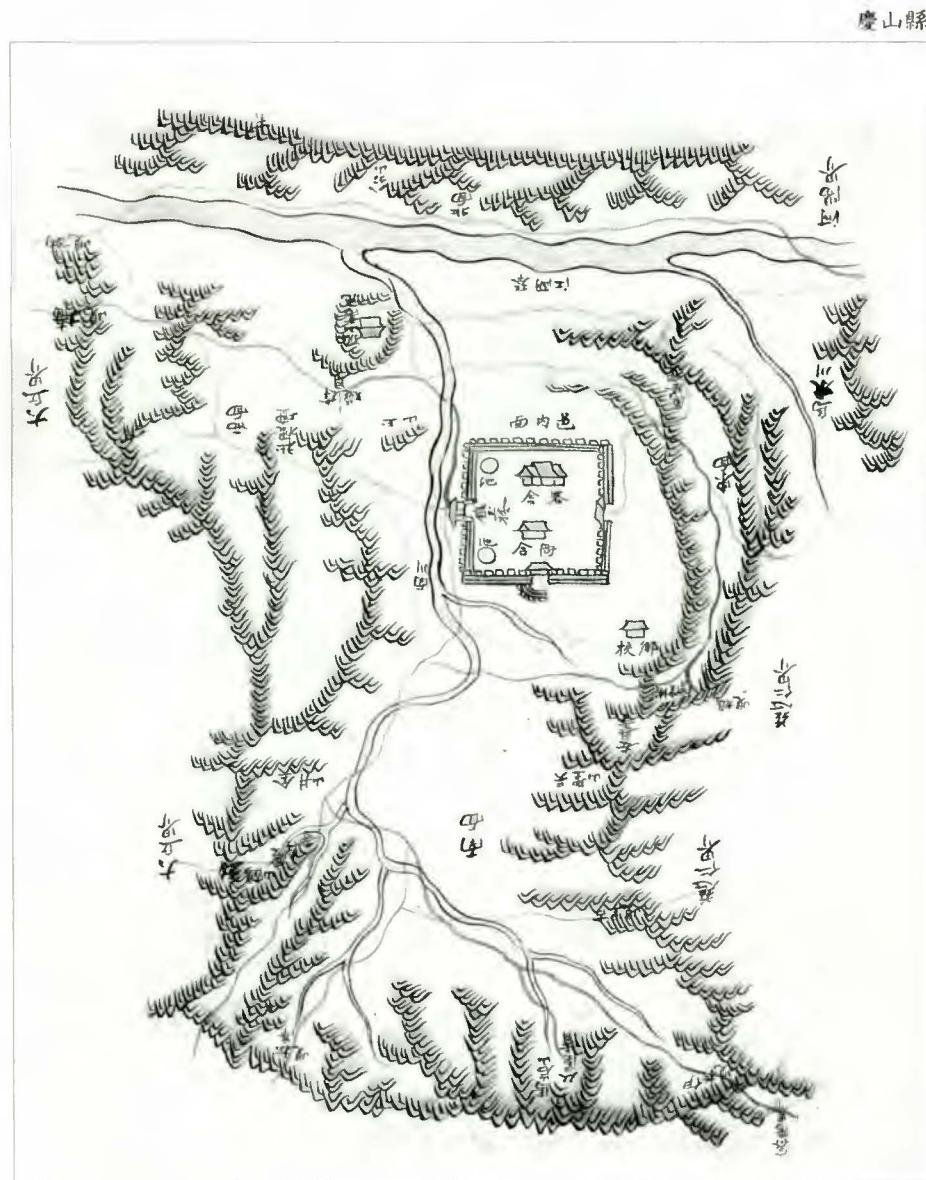


1. 연혁

경산(慶山)은 삼국시대 초기부터 독립된 성읍 국가의 형태로 마을을 구성하였었으며, 삼국시대에 압량주(押梁州)로 존재하였다가 신라 경덕왕 대에 군현 개편으로 장산군(獐山郡)이 되었다. 이후 고려 태조에 장산(章山)으로 개명되었고, 고려 현종 때 전국적인 군현 개편에 따라 경주의 속읍(屬邑)이 되었다가 충선왕 대에 현재와 같은 지명을 갖게 되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 경산현조(條)에는 향교의 위치를 현의 서쪽 3리로 기록하고 있으며, 『嶺南邑誌(영남읍지)』 경산현 읍지에는 원래 현의 西岳(서악) 아래에 있었는데 숙종(肅宗) 10년에 성 남쪽 밖 2리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산향교는 고려 말 공양왕 2년(1390)에 구교동에 창건되었으며, 명종 5년(1550)에 중수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경산이 대구의 속읍이 되면서(1601) 향교 중수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가 인조 11년(1633)이 되어서야 중수가 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 현 위치가 산사태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기 쉬운 곳이라

하여 당시 위치에서 약 2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숙종 7년(1681) 10월에 성 남문 밖 지금의 신교동 자리에 이전하게 되었다. 그후 숙종 28년(1702) · 41년(1715), 경종 1년(1721), 영조 1년(1725) · 20년(1744) · 34년(1758), 순조 3년(1803) · 8년(1808), 현종 3년(1837), 철종 1년(1850) · 13년(1862)에 대성전을 보수하였고, 영조 29년(1753)과 정조 21년(1797)에는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정조 20년(1796)에는 동서재를 보수하였으며, 고종 32년(1895)에 모성당(慕聖堂)을 향교 서편에 세웠다.



이 건물은 1919년에 다시 건립되었으며 1946년에 동편으로 옮겨지어 명륜당으로 사용하였다.

1985년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고 1988년 군비지원금으로 향교 일곽을 중수하였다. 이후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이건이 결정되어 1997년 12월 경산시청 맞은편 중방동 62번지로 이건되었다. 이 때 이건된 건물은 대성전, 정신문, 사주문 등 3동이며, 1998년에는 명륜당을 건립하였고, 1999년에는 동서재가 복원되었다. 2002년에는 교직사가 건립되었는데, 명륜당은 이전과 다른 규모로 새로이 지어졌고, 일곽 담과 동서무 등의 건물은 완성되지 않았다.

1390	향교 창건
1550	향교 중수 - 현령 박세린(朴世麟)
1633	향교 중수 - 현령 박창(朴敞)
1681	향교 이건 - 현령 홍처공(洪處恭)
1702	대성전 보수 - 현령 이방(李渤), 교임 유포(柳浦)
1715	대성전 보수 - 현령 심용준(沈龍浚) 등 4인
1721	대성전 보수 - 현령 이정량(李廷亮)
1725	대성전 보수 - 현령 윤해(尹楷)
1744	대성전 보수
1753	명륜당 중수 - 현령 김정겸(金貞謙) 등 3인
1758	대성전 보수
1796	동서재 보수
1797	명륜당 중수
1803	대성전 보수 - 현령 이지순(李志淳), 교임 손홍점(孫弘漸)
1808	대성전 보수 - 현령 박종서(朴宗恕), 교임 이경(李璟)
1837	대성전 보수 - 현령 성재호(成載護) 등 3인
1850	대성전 보수 - 현령 강의영(姜義永)
1862	대성전 보수 - 기와 보수
1895	모성당 건립
1911	경산공립보통학교 건립으로 명륜당, 동서재 해체
1919	모성당 중건
1946	모성당 이건, 명륜당으로 사용
1985	문화재자료 제105호로 지정
1988	일곽 중수
1991	모성당 지붕 보수
1995	향교 일곽 실측 조사
1997	도시 계획에 따른 향교 이건 - 대성전, 사주문, 성신문

1998	명륜당 건립
1999	동서재 복원
2002	교직사 선립
2002년 9월 현재 이전 계획 진행 중	

2. 입지 및 배치

경산향교는 경산시 중방동 6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전 이전의 향교는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였고 현재의 일직선 종축에 따른 배치가 아닌 직교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즉, 이전 이전에는 대성전이 전면에 남향하고 있고, 명륜당은 대성전의 동북편에 동향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며, 모성당이 명륜당 북편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당시 북편과 서편으로 경산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원래 전묘후학의 배치에 따라 대성전과 명륜당이 단일 축으로 자리잡고 있던 것을 1911년 경산공립보통학교를 건립하면서 후면의 명륜당을 동편으로 이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의 경산향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전하게 이전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1996년 2월에 작성된 '경산향교 이전·복원 계획도'(정우건축사사무소)에 따르면, 전면에 외삼문이 놓이고 다시 내부에 독립된 제향영역을 두어 중앙에 내삼문인 정신문을, 좌우 측 담 선에 맞추어 동서무를 두고 후면에 대성전을 계획하였다. 그 뒤편으로 명륜당과 동서재를 계획하였으며, 서무의 서편으로 교직사와 관리 사무실을 계획하고 있다. 사주문은 정신문 동편 담에 계획되어 있으며, 대지 전체는 평지이되 대성전은 단을 돋우어 높게 하였다. 한편 교직사 북편에는 조경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 즉, 경산향교의 배치는 일반적인 전학후묘와 다른 전묘후학의 배치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현재의 복원 및 이전 공사는 일제 시대 이전의 배치를 회복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향교가 자리한 곳은 시청에서 마주 보이는 야트막한 야산 위이다. 계획에 따르면, 전면에는 서에서 동으로 약하게 경사진 대지를 보완하기 위해 축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향교의 전면에는 외삼문이 자리잡고 있다. 이 문을 들어서면 다시 전면에 내삼문이 나타나고 제향영역을 둘러싼 담 좌우로는 대성전 후면의 명륜당과 동서재로 통하는 길이 나 있다. 내삼문인 정신문을 통해 제향영역으로 들어서면 전면에 퇴칸을 둔 동일한 형태의 동서무가 좌우에 자리잡고 있고 중앙에 대성전이 놓이며, 동무 남측으로 사주문이 자리잡게 되어 있다. 명륜당은 계획에 의하면 정면 7칸의 규모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정면 5칸의 규모로 건립되어 있다. 2002년 9월 보완조사 당시에는 대성전, 명륜당, 동서재, 사주문, 정신문 만이 이전되었고, 교직사가 건립되어져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단층 주심포계 건물이다. 기단은 전면을 큼지막하게 다듬은 두터운 판석으로 하단을 마감하고 상단은 비교적 장방형에 가깝게 다듬은 석재로 마감하였으며 측후면은 자연석으로 5

단을 쌓았다. 기단 전면에는 좌우 퇴칸 중앙에 맞추어 3단 장대석으로 만든 계단을 각 1개씩 두었다. 기단 상면은 강회다짐을 하였으며 초석은 방형으로 거칠게 다듬은 자연석을 사용하였으되 일부는 상면에 주좌와 고막이 있는 초석을 사용하였다. 건물 내부는 원래 시멘트 마감이었던 것을 이전하면서 우물마루로 시공하였으며, 공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4현, 해동18현 등 모두 27현의 위패를 모셨다.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기둥 머리에는 외2출목의 주상포를 두었다. 공포의 구성형식을 살펴보면,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창방과 초익공을 결구한 다음 그 위에 주두를 놓았다. 외1출목에는 소첨과 대첨을, 2출목에는 소첨을 두었으며, 보머리는 외부로 그대로 빼 내어 좌우를 약간씩 벗깎았다. 출목사이에는 순각판을 두었으며,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였다. 익공재의 형식은 침차의 초각과 유사하며, 짤막하게 내밀었으되 연봉형 초각을 하였다. 창호는 전면에만 두었는데, 어칸에는 두 짹 띠살문을, 좌우 퇴칸에는 두 짹 띠살문과 함께 서측 퇴칸은 문 서편으로, 동측 퇴칸은 문 동편으로 창을 내었다.

가구는 무고주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4분변작의 위치에 포대공을 두고 종량을 받았다. 종대공은 파련대공으로 되어 있으며, 종대공과 중대공은 각각 도리와 장혀, 뜬장혀로 결구되어 있다. 좌우 퇴칸에는 팔작이나 우진각지붕 가구에서 볼 수 있는 층량이 결구되어 있어 이전 자붕 형식이 현재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전후면 모두 겹처마로 되어 있고 내부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좌우 측면에 방풍판을 달아 내었다. 단청은 내부에만 모로단청을 한 흔적을 볼 수 있으며 외부에는 하지 않았다. 현재 이건 과정에서 기둥과 익공재 일부 및 서까래 일부를 교체하였다.

이전 전에 실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慶山鄉校 實測調查研究報告書』(慶山鄉校移建復元推進委員會 ·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간행)대성전 실측 결과를 살펴보면, 기둥의 배흘림 정도와 귀솟음, 안쏠림은 각각의 기둥에 따라 약간씩 틀리나 배흘림은 38mm 정도, 귀솟음은 미미하며, 안쏠림은 최소 20mm에서 최대 157mm를 두었다. 또한 보고서에는 용척(用尺)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선 중기, 즉 1681년 당시의 건물로 언급되어 있다.

(2) 동서무(東西廡)

동서무는 원래의 향교 배치에도 남아 있지 않았었으며, 현재도 건립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계획에 의하면 동서무는 전면에 퇴칸을 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초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설계되어 있다.

단층 장대석 기단 위에, 내부는 우물마루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칸 모두 전면에 두 짹 띠살문을 달도록 되어 있고, 5량가에 전면에만 고주를 두도록 하였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계획되어 있다.

(3) 정신문(正神門)

정신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현재 이건되어 건립이 완료된 상태이다. 전면에 4단의 계단을 두었으며, 자연석으로 쌓은 단층 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두고 그 위에 원기둥을 세워 외1출목의 주상포를 구성하였다. 공포의 구성은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창방과 초익공을 결구한 다음 그 위에 주두를 얹었다. 그런 다음 주심 침차와 이익공재를 결구하고 외1출목에는 소첨차 만을 두었으며, 보머리는 그대로 빼 내어 직절하였다. 익공재의 초각 형태는 대성전과 유사하며, 주간에 화반을 두었다. 또한 주심첨차와 출목첨차는 그 단부의 초각 형태가 서로 다르며, 이익공재는 외단만 익공재로 치목하였고, 내부로는 중간 설주 까지 이어져 대들보 전체를 받고 있다.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어칸에는 파련 대공을, 좌우 측벽에는 판대공을 놓고 종도

리를 받았다. 창방 뺄목은 좌우에는 풍판을 달지 않았다.

벽체는 좌우에 회사벽을 꾸몄으며, 각 칸 중앙에 두 짹 판문을 달아 내었으되 어칸은 높이를 좌우 퇴칸 보다 높게 하였고 각 칸 문 상방에는 홍살을 꾸몄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전후면 모두 흘처마로 되어 있으며, 연등 천장으로 되어 있다. 석간주 가칠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각 칸 판문 전면에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정신문의 건립 연대는 대성전과 동일한 시기로 파악하고 있으나 기둥 등 중요 부재는 1988년에 신재(新材)로 교체되었다.

(4) 사주문(四柱門)

사주문은 현재 대성전 남동편에 건립되어 있으며, 조사 당시 이건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새를 설치해 둔 상태였다. 사주문은 사방 단 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3단의 계단을 두고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기둥을 세웠다. 공포 구조 없이 기둥 머리에 사괘를 트고 대들보와 장혀를 결구하고 그 위에 도리를 놓았다. 벽체 없이 중앙에 두 짹 판문을 달았고 3량가의 구조에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흘처마로 되어 있으며,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고, 석간주 가칠 단청에 판문 전면에는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원래 계획상 정면 7칸, 측면 3칸의 이익공계 5량가 맞배사봉 건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건립된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되어 있고, 이중 중앙 3칸은 당(堂)으로, 좌우 1칸은 실(室)로 구분하였다.

원래의 명륜당은 1911년 경산공립보통학교 건립 당시 해체되었었으며, 1919년 건립된 모성당을 1946년에 동편으로 옮기면서 명륜당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이었으며, 중앙 2칸은 당으로, 좌우 퇴칸은 실로 구분하였다.

명륜당은 방형으로 거칠게 다듬은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기둥을 세웠다. 기둥 상부에는 외 1출목의 이익공 공포를 구성하였다. 기둥 머리에 사괘를 트고 창방과 초익공을 겨구한 다음 주두를 놓고 주심첨차와 2익공을 놓고 출목 첨차와 결구하였으며 그 위에 장혀를 놓고 대들보를 결구하였다. 첨차의 초각은 주심과 출목이 동일하며 익공재는 대성전의 것을 모방하였으나 비교적 길게 빼져 나와 있으며, 보머리는 출목도리 바깥으로 직절되어 나와 있으나 짤막한 초각재를 끼워 넣은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주간에는 전후면 모두 화반을 두었다. 창호는 전면과 후면에만 두었는데, 전면 중앙 3칸에는 사분합문을, 좌우 실 전면에는 두 작 띠살창을 두었다. 후면에는 당 후벽에만 각각 두 짹 판문을 달았다. 벽체는 삼벽으로 구성하였으며, 좌우 실 전면 기단 상면에 아궁이를 두고, 후면 기단 상부에 자그마한 굴뚝을 내었다.

내부는 중앙 3칸은 연등천장과 우물마루로, 좌우 퇴칸은 지반자와 온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는 어간에서 5량가로, 좌우 측벽에는 전후에 고주를 둔 2고주 5량가로 되어 있다. 어간 가구는 대들보를 전후 평주에 걸고 사분변작의 위치에 포대공을 두어 종보를 받은 다음, 중앙에 파련대공을 두고 첨차를 결구하여 종도리 장혀와 종도리를 받고 있다. 좌우 측벽에서는 퇴랑을 고주에 결구하고 퇴랑과 같은 높이에 동일한 단면의 부재를 결구하였으며, 고주 상부에 종량을 두고 판대공으로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전후면 모두 겹쳐마로

되어 있으며, 아직 단청은 하지 않았다.

(2) 동서재(東西齋)

동서재는 모두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둔 5량가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으로된 초석을 두고 그 위에 원기둥을 세웠다. 기둥 상부에는 외단은 직절한 초익공재를 결구하고 주두 없이 퇴량과 장혀를 결구하였으며 그 위에 도리를 얹었다.

창호는 전후면에만 두었으며, 전면에는 각 칸 모두 두 짹 띠살문을, 후면에는 중방 상부에 각각 두 짹 띠살창을 달아 내었다. 벽체는 심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 퇴칸은 마루로, 내부 실은 우물반자와 온돌로 구성하였다. 내부 가구는 전면에만 고주를 둔 1고주 5량가로 되어 있으며, 4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를 놓고 종량을 받고 중앙에 동자주를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홀처마로 되어 있으며, 단청은 하지 않았다.

(3)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현재 건립되어 있지 않으나, 계획에 의하면 정면 3칸, 측면 2칸의 3량가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3단의 장대석 계단을 둔 단층 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기둥을 세워 초익공을 받게 되어 있다. 각 칸 중앙에 두 짹 판문을 달고 대들보 중앙에 화반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게 계획되어 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가 있으며, 관리사무실, 화장실, 협문 등이 계획되어 있다.

교식사는 'ㄱ'자형 평면으로 된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현재 대성전 서편에 건립되어 있으며, 장대식 단층 기단 위에 두터운 방형 초석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내부는 현대 생활에 맞게 입식 부엌과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사무실은 현재 건립되어 있지 않으나, 계획에 의하면 정면 5칸, 측면 3칸의 5량가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되어 있다. 내부는 통칸으로 되어 사무실로 사용하고 북측 퇴칸만 전후로 구분하여 방과 화장실로 계획되어 있다. 화장실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계획되어 있다.

협문은 모두 4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서무의 북편에 위치하여 서재로 통하는 문과 교직사에서 화장실로 통하는 문, 관리사무실과 교직사 사이에 놓이는 문, 그리고 서무의 북편에서 정원으로 통하는 문이 계획되어 있다.

이외에, 모성당(慕聖堂)은 향교 이전에 명륜당 북편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이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이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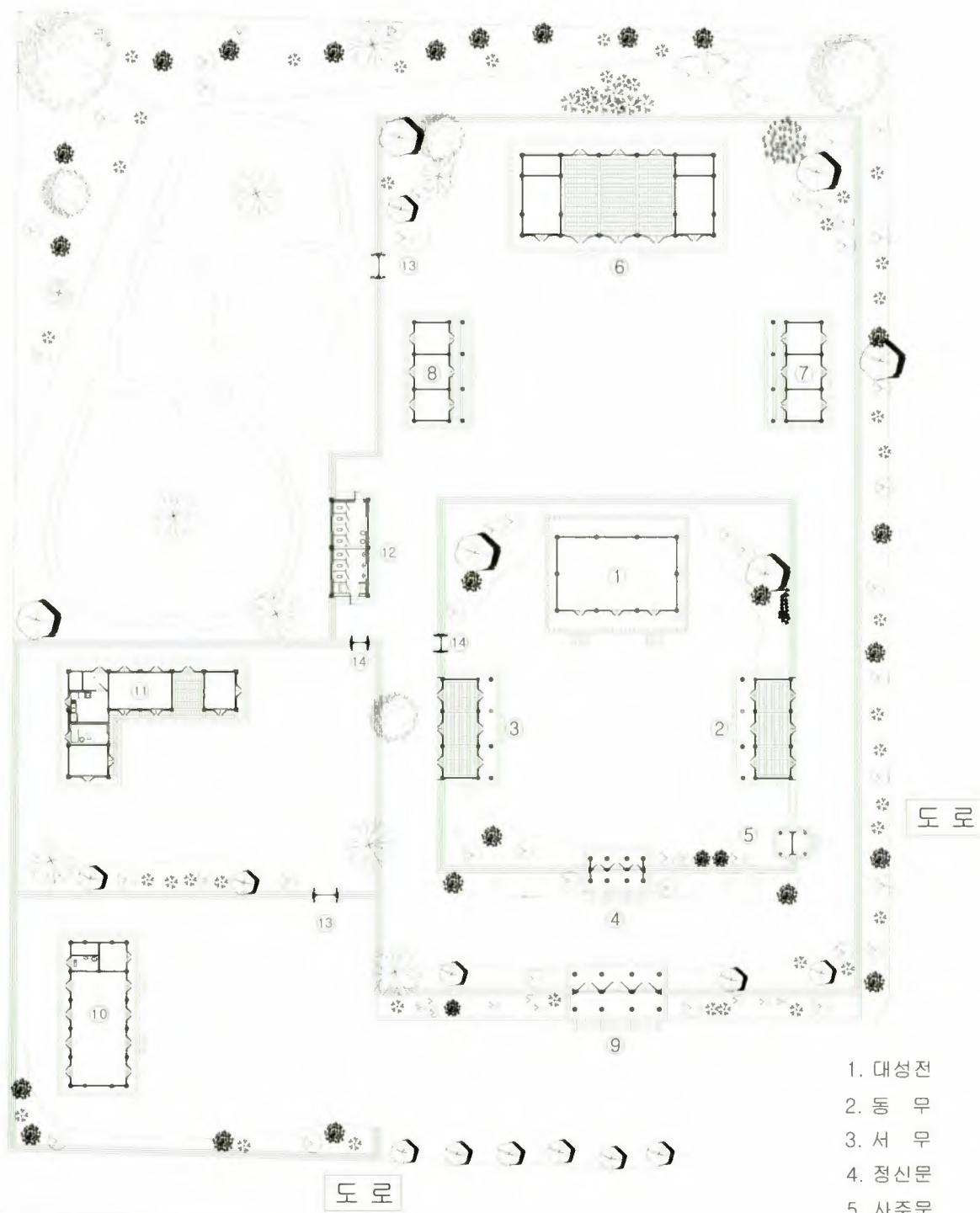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경산향교(慶山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5호 (대성전)	
창건시기	고려 공양왕 2년(1390)	입 지	평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리자	경산향교	
좌향	남향	배치형식	前廟後學 / 前齋後堂 종축 1개	
중건시기	1681년 중건	대지조성	없음	
설위	5聖 / 宋朝 4賢 / 海東 18賢	인접시설	경산시청	
건축구성	대성전 / 명륜당 / 동서재 / 정신문 / 사주문 / 교직사(외삼문, 동서무, 관리사무실, 협문 4 건립 예정)			
특기사항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 규범을 따르고 있음 대성전 명륜당 외에 모성당(慕聖堂)을 두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요	3×3칸 / 이익공 외2출목 / 겹처마 맞배지붕 / 무고주 5량가(좌우 충량) / 우물마루 / 연등천장 주고 3180 / 주칸 3750 / 수장폭 110 / 도리단면 Ø=220 / 보단면 : 대들보 455×455, 종보 310×390 주심처마길이 2840 / 기단높이 전면 1100 / 초석크기 약 690~905×690~905		
기단계단	단층기단 / 전면 이별대 전면 2개(각 4단)	보	대들보 : 전고주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가공석 거칠게 방형으로 다듬음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 평균 Ø=432	대공	중대공 : 포대공(파련대공+첨차) 종대공 : 파련대공
공포	외2출목 3익공, 주간 소로 수장	창방	말각방형 / 초각
처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지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장	심벽 / 내부 일부 모로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 일부 초석에 원형 주좌 및 고막이 있음		
특기사항	맞배지붕 건물임에도 좌우에 충량을 두어 이선 지붕 형식이 팔작이었을 것으로 추정 용척 및 공포 초각 기법 등으로 보아 조선 중기 건물로 추정		

명륜당 건축 요소

개요	5×3칸 / 이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측벽 2고주)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주고 3070 / 주칸 3640 / 수장폭 120 / 도리단면 Ø=300~330 / 보단면 : 대들보 330×300, 종보 330×300 주심처마길이 1900 / 기단높이 h=450~500 / 초석크기 약 800×800 전후		
기단계단	단층기단 / 전면 이별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2개(좌우 협칸, 각 1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 민흘림 약간 Ø=360 전후	대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포	이익공, 주간 화반	창방	말각방형 / 직절
처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붕	맞배지붕
수장	심벽 / 백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특기사항	신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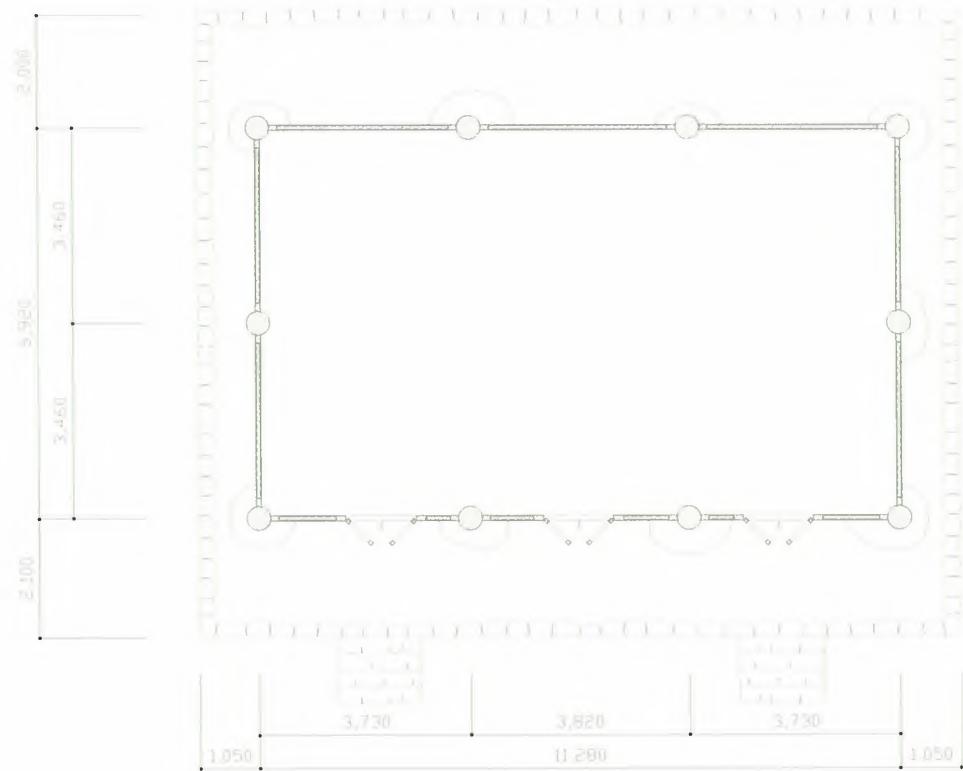


- | | |
|--------|----------|
| 1. 대성전 | 10. 사무실 |
| 2. 동 무 | 11. 교직사 |
| 3. 서 무 | 12. 화장실 |
| 4. 정신문 | 13. 협 문1 |
| 5. 사주문 | 14. 협 문2 |
| 6. 명륜당 | |
| 7. 동 채 | |
| 8. 서 채 | |
| 9. 외삼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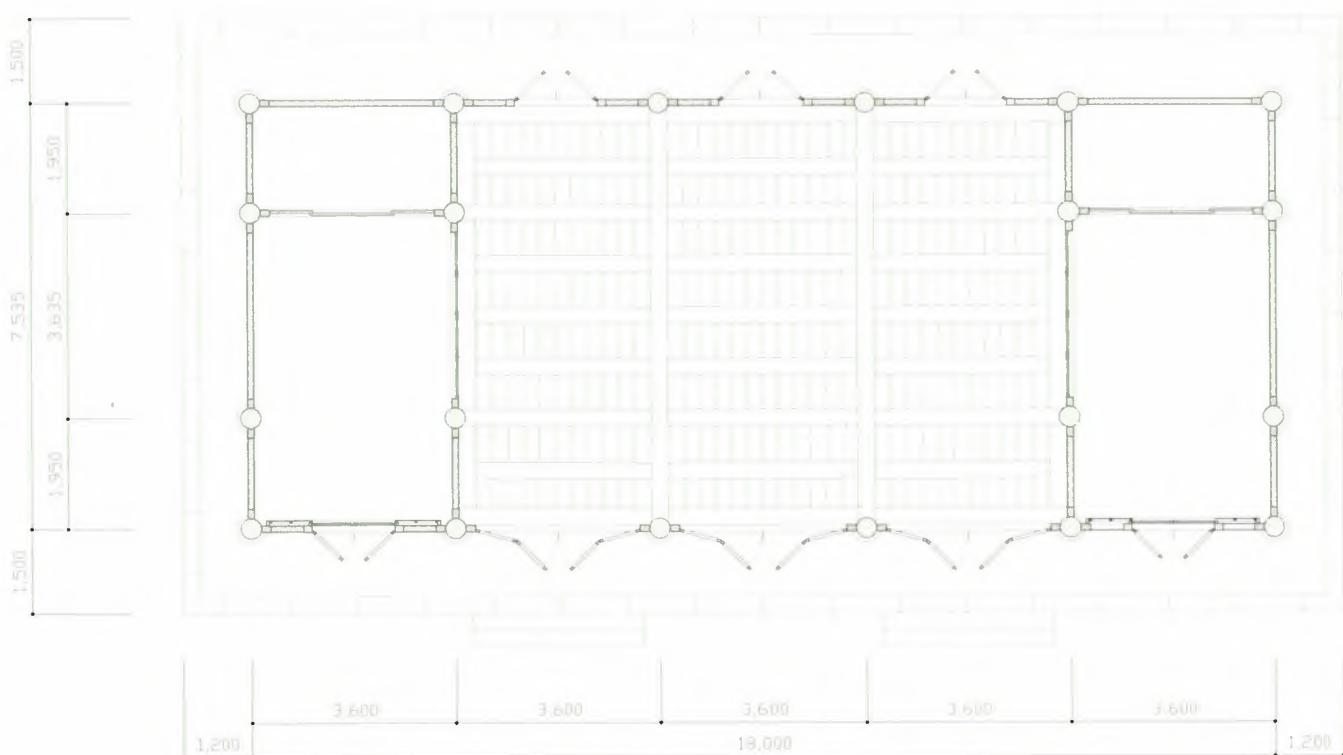
경산향교 배지도 (계획)

0 2 5 10M

경산향교



경산향교 대성전



경산향교 명륜당

0 0.5 1.0 2.0 4.0M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 대성전 기단 및 계단



대성전 전면 어칸 창호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후면 주상포



▲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 대성전 내부 협칸 가구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 명륜당 후면



▲ 명륜당 전면 주간 화반



▲ 명륜당 전면 주상포



▲ 명륜당 전면 귀포



▲ 명륜당 내부 가구



▲ 명륜당 내부 중대공



▲ 명륜당 내부 종대공



동재



서재



▲ 정신문



▲ 정신문 전면 주상포



▲ 정신문 내부 종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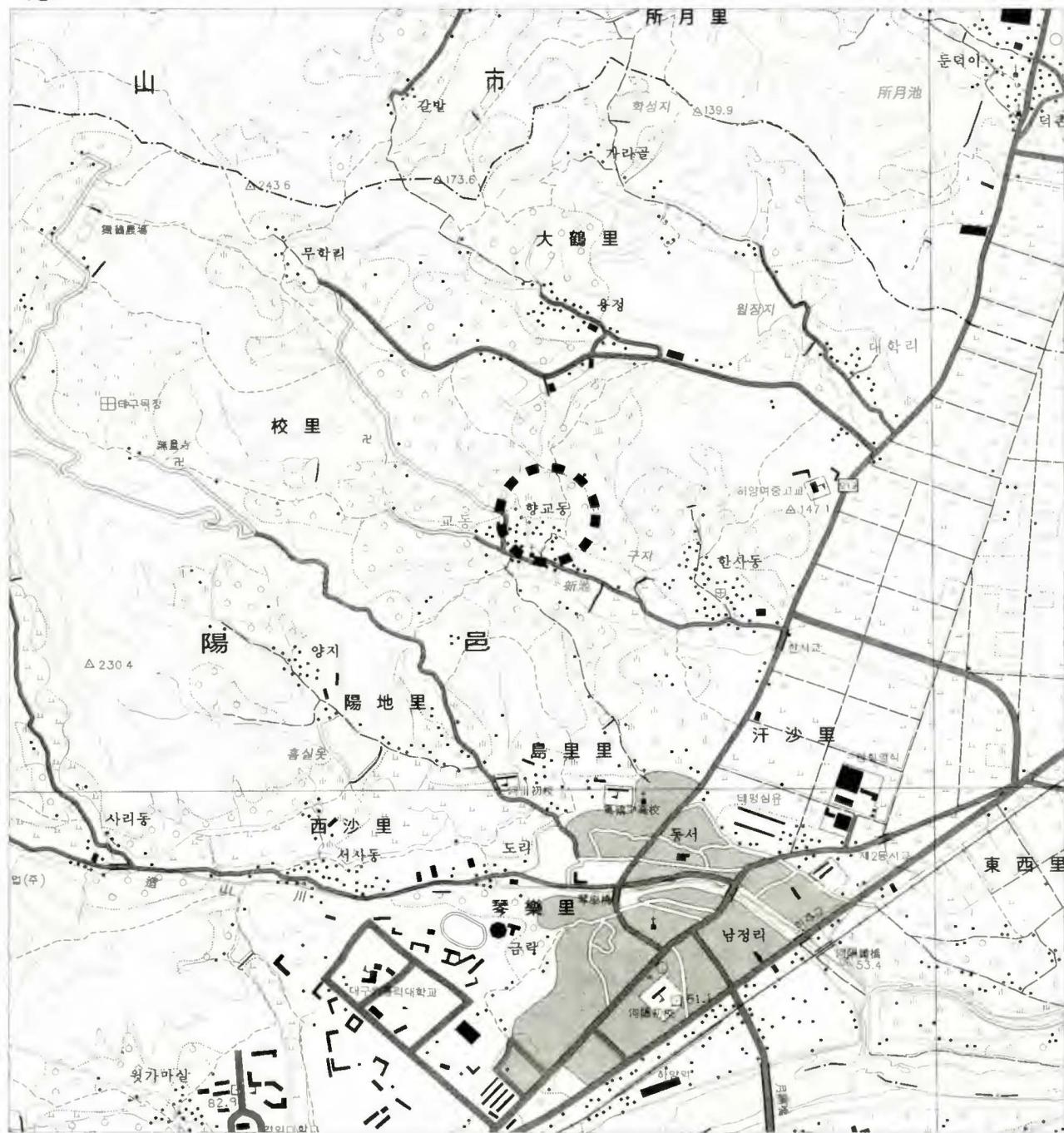


▲ 정신문 전면 주간 화반

5. 하양향교(河陽鄉校)

- 지정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7호(일곽)
- 지정일 : 1985년 8월 5일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158
- 건축구성 : 대성전, 전사청, 제기고,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외삼문, 교직사, 곳간채, 문간채, 화장실 등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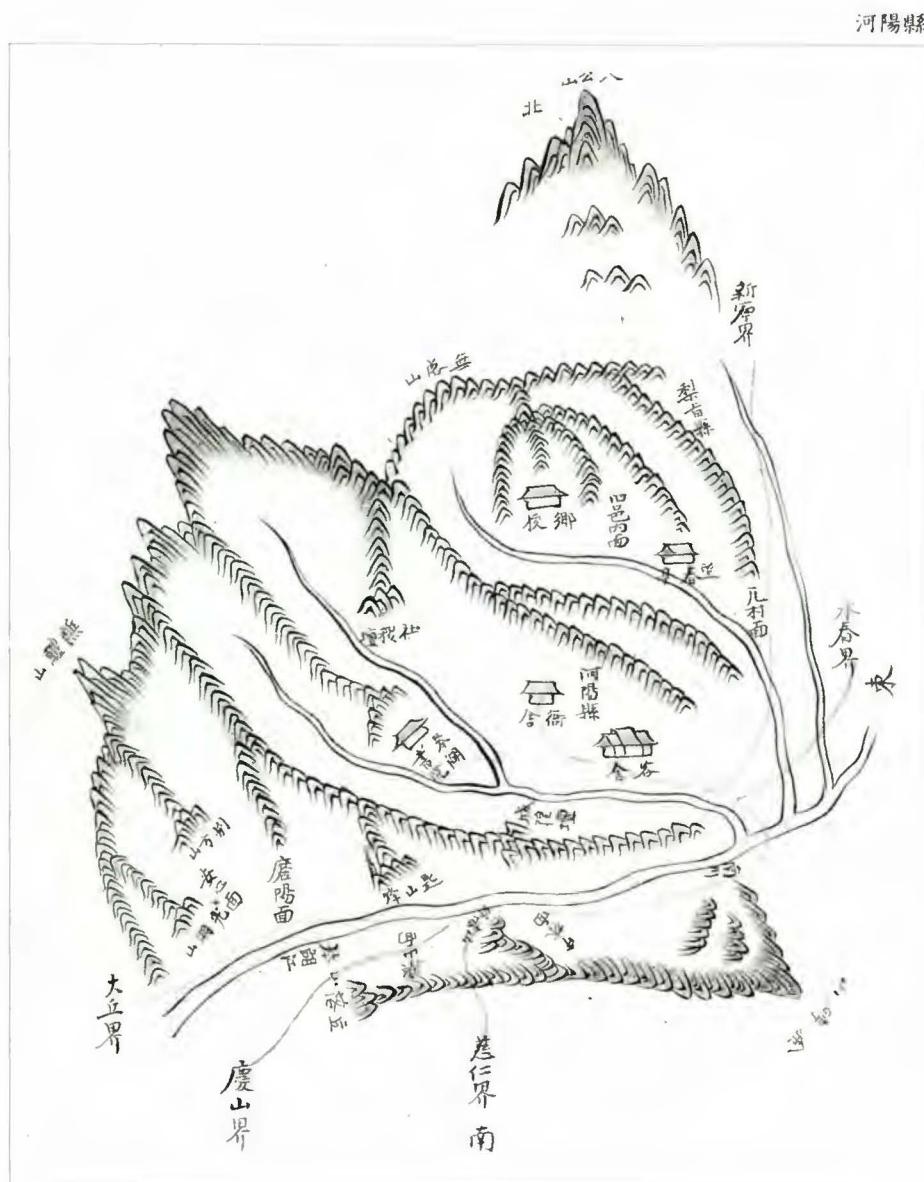


1. 연혁

하양은 15세기에 편찬된 『경상도자리지』에 의하면 삼국시대의 칭호는 가히 고증할 문헌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1933년에 편찬된 『화성지』에서 하양은 “본래 고구려의 하주였었는데, 신라가 이를 취하여 하양이라고 불렀고, 또는 하주, 화성이라 했다”고 한 것은 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양은 고려 성종 14년(995)에 화주지사로 나타난 것이 사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현종 9년(1018)의 전국적 군현개편에 즈음하여 이곳은 동경유수관인 경주의 속읍이 되었다가 고려후기에 감무(監務)가 파견되었다. 감무의 파견으로 인해 하양은 주읍인 경주로부터의 일방적 수탈을 피하고 향리 등의 토호로부터의 침탈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었을 것이다. 하양은 조선조에 들어와 현이 되었다가 선조 34년(1601)에 경산과 더불어 대구의 속읍으로 존재하다가 6년 뒤에 현으로 복귀하였다. 그 후 고종 32년(1895) 군으로 승격된 뒤 1914년에 경산군에 병합되었다.

이러한 연혁을 가진 하양에 언제 향교가 설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조에 현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었고, 또한 려말선초 이곳 출신의 신흥사대부중 한 사람이 선조 문물제도의 정비와 성리학의 보급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고려말 조선초쯤이면 향교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현의 서쪽 3리에 향교가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1977년에 만들어진 『하양향교지』에 의하면 1976년 대성전 중건을 위한 건물해체 때 구상량문에 万曆三十七年(선조 41년, 1608)戊申三月十五日營建上樑 한 기록이 발견되



고 있다. 이 시기는 바로 선조 34년 하양이 대구의 속읍이 되었다가 6년 뒤 다시 현으로 복귀한 이듬해에 해당한다. 이것은 아마도 임란으로 인해 하양향교가 완전 소실된 후 대구의 속읍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직후 향중 공론에 의해 대성전의 중건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의 현감은 신경우였고, 도감은 채선겸유사는 조합히 정기였다.

그후 광해군 14년(1612)에 명륜당을 상량 하였으며, 숙종 36년(1710)에는 대성전을 중창상량하였으며, 숙종 42년(1716)에는 '향교규범'을 정하였다. 정조 22년(1798)에 퇴락한 명륜당을 중수하였고, 순조 원년(1801)에 대성전을 수습하였다. 순조 7년(1807)에는 여홍형제가 동 105돈을 내놓아 향교 재복을 갖추었다. 이에 이들을 교생에 입속시키고 군역에 면제해주는 혜택에 관한 완의를 만들어 주었다. 순조 14년(1814)에는 주교를 중수하였다. 순조 19년(1819)에는 현령 김원녕이 돈전 450으로 수전 41경을 조치하여 학전이라 이름하고 양사재에 부쳤다. 순조 22년(1822) 유호전을 봉상하여 성묘와 양사재 등을 중수하였다.

현종 2년(1836)에 교중양고를, 동왕 8년(1842)에 동서재를 중수하였다. 철종 11년(1860)에는 교중을 중수하였고, 동왕 13년에는 송상봉이 의연금을 내어 명륜당을 중수하였고, 고종 26년(1889)에는 김기해가 500금을 의연하여 성전을 중수하였다. 동왕 34년(1897)에는 향교강학소를 중창하였고, 39년(1902)에는 교중과 기호당을, 다음해에는 다시 교궁을 중수하였다. 특히 1920년의 성묘중수 때에는 역정이 진량면, 하양면, 와촌면에서 각기 150명씩 동원되었다.

이상의 향교 중수에 관한 기록은 「하양향교지」에 발췌되어 실려잇는 중수기와 현재의 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1822년의 「성묘중수시기략」과 1920년의 「하양성묘중수시기략」 및 「성묘중수용구」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조선초	창건(추정)
임진왜란 중	소실(추정)
1608	대성전 중건
1612	명륜당 중건
1710	대성전 중창상량
1716	향교규범 제정
1798	명륜당 중수
1801	대성전 개와
1807	향교 재복 구비
1814	일곽 중수
1819	양사재 건립
1822	향교 일곽 중수
1842	동서재 중수
1860	향교 일부 중수
1862	명륜당 중수
1889	성전(聖殿) 중수

1897	향교 강학소 중창
1902	향교 일부 중수
1920	향교 일부 중수
1976	대성전 해체 보수

2. 입지 및 배치

전저후고(前低後高)의 다소 경사진 대지 위에 세웠는데, 외삼문,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을 약간 뛰인 그러나 동일한 축선(軸線) 위에 놓고, 명륜당 뒤에는 동·서재를, 대성전 전면에는 제기고와 전사청을 각각 배치시켰다. 하양향교의 배치에서 동·서재의 위치가 명륜당 뒤에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전라도지방에는 흔히 볼 수 있으나 경상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다.

경상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서재의 배치는 명륜당 앞이어야 하나 대지의 경사가 심할 경우 명륜당 뒤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향교에의 실질적인 출입은 명륜당 후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하양향교의 경우는 출입도 정면으로 하고 있고 경사도 완만한데도 불구하고 동·서재가 명륜당 뒤에 위치한 특이한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근년에 중수한 화강석기단 위에 초석을 놓았는데 초석의 형상은 원좌가 있는 방형 초석도 있고 탑재인 듯한 초석도 있다. 기둥은 전, 후면은 원주이고 측면은 각주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인데 평면은 어간이 1척 가량 넓으며 마루는 부판하였다.

화강암 판석으로 곧게 다듬은 단층 기단 전면에는 계단이 3개 놓여 있는데, 좌우 협간에 있는 것은 최근 기단을 조성하면서 만든 듯 하며, 어간에 있는 계단만을 다른 부재로 사용하였다. 가운데 계단의 세 번째 단은 전면에 별도의 문양이 있어 다른 석조물에서 가져온 것임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기단 위에는 원형과 방형의 곧게 다듬은 초석을 놓았는데, 측면 고주열에만 방형 단면의 기둥에 방형 초석을 사용하였다. 원형 단면의 기둥에는 약간의 민흘림을 두고 있으며, 기둥 상부에는 외 1출목의 이익공을 구성하였다. 출목첨차와 주심첨차의 단부 형상은 같으며, 초익공재의 외단은 양서, 이익공재의 외단은 짤막한 쇠서로 가공하였다. 보머리는 수장폭 만큼 감소되어 궁글려 초각하였으며 주간에 화반을 수장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창호는 전면에만 두었는데, 전면 각 칸 모두 궁판에 네 개씩 있는 두 짹 판문을 달아내었고, 맨 아래 궁판에는 2태극문양을 도채하였다.

가구는 어간에서 무고주, 좌우 측벽에서 2고주 5량가의 간결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3개의 별재로 구성된 판대공으로 그 위에 종보를 놓고 중앙에

종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으며, 종대공은 제형(梯形) 판대공으로 되어 있다. 좌우 측벽에서는 고주 머리에 고주 익공을 구성하고 종보를 받았다.

내부 바닥은 쪽마루로 되어 있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전후면 모두 겹쳐 바로 되어 있다.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2현 및 해동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2) 전사청(典祀廳)

전사청은 현재 대성전 정면 동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의 위치상 동무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전사청, 즉 제사를 준비하는 용도의 건물로 활용되고 있다. 자연식으로 2단을 쌓은 단층 기단 위에 거칠게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창호는 전면 어칸과 남측 협간에 각각 외짝 여닫이문을 달아내었다. 주상부는 민도리식으로 결구되었으며, 전후면 모두 홀처마로 처리하였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판대공을 두고 종도리를 받았다. 내부는 모두 온돌로 처리하였으며, 지반자로 마무리되었다.

(3) 제기고(祭器庫)

제기고는 현재 대성전 정면 서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위치로 보면 서무에 해당하나 현재는 제사에 필요한 제기(祭器)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전사청과 마찬가시로 간단한 단층기단 위에 자연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의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과 판벽이 혼합되어 사용되었으며, 창호는 전면 어칸 남측 기둥쪽으로 두 짹 판문을 달아내었다. 간략한 민도리식으로 결구되어 있으며 가구는 3량가로 짧막한 동자주를 대들보 중앙에 얹고 종도리를 받았다.

내부는 어칸과 북측 협간을 우물마루로, 남측 협간은 토방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모두 연등천장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최근 보수하면서 측면의 대들보만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재(新材)로 교체되었다.

(4)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성전과 동일한 시기에 기단 보수를 하여 화강암으로 잘 다듬은 단층 기단 전면에 두 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1개 두었다. 그 위에 자연식 초석을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다. 벽체 없이 각 칸 중앙렬에 두 짹 판문을 달았으며,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다른 지역 향교의 내삼문과 다른 점은 대개 협문이 내삼문과 약간 거리를 두고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서는 내삼문 좌우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얼핏 가운데 내삼문과 단일 건물처럼 보여 솟을삼문의 형식을 닮고 있다.

기단 전면에는 명륜당 후면에서 이어진 답도가 계단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모로단청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에 전퇴칸을 둔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막돌쌓기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주(圓柱)를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창호는 좌우 실과 당 후벽 등에 구성하였다. 특이한 점은 전면 퇴칸을 구성하면서 좌우를 트지 않고 판문을 달았다는 것과, 당 어칸의 창호가 좌우 협간 보다 높이가 높아 출입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당후재(前堂後齋), 즉 명륜당이 전면에 놓이고 동서재가 후면에 놓이는 배치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건축적 특색이다.

기둥머리에는 외1출목의 3익공의 공포를 구성하였다. 초익공에는 두 개의 앙서에 각각 연봉을 초각하였으며, 이익공 외단은 두 개의 쇠서로 장식되었으며 보머리는 봉황두로 장식되었다. 주간에는 화반을 수장하였으며, 정면 어칸 중앙에는 ‘明倫堂’ 현판을 달았다. 평면은 어칸 3칸은 통칸으로, 우물마루로 꾸미고 양측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中堂夾室)형인데 양측 온돌방의 전면에는 퇴칸을 두었다. 외진주는 직선재를 사용하였으나 내진주와 대들보는 자연곡재를 충분히 사용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양측 방의 뒤에는 문이 나 있고, 퇴를 달았는데, 이는 명륜당의 뒤편에 동·서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양측방에는 다락이 있는데 이 역시 특이한 구조이다. 다락을 두는 것은 성주향교 등 일부 경북 지역의 향교 명륜당 건축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가구는 어간에서 무고주 5량가이며 좌우 퇴칸에서 실을 구성하면서 고주를 사용하였으나 높이는 평주와 유사하여 단순한 중간고주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전후 평주 위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화반대공 위에 첨차와 주두를 결구한 복합된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 위에 종보를 놓고 종대공을 놓았다. 종대공은 판재 위에 두 개의 첨차가 상하로 맞대고 있는 형상으로 초각되었는데 중간에 놓인 첨차 형 부재의 양 단부에는 연봉을 초각하였다. 여기에 도리 방향으로 첨차가 결합된 매우 독특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 당은 우물마루로, 좌우 실은 온돌을 구성하였으며, 천장 역시 각각 연등천장과 지반자로 되어 있다. 내부에는 ‘當□十四年壬戌三月十八日申時立柱四月二十八日申時上樑’이라는 상량북서명이 남아 있다. 또한 명륜당 내부에는 다수의 기문이 계액되어 있다.

(2) 동재(東齋)

동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지 자체가 약간 경사져 있어 기단은 북측이 낮고 남측이 높게 되어 있다. 이러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의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창호는 남측 2칸 전면에 두 짹 띠살창을 꾸민 것을 비롯하여 북측 2칸의 후면에는 두 짹 판창을 달아 내었다.

동재는 북측에는 2통칸 우물마루를 꾸미고 우측에는 2칸의 온돌방을 두었는데, 기둥 상부의 구성 역시 마루 쪽은 익공형태로 처리하고, 방 쪽은 민도리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되어 있으며 종대공은 판대공을 사용하였다. 익공의 초각 형태로 보아 19세기 전후의 건물로 추정된다.

(3) 서재(西齋)

서재는 동재 맞은편에 동향하고 있으며,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일반적으로 동재와 서재의 평면은 동일한 형태 혹은 동일한 규모로 채택되는데, 여기서는 건물의 입면 구성과 내부 구성 등 규모만 같은 뿐 상이한 점이 많은 편이다.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의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창호는

전면 중앙 2칸과 남측 1칸에 두 짹 띠살문을 달았으며 후면은 중앙 2칸과 북측 1칸에 각각 두 짹 여닫이창을 달아 내었다.

민도리식으로 결구되었으며,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놓고 종도리를 받았다. 전후면 훌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마감되었으며, 내부는 모두 온돌로 되어 있고 천장은 지반자로 마감되었다. 당시 조사자의 의견에 따르면, 남동측 귀기둥과 남측면 보를 구재(舊材)로 파악하였으며, 이의 치복수법으로 보아 18세기 정도에 중건하고 근래에 중수한 건물로 추정된다.

(4) 외삼문(外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면에 5단으로 구성된 계단을 두고 야트막한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은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각 칸 모두 벽체를 구성하고 전면 기둥열에 각각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판대공을 두었다. 어칸 판문 상부에 세로로 띠살을 구성하였으며, 어칸 종도리 장혀 하단에 '龍 歲在庚申九月拾六日酉時立柱上樑 龜'라는 상량묵서명이 남아 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 교직사 일곽 건물 3동이 있다. 교직사 일곽은 각각 교직사, 곳간채 그리고 문간채로 구성된다. 교직사는 일반적인 살림집의 구조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곳간채는 교직사와 직각으로 동향하여 교직사 서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정면 2칸, 측면 1칸의 규모로 북측 1칸은 마루로 된 초가집이다. 문간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동측 1칸이 출입문으로 되어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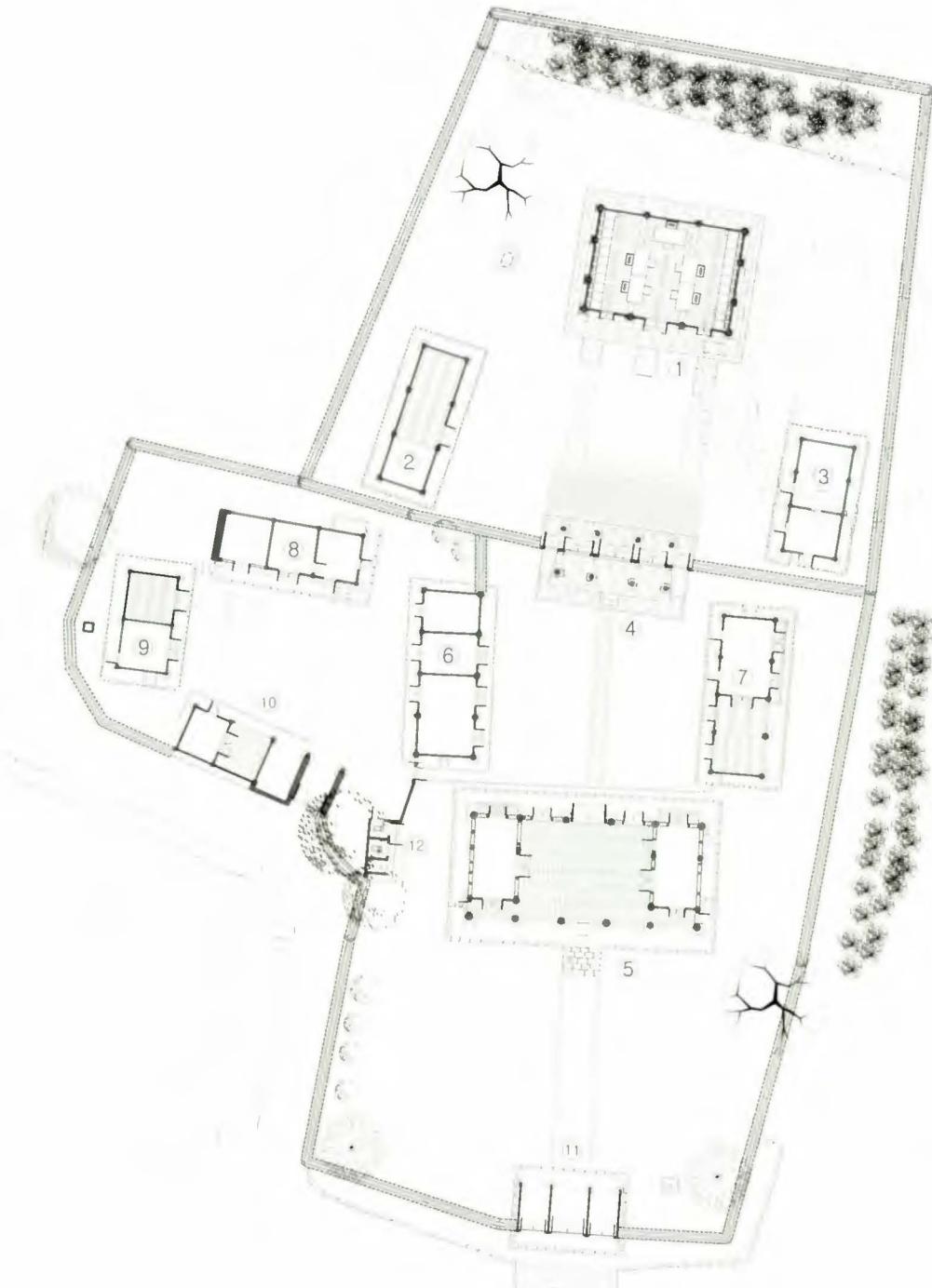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하양향교(河陽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7호(일과)	
창건시기	조선 초(추정)	입 지	구릉지, 전면에 낮은 야산	
소유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하양향교	
좌 향	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堂後齋 꺾인 축 1개	
중건시기	1608~1612년 중건	대지조성	3단 구성 / 내외삼문 기준	
설 위	5聖 / 宋朝 2賢 /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외삼문 / 전사청 / 제기고 / 교직사 / 곳간채 / 문간채 등			
특기사항	동일 축이나 약간 꺾인 축을 형성하고 있음 동서무 대신 전사청과 제기고를 동서무 위치에 놓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3칸 / 외1출목 이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측벽 2고주) / 쪽마루 / 연등천장 주고 2807 / 주칸 2850 / 수장폭 90 / 주심처마길이 1900 / 기단높이 1000 / 초석크기 530×48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전면 장대석, 측면 사고석 전면 3개(각 4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원형+방형 2단 주좌 있음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둉	원형, 방형 기둥 / Ø=280, 265×265	대 공	중대공 : 판대공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외1출목 2익공 / 주간 화반 수장	창 방	말각방형 / 뺨목 익공형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봉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쪽마루 / 연등천장		
특기사항	내부 마루는 쪽마루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됨 전면 어칸에 놓인 계단은 원래의 계단재로 다른 석구조물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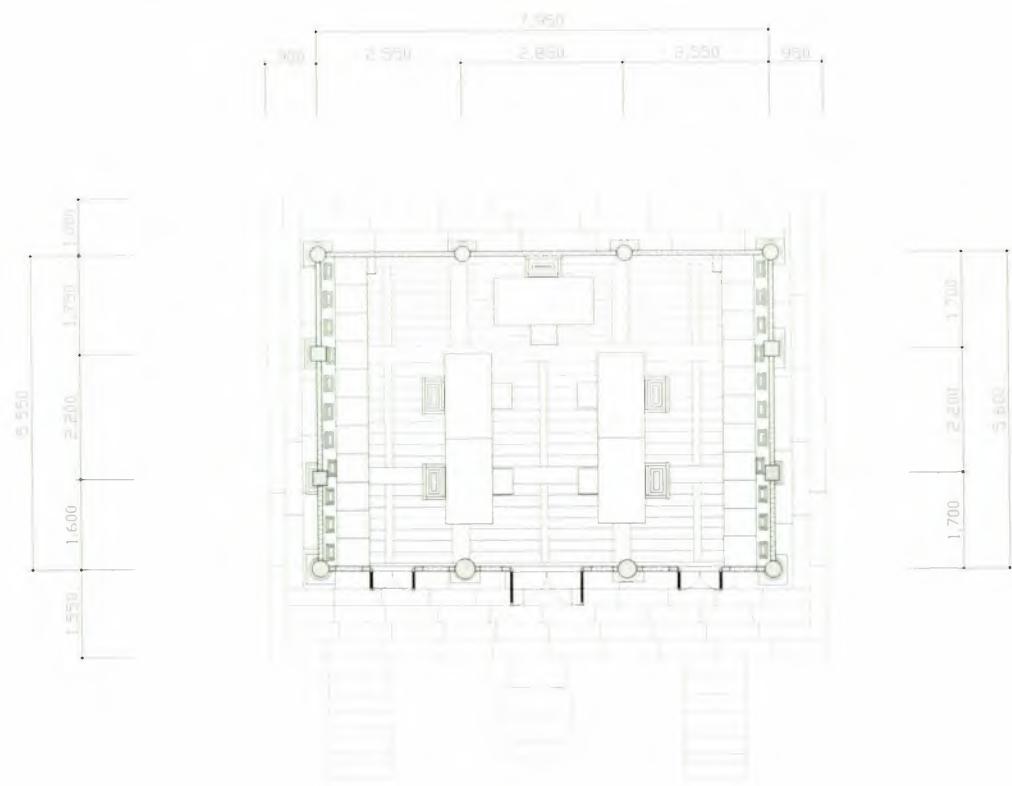
개 요	5×3칸 / 외1출목 이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주고 2950 / 주칸 2450 / 수장폭 100 / 주심처마길이 1700 / 기단높이 800 / 초석크기 약 800×800 전후		
기 단 계 단	단층기단 / 전면 삼벌대 / 평축쌓기 1개(4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둉	원형기둥 / 민흘림 약간 Ø=400 전후	대 공	중대공 : 판대공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외1출목 2익공 / 주간 화반 수장	창 방	말각방형 / 직절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봉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가칠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특기사항	보와 기둥 등에 자연 만곡재를 사용하였음 중대공과 종대공의 구성에서 다른 향교에서 찾기 어려운 초각 부재를 결합하여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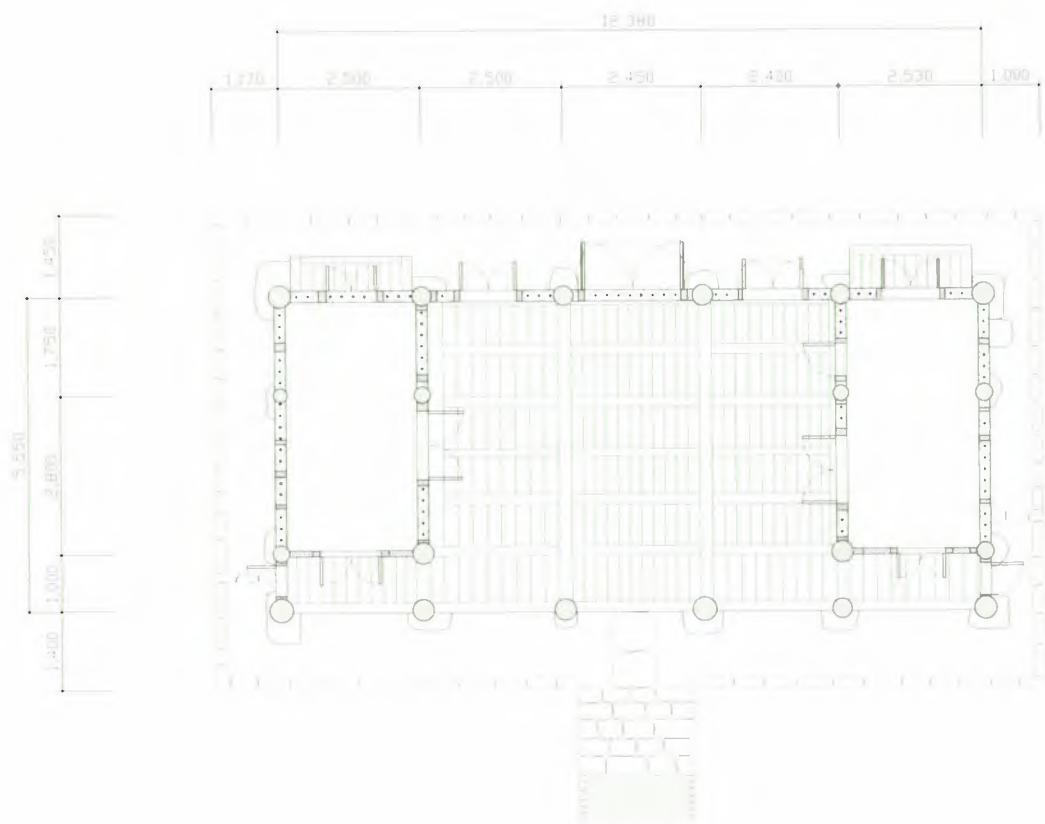
- 1 대성전
- 2 제기고
- 3 전사청
- 4 내삼문
- 5 명륜당
- 6 서 재
- 7 동 재
- 8 교직사
- 9 곳 간
- 10 문간채
- 11 외삼문
- 12 변 소

하양향교 배치도





하양향교 대성전



하양향교 명륜당

0 0.5 1.0 2.0 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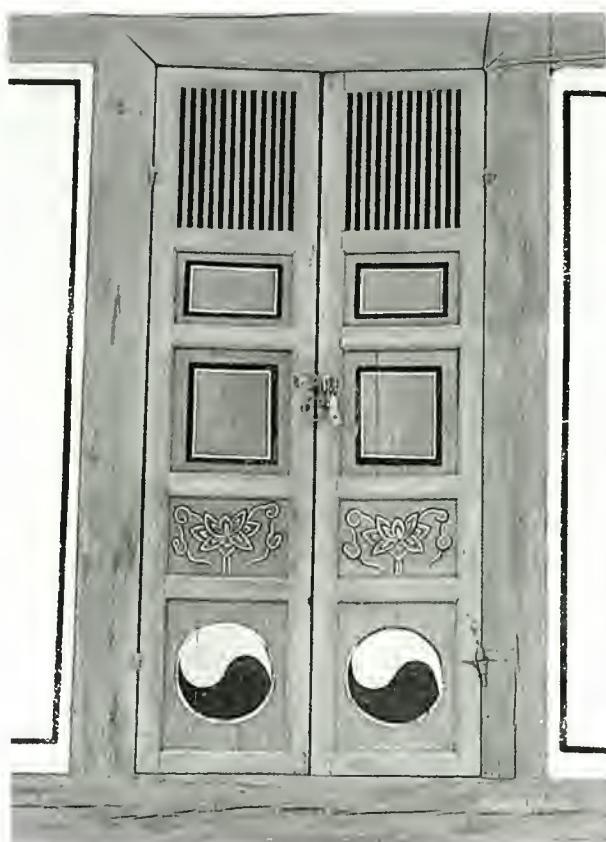
대성전



대성전 내부



▲ 대성전 전면 공포대



▲ 대성전 전면 창호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전면 중앙 계단



▲ 대성전 내부 가구



대성전 내부 중대공 및 대량 결구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 명륜당 전면 공포대



명륜당 전면 평주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고주



명륜당 내부 종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전사청



제기고



◀ 교직사



◀ 곳간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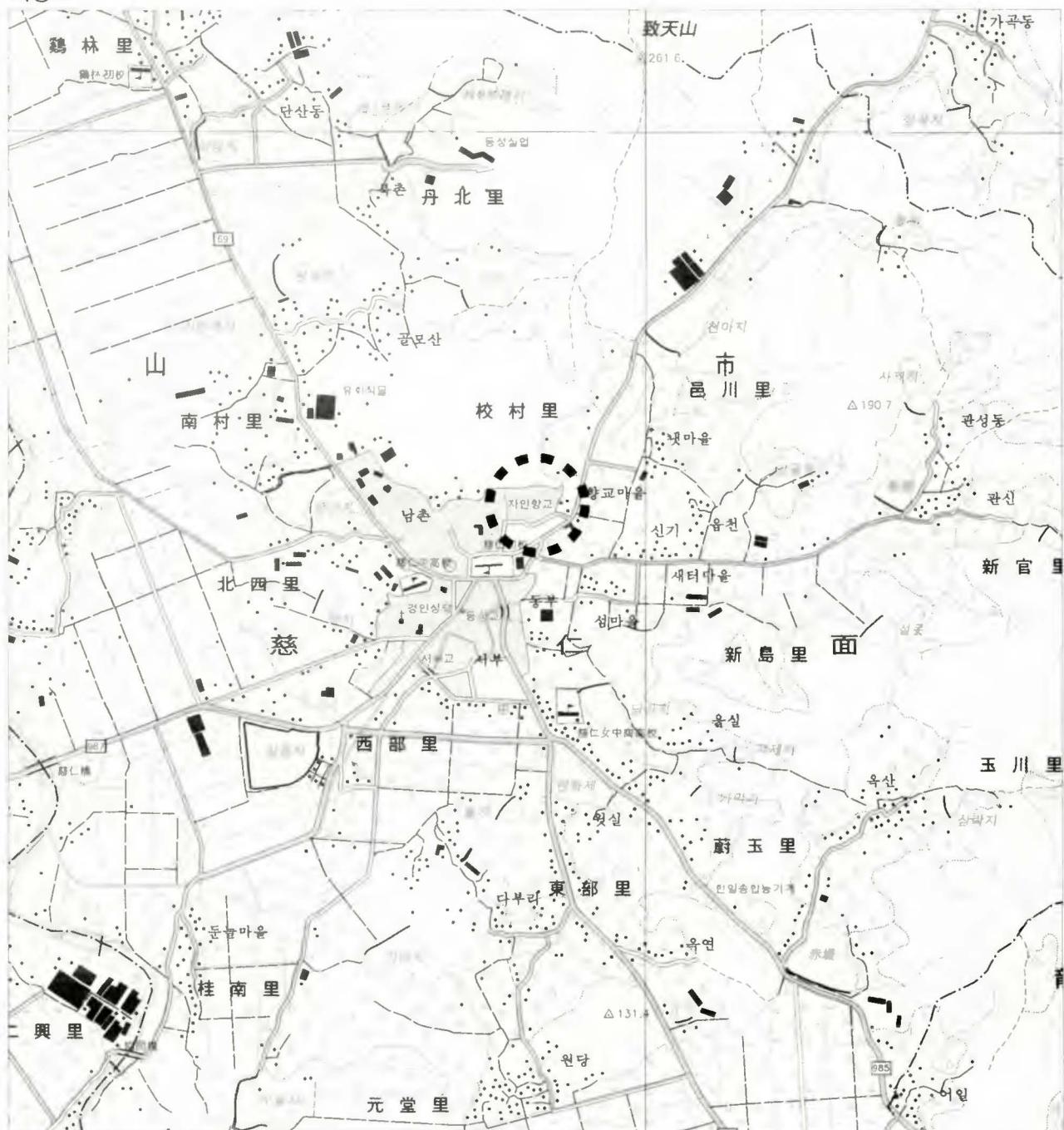


◀ 문간채

6. 자인향교(慈仁鄉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6호(일곽)
- 지정일 : 1985년 8월 5일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230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모성루, 제기고, 교직사 2동, 화장실 2동 등

지형도



1. 연혁

자인향교의 창건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현존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향교의 역사는 그 고을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자인의 연혁을 통해 그 대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인현은 본래 노사화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자인으로 고쳐 장산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9년에 전국적 군현개편에 즈음하여 자인현은 둉경유수관인 경주의 속읍이 되었다. 구려시대이래 경주의 속읍으로서 가혹한 수탈의 대상이 된 자인은 조선 인조때에 이르러 복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인조 11년(1633) 백련이 홀로 월문 앞에서 복현을 주청하였고, 이어 이광후, 김응명 등이 읍민 삽백여명과 함께 상경하여 복현을 진정함에 미쳐 비로소 현감을 두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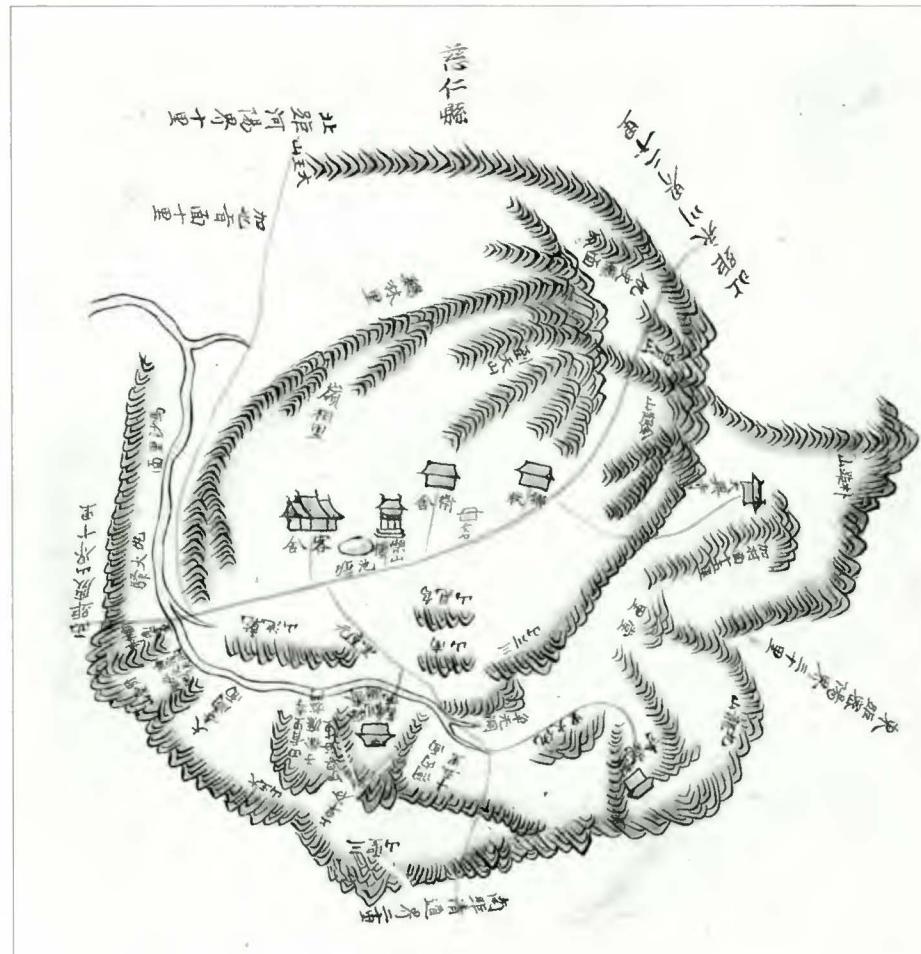
그후 고종 32년(1895)에 군으로 승격되었다가 1914년에 경산군에 병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혁을 가진 자인은 명종 17년(1562)에 자인의 주읍인 경주의 부윤 이정에 의해 향교가 건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때 고려조 유기에 건립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첫 향교의 건립이 이미 고려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 조선조에 들어와서 일읍일교의 원칙에 의거해 성종조 무렵에 오면 주읍은 거의 향교가 설립된 반면 속읍이었던 이곳에 고려조부터 향교가 건립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자인향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이 당시까지 일읍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지 못한 자인에 향교가

仁縣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대때 만들 어진 『경산군지』(상편)에서나 1973년 자인향교 명륜당에서 발간한 『자인향교안』에서는 고려 공민왕 때 문묘를 처음 건립하고 명륜당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쨌던 명종조에 건립된 향교는 임진왜란대 병화로 인해 불타버렸고, 인조 15년(1637)에 자인에 현이 설치되어 현감이 파견된 뒤 현종 13년(1672)에 와서야 현인 이충복 등이 중건을 소청함으로써 비로소 숙종 1년(1675)에 도천산



아래에 이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인의 일읍으로서의 행세가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가능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자인향교의 홍학활동의 본격적 시작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후 영조 4년(1728)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이때 문루의 홍학기문은 조선식이 찬한 것이라고 안다. 바로 이때의 향교가 『영남읍지』, 『자인읍지』 학교조에 현의 동쪽 1리에 있다고 한 그것으로서 경산군 자인현 교촌리 230번지에 해당한다.

현재의 자인향교에는 1813년에서부터 『향교사적』이 남아 전한다. 이에 의하면 우선 1813년에는 교생 이만기 등의 예전으로 제복과 향로를 다시 갖추었으며, 1814년에는 신교생 문광억, 김종철 2명으로부터 받은 예전 15면 중 5면으로 전내의 의자를 갖추고 나머지는 교채의 상환에 충당하였다. 1816년에는 신교생 윤□록, 김성준 등의 예전 25량으로 가을의 할량현의 자로 삼았다. 1819년에는 성전, 1821년에는 문루, 1832년에는 명륜당의 보수를 하였다. 1834년에는 명륜당 정로를 신설하였다. 1836년에는 성전기와를 보수하고, 전내포진석을 다시 갖추었으며, 유루답 사두오도락과 전 오두락 학위전답도록을 다시 갖추었다.

오횡묵의 『자인총쇄록』 1888년(고종25년) 11월 23일의 기록 속에 박치준의 「교궁증수제판문」과 김장호의 「향교문루기」, 이한정의 「향교증수문」이 실려 있다. 거기에 의하면 장임 김우곤이 동 150량을 내놓아 향교의 증수가 이루어졌고, 동재는 율호 중에서 획축하고, 또 신입교생 배석조·학조·익조·윤조·명선 등이 부족분을 담당하였다고 하였다.

그 이후의 자인향교의 증수에 관해서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경산군지』(상편)에 고종 37년(1900)의 성전 증수기록 이후의 것이 실려있다. 고종 37년의 성전증수에 관하여는 동 읍지에 현감 이민성의 찬기가 실려 있다. 이에 의하면 그가 고종 20년(1833) 교장 최기일의 견의를 받아들여 주맹자로서 향내 석망인 박기조, 전석신, 박진현, 배봉조 등을 내세워 추진한 결과 17년만에 일을 마쳤던 것이다.

이때의 도약장은 이춘영, 도유사는 최기일, 장의는 최두선, 김재규였고 색리는 문장복, 최진학이었다. 그후 1914년 경산군에 병합된 뒤 1922년에 교궁을 증수하였는데, 이때의 교장은 김홍배, 장의는 이규근, 최치상, 이규상이었다. 1924년에 명륜당을 증수하였을 때의 직원은 최치상, 장의는 김병하, 혀영구, 김홍렬, 감역, 이종래, 최일량, 김용필, 이규상이었다. 그리고 1926년에 대성전을 증수하였을 때의 직원은 김병하, 장의는 배종표, 혀영구, 김홍렬, 감역, 김기채, 최병희, 장재주였으며, 벽진 이대일의 찬기가 앞의 군지에 실려있다.

향교의 2대 경제기반은 학위전 및 교전을 위시한 토지와 노비라고 할 수 있다. 『속대전』에 의하면 주부향교는 7결, 군현향교는 5결의 학전이 지급되었다고 하였다. 『영남읍지』(1895)「자인현읍지」 읍사례에 “학위 5결 (면세)”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인현에 5결의 학위전이 속대전의 규정대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전 지급은 실제 토지를 향교에 준 것이 아니라 수조권 만을 준 것이었다.

자인향교에는 수조권이 주어진 학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확보한 소유권을 토지가 상당수 있었다. 현존 자료중에 『제미십일월교생납답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광춘, 박사중, 최성우, 최계룡, 김유□, 원만옥, 천광수 등 7명의 교생이 납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구체적 연대를 추적할 수 없고, 또한 토지면적을 밝혀 놓지 않고 있다. 한편 『신미팔월일 향교전여책』에 ‘위전답등록책’ 2, ‘원납완문’ 12장, ‘박검필·선영걸·송두걸·배수장 납답명문’ 4장, ‘황자전

환추하첩' 1장, '원납완문' 1장, '납곡면강완문' 1장, '신납답질 박원급 · 이세호 · 박처혁 · (결락) · (결락) 명문' 5장, '신구납답안' 2, '□□원납안' 1, '전임보득진곡서복' 1장, '노연희전납추집차서복' 1장 등이 기록된 것에서 자인향교에서의 원납교생에 의한 교전답의 확보, 면강첩의 발행에 의한 향교재정의 확보 들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병인년 교생명단에는 실제로 전내집사 배문갑은 '납답' 하였고, 액내 김광육 · 박달용은 '원내' 하였다고 부기되어 있다. 특히 향교의 보수나 유지는 위세있는 양반의 수가 적은 상황하에서 이들 교생들의 힘에 의존함이 컸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향교사적』에서 1813년에는 교생 이만기 등의례전으로 재복과 향로를 다시 갖추고 나머지는 교채의 상환에 사용하였던 것이나, 1814년에는 신교생 문광덕, 김종철 2명으로부터 받은례금 1만 중 6만은 성전 담장 및 기와 보수에 쓰고 나머지는 교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한 것, 1815년 3월에는 신교생 김도운으로부터 받은례금 12만 중 5만으로 전내의 의자를 새로 갖추고 나머지는 교채의 상환에 충당하였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공민왕	창건(추정)
1562	향교 일곽 중건
임진왜란 중	소실
1614	대성전 중건(추정)
1675	향교 일곽 이건 및 증간
1723	대성전 보수
1728	현 위치로 이건
1813	제복 및 향로 마련
1814	전내 의자 마련 및 교채 상환, 대성전 담 보수
1815	명륜당 번화, 동재 수습
1819	대성전 보수
1821	문루 보수
1832	명륜당 보수
1834	명륜당 앞 정로 신설
1836	대성전 기와 보수
1888	향교 일곽 중수
1900	대성전 중수
1922	향교 일곽 중수
1924	명륜당 중수
1926	대성전 중수

2. 입지 및 배치

향교는 얕은 구릉지에 약간 남서쪽을 향하여 길게 남북으로 자리잡고 있다. 골목 어귀를 들어서서 향교 전면에 위치한 작은 마당에 들어서는 초입 좌측으로 하마비가 자리잡고 있으며, 향교 주변은 현재 민가들이 둘러싸고 있다.

향교 내 건물의 배치는 이층 누각인 모성루를 들어서면 먼저 강학 영역이 자리잡고 있다. 명륜당이 중앙에 자리잡고 있고 명륜당의 전면에는 동, 서재가 자리한 전재후당(前齋後堂)의 배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명륜당 뒤에는 내삼문이 있으며 내삼문을 들어서면 제향 영역이 자리잡고 있다. 영역 중앙에 대성전이 있으며 동서무는 현재 없고, 다만 서무 자리에 제기고가 건립되어 있다. 이외에 명륜당 동북편으로 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교직사 영역이 자리잡고 있다. 향교 전면에서 오른쪽 골목을 통하여 바로 교직사 영역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고 3칸 규모의 건물 2동이 직교하여 자리잡고 있다.

전체적인 배치는 모성루,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 동일축선 상에 놓이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 전면에 야트막한 장대석 기단을 만들었으나 이는 이중기단의 형식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계단은 좌우 측면에 각각 1개씩 4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은 자연석을 쌓아 조성하였는데 정면은 강회다짐하였으며, 이 위에 자연석 주초 놓고 원주(圓柱)를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창호는 전면에만 두었다. 전면 각 칸 모두 두 짹 띠살문을 달았다. 어간은 양측간보다 다소 넓으며 전면 어칸 상부에 '大成殿' 현판을 달았다.

기둥 상부에는 외1출목의 2익공 공포를 구성하였다. 기둥 머리에 사괘를 트고 창방과 초익공을 결구한 다음, 주두를 얹고 이익공과 주심첨차를 결구하였다. 첨차는 출목 첨차만 양단부를 초각하고 주심첨차는 직절하였다. 쇠서의 형태는 예리하게 바깥으로 뻗어나왔으며, 내단은 일체형으로 초각하였다. 모든 귀기둥에는 까치발 형태의 활주(活柱)를 세웠는데 활주의 상부는 외목도리의 장혀를 받고 있으며 초석은 귀기둥 초석에 인접하여 별도의 초석을 두었다. 이러한 구조기법 역시 경북지역 향교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기법이다.

가구는 어간에서 무고주, 측벽에서 2고주 5량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과 4분변작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짤막한 동자주를 얹고 그 위에 고주 익공과 주두를 놓아 종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에는 어간의 경우 화반대공, 측벽의 경우는 제형 판대공을 두어 중도리를 받고 있다. 처마는 전후면 모두 겹처마이며 암수 막새기와로 마무리 하였다. 좌우 측면에는 방풍판을 달았는데, 박공널에는 게눈을 새겼으며 도리빨목의 단부가 방풍판 면에 돌출되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내부 바닥은 시멘 몰탈로 마감하였으며, 천상은 연등천상으로 되어 있다. 전면 창호 궁판에 2태극 문양을 도

채한 것을 비롯하여 모로 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2현, 그리고 해동 18현의 위패를 모셨다.

대성전 전면에는 개와(蓋瓦)하면서 교체한 구와(舊瓦)를 쌓아둔 무더기가 있는데 그 중에 '擁正 癸卯(옹정 계묘)' 명문이 있는 암막새가 있으며, 조성 시기는 1723년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성전 암막새에 '萬曆四十二年 造'라는 명문이 있는데 이는 원래 기와가 아닌 모본(模本)으로 1614년에 한 차례 기와보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사자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의 건물은 18세기에 중건하여 20세기 초에 한 차례 수리한 건물로 보인다.

(2) 내삼문(內三門)

대성전으로 통하는 신문(神門)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화강암 장대석으로 새로 만든 계단이 자리잡고 있으며, 건물 자체는 야트막한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워 구성하였다. 벽체는 좌우 측벽에만 회사벽을 꾸몄고, 중앙에 문설주를 세워 각 칸 모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기둥 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창방과 초익공을 결구한 다음 주두를 놓고 그 위에 장혀와 보머리를 얹어 주심도리를 받았다. 익공재의 외단은 밖으로 길게 내어 뻗었으며, 내부 가구는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판대공을 놓은 간략한 3량가로 되어 있다. 처마는 전후면 모두 겹처마로 처리하였으며, 내부는 연등천장에 바닥은 시멘몰탈로 마감하였다. 판문 전면에 좌우 협간은 3태극 문양을, 어간에는 독특한 문양을 꾸며 넣었고, 모로 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내삼문 동편 담 앞에는 자연석으로된 계단 1기가 남아 있어 예전에 출입문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들보 측면 등 일부 부재에는 장부 구멍 등 다른 건물에 사용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3) 제기고(祭器庫)

대성전 전면 서편에 자리잡고 있는 건물로 제사에 사용하는 제기(祭器) 등을 보관하고 있다. 건물은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벽돌을 쌓고 시멘 몰탈로 마감한 조적식 건물로 내부는 통간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장마루로 되어 있다.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놓고 맞배지붕을 구성하였다. 기와는 시멘트 기와를 얹었으며, 내부에는 '孔紀二千五百十六年丁未三月十七日午時上樑'이라는 명문이 남아 있다. 그러나 공기 2516년은 서기 1965년이며 정미년은 1967년이므로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 자체는 콘크리트로 만든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기둥에는 하부를 16각으로 다듬고 상부는 원형으로 처리하는 독특한 수법이 적용되었다. 기단 전면 등은 모두 시멘트 몰탈로 마감되었으며 정면 중앙에 7단으로 이루어진 계단 1개를 놓았다. 기단의 형상은 평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면 좌우 퇴칸 부분이 약간 좌우로 돌출하여 '凸' 모양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당 후벽만 판벽을 꾸몄다. 창호는 전면 모두 네 짹 미닫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형이 아닌 듯 하다. 당 후벽에는 두 짹 당판문을 각 칸마다 달았으며, 좌우 실 전면에는 외짝 띠

살문을 달았다. 기둥 머리에는 2익공의 공포를 구성하였는데, 사괘를 트고 창방과 초익공을 결구한 다음 주두를 놓고 이익공과 주심첨차를 결구하였다. 익공재 외단은 쇠서로 투각하였고, 보머리는 수장폭 만큼 감소하여 초각하였으며, 주간에 화반을 수장하였다.

가구는 어간에서 무고주 5량가로 되어 있으며,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포대공으로, 투각한 판재와 동자주 익공, 그리고 도리방향 첨차가 결구되어 이루어졌으며, 그 위에 종보를 얹고 중앙에 파련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좌우 측벽에서는 퇴칸을 꾸미기 위해 고주를 두었으나 높이는 평주와 같고 측면 중앙에서 다시 평주를 세우고 맞보를 받았다. 대들보 좌우 측면에는 기문을 걸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내부 평면은 어간 3칸을 통칸 우물마루로 꾸미고 양측칸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中堂夾室)형으로 당은 연등천장, 실은 지반자로 마무리하였다.

이 건물에서 특이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측면에도 익공쇠서가 붙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활주이다. 활주는 자연곡재를 사용하였으며 하부는 기둥에 붙이고 초석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아, 언뜻 보아서는 까치발과 구분이 되지 않으나 기둥의 초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별도의 초석이 필요치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어 활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2) 동재(東齋)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남측 1칸 남측벽만 판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둥 위는 외단을 직절한 익공새와 장혀를 놓고 바로 도리를 놓은 민도리 식으로 결구되어 있으며, 내구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도리를 받았다. 어간과 북측 1칸은 내부 통칸으로 실(室)로 되어 있고 남측 1칸만 우물마루를 구성하였다. 실은 지반자와 온돌로, 마루는 우물마루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처마는 훌치바로 되어 있고, 석간주 가칠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3) 서재(西齋)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동재와 평면은 같으나 마루의 위치가 북측으로 되어 있어 동재와는 반대로 되어 있다. 이외의 건물의 형식과 내용은 동재와 유사하며, 기단 남측 상면에 작은 굴뚝을 두었다.

(4) 모성루(慕聖樓)

모성루는 향교의 전면에 위치하여 하부에 외삼문의 기능을 담고 있는 누각 건물이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중층 팔작지붕으로, 상층 정면 어간 상부에 ‘慕聖樓’ 현판이 걸려 있다.

기단은 전면에서 이중 기단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앙에 기단 일부를 파내어 형성한 기단이 1개 있고 기단 상면은 강회다짐하였다. 그 위에 평평하고 넓은 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웠는데 기둥은 이층주로 하부의 기둥이 상부의 것보다 굵은 부재를 사용하였다. 하층은 향교로 출입하는 주 출입문으로 사용되는데 각 칸 중앙에 쌍여닫이 판문을 설치하였다. 이층은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주위에는 계자각 난간을 둘렀다.

기둥 상부에는 2익공의 공포를 구성하였는데, 기둥 머리에 사괘를 트고 창방과 초익공을 결구한 다음 주두를 놓고 이익공과 주심첨차를 결구하였다. 익공재의 외단은 쇠서형으로 초익공 쇠서 하단에 간략한 연봉을 초각하였다. 주심첨차는 교두형이나 귀포에서는 화각첨차의 형태를 갖고 있다. 보머리를 윗부분을 사절한 다음 직절

한 이분두로, 외단에 초각한 부재를 끼워 놓았으며, 주간에 화반을 수장하였다.

내구 가구는 5량가로 전후면 기둥 위에 대들보를 걸고 삼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동자주에 간략한 동자주 익공이 결합된 형태로 중도리와 종보를 받았다. 좌우 협간 대들보 중앙에는 퇴량 뒷뿌리를 걸쳤는데 직절하였다. 지붕은 사면 모두 겹처마로 처리하고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내부 천장은 어칸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고, 좌우 협간은 합각부에 반자를 구성하였다. 판문 정면에 각각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고 창방 이상 모로 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모성루에서 특이한 점은 명륜당, 대성전과 마찬가지로 활주를 세웠으며, 별도의 초석 없이 귀기둥 초석에 받쳤다는 것이다.

다. 기타

이외에 교직사 및 화장실 등이 있다. 교직사 영역은 남향하고 있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과 동향하고 있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 등 2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동향하고 있는 교직사 건물의 남측면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은 두 개가 있는데, 단층 기단 위에 세운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모성루 안쪽 서편에 자리잡고 있는 것과 교직사 영역 동편에 외부 담과 맞댄 사방 단 칸 규모의 것이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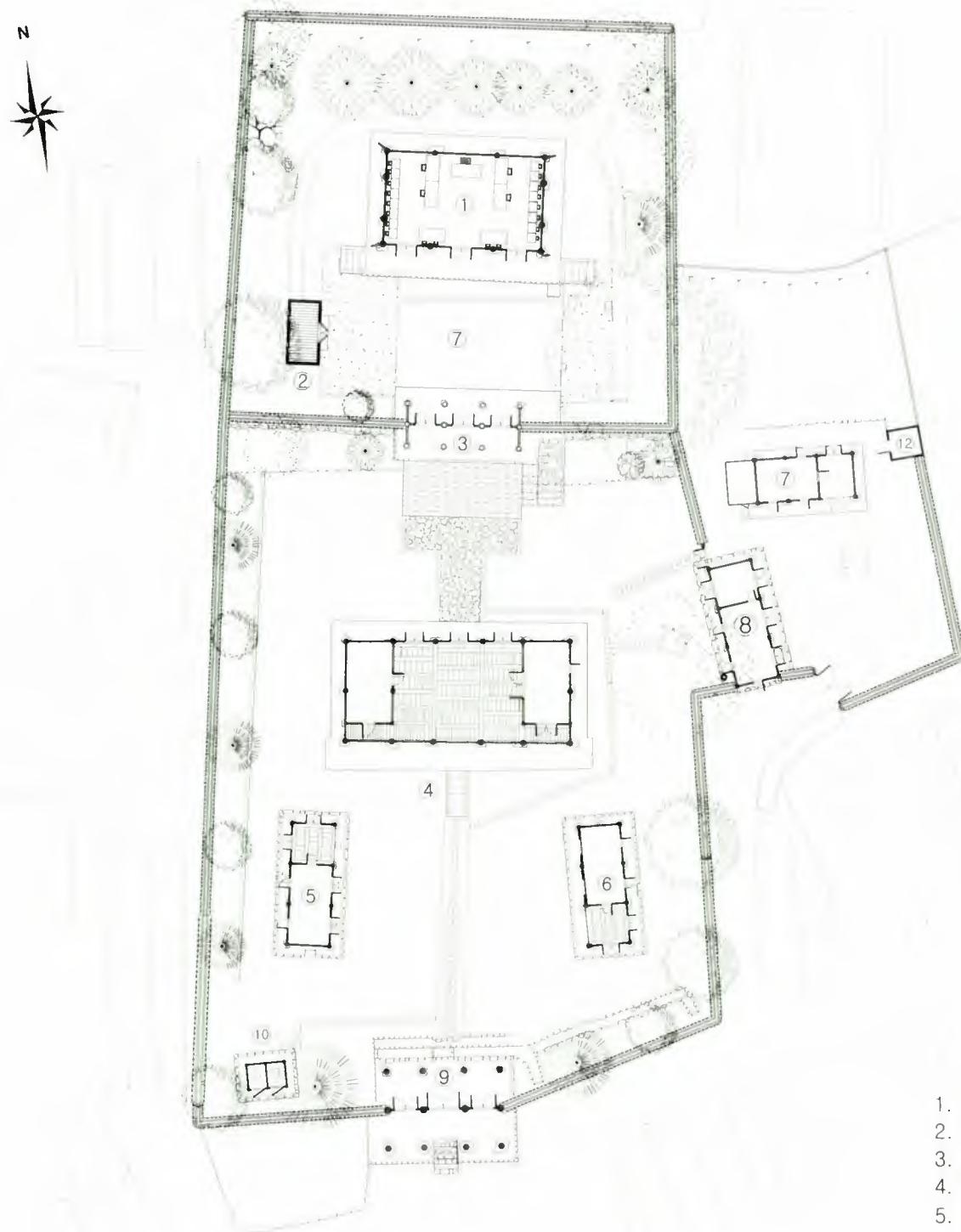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자인향교(慈仁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6호(일곽)	
창건시기	고려 공민왕 대(주정)	입 지	구릉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 리 자	자인향교	
좌 향	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종축 1개	
중건시기	1562년 일곽 중건 1675년 이건 1728년 이건	대지조성	없음	
설 위	5聖 / 宋朝 2賢 / 海東 18賢	인접시설	관동서원 임천사	
건축구성	대성전 / 제기고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모성루 / 교직사 2동 / 화장실 2동			
특기사항	동서무가 없는 작은 향교로 마을 중앙에 자리잡고 있음 원래 서재가 없었으나 근래에 다시 복원하였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3칸 / 외1출목 이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측벽 2고주) / 시멘 롤탈 / 연등천장 주고 2410 / 주칸 3700 / 수장폭 108 / 도리단면 Ø=270 / 보단면 280×370 주심처마길이 2392 / 기단높이 925 / 초석크기 약 730×800 전후		
기 단	단층기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 단	좌우측면 각 1개(각 4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귀초석 위에 활주초석 놓음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등	원형기둥 / 평균 Ø=350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 포	외1출목 2익공	창 방	말각방형 / 뺨목 조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봉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시멘롤탈 / 연등천장		
특기사항	건물의 부재 및 조각 수법으로 보아 18세기에 중건하여 20세기 초에 수리한 것으로 추정됨 좌우에 뺀목을 받는 활주를 두었음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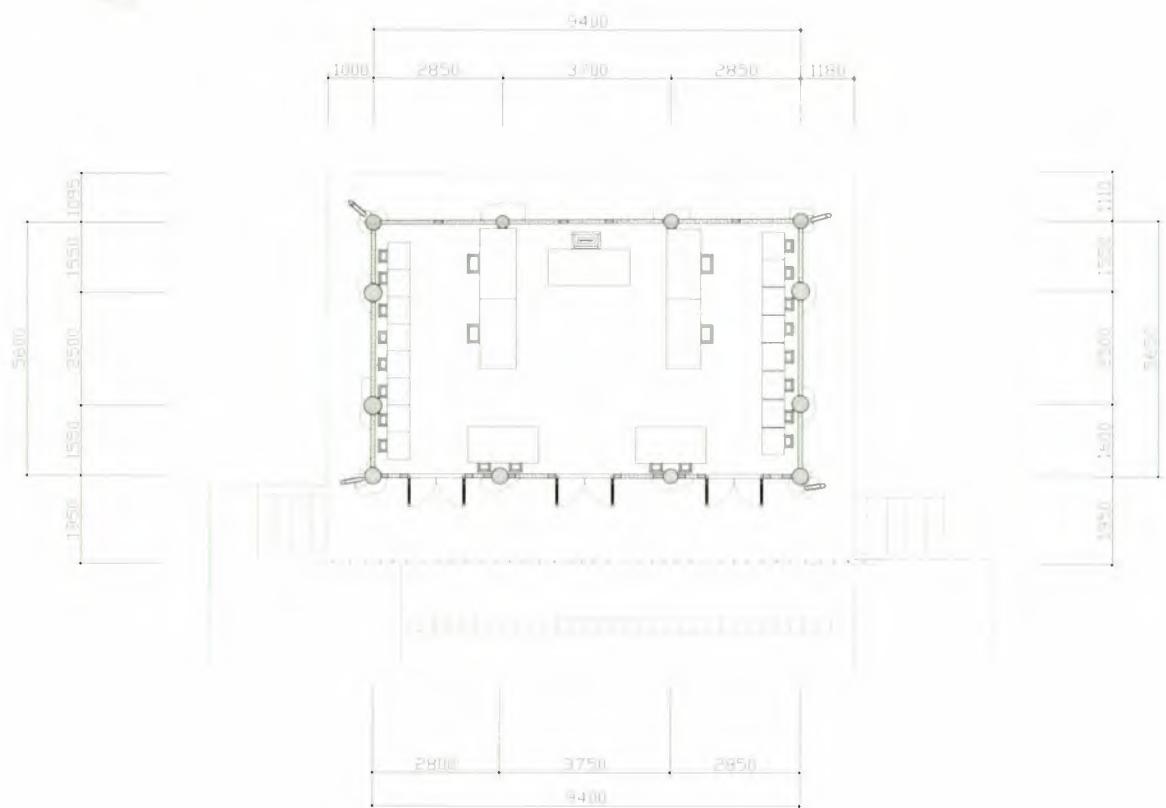
개 요	5×3칸 / 이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무고주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주고 2660 / 주칸 2860 / 수장폭 100 / 도리단면 Ø=185 / 보단면 250×330 주심처마길이 1800 / 기단높이 1200 / 초석크기 약 800×1000 전후		
기 단	단층기단 / 시멘 롤탈 마감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 단	1개(정면 중앙, 7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등	하부 16각, 상부 원형 기둥 / 민흘림 Ø=365 전후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 포	이익공(투각) / 주간 화반	창 방	말각방형 / 뺀목 직절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봉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가칠+모로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특기사항	익공의 초기 매우 유례하며 투각되어 있어 특이함 수리가 잦아 원형이 아닌 부분이 많이 섞여 건물 연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측면 도리 뺀목을 받치는 활주는 대성전과 유사한 형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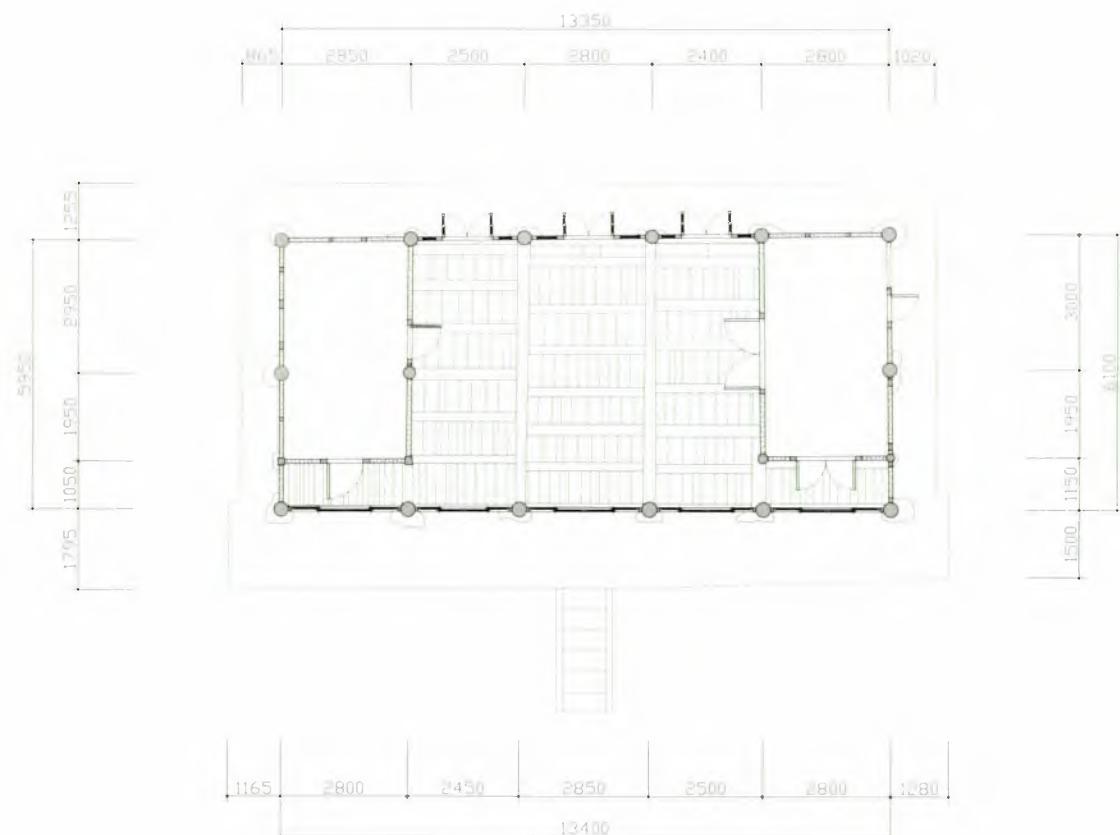
1. 대성전
2. 제기고
3. 내삼문
4. 명륜당
5. 서 재
6. 동 재
7. 교직사1
8. 교직사2
9. 외삼문
10. 변 소
11. 하마비
12. 변 소

자인향교 배치도

0 2 5 10M



자인향교 대성전



자인향교 명륜당

0 0 5 1 0 2 0 4.0M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대성전 전면 공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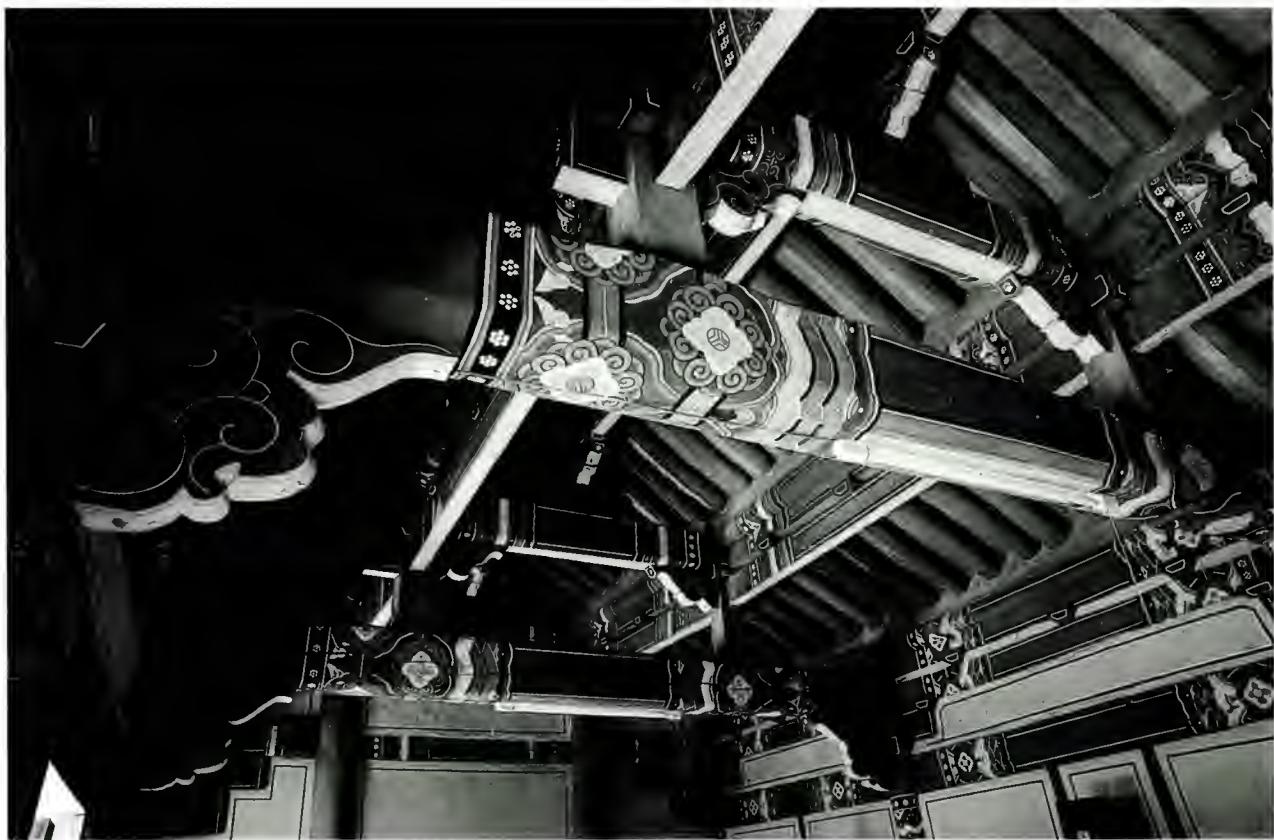
대성전 전면 우주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내부 가구



대성전 내부 종대공



대성전 내부 종대공



명륜당



명륜당 내부 가구



▲ 명륜당 전면 공포대



▲ 명륜당 전면 우주



▲ 명륜당 전면 주상포



▲ 명륜당 전면 주간 화반



• 모성루



• 동재



• 서재



◀ 내삼문



◀ 제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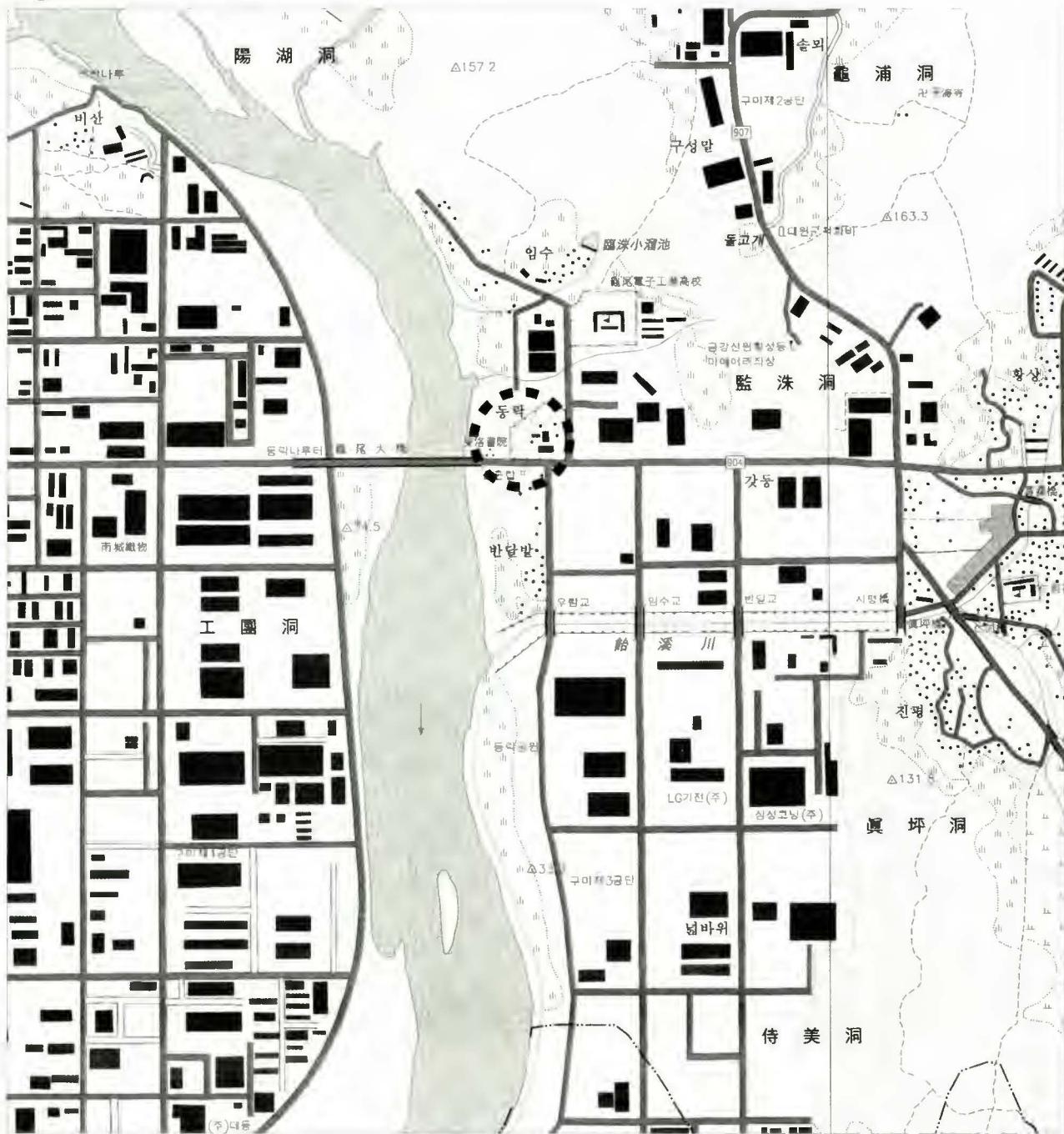


◀ 교직사

7. 인동향교(人同鄉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0호(대성전)
- 지정일 : 1985년 8월 5일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409-3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교직사, 관리사무실, 화장실, 사주문, 협문 등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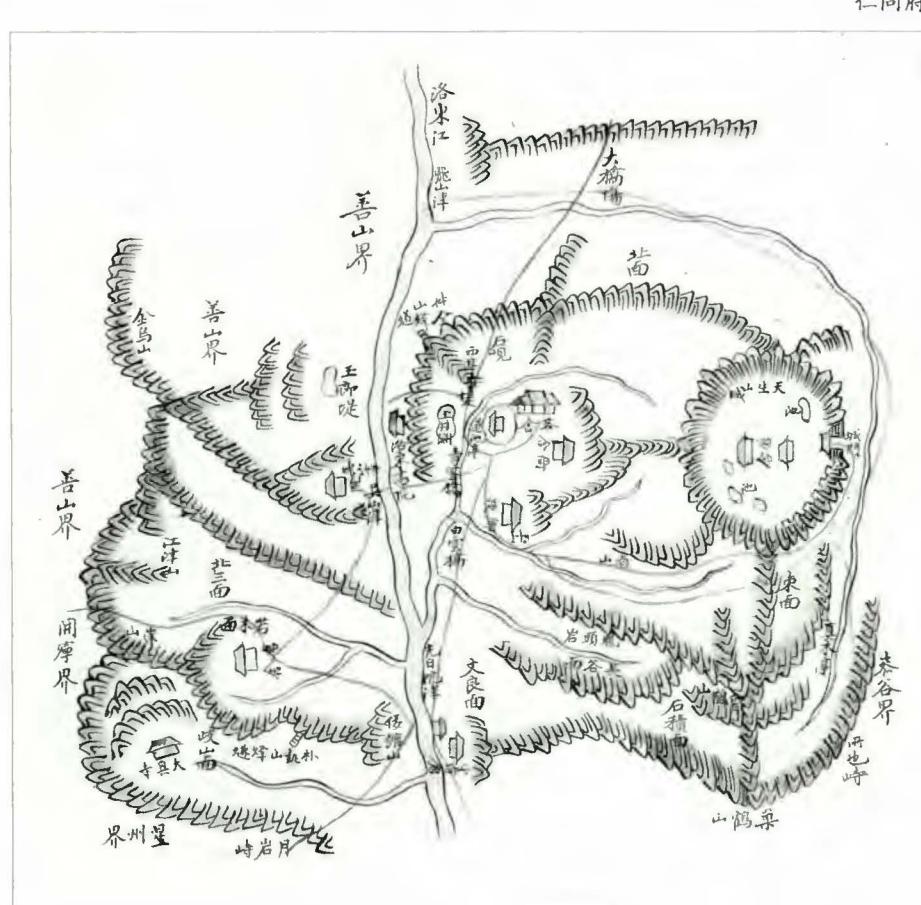
1. 연혁

인동향교는 구미시 임수동 409-3 번지에 사리잡고 있다. 구미시에서 구미대교를 건너자마자 길 좌측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1988년에 이건한 것이다. 인근에 동락서원(문화재자료 제24호)이 위치하고 있다.

인동(人同)은 삼국시대에 사동화(斯同火)현(縣)이었던 것이 수동(壽同)현으로 바뀌고, 경덕왕 대에 현재의 인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경산부(京山府, 현재의 성주)에 귀속되었고 공양왕 2년(1390)에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조선조 태종 13년(1415)에 현감(縣監)을 두었다. 선조 37년(1604)에 천생산(天生山)이 관방(關防)의 요충지가 됨에 따라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었고, 고종 32년(1895)에 군(郡)이 되었다가 1914년 칠곡군에 편입되었다. 해방 이후, 1977년 구미시에 편입되었다.

인동향교의 창건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고려말 조선 초에 황산동 어운산 밑에 창건되었다고 하며, 대략 인동현(人同縣)에 감무가 설치된 1391년 이후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중에 불에 전소되기까지의 기록은 전무하며, 이후 선조 34년(1601)에 안태동(安太洞) 옥산(玉山)으로 이건하였다. 그러던 중 지형이 좋지 않아 인조 12년(1634)에 경상감사 이기조(李基祚)의 상소에 따라 옥산 서편, 지금의 인의동으로 재차 이건하여 이듬해에 위패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1989년에 간행된『人同鄉校 實測調查報告書』(人同鄉校 財團 ·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에 의하면 해체 시 발견된 명륜당의 상량문과 대성전 망와의 기록을 두 번째 이건의 근거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명륜당의 망와(望瓦)에서 발견된 옹정(雍正) 3년(1725)의 기록과 대성전의 강희(康熙) 19년(1680)의 명문와가 발견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이건 이후의 중수(重修)로 파악하고 있다.

고종 말엽 인동향교가 인동초등학교의 전신인 옥성학원(玉成學院)으로 사용되면서 명륜당의 입면과 평면에 변화가 생겼다. 이후 한국전쟁 와중에 동서무가 소실되고 동서재는 이후에 철거되었으며 그 자리에 관리사가 건립되었다고 한다. 명륜당 내부에 게액된 현판 중 〈重修記〉 뒷부분에는 ‘...孔夫子誕降二千四百十五年乙巳三月上憲...’



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앞부분은 1864년이며, 1864년은 을사(乙巳)년이 아닌 갑자(甲子)년이다. 앞서 언급한 실측조사 보고서는 이를 오기로 보고 1965년인 을사(乙巳)년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성전과 명륜당 그리고 동서무의 도리와 초석이 황폐화되어 지성(至聖)이하 모든 세위(諸位)의 위패(位牌)가 흘어졌음을 한탄하고 있으니 이는 한국전쟁 중의 피해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 하다.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으나 일부 관련 자료에 1970년대에 낙후된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서재가 이 당시에 철거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1977년 11월에 건조물(建造物) 제143호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1985년 8월에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으며, 실측조사보고서가 간행된 1989년에는 대성전과 명륜당, 내외삼문과 관리사, 협문 등 모두 6동의 건물이 있었다. 구미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건된 것이 1988년이며. 이 때의 기록은 명륜당 내에 남아 있는 〈人同鄉校移建記〉에 남아 있다. 이 기문은 뒷부분의 연대를 잘못 표기하여 ‘...孔夫子誕降二千四百十五年戊辰...'으로 기록하였으나, 무진(戊辰)년은 1988년이다. 이후 차례로 이전에 철거되어 터만 남아 있던 동서무와 동서재 등을 복원하고, 비석군 등 일체의 시설을 정비하였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91	창건(추정)
임진왜란 중	화재로 전소(全燒)
1601	이진
1634	이건
1680	향교 일곽 보수
1725	향교 일곽 보수
한국전쟁 중	동서무 소실
1965	향교 일곽 보수
1970년대	동서재 철거(추정), 관리사 건립
1977	건조물 문화재로 지정
1985	문화재자료 지정
1988	현 위치로 이건
1989	실측조사보고서 간행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제향영역과 강학영역, 그리고 교직사 건물 등 향교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 향교 전면에는 '府使 姜候鑄 清謹遺愛' (順治十五年, 1658) 등 다수의 비석이 남아 있으나 비석 표면의 마모가 상당히 심하여 후면의 명문 보존 상태는 그리 좋지 않은 편이다. 또한 향교 내외부에는 등 앞서 언급한 기문 및 편액이 남아 있어 향교 역사의 고증에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2. 입지 및 배치

인동향교는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1988년에 현위치로 이전되었으며, 그 위치는 구미시내에서 구미대교를 건너면 길 좌측 야산에 약간 경사진 지형에 걸쳐 정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사는 그리 심하지 않으며 인접하여 기업체의 기숙시설 등 현대 건축물이 향교 동편으로 다수 자리잡고 있다.

이전 이전의 인동향교는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에 서향(西向)하여 자리잡고 있었으며, 동서무는 터만 남아 있었으며, 내외삼문과 명륜당 그리고 대성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직사 건물은 2동이 있었으며 각각 남향하고 있었다. 외삼문 안쪽 좌측에는 현재 향교 입구에 다수 옮겨져 있는 비석 등이 놓여져 있었고, 귀부(龜趺)가 있는 비석이 강학영역 서편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 외에 강학영역에는 우물 1기가 있었으며, 내삼문은 현재와 달리 어칸 좌우에만 벽체를 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명륜당은 현재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 평면과 입면 일부가 양식으로 개량된 상황이었다.

현재 향교 전면에는 공단으로 이어지는 대형 도로가 자리잡고 있으며 구미공고 및 LG 공장을 비롯하여 향교의 동편과 남편으로 다수의 현대적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향교 서측으로 약간 경사가 있는 언덕 자락이 전개되어 있으며, 전면에 돌출되어 향교 관리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다. 관리사무실은 2층으로 1층에는 슈퍼마켓과 주점이 자리잡고 있으며, 교직사 영역으로 통하는 사주문을 통해 들어가면 북쪽에 다시 별도의 교직사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전면 담을 따라 길게 배치된 비석을 먼저 볼 수 있으며, 외삼문을 통해 강학영역으로 들어서면 좌우에 동서재가 배치되어 있고 중앙 후면에 이전 형식을 그대로 옮겨와 복원한 명륜당이 자리잡고 있다. 이른바 전재후당(前齋後堂)의 배치 형식을 따르고 있다. 후면에 자리잡은 내삼문을 통해 다시 제향영역으로 들어서면, 좌우에 동서무가 자리잡고 있으며, 중앙 후면에 대성전이 서 있다.

이렇듯 인동향교는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 그리고 별도의 교직사 영역이 이루는 남북축 등 두 개의 종축(縱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따르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전면에 개방형 퇴간을 두었다. 현재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聖과 宋朝 2賢, 海東 18賢의 신위를 모셔두었다.

장대석으로 4단을 쌓은 기단 전면에는 각각 7단으로 된 계단 3기를 두었다. 초석은 방형 기반 위에 원형의 주좌를 두 번 궁글려 다듬은 초석을 사용하였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실측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둥은 원래의 기둥을 가져다 쓴 것으로 되어 있다. 민흘림이 약간 있는 편이며,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창방과 초익공을 결구한 다음 외2출목의 3익공 공포를 구성하였다. 공포의 외단은 길게 내민 쇠서의 형태로 초각되어 있으며, 내단은 일체와 되어 있다. 전면에서 뒷보머리가 돌출 되면서 외목도리를 받고

있으며, 주심에서는 퇴보 위에서 원형인 도리를 받기에 적합하도록 일부 타원형으로 상면을 깎은 방형의 도리 받침재가 주심도리장혀와 결구되어 도리를 받고 있다. 후면의 경우 공포의 구성은 전면과 같으며 다만 대들보 머리가 바로 외부로 돌출하여 직절되었다.

벽체는 좌우측면과 후면 모두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나, 이전에는 좌우 측벽 중방 하부에 화방벽을 구성하였다. 창호는 전면에만 두었으며, 어칸에는 두 짹 당판문을, 좌우칸에는 외짜 판문을 두었고 각 칸 모두 문상 인방 상부에 고창(高窓)을 두어 내부 채광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가구는 어칸에서 1고주 5량가로 되어 있으나, 고주의 높이는 평주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기둥머리에 사괘를 튼 뒤 내외부가 동일한 형태로 된 안초공 형식의 고주 초익공과 창방을 결구하였다. 그 위에 다시 주심소첨, 대첨과 고주 이익공, 삼익공이 각각 결구되었고, 퇴보와 대들보가 그 위에서 메뚜기장으로 연결되었다. 그런 다음 다시 방형 단면의 짤막한 동자주를 세워 고주익공과 창방을 결구한 다음 주두를 얹고 이익공과 첨차를 결구하였으며, 다음으로 중도리 장혀를 받고 종보를 결구하였다. 중대공은 고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두와 첨차로 결구된 포대공 형식을 채택하였으며, 뜬장혀를 결구하고 주간에 화반을 구성하였다.

대들보는 전고주와 후평주 위에 걸쳤으며, 중대공은 4분변작의 위치에 놓여졌다. 종대공은 파련대공과 이중 장혀로 구성되어 종도리를 받았다. 측벽에서는 전후 2고주 5량가의 구조 형식을 채택하였다.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은 전돌로 되어 있다. 중앙에 'ㄷ'자형으로 5성의 신위를 모셨고 좌우 측벽에 나머지 신위를 모셔 두었다. 지붕은 전후면 모두 겹처마로 암수막새기와를 사용하였고, 좌우 측면에 방풍판을 달았다. 단청은 창방 이상의 일부 부재에 한하여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굿기단청으로 되어 있고, 창방 이하 축부는 가칠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널찍한 제향공간에 독립된 기단을 높게 세웠고 지붕의 물매가 커 당찬 느낌을 주고 있다.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지의 경사를 축대로 구성하여 상면만 장대석으로 돌린 기단 전면에는 중앙에 7단으로 구성된 1개의 계단을 두었다. 계단 전면은 명륜당 후면 어칸과 답도로 연결되어 있다. 원형 초석 위에 원형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초익공을 구성하였다.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초익공과 창방을 결구한 뒤 주두를 얹고 도리와 보머리를 받았다. 가구는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친 3량가로 중앙에 판대공을 두고 종도리 장혀와 종도리를 받았다.

벽체는 각 칸 사이와 좌우 측면을 회사벽으로 꾸몄으며, 후면은 벽체를 구성하지 않았다. 창호는 전면 각 칸마다 두 짹 판문을 달고 좌우 벽체는 판벽을 구성하였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있고, 바닥은 시멘 몰탈로 마감하였다. 처마는 홀처마로 되어 있고 전후면 모두 암수 막새기와로 마감하였다. 기둥 이하는 가칠하고 나머지는 굿기단청 바탕에 머리초를 베풀었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익공계 건물이다. 기단은 전후의 경사를 이용하여 전면에서는 장대석 5단으로, 후면에서는 1단으로 쌓았다. 전면 어칸에는 외삼문 후면에서 이어진 답도가 연결되어 있다. 기단 상면은 시

멘 몰탈로 마감되어 있으며, 좌우측면 기단 일부를 파내고 아궁이를 두었다.

초석은 정평주초 형식으로 하부가 넓고 상부가 좁은 원형초석을 놓았으며 그 위에 약간의 민흘림을 둔 원형 기둥을 세웠다. 기둥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초익공과 창방을 결구하였으며, 그 위에 주두를 얹고 주심도리 장혀와 보머리를 결구하고 도리를 얹었다. 익공재는 전후면이 동일하나 좌우 측면은 주두 없이 직절하였다. 익공재 외단은 길게 내뻗은 쇠서 형태로 되어 있으며 보머리는 윗부분 일부를 양쪽으로 사절한 뒤 직절한 형태로 되어 있다.

가구는 어칸에서 5량가로 전후면 평주 위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짤막한 동자주를 얹어 종보를 받았다. 종대공은 동자주에 윗부분을 제형(梯形)으로 따내고 소로를 얹어 종도리 장혀를 결구하면서 작은 안초 공과 유사한 부재를 결구하였다. 또한 동자주 하부에도 복화반과 유사한 형태의 부재를 결구한 점이 특색 있다.

좌우 협간은 2고주 5량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좌우 퇴칸의 구조는 어칸과 약간 다른데, 전체적으로 중앙 3칸의 맞배지붕 건물에 좌우로 합각면을 정면으로 둔 3칸 규모의 맞배집이 옆으로 결구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내부 가구는 팔작지붕에서 볼 수 있는 충량도 없고, 다만, 좌우 퇴칸의 전면부에 드러난 가구의 형식은 3량가로, 종도리가 당 3칸의 고주 위치에서 당 3칸의 중도리와 엇비슷한 높이로 서로 만나고 있다. 좌우 협간의 가구 구성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합각부로 구성된 전후면쪽의 도리 뺨목 하단에 장혀를 두었는데 길이는 도리 뺨목 보다 약간 짧되 초각이라기보다는 첨차를 길게 늘어 뜨린 형태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으며, 창호는 전후측면 모두에 두었다. 특히 전후면 중앙 3칸 당(堂) 전면은 들어 열개 형식의 사분합문을 두고 후면에는 영쌍창 형식의 판창을 두었다. 또한 좌우 퇴칸 전면에는 두 짹 띠살창을 두었고, 좌우 측면 어칸 상방과 중방 사이에는 벼락닫이 창을 두었다.

내부는 동실과 서실, 그리고 당으로 구분되는데, 동서실은 좌우 퇴칸 전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칸과 후면쪽 퇴칸 부분만을 벽체와 창호로 구분하였다. 당에서 본 동서실의 어칸에는 두 짹 띠살문을 달았고, 후면쪽 퇴칸에는 외짝 띠살 여닫이문을 달았다.

지붕의 형태는 중앙 3칸은 맞배지붕이나 좌우퇴칸에 합각부를 정면으로 노출한 맞배지붕이 옆으로 결합되면 서 일명 공(工)자형 지붕이라는 독특한 결합지붕 형식을 이루고 있다. 처마는 전후면 모두 홀처마로 되어 있으며, 좌우측 퇴칸 전면에 방풍판을 달아 내었다. 단청은 가칠단청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내부 당은 우물마루로, 좌우 실은 온돌로 되어 있다.

(2) 동서재(東西齋)

동재와 서재는 같은 평면을 지니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에 전면에 퇴칸을 둔 5량가 구조의 초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지 자체는 약간 남북방향으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남쪽 기단의 높이가 북쪽보다 높게 되어 있다.

남쪽면을 기준으로 3단의 장대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원형의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기둥의 직경은 대략 300mm 전후이나, 어칸에서는 고주를 단면의 크기가 225×225mm 인 방형기둥으로 하였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익공재의 외단은 직절하였고 창방은 좌우 뺨목에서 첨차형으로 초각되어 소로를 수장하고 있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고, 창호는 전면 각 칸 모두 두 짹 띠살문을 달고 상인방 상부와 중도리 장혀 사이

에 고창을 두었다. 좌우 측면에는 창호를 두지 않았으며 후면에는 상방과 중방 사이에 각 칸 모두 두 짹 띠살창을 달았다.

가구는 어간에서 1고주 5량가, 좌우 측면에서 2고주 5량가의 구조로 되어 있다. 어간의 경우 고주 측면에 각각 대들보 단부와 뒷보 단부를 끼워 결구하였으며, 고주 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외단은 직절한 짤막한 고주익공과 보머리를 결구하여 종도리를 받았다. 고주는 어간에 한하여 방형 기둥을 사용하였다. 중대공은 4분변작의 위치에 놓여졌으며, 종보를 받고 그 위에 판대공을 얹어 종도리를 받고 있다.

맞배지붕에 전후면 모두 홀처마로 처리하였고, 암수 막새기와로 마무리하였다.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으며, 전면 마루는 우물마루로, 내부는 온돌을 두었다. 퇴칸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 천장은 지반자로 되어 있다.

(3)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장대석으로 야트막하게 쌓은 기단 정면에는 외부에서 진입하는 계단이 놓여져 있고 기단 상면은 시멘몰탈로 마무리되어 있다. 원형으로 다듬은 초석 위에, 전후면에 원형 기둥을 세우고 중앙에는 방형 기둥을 세워 문얼굴을 구성하였다. 기둥 머리에는 어간에서는 사괘를 트고 창방과 외단이 직절된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좌우 협간에서는 외단을 직절한 익공재를 결구하고 그 위에 주두를 얹어 장혀와 보머리를 받아 도리를 받쳤다.

벽체는 좌우 측벽만을 회사벽으로 구성하고 중앙에 받침기둥을 두어 각 칸 모두 두 짹 판문을 구성하였으며, 어간에는 문상방 상부에 홍살을 꾸몄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전후면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대들보 중앙 상부에 동자주를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전후면 모두 홀처마이며 맞배지붕으로 되었으며, 암수막새기와로 마무리하고, 어간 전면에 '鄉校' 현판을 걸었다. 가칠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나 각 판문 전면에는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이전 이전의 외삼문은 좌우 협간을 실(室)로 구분하여 후면과 전면에서 보았을 때 우측간 우측면에 출입문을 두었으며, 좌측벽은 중방 하부를 화방벽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좌측간 전면에는 작은 벼락닫이 창을 내었고, 출입문은 어간 전면에 설치되었었다. 이는 반가(班家)의 문간재와 같은 형식이라 하여 1988년에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변환되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와 관리사무실, 사주문, 비석군, 협문, 화장실 등이 있다.

관리사무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지의 경사로 인하여 외부에서 보았을 때 1층은 슈퍼마켓과 주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은 유도회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 자체는 하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상부는 전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로 되어 있다. 교직사는 경사로 인하여 한 단 높은 곳에 위치하며 마찬가지로 전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민도리계 팔작지붕 건물로 되어 있다.

교직사 영역으로 들어서는 사주문(四柱門)은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제형(梯形)의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운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중앙에 두 짹 판문을 달고 정면 우측 기둥 전면에는 '儒道會龜尾支部', 좌측 기둥 전면에는 '人同鄉校事務所'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이외에 관리사무실 서측 담을 따라 외삼문 담에 이르기까지 모두 17개의 비석이 정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귀부(龜趺)를 갖춘 비석 전면에는 '縣監柳侯雲龍善政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정확한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비석을 열거하면, '府使李侯培清德善政碑'(崇禎六年七月日, 1633), '府使姜候鎬清謹遺愛'(順治十五年二月日, 1658), '府使韓侯弘烈興學善政碑'(崇禎後四辛未, 1811), '府使柳侯浩源興學善政碑'(崇禎四丁亥十二月日, 1827), '府使鄭後雲□興學善政碑'(崇禎四乙卯, 1855), '府使元侯世煩去思碑'(咸豐八年戊午七月日, 1858) 등이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인동향교(人同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0호(대성전)	
창건시기	여말선초(麗末鮮初)	입 지	경사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리자	인동향교	
좌 향	정남향 (대성전 정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종축 2개	
중건시기	1601년 이건 1634년 이건 1988년 현 위치로 이건	대지조성	3단 / 내외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동락서원	
건축구성	대성전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외삼문 / 교직사 / 관리사무실 / 사주문 / 화장실 / 협문			
특기사항	이건 전후의 대지조건 변화로 공간 구성이 변화하였으며 동서무가 없음 관리사무소와 교직사를 중심으로한 별도 영역이 향교 전면 우측에 자리잡고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요	3x3칸, 전1퇴칸 / 외2출목 3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1고주(어칸) · 2고주(측벽) 5량가 / 전돌 / 연등천장 주고 3400 / 어칸 3775 / 수장폭 110 / 도리단면 Ø=300전후 / 보단면 : 대들보 520x480, 종보 370x280 주심처마길이 2800 / 기단높이 : 전면 1150, 후면 20 / 초석크기 약 700x700 전후			
기단	단층기단 / 네벌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보	대들보 : 전고주 후평주 걸침	
계단	전면 3개(각 7단)		종 보 : 4분변작	
초석	정평주초 / 원형 주좌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약한 민흘림 Ø=380~420	대공	중대공 : 포대공 중대공 : 파련대공(어칸), 판대공(측벽)	
공포	외2출목 삼익공 / 보머리 지질	창방	방형 240x310 / 뺨목 초각	
처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전돌 전면 어칸이 좌우 협칸 보다 넓음			
특기사항	고주 높이가 평주와 별 차이가 없으며 별도의 공포를 구성하고, 그 위에서 대들보와 뒷보를 결구하였으며, 동자주를 세워 고주익공을 결구하였음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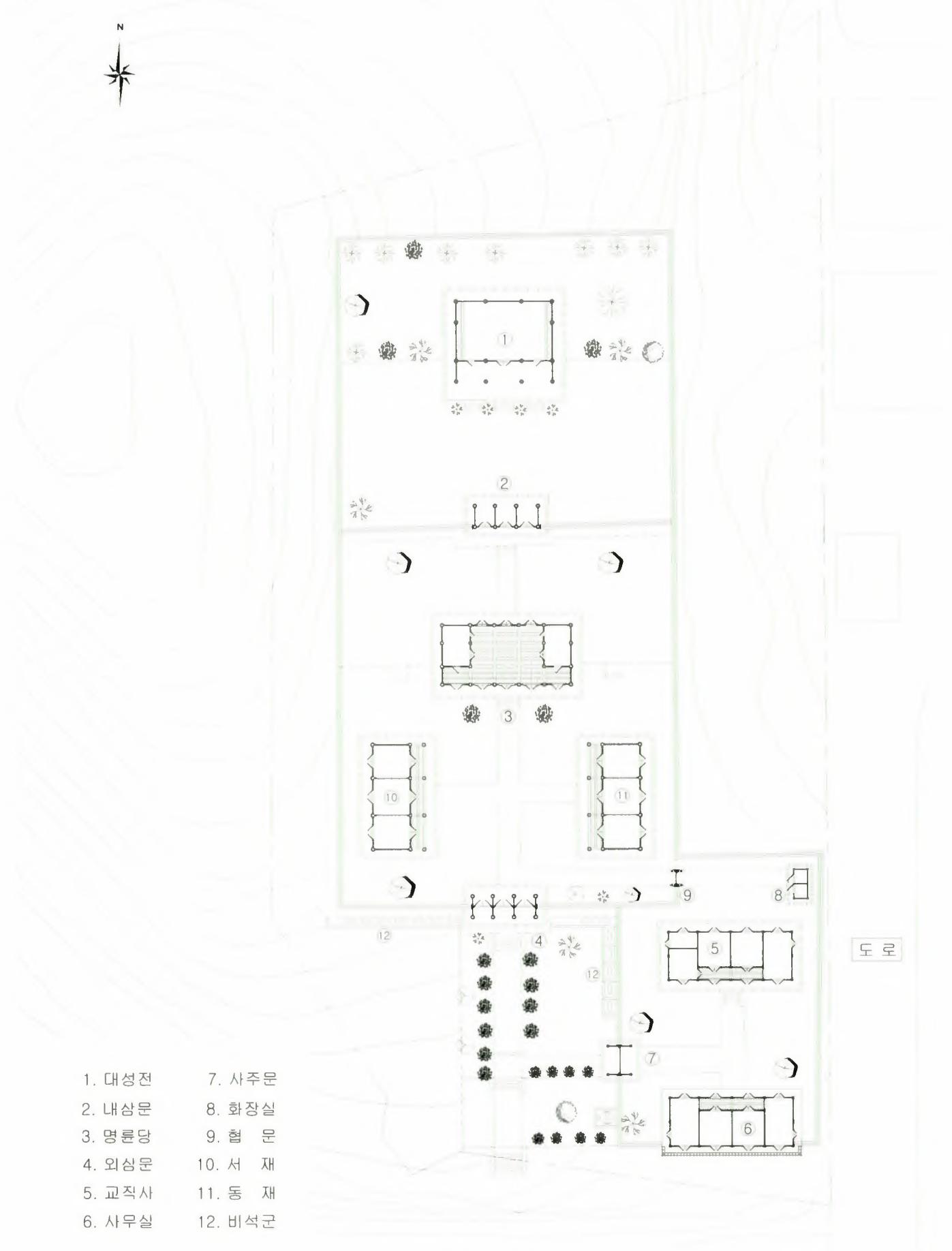
개요	5x3칸 / 초익공 / 훌처마 결합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주고 2930 / 주칸 2560 / 수장폭 105 / 도리단면 Ø=280 / 보단면 : 대들보 440x420, 종보 220x200 주심처마길이 1730 / 기단높이 : 전면 1140, 후면 250 / 초석크기 Ø=480 전후			
기단	단층기단 / 5벌대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단	전면 1개 (7단)		종 보 : 3분변작	
초석	정평주초 / 원형 초석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 약한 민흘림 Ø=320 전후	대공	중대공 : 동자주 중대공 : 동자주	
공포	초익공	창방	말각방형 150x210 / 뺀목 직질	
처마	훌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지붕	결합지붕,工자형 지붕	
수장	회사벽 / 가칠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특기사항	좌우 실이 중앙 3칸의 맞배집에 측면으로 결합된 '工' 자형 평면 구조로 되어 있음 좌우 실의 종도리가 어칸에서 구성된 중도리 내기와 같은 높이에서 결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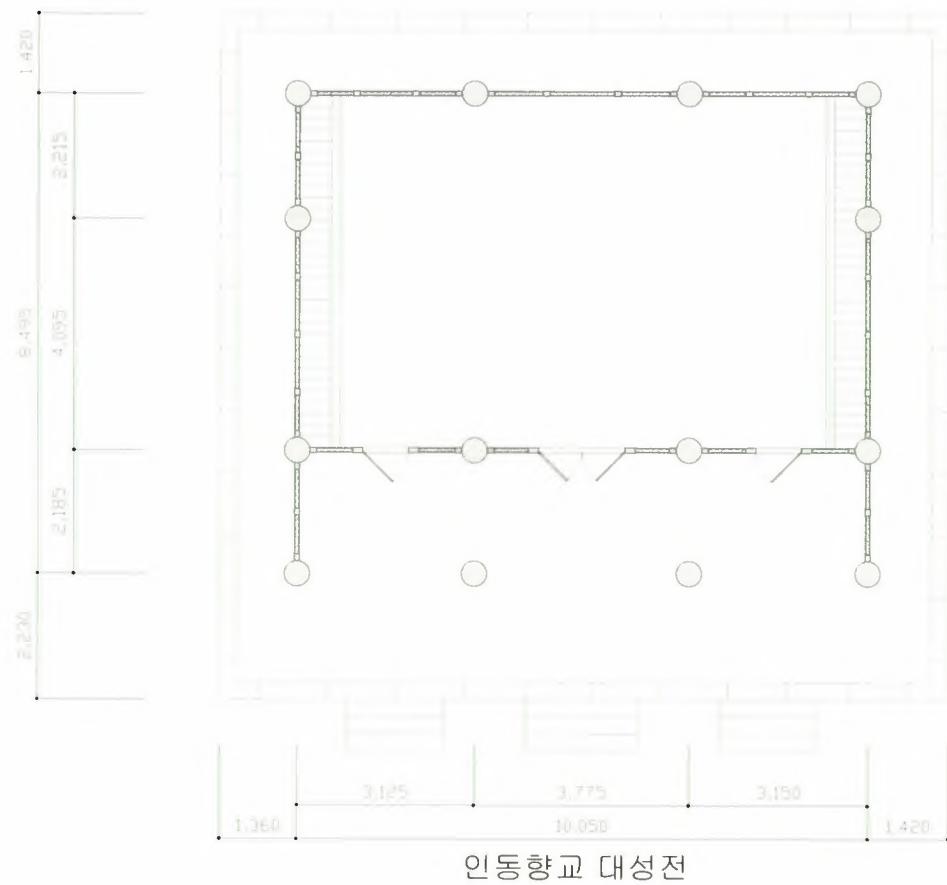
도로

인동향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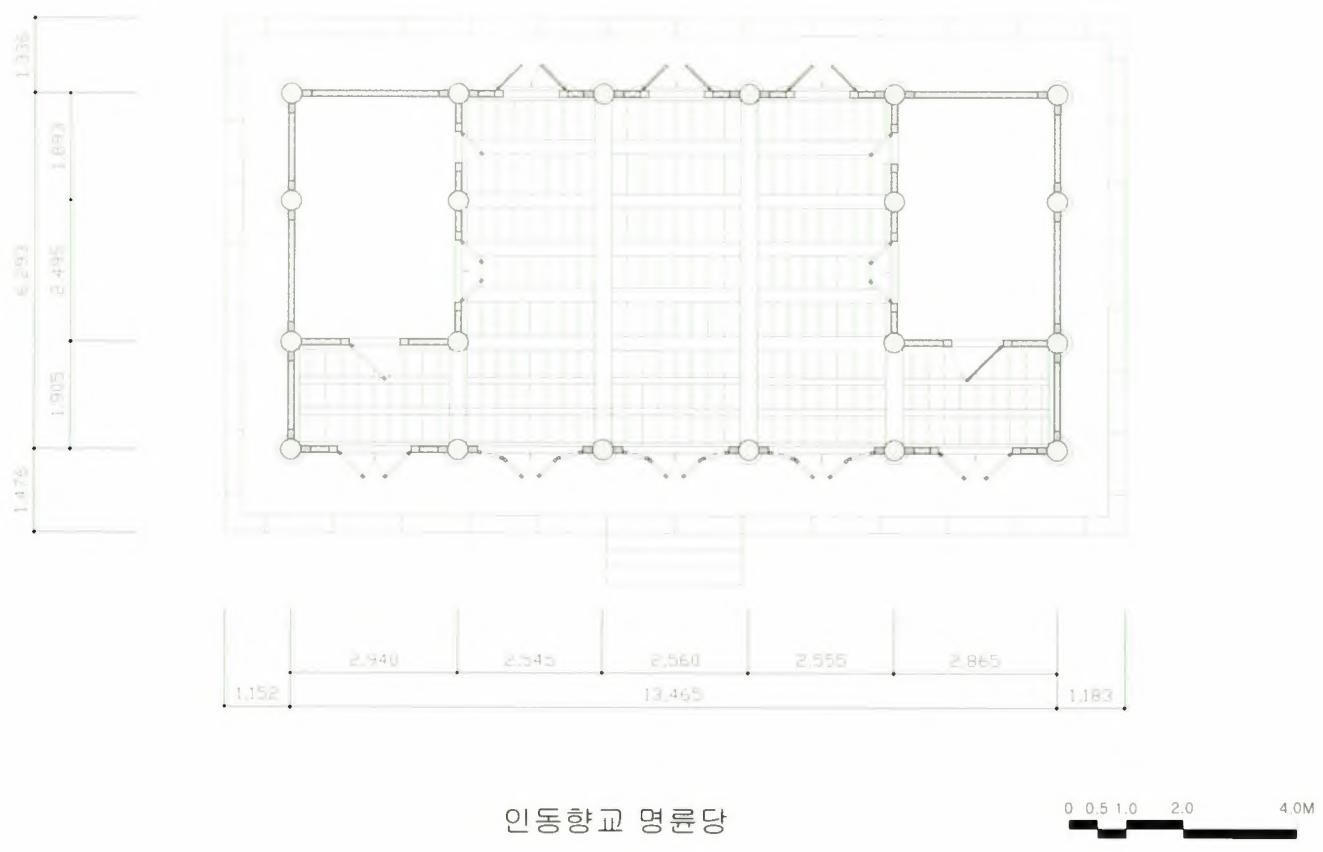
0 2 5 10M

1. 대성전 7. 사주문
 2. 내삼문 8. 화장실
 3. 명륜당 9. 혈문
 4. 외삼문 10. 서재
 5. 교직사 11. 동재
 6. 사무실 12. 비석군





인동향교 대성전



인동향교 명륜당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대성전 후면 공포대



대성전 전면 주간 화반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대성전 내부 측벽 가구



대성전 전면 퇴칸 가구



대성전 내부 대량 결구



대성전 내부 중대공



대성전 내부 종대공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명륜당 내부 어칸 가구



명륜당 내부 종대공



명륜당 내부 중대공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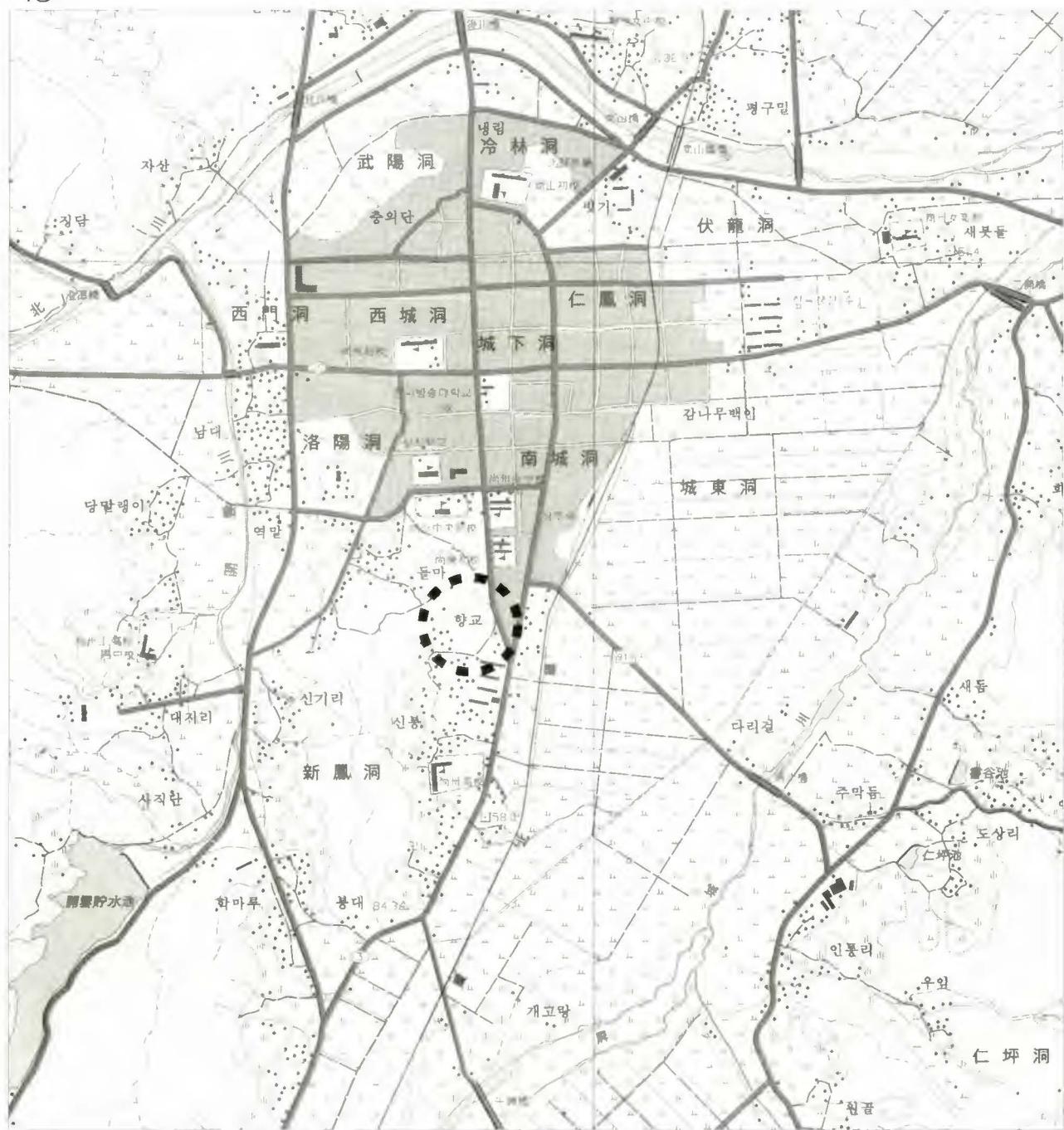


교직사 일곽

8. 상주향교(尙州鄉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5호(대성전)
- 지정일 : 1982년 2월 24일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203-1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교직사, 화장실, 구(舊) 남산중학교 건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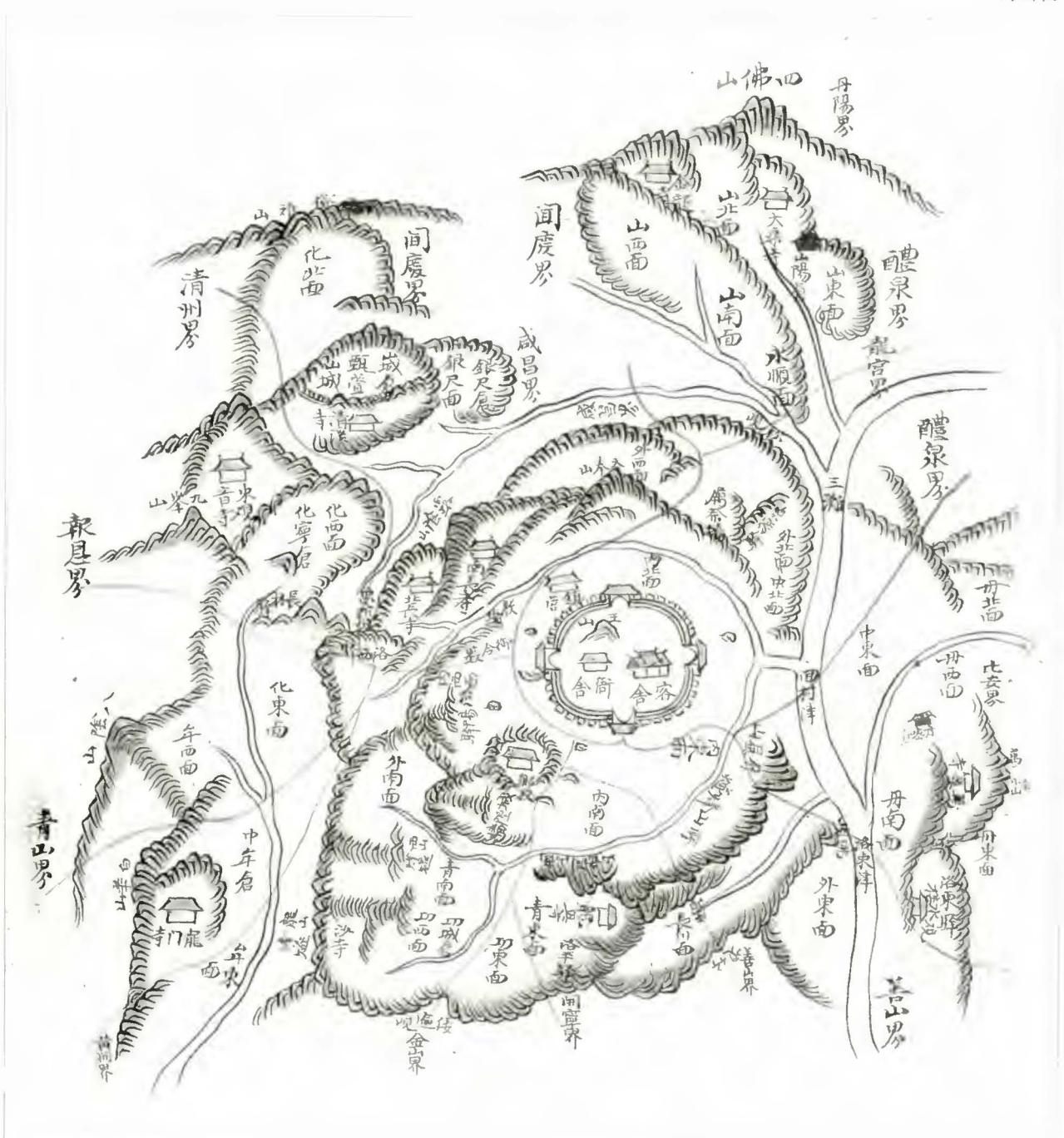
지형도



1. 연혁

상주시는 삼한시대에 고내국사의 하나인 사벌국(沙伐國)이었으며, 삼국시대에는 사벌주로 불리었다가 상주(尙州)로 개칭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신국 9주(九州)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상주복이 되어 경상도 지역의 행정, 사법, 군사의 중심지가 되었다. 일제시대인 1914년에 상주시가 되었으며, 1986년 1월 1일자로 상주읍이 상주시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에 상주시와 상주시가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山州牧



상주향교는 조선 세종 8년(1426)에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尙州鄉校誌』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말인 고종 34년(1247)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여방(洪汝方)이 목사로 있던 조선 세종 10년에서 11년 사이(1428~1429)에 남루(南樓)를 건립하였다고 하며, 이후 성종 17년(1486)에 대성전과 재루(齋樓) 등을 중창하였다. 중종 원년, 즉 연산군 12년(1506)에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불확실하며 임진왜란 중에 소실되었던 것을 광해군 11년(1619)에 다시 세웠다. 이후 광해군 9년(1617), 인조 9년(1631)에 향교 일곽을 중수하였다.

해방 이후 1949년에 류관식이 남산중학교의 전신(前身)인 상주고등공민학교(尙州高等公民學校)를 건립하면서 대성전과 동서무가 교실(校室)로 사용하였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에 당시 북한군이 남침하면서 향교 내에 있던 위패는 제향 관련 기물을 불태웠으며 1·4후퇴 때에는 피난민 임시 수용소로 사용되었다.

이듬해인 1951년에는 남산중학교(南山中學校)에서 동서무를 개조하여 교실로 사용하고 대성전을 강당으로 사용하였다.

남산중학교로 인하여 향교 일원이 상당히 원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남산중학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상주향교에서 개교한 것을 비롯하여, 목조 교사(校舍)가 건립된 것이 1989년 학교의 이전 전까지 4,5회 이상 기록되고 있다.

위패가 복원된 것은 1952년으로 정재철(鄭在喆)이 5성(聖)의 위패를 대성전에 모셨다고 하며, 명륜당이 학교 교무실로 사용되다가 화재로 전소되어 1961년에는 상주시내에 있던 관아 건물인 누각 1채를 옮겨와 명륜당으로 삼으면서 중층이었던 누각을 단층으로 개조하였다. 이 건물이 태평루이며 원래 상주관아의 정문이었고, 이전 후에는 교무실을 새로 지으면서 남산중학교의 음악실로 사용되었다.

1966년에는 송조 2현과 해동 18현의 위패를 새로 제작하고 대성전 단청을 새롭게 하였다. 이 때 제작한 봉안문은 '檀紀四二九年丙午陰八月十二日 重修 ... (중략)... 木手兼都色 崔敬守 瓦工 白萬珠'라는 내용으로 대들보에 봉안되었다. 1974년에 대성전 기단 및 전면 석축을 보수하였으며, 1975년에 문화공보부 지정문화재 이외 문화재 53호로 지정되었다. 1977년에는 대성전 기단 및 후면 석축을 보수하였으며, 1982년 2월 24일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5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1985년에 대성전을 보수하고 서무의 기와를 교체하였고, 1987년부터 1988년에 걸쳐 동무에 대해 도리 이상 해체 보수하였다. 1989년에는 동서무의 벽체 등을 수리하고 내삼문을 신축하였으며, 1990년에 태평루를 북천임란유적지(北川壬亂戰迹地)로 이전하였다. 이 해부터 1991년까지 2년간에 걸쳐 명륜당 복원 공사를 완료하고 동재를 이전하였다고 한다.

1992년에는 동재와 동일하게 모방하여 서재를 복원하였고, 1994년에 교직사를 이전하였으며 향교 일곽을 정비하였다. 1995년에 다시 외삼문을 복원하고 일곽 담을 증개축 및 보수하였으며, 1997년에 화장실을 신축하였다. 1998년부터 이듬해에 이르기까지 대성전内外에 전돌을 깔고 향교 일곽 담을 보수하였으며, 2001년 하반기에 대성전 단청을 새롭게 하였다.

이상의 상주향교와 관련한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47 창건(고려 고종 34년)

1428 남루(南樓) 창건

1486	성전(聖殿) 및 누재(樓齋) 중창(성전 3칸, 루 5칸, 동재 5칸으로 기록)
1506	중종 원년(元年) 중창 기록이 있으나 근거는 불확실함
1592	임진왜란 중 화재로 전소(全燒)
1617	향교 일곽 중수
1631	향교 일곽 중수
1666	향교 일곽 중수(상주시청 소장 '道指定文化財臺帳'에 대성전 와당(瓦堂)중 현종(顯宗) 7년 명의 명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1841	동무 중수
1949	상주고등공민학교 건립, 대성전과 동서무를 교실로 사용
1950	북한군에 의해 위패 등 제례 물건 소각됨
1952	대성전에 5성(聖) 위패 재봉안
1954	5성 위판을 동재에 봉안
1959	대성전 보수, 5성위 위패 환안
1961	명륜당 화재로 전소(全燒), 태평루 건물 이건 및 명륜당으로 개조, 사용
1966	대성전 단청
1974	대성전 기단 및 전면 석축 보수
1977	대성전 기단 및 후면 석축 보수
1985	대성전 보수, 서무 연복 이상 해체 보수
1988	동무 도리 이상 해체, 연복 교체 및 번화
1989	동서무 창호, 기둥 보수 및 드잡이, 내삼문 신축
1990	태평루를 북천임란전적지로 이건
1991	명륜당 복원, 동재 이건
1992	서재 복원
1994	교직사 이건, 향교 일곽 정비
1995	외삼문 신축, 담 보수
1997	화장실 개축, 일곽 보수
1999	대성전 전돌 깔기, 담 보수
2001	대성전 단청
2002	향교 앞 도로(충혼탑) 확포장 공사 진행 중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외삼문, 교직사 등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지 및 배치

일실에 의하면, 상주(尙州)는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하며 이는 즉 상주는 풍수상의 요건을 찾아 갖추어진 고을이고, 그 가운데 향교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어 선택된 곳에 지어졌다고 한다. 현재 향교의 주산(主山)은 비봉산이며, 안산(案山)은 우면산이라 한다. 상주향교는 경사진 구릉지에 정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릉지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며 현재 향교의 진입부 좌측으로 사찰이 하나 들어서 있다.

상주향교는 전체가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지의 차이를 이용하여 강학영역과 제향영역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다. 대지 조성은 명륜당과 내삼문을 기준으로 모두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살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찰로의 진입로를 만들면서 기존의 향교 외삼문으로 직접 통하는 도로가 막혀 현재의 외삼문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교직사와 구 남산중학교 교사 측으로 뚫린 도로가 실질적인 향교로의 출입을 담당하고 있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전면에 중층 규모의 명륜당이 먼저 놓이고 그 후면으로 약간의 단 차이를 두고 동서재가 자리잡고 있어 전당후재(前堂後齋)형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교직사는 별도의 영역 구분 없이 동재 후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구 남산중학교 교사가 교직사 동편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세심송(洗心松)이라는 이름의 소나무 한 그루가 내삼문 전면 동편에 자리잡고 있다.

높직한 단 차이를 두고 계단을 올라 내삼문을 들어서면 좌우로 10칸 규모의 동서무가 길게 남북방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앙의 대성전은 다시 별도의 기단을 높직하게 꾸며 그 위에 자리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명륜당과 대성전이 남북 종축선상에 자리잡고 있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전형적인 향교 경사지 건축 배치 유형을 따르고 있으며, 대지 특성상 강학영역은 동서로 넓은 반면 제향영역은 남북으로 긴 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건물 자체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근래에 수리되거나 신축된 것이 많지만 10칸 규모의 양무(兩廡) 건물은 상주향교가 지난 경상도 지역에서의 중요성을 건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둔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은 단 차이를 이용하여 전면에 널찍한 판석으로 쌓았는데 일부 부재는 석탑의 탑신(塔身)재를 가져다 쓴 흔적을 안고 있다. 기단의 맨 윗단은 장대석으로 마감하였으며, 기단 상면에는 전돌을 깔아 마감하였다. 계단은 기단 전면 좌우 측에 각각 9단으로 구성된 계단을 1개씩 놓았다. 현재 기단 전면에는 명확하지 않으나 전면을 2중 기단으로 조성하려 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초석은 8각형 혹은 원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맞춰 놓았으며, 일부 초석은 그 형태가 특이하다. 특히 후면 어칸 동측 평주의 초석은 상단과 하단이 각기 다른 별재로 구성된 이중초석으로 되어 있으며, 후면 서측 귀기둥 초석은 비교적 높게 솟은 장주초석의 형태를 갖고 있다. 현재 건물 내에는 전돌을 깔고 공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2

현. 그리고 해동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ⁱⁱ.

기둥은 원형 단면의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기둥 위에는 이익공의 공포를 구성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꾸몄으며, 측후면 중방 하부에 외부에서 판벽으로 처리되었다. 창호는 전면에만 두었는데 어간에는 두 짹 띠살문을, 좌우 협간에는 외짝 띠살문을 달았으되 열리는 방향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후면 어간 중방 상부에 창호의 흔적이 남아 있는 문선 부재가 잔존하고 있다.

전후면 모두 익공의 구성 형식은 동일하며,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창방과 초익공을 결구한 다음 주두를 놓고 그 위에 주심첨차와 이익공을 놓았다. 고주 상부는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익공재의 외단은 모두 약간 길게 뻗은 쇠서형태로 되어 있고, 주간에는 전후면 모두 화반을 수장하였다.

가구는 1고주 7량가로 측면에서만 후면에도 고주를 두었다. 어간에서 전면에 고주를 두고 고주 측면에 대들보와 뒷보 뿌리를 끼워 넣었으며, 중대공과 중종대공은 포대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대공은 반자에 가려 알 수 없는데 일반적인 연등천장의 경우와 달리 주심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직선재를 대고 판재로 사이를 가로질러 마감하였으며, 중대공과 중종대공 사이는 빗반자와 유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후 중종대공 사이는 평반자를 구성하였고 어간에서는 천장에 검정색 태두리를 두른 흰색과 적색의 원 두 개를 동서로 그려 넣었다.

전후면 모두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천장은 평반자와 빗반자로 되어 있고, 내부 바닥에는 전돌을 깔았다. 좌우 측면에 방풍판을 달았으며, 단청은 창방 이상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고 기둥에는 석간주 가칠하였다. 현재 대성전 전면 서측 기단 앞에 문화재 지정 비석이 전립되어 있다.

대성전 건물은 상주시청 소장 ‘도지정문화재대장(道指定文化財臺帳)’에 따르면 가구 기법과 평면 형식, 공포의 결구 및 통평고대, 부연 마구리가 거의 방형인 점을 들어 조선 중기의 건물로 추정하고 있다.

(2) 동서무(東西廡)

동서무는 1949년부터 남산중학교 교실로 개조되어 사용되었다가 1989년에 학교 이전과 더불어 상당부분이 수리되었으나, 두 건물은 동일한 평면형태를 갖고 있다.

동무는 정면 10칸 측면 2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되어 있다.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았는데 일부 초석의 경우 다듬은 초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남측 어간의 남쪽 초석의 경우 방형 초석 위에 원형의 주좌를 2단으로 두고 있다.

기둥은 방형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학교 건물로 사용되면서 다수의 수리 과정을 거치면서 입면의 변화는 물론 기본 구조부재에 수많은 장부 구멍 흔적이 남아 있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북측으로부터 3, 6, 9번째 칸에 출입문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전체 건물은 이에 따라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측 3칸, 가운데 3칸, 남측 4칸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학교 건물로 사용되면서 원래 통간이었던 것을 구획한 것으로 추측된다. 출입문이 있는 칸은 중앙에 두 짹 띠살문을 달고 좌우 중방 상부에 살창을 두고 창호와 기둥 사이의 벽체는 판벽으로 되어 있다. 이를 출입문 전면에는 각각 한 단 씩의 디딤돌을 두어 출입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기둥머리는 사괘를 트고 장혀와 뒷보를 결구하여 바로 도리를 받고 있다. 전체 가구는 전면에만 고주를 둔 1고주 5량가로 4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를 놓고 종보를 받았으며, 다시 종보 중앙에 동자주를 놓고 종도리를 받았다. 내부 바닥은 강회다짐으로 되어 있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처마는 겹처마로 되어 있고 암수막새기와로 마무리하였으며, 단청은 일부 기둥에 녹간주 가칠이 되어 있는데 이는 학교 건물로 사용했을 당시

시의 흔적으로 보인다. 좌우 측면에 방풍판을 달았으며, 건물 전후면 좌우 도리 뺨복에 활주를 세웠으며, 비교적 단면이 작은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다.

동서부 긴물에서 보이는 특이한 점은 10간 규모의 단일 건물이 대지가 가진 경사도 때문에 용마루의 곡선을 유지하면서 기단 전체를 3단으로 구성하고, 하방과 상방의 높이가 한 단씩 감소되도록 입면을 구성한 점이다.

동무 북측면 암막새에는 ‘道光辛丑’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남아 있어 1841년에 한 차례 중수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동무 북측 담 하부에 석탑재로 보이는 석재가 포함되어 있다.

(3) 서무(西廡)

서무는 동무와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제일 북쪽에 위치한 칸의 전면 남측 초석에 탑신재가 사용되었다. 또한 출입문이 형성되어 있는 칸 전면에 각각 3단의 계단이 1개씩 놓여져 있는 점이 동무와 다른 점이다.

(4)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1989년에 남산중학교의 이전과 더불어 복원되었다.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았으며 전면에는 19단으로 조성된 1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기둥은 약한 배흘림을 갖는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벽체는 좌우 측면을 회사벽으로 마감하고 어간 중앙 대들보 하부에 설주를 두고 각 칸 모두 두 짹 판문을 달아내었다. 가동머리에 사괘를 트고 창방과 초익공을 결구하여 주두를 얹고 장혀와 보를 받았으며 그 위에 도리를 얹었다. 익공재 외단은 쇠서 형태로 되어 있으며,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상면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바닥은 시멘톨탈로 마감하였고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창방 이하 석간주 가칠 단청하였고 상부에는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각 칸 판문 전면에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고 문 상인방 상부에는 홍살을 꾸몄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1990년에 새로이 복원한 것으로 향교 명륜당으로는 드물게 ‘ㄷ’ 자형 평면 배치를 이루고 있다. 이는 1961년에 당시 학교 교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명륜당이 화재로 전소됨에 따라 상주 시내에 있던 태평루(太平樓)라는 건물을 이건하면서 중층이었던 것을 단층으로 개조하여 명륜당으로 사용하였다가 1990년에 새로이 명륜당을 복원한 것이다.

건물은 전면에 돌출된 당(堂)부분이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중층 팔작지붕 건물과 좌우 퇴칸 뒷부분에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 자연적인 경사를 이용하여 전면의 당(堂) 부분만 중층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축대를 조성하여 후면에서는 바로 평지 진입이 가능케 되어 있다.

기단은 자연석으로 1단을 쌓은 단층 기단으로 그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다. 전면의 중층 부분은 상하부 별재로 되어 있으며,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다. 기둥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초익공을 결구하였다. 전면에는 창호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좌우측면과 중앙 3칸 후면에 모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좌우 퇴칸은 후면의 각 익실(翼室)로 통하는 두 짹 띠살문을 달았다.

내부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4분반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주두로만 뇌

어 있으며 그 위에 종보를 걸고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좌우 익실은 약간 그 형태가 다른데, 동익실(東翼室)이 서편으로 작은 뒷마루를 구상한 반면 서익실(西翼室)은 퇴칸 없이 구성하였다. 모두 3량가의 구조에 제형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양 익실의 종도리는 전면의 당 부분과 종도리의 위치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익공의 형태는 동일하다. 좌우 실 북측기단 상부에 아궁이를 내고 동서측면 기단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굴뚝을 내었다. 창호는 모두 두 짹 띠살문을 달았으며 동익실의 동측과 서익실의 서측면 중방 상부에 각각 두 짹 띠살창을 내었다.

내부에는 '孔紀二五四一年庚午九月日(1990)'에 작성한 〈尙州鄉校明倫堂上樸文〉 편액이 계액되어 있다.

(2) 동재(東齋)

동재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1990년 11월에서 1991년 4월에 걸쳐 명륜당 복원과 함께 동재 이건(移建)이 기록되어 있으나 강학영역 내에서 이건 이전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 전면에 퇴칸을 구성하였고 평면 형태는 중당협실(中堂夾室)형을 따르고 있다.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좌우 도리 뺄목을 받치는 활주는 별도의 초석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시멘몰탈로 마감되어 있으며 좌우 실 전면에는 두 짹 띠살문을, 실의 가운데쪽 벽체에는 사분합문을 달았으며 당 후벽에는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기단 남북측 상면에 아궁이를 두고 후면에 굴뚝을 내었으며 후면에는 중방 상부에 좌우 실 후면으로 각각 작은 두 짹 띠살창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짤막한 익공재와 장혀를 결구한 다음 도리와 보를 결구하였다. 가구는 3량가로 되어 있으나 전면에 퇴칸을 구성하면서 중간에 평주와 같은 높이의 고주를 두고 맞보를 받았다. 전후면 모두 홀처마로 단청은 하지 않았다.

(3) 서재(西齋)

서재는 1992년에 동재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태로 복원하였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전면에 퇴칸을 구성하면서 3량가의 가구에 전면에서 1/3지점에 평주와 같은 높이의 고주를 두고 맞보를 받고 있다. 좌우 도리 뺄목을 받치는 활주를 전후면에 각각 2개씩 모두 4개를 두었으며, 중당협실(中堂夾室)형의 평면형태에 전면 퇴칸을 마루로 처리하였다. 남북측면 기단 상부에 아궁이를 두고 좌우실 후면에 굴뚝을 내었다.

(4) 외삼문(外三門)

향교의 가장 바깥쪽에 자리잡고 있는 외삼문은 1995년에 신축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그리 높지 않은 자연석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좌우 측면과 어간 좌우 측벽을 회사벽으로 구성하였고, 중앙에 방형 받침기둥을 두고 각 칸 모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초익공과 창방을 결구하였으며, 그 위에 주두를 얹었다. 익공재의 외단은 길쭉하게 뻗은 쇠서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짤막한 제형 판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았다. 전후면 모두 홀처마로 되어 있으며, 바닥은 시멘몰탈로 마감하였고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창방 이상 모로단청 하였으며 이하는 석간주 가칠로 마감하였고, 각 칸 판문 전면에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다. 기타

교직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원래 명륜당 서북측 현재의 서재 남측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을 1994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어칸과 동측 1칸은 전면에 작은 뒷마루를 두고 내부를 실(室)로 하였으며 서편 1칸은 부엌으로 되어 있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홀처마에 맞배지붕으로 단청은 하지 않았다. 현재 향교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다.

교직사 동편에는 남산중학교 건물로 사용하던 2층 블록조 건물이 자리잡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건물은 1967년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향교 관리 사무실이 현재 이 건물 2층에 자리잡고 있다.

1) 상주향교는 대설위(大設位)를 모시는 향교로 모두 133위의 위패를 모셨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경주, 상주, 안동이 대설위, 영주, 풍기, 순흥이 39위의 위패를 모시는 중설위(中設位)의 향교이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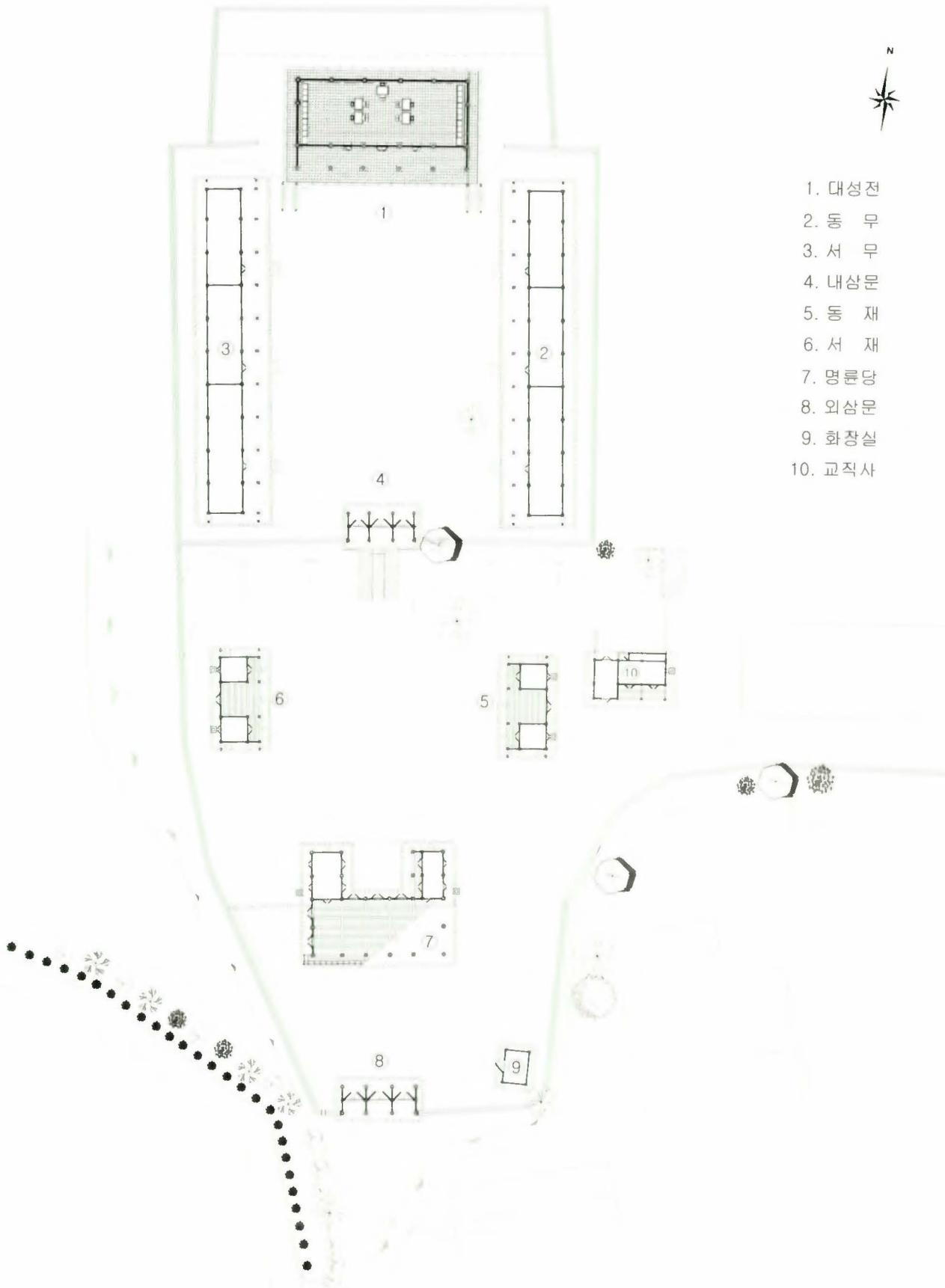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상주향교(尙州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5호(대성전)	
창건시기	고려 고종 34년(1247)	입 지	구릉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리자	상주향교	
좌향	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堂後齋 남북 종축 1개	
증건시기	1592년 소실 1617년 증건	대지조성	3단 / 명륜당, 내삼문 기준	
설위	5聖 / 宋朝 2賢 / 海東 18賢	인접시설	사찰 및 구 학교 시설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외삼문 / 교직사 / 화장실			
특기사항	대설위를 모셨던 향교 대성전과 양무의 건축적 특징이 잘 남아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요	5×3칸, 전1퇴칸 / 이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1고주 7량가 / 전돌바닥 / 빗반자+평반자 주고 평주 3130, 고주 4150 / 주칸 어칸 3730 협퇴칸 3420 / 수장폭 105 / 도리단면 Ø=270 전후 보단면 대들보 450×500, 중보 300×330 전후 / 주심처마길이 2100 / 기단높이 전면 2000, 측후면 180 초석크기 800×600 전후		
기단	단층기단 / 바른층쌓기	보	대들보 : 전고주후평주 걸침
계단	전면 2개(9단)		중 보 : 4분변작
초석	정평 / 8각형 혹은 방형	도리	7량 / 굽도리
기둥	원형기둥 / Ø=390 전후	대공	중 대공 : 포대공 중중대공 : 포대공
공포	이익공	창방	방형 / 뺨목 첨차형 초각
처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장	회사벽+판벽 / 모로단청 / 전돌바닥 / 빗반자+평반자 내부 천장 및 전면 퇴칸 상부 천장을 빗반자와 평반자로 처리함		
특기사항	초석의 형태가 다양하며 석면 기단에는 일부 석탑재 등이 포함되어 있음 후면에 창호 흔적 있는 문선 남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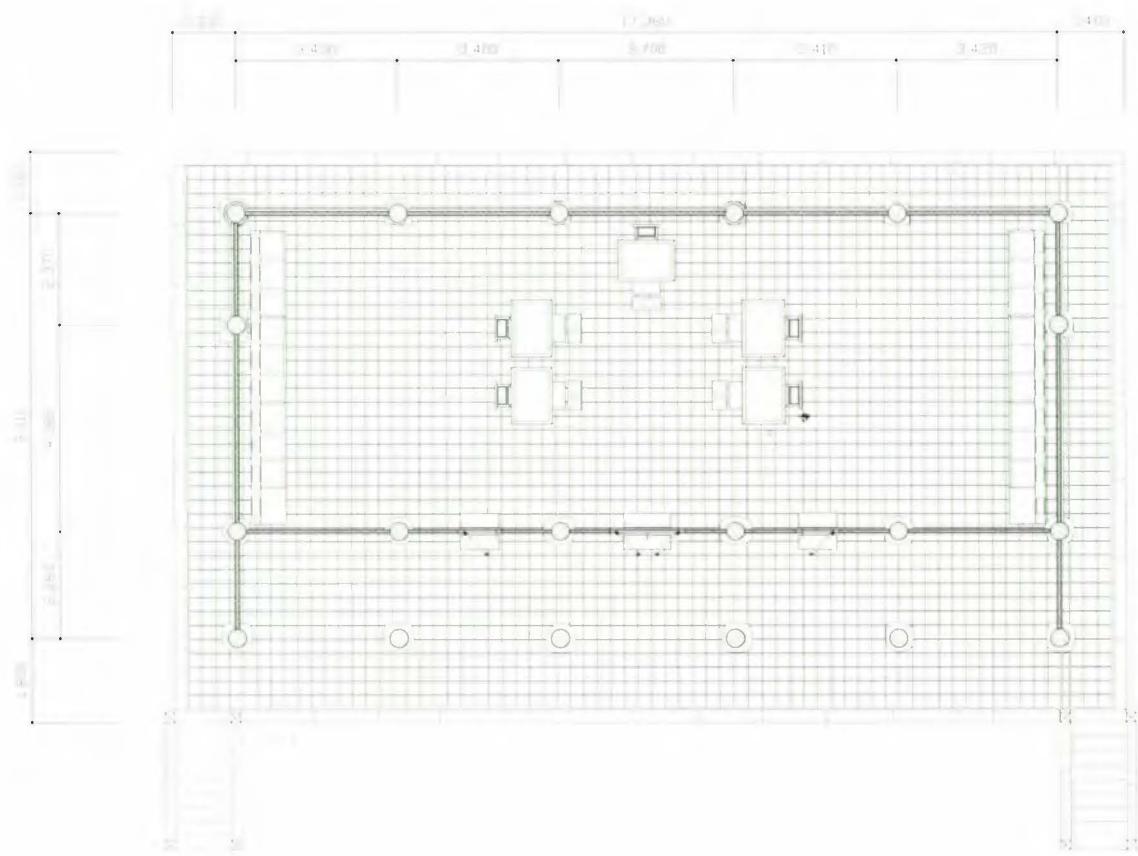
명륜당 건축 요소

개요	(5×2칸:당)+(2×1칸:좌우 익실) / 초익공 / 홀처마 결합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지반자 · 온돌(실) 주고 하층 1340 상층 2450 / 주칸 2430 / 수장폭 80 / 도리단면 Ø=270 / 보단면 : 대들보 350×560, 종보 350×390 주심처마길이 1260 / 기단높이 150 / 초석크기 700×600 전후 다양함		
기단	단층기단 / 외벌대 / 자연석 바른층쌓기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단	없음		중 보 : 4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리	5량 / 굽도리
기둥	원형기둥 / Ø=330 전후	대공	중대공 : 주 두 중대공 : 판대공
공포	초익공	창방	장방형 / 뺨목 익공형 초각(전면), 직절(후면)
처마	홀처마 / 서까래단부 직절	지붕	결합지붕(팔작+맞배)
수장	회사벽 / 가칠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향교 명륜당으로는 드물게 'ㄷ' 자형 평면을 갖고 있음		
특기사항	동익실과 서익실의 평면 및 입면상의 차이는 동서의 위계차이를 건축적으로 표현함 양 익실의 종도리와 전면 당 부분의 종도리 외기가 같은 높이에서 서로 연결됨 중대공의 형식이 동자주나 첨차 없이 주두로만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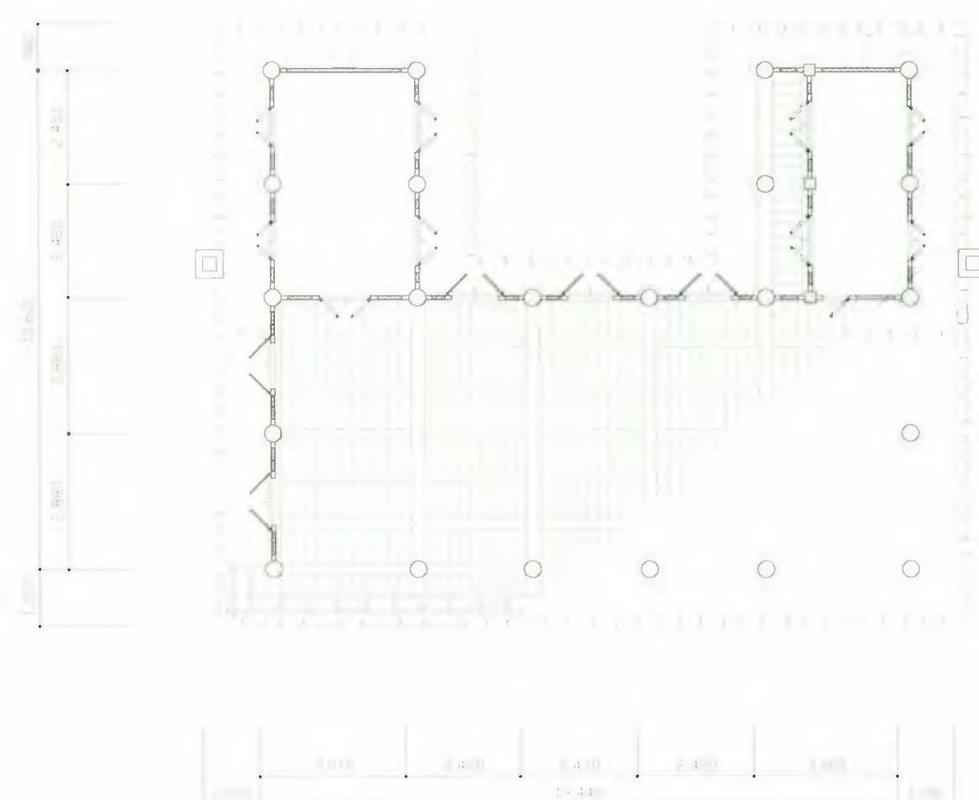


상주향교 배지도

0 2 5 10M



상주향교 대성전



상주향교 명륜당

0 0.5 1.0 2.0 4.0M



대성전



대성전 내부



▲ 대성전 전면 퇴칸



▲ 대성전 후면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합각부 지네철



대성전 내부 가구



대성전 내부 중대공



대성전 내부 대량 결구



명륜당



명륜당 내부



명륜당 동익실



명륜당 서익실



▲ 명륜당 내부 가구



▲ 명륜당 내부 퇴칸 가구



▲ 동무



▲ 서무



동무 전면 창호



동무 내부 가구



◀ 동재



◀ 서재



◀ 내삼문



외삼문



교직사



교직사 옆 구(舊) 남산중학교 건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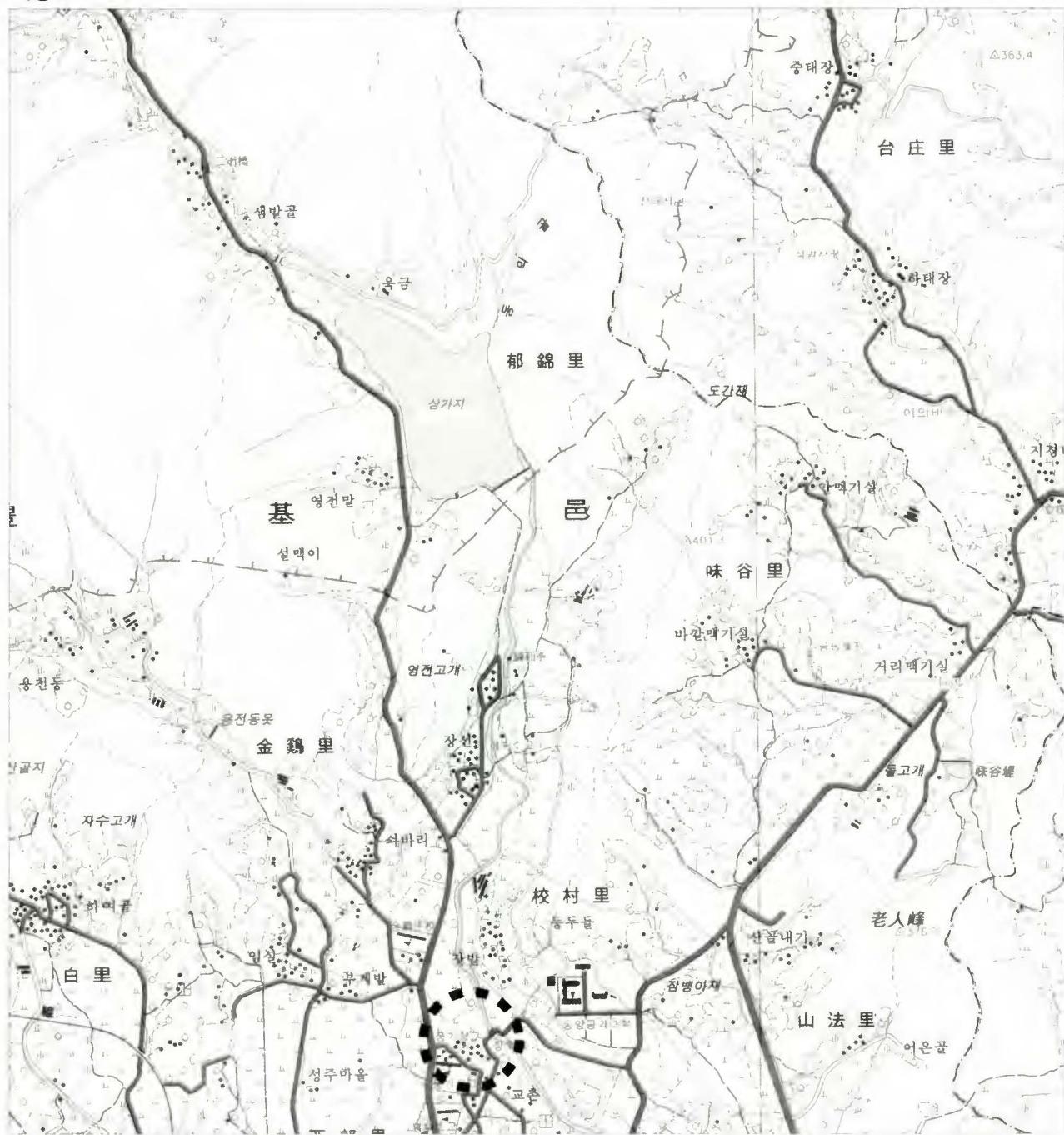


내삼문에서 본 명륜당

9. 풍기향교(豊基鄉校)

- 지정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1호(대성전, 동·서무)
- 지정일 : 1985년 10월 15일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147-1
- 건축구성 :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 현관실(양심재), 교직사, 외사주문, 협문 2동 등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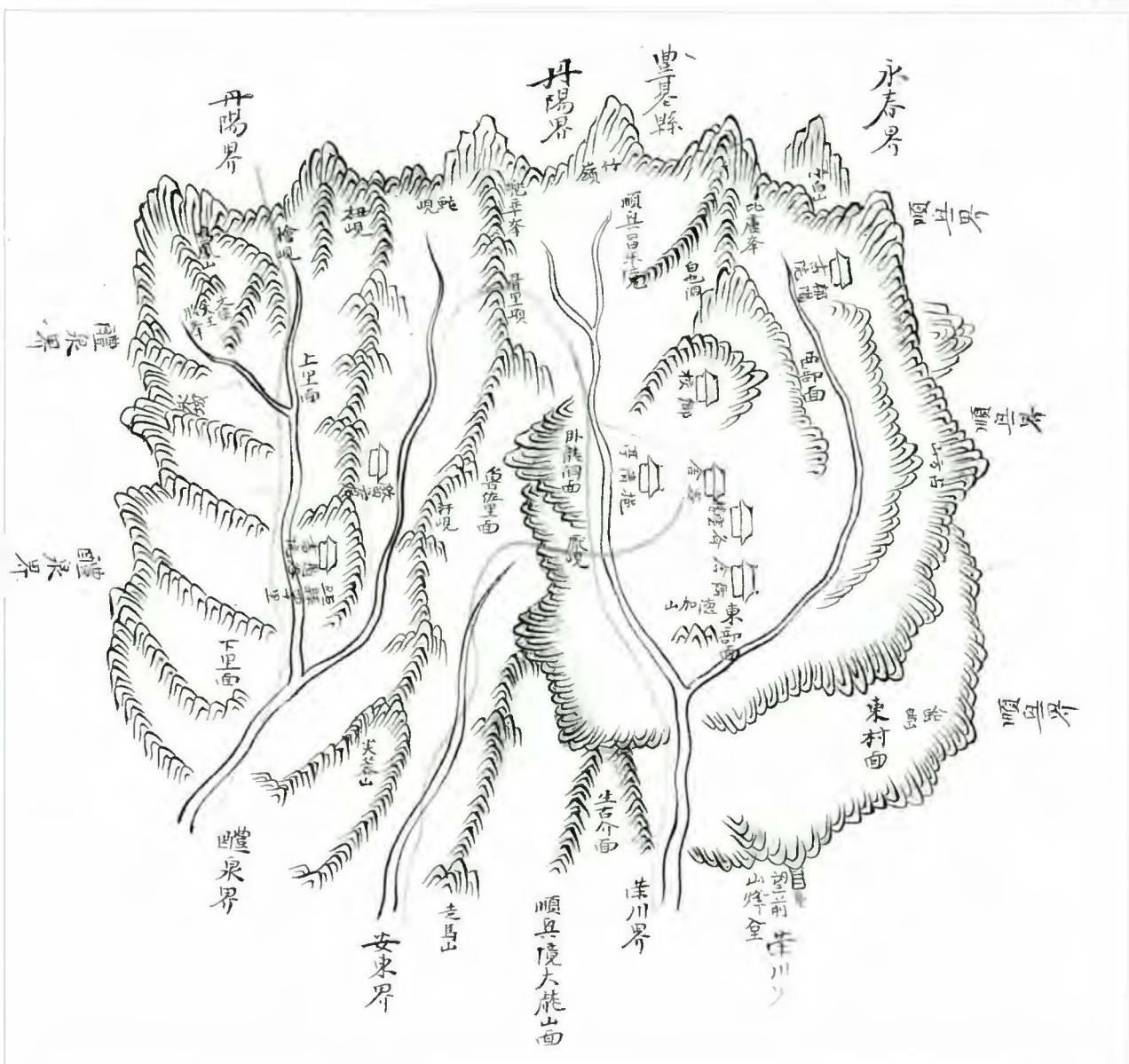
1. 양학

풍기(豐基)는 고려 말에 안동부에 속해 있다가 공양왕 때 다시 삼부(監務)가 설치되었다. 조선왕조에 들어서는 기주현(基州縣)이 되었다가 뒤에 응풍현(殷豐縣)과 합하여 비로소 지금 명칭으로 되고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조선 말 고종 건양 원년(1896) 지방제도 개편 당시에도 그대로 존속되다가 일제시대에 영주군에 합하였다.

풍기향교가 언제 건립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원래 입실(任實) 서쪽 골짜기에 있었는데, 중종 37년(1542)에 군수 주세봉(周世鵬)이 지금 향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옮겼다. 당시의 사정을 주세봉의 '移建記(이건기)'와 읍지(邑誌) 등을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묘(文廟)는 읍에서 7.8리나 떨어져 있고, 기둥은 기울어져 가고 생도들이 거처할 집이 없고, 가르친 강당이 없으며, 물길을 우물이 없고, 복욕할 냇물이 없었다. 8월 제향(祭享)에 옮기기를 의논하니 모두 찬성하였다. –중략– 가을에 기공

豐基縣



하여 이듬해(1542년) 봄에 역사를 마쳤다. 신문(神門)을 남쪽으로 일고, 원편에 옆문을 두었다. 명륜당(明倫堂)을 대성전 동쪽에 세우고 명륜당 앞에 뜰을 사이에 두고 동·서재를 두었다. 그 남쪽에 정문을 두고 좌우에 협문을 두었다. 주사(廡舍), 창고며 교관(敎官)의 처소도 함께 설치했다.”

주세봉에 의해 향교가 이건(移建)되었지만, 이곳이 습한 지역이고, 인가와 가깝고 번잡한 곳이라는 이유로 약 150여 년 만인 숙종 18년(1692)에 다시 옛 자리로 옮겼으나 큰 비에 늘 수해를 겪게 되어 영조 12년(1735)에는 다시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기록에 의하면 현재의 대성전 자리에 정립사라는 사찰이 자리하고 있었고, 1991년에 대성전 뒤 언덕에서 삼국시대로 제작연대가 추정되는 도기 두 편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후 『鄉校重修雜錄(향교중수집록)』에 의하면 철종 9년(1858)의 향교가 퇴락하여 3개월간에 걸친 대중수가 있었다 한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에 양심루(養心樓)와 동서재가 소실되었으며, 1971년에 현관실을 보수하고, 1977년에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1980년에 다시 명륜당을 중건하였고, 1983년에 서무를 보수하였으며, 1985년에 동무를 중수하였다. 같은 해에 대성전과 동서무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88년에 한 차례 중수하면서 현관실을 새로 짓고, 이듬해인 1989년에 양심문을 지었다. 이후 1991년도에 대성전을 연복 이상 해체보수 하였으며, 1994년에 동서재를 보수하였다.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향교 일곽을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추정)
1542	이건
1692	원래 자리로 이건
1735	현 위치로 이건
1858	향교 일곽 중수
1950	양심루(養心樓), 동서재 소실
1971	현관실 보수
1977	대성전 중수
1980	명륜당 중건
1983	서무 보수
1985	동무 중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대성전 및 동서무)
1988	현관실 신축
1989	양심문 신축
1991	대성전 중수
1994	동서무 보수
1998	향교 일곽 정비

2. 입지 및 배치

풍기고등학교가 향교의 전면에 있으며, 도로와 접하고 있다. 지반의 고저차가 별로 없는 대지에 대성전과 명륜당이 축(軸)을 서로 달리한 좌학우묘(左學右廟)의 배치형태를 갖추고 있다. 중설위(中設位) 향교로 주 건물은 남향하고 있다.

명륜당과 현관실(獻官室)은 학교에서 부속건물로 사용한 적이 있고, 원래의 현관실은 현재 관리사로 사용하고 있다. 본래는 명륜당 앞에 동·서재와 정면6칸, 측면2칸 규모의 양심루(養心樓)가 있었으나 6.25때 폭격으로 없어졌으며, 없어진 자리에 현재 풍기고등학교 교사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외부에서의 진입은 양심문(외사주문)을 통하여 측면으로 진입하게 되어있다. 동서로 긴 마당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의 맞은 편에 강학영역으로 통하는 협문이 보이고 그 옆으로 남향하여 내삼문이 자리잡고 있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중앙에 대성전이, 좌우에 동서무가 자리잡고 있다. 동무의 남쪽으로 다시 강학영역으로 통하는 협문이 자리잡고 있는데, 강학영역은 중앙에 명륜당이 있고 동서재는 생략되어 있다. 양심문에서 진입할 때 협문을 통해 현관실을 지나 좌측으로 명륜당이 남향하여 있는 셈이며, 진입 방향으로 가장 안쪽에 현재 교직사로 쓰이는 건물이 놓여져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에 퇴칸을 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 전면에는 4단으로 구성된 3개의 계단을 두었는데, 동편 계단의 맨 아래단은 석탑의 면석을 사용하였다. 평탄한 대지 위에 전면은 장대석으로, 측후면은 잡석으로 약 4.5尺 높이의 기단을 축조하여 초석을 놓고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초석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원형에 가깝거나 자연석을 사용하였는데, 전면의 경우 어칸 서측과 좌우 귀초석은 8각형으로 다듬은 흔적이 남아 있으며, 어칸 동측과 고주열 어칸 서측 초석은 4각형으로 다듬은 듯한 흔적이 있다.

측면칸살의 구성은 가운데 칸을 넓게 하고 좌우 협칸은 반정도의 넓이로 칸살을 잡았다. 평면은 전면을 개방한 전퇴(前退)형식이며, 좌측 퇴칸부분은 벽을 바르고 문을 하나 내었다. 초익공으로 살미의 형상은 전면은 끝을 날카롭게 하였지만 길게 나오지는 못했고 배면은 물익공(物翼工)으로 처리했다.

보머리는 수장폭 만큼 줄인 다음 궁글려 초각하였다. 문얼굴은 가운데 칸에만 있는데, 가운데 쌍여닫이문을 두고 양쪽에 외여닫이문을 두었다. 가운데 문은 상인방을 문잇틀로 하고 있으나, 양측의 문은 상인방밑에 부새를 덧대어 키를 작게 하였는데, 이것은 양쪽 문을 가운데 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정면 퇴칸에는 광창을 낮게 달았다. 또한 전면 퇴칸 서측면에는 판문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가구는 어칸에서 1고주 5량가로 전면 2주열은 모두 고주(高柱)로 하여 뒷보와 대들보를 기둥 몸에 끼우고 있

다. 대들보 위에 4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를 세워 보아지를 끼우고 접시받침을 올렸으며 뜬창방을 건너지르게 했다. 종보 위에는 판대공을 올리고 종도리와 장혀를 받았는데, 장혀 밑에는 하부를 초각한 침차를 끼워 놓았다. 좌우 측벽에서는 전후에 고주를 두었다. 어간 좌우의 대들보는 직선재를 사용한 반면 종보는 자연재를 사용하였다.

지붕을 홀처마로 소박하게 하여 맞배지붕을 하고 풍판(風板)을 달았는데, 도리 단부가 풍판을 관통하여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은 몰탈 마감을 했다. 내부에는 공사를 비롯한 5성과 송조 6현 그리고 해동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2) 동무(東廡)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어간에만 출입문을 쌍여닫이문을 두고 있으며 비교적 큰 편이다. 야트막한 자연석 기단 전면에 2단으로 구성된 계단 1개를 두었다. 원형 단면의 기둥을 사용했으며, 주고(柱高)가 높은 편이다.

기둥머리에는 특이하게 외복도리를 두었는데, 전후방향으로 따내어 초각한 부재를 결구하고 외부로 내민 끝 부분에 장혀와 외복도리를 얹었다. 주심에서는 다시 그 위에 대들보와 장혀를 놓아 도리를 받았다. 장혀 뺄복 또한 약간 길게 내빼어 부드럽게 긴 S자 곡선을 형성한 점이 이채롭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소로를 수장하고 좌우 측면을 궁글린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전후면 홀처마로 내부 바닥은 온돌을 두었다. 기단 남측 측면에 작은 아궁이를 두고 어간 후면에 굴뚝을 내었다.

서까래는 최근에 일부 신재(新材)로 교체되었고, 내부에는 종도리에 보로단청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좌우측 벽과 후벽에서 중방 없이 세로 선대만으로 구성한 점도 특이하다. 또한 박공님이 도리 단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도리 단부를 일부 따내고 그 위에 얹었으며, 좌우 도리 뺄복 상단에 갈보산방을 둔 것과 창호의 형식 등 전반적인 건축적 특색을 종합한 결과 18세기 전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사청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서무(西廡)

서무는 동무와 평면 및 입면 형태 등이 동일하나 온돌은 두지 않고 내부를 시멘 몰탈로 마감하였다. 현재 제기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창방 이상의 부재 가운데 대부분이 신재(新材)로 교체되었다.

(4) 내삼문(內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태로 되어 있다. 어간이 좌우 협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깝게 되어 있으며, 낮은 자연석 단층 기단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어간에는 두 짹 판문을, 좌우 협간에는 외짜 판문을 달았으며 어간 판문 전면에 3태극문양을 그렸다. 어간에 홍살을 꾸몄으며, 전후 망와와 숫막새 등에 명문와가 남아있다.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康熙三十一年壬申五月日(강희삼십일년임신오월일)'은 1692년에 해당하며, '康熙參拾壹年壬五月(강희삼십일년임오월)' 역시 마찬가지로 1692년에 해당하고, 이 밖에 '丁亥五月日(정해오월일)' 명의 방와와 암막새가 사용되어져 있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막돌기단 위에 원형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평면 형식은 좌측 협간을 전후 통간으로 두어 서실(西室)로 삼고 동실(東室)은 두지 않았는데, 서측면에서 보면 2칸에 전면에 반칸 뒷마루를 내어 달아 2칸으로 볼 수 있으나 동측에서는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 중앙 좌우간과 우측협간에 각각 네 짹 띠살문을 달고 우측어간 상부에 '明倫堂' 현판을 달았다.

대청 전면은 벽체를 구성하여 판문을 달아놓고, 배면은 머름을 들여 문얼굴을 만든 후 유리문을 달고 밖으로는 둔테 달린 판장문을 붙였다. 학교 부속사로 사용되면서 원형을 상실했다. 온돌방 전면에는 쌍여닫이 세살문을 달고 앞에는 쪽마루를 시설한 후 계자난간을 세웠다.

기둥머리에는 2익공을 꾸몄는데, 초익공 살미에 외목도리를 얹어 외1출목 이익공의 보기 드문 양식이 되었다. 공포구성에서 외목도리를 둘 경우 2익공에 행공첨차를 결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나 여기서는 행공첨차와 장혀의 기능을 겸하게 하는 단장혀를 사용하였다. 살미의 형상은 대성전과 비슷한 형태로 하여 양서로 했다. 2익공의 살미는 외목도리를 지나면서 운공(雲工)으로 변하여 끝을 등글게 하였다. 주심첨차는 하부를 쌍S자로 초각(草刻)하고 소로는 끼우지 않았다. 창방 위에는 파련각(波蓮刻)한 화반을 끼웠는데 하부를 넓게 한 복화반이다.

가구는 5량가로 대들보 위에 3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를 보아지와 접시받침으로 구성한 후 뜬창방을 건너질렀다.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올리고 장혀 밑에는 초각한 첨차를 끼웠다. 한편 좌우 협간에서 종대공은 판대공으로 되어 있으며, 우측 협간에서는 충량 2개를, 서측 협간에서는 1개를 대들보의 윗면을 파서 올려놓았다.

전후면을 홀처마로 처리하였으며, 팔작지붕으로 추녀 단부를 한 번 궁글렸다. 내부는 서실만 온돌로 두고 나머지는 우물마루를 구성하였으며, 천장은 서실의 경우 자반자로, 나머지는 연등천장으로 두었다.

내부에는 다수의 편액이 걸려 있는데, 서실 북측간 전면쪽 상부에는 정사(丁巳)년 명의 '大成殿 重修記' 가 걸려 있고, 우측 협간에는 신해(辛亥)년 명의 시(詩) 1개가 걸려 있다. 또, 우측 어간 북측면 상부에 걸려있는 '重修記' 말미에는 '孔夫子誕降二千五百四十八年丁丑十二月' 이라 적혀 있고, 좌측 어간 북측면에 걸려 있는 '重修記' 말미에는 '孔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九年戊辰十二月' 이라 되어 있어, 1997년과 1988년의 중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2) 현관실(獻官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좌측 2칸은 온돌방이고 우측은 마루이며 전면에는 쪽마루를 시설하였다.

나지막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전면 어간 뒷마루 상단에는 '養心齋' 현판을 걸었는데, 현판 좌측에 '歲在戊辰至月日' 이라는 명문이 남아 있다.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가구부재는 구재(舊材)를 다수 사용하였으며, 1988년에 건립되었고, 현재는 관리사로 쓰고 있다.

(3) 교직사(校直舍)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에 홀처마로 된 맞배지붕 5량가의 건물이다.

측면 2칸 중 앞의 칸의 반간 정도의 크기로 하였다. 부엌과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 앞에는 뒷마루가 시설되어 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 양심문과 협문이 있는데, 양심문(養心門)은 향교로 진입하는 외사주문으로, 향교 영역 서편에 자리잡고 있다. 사방 단 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단층 기단 위에 배흘림이 있는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중앙에 두 짹 판문을 달았으며, 전면에 ‘養心門’ 현판을 걸었는데 현판 좌측에 ‘歲在己巳炎夏’ 명문이 기록되어 있어 1989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협문은 현관실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짹 널문을 달았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차수단위=mm)
지정명칭	풍기향교(豊基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1호 (대성전, 동무, 서무)
창건시기	조선 초(추정)	입 지	평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리자	풍기향교
좌향	남향	배치형식	左學右廟
	1542년 이건		
중건시기	1692년 이건	대지조성	없음
	1735년 현 위치 이건		
설위	5聖 / 宋朝 6賢 / 海東 18賢	인접시설	풍기고등학교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내삼문 / 명륜당 / 현관실(양심재) / 교직사 / 외사주문 / 협문 2동		
특기사항	좌학우묘(左學右廟)의 배치 규범을 따르고 있음 한국전쟁 당시의 피해와 학교 건립으로 원형의 배치를 상실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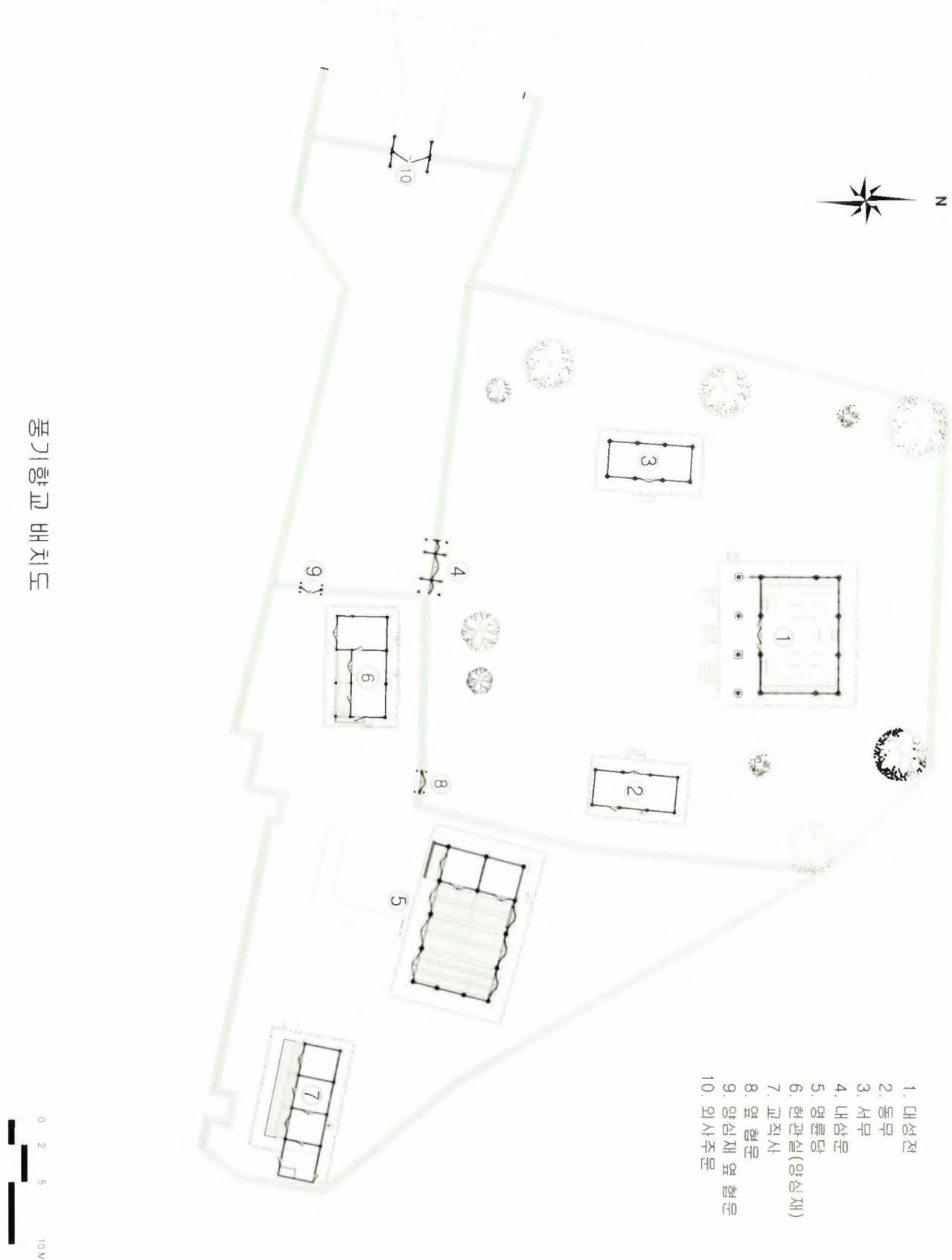
대성전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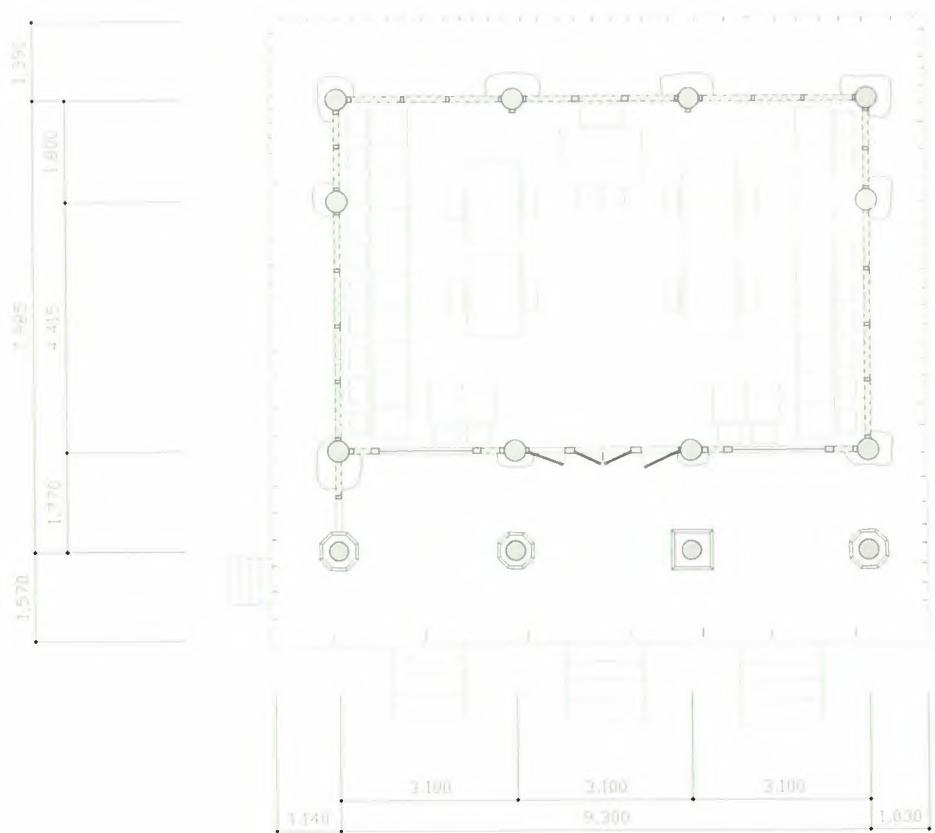
개요	3×3칸 / 초익공(전면), 물익공(후면) / 홀처마 맞배지붕 / 1고주 5량가 / 시멘몰탈 / 연등천장		
기단	단층기단	보	대들보 : 전고주후평주 걸침
계단	전면 3개(각 4단)		종 보 : 4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 일부 초석은 4각, 8각으로 다듬음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대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포	초익공 / 주간 소로 수장	창방	말각방형 / 초각
처마	홀처마	지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시멘몰탈 / 연등천장		
특기사항	전면 좌우칸에 낮게 광창을 두었음 전면 퇴칸 서측벽에 판문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음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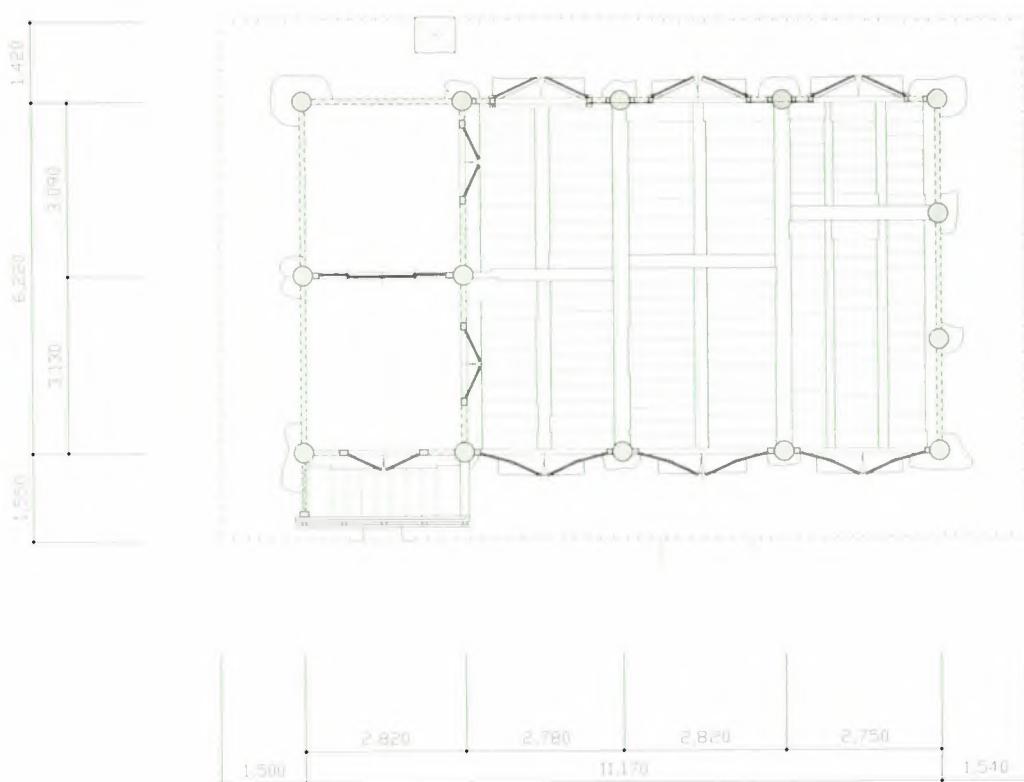
개요	4×3칸 / 외1출목 이익공 / 홀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서실)		
기단	단층기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단	없음		종 보 : 3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대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포	외1출목 이익공 / 주간 화반 수장	창방	말각방형 / 익공재 초각
처마	홀처마	지붕	팔작지붕
수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서실) 서실 전면에 난간을 두었음		
특기사항	초익공 살미에 단부에 소로를 얹고 이익공을 결구하여 외목도리를 받음 동측면은 3칸, 서측면은 2칸을 구성하였음		

풍기향교 배치도





풍기향교 대성전



풍기향교 명륜당





대성전



대성전 내부



▲ 대성전 정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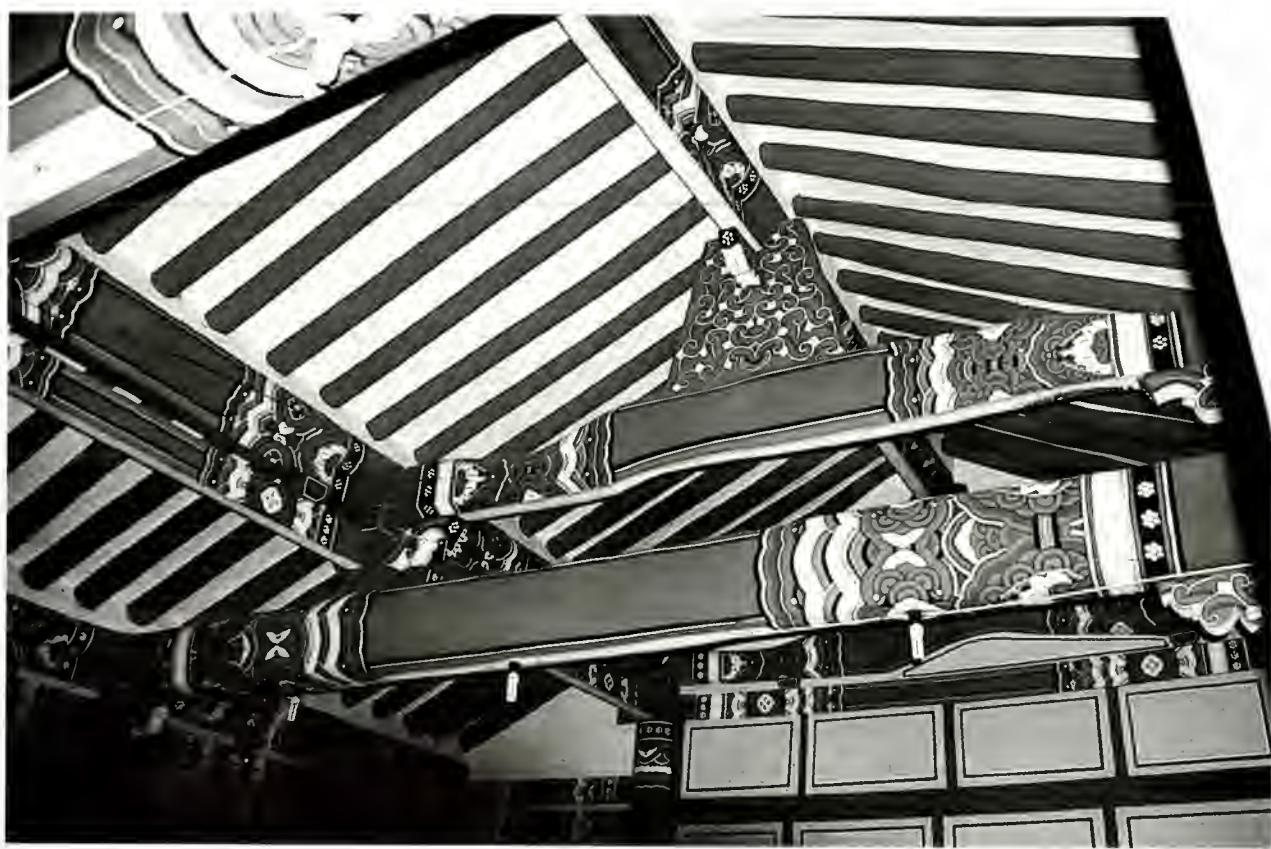
▲ 대성전 전면 퇴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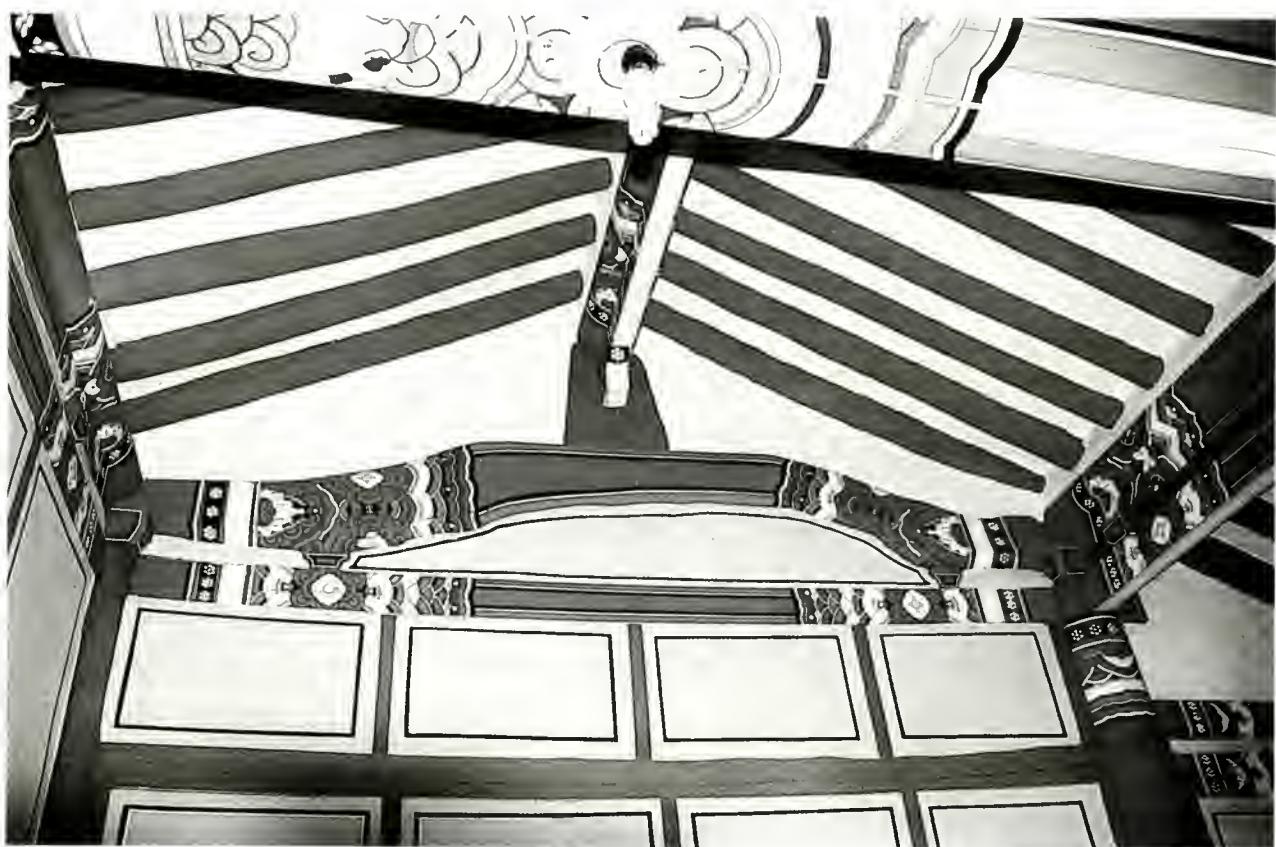
▲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전면 평주 초석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대성전 내부 측벽 가구



명륜당



명륜당 내부



◆ 명륜당 후면



◆ 명륜당 전면 주상포



◆ 명륜당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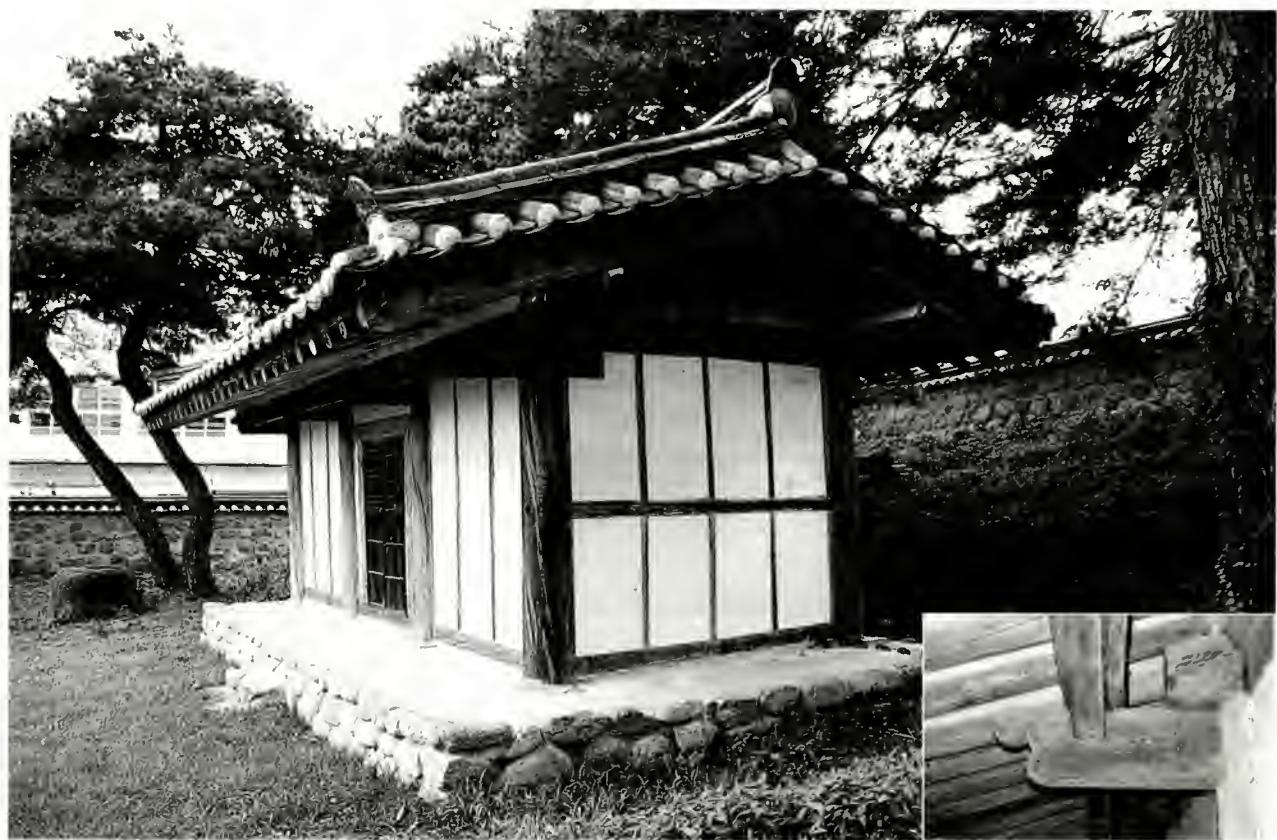
◆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내부 어칸 가구



명륜당 내부 협칸 가구



동무



서무



내삼문



외사주문(양심문)



현관실(양심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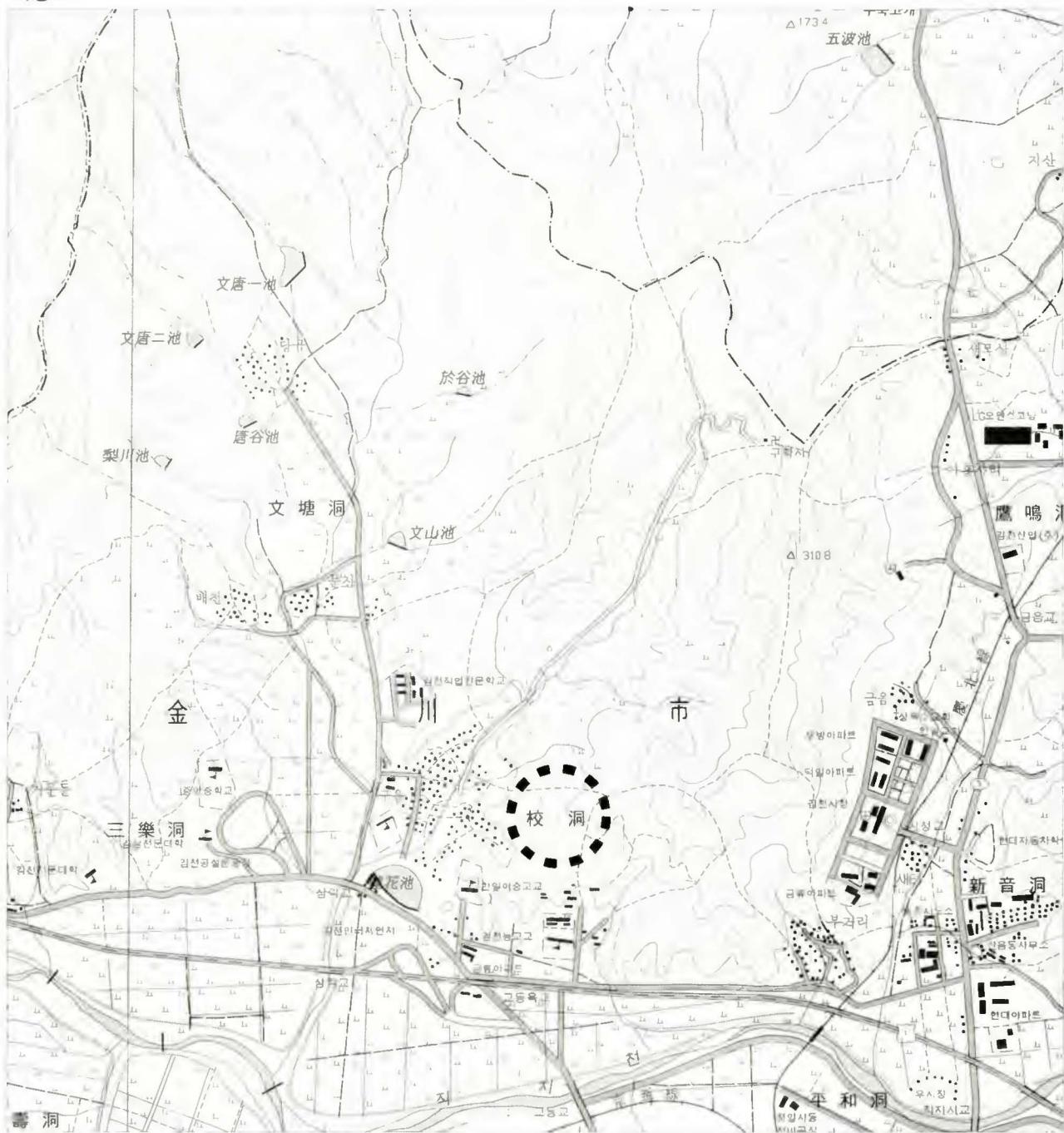


교직사

10. 김산향교(金山鄉校)

- 지정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7호(일곽)
 - 지정일 : 1992년 7월 18일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교동 437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외삼문, 화장실, 협문 등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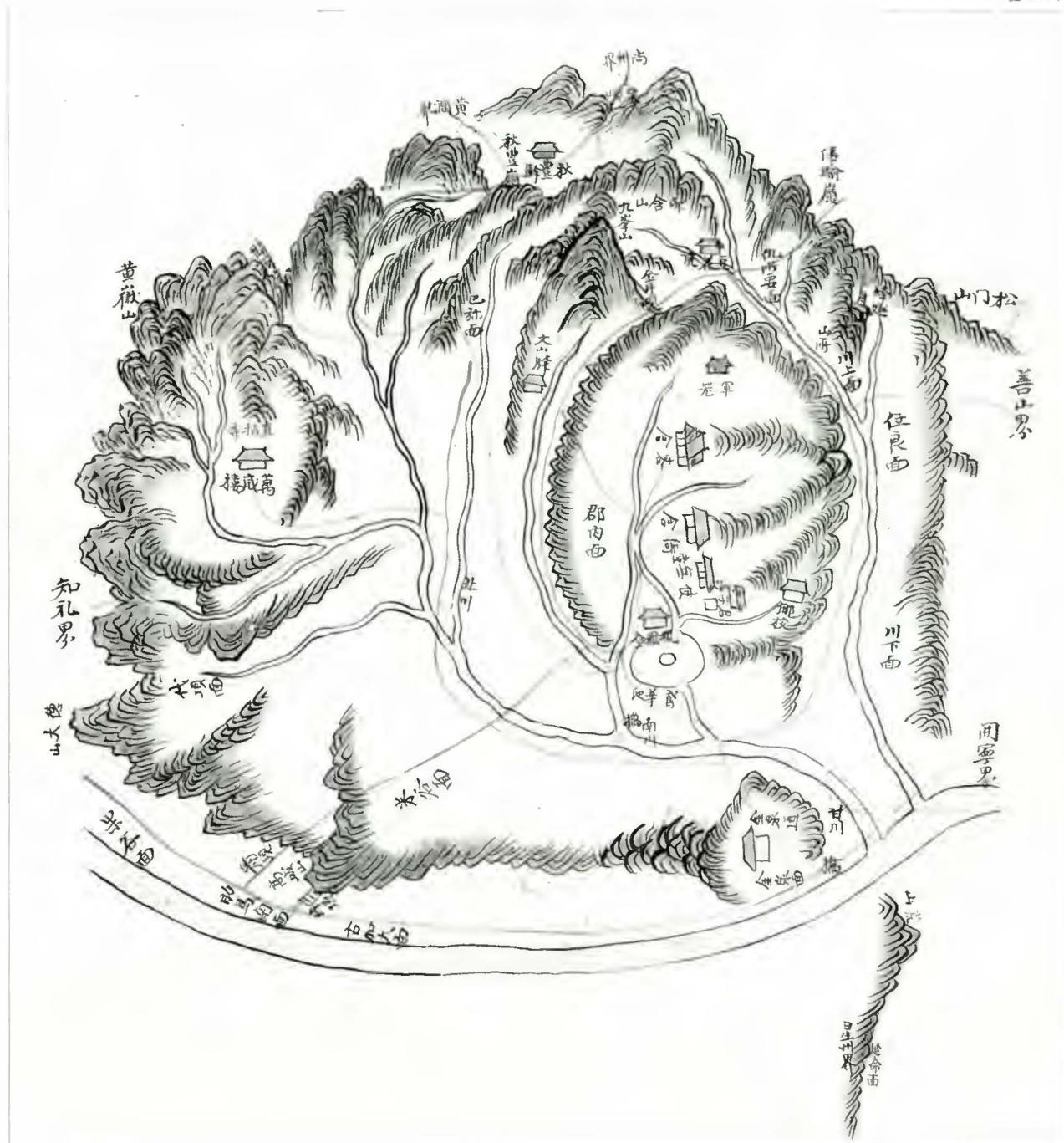


1. 연혁

김산(金山)은 본래 신라 김산현(金山縣)으로서 개령군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 현종 9년(1018) 당시에 선국적 군현 개편으로 경산부의 속읍이 되었다가 공양왕 2년에 감무(監務)가 파견되었다. 그 후 조선조에 들어와서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향교는 고려조에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나 고려 말까지는 대개 소수의 대읍(大邑)에 향교가 설치되었을 뿐이다. 그 후 조선조에 들어와 태조가 즉위하면서 각 도의 안찰사에게 명하여 향교진흥책을 명하고 주부군현에 1교씩

金山郡



김산향교

설치한 아래 성종조 무렵이면 대체로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른 향교 건립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김산향교는 그 읍의 연혁으로 미루어보아 빠르면 려말선초(麗末鮮初), 늦어도 성종조 이전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에 향교의 기록이 보이며, 군의 남쪽 1리에 향교가 있다고 되어 있다.

1988년 김산향교에서 발간한 『金山鄉校誌(김산향교지)』에 실려있는 이준(李浚)이 찬(撰)한 향교상량문에 의하면 김산향교는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전소되었으며, 인조 12년(1634) 진사 강설(姜濬)이 여러 선비들과 더불어 사재(私財)를 들여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건하였고, 그의 아들 강여거(姜汝渠)가 건립비용을 널리 모금하여 동서재와 묘문을 완공하였다고 한다.(崇禎七年甲戌月仲冬初四日上樑, 1634년에 해당함)

이후 1687년(혹은 1688년)에 대성전을 한 차례 보수하였으며, 1727년에도 향교 건물을 한 차례 보수된 듯 하다.(擁正五年, 명명문와 있음)

향교가 퇴락 하여 고종 12년(1872)에 당시 군수 이준영(李俊永)에 의해 중건되었다. 1970년에 일곽 건물을 해체 보수하였으며, 이 때 이준의 중수상량문이 발견되었다. 1979년에는 향교 일곽을 보수하면서 명륜당을 해체 보수하였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양사당이 있었다하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1993년에 대성전을 보수하였으며, 이듬해에 단청을 새로이 하였고, 1995년에 일곽을 보수하였다. 그리고 1998년에 외삼문을 건립하였다.

이상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추정)
임진왜란 중	소실
1634	대성전, 명륜당 및 동서재, 묘문 중건
1687(1688)	대성전 보수
1727	향교 일곽 보수
1872	향교 일곽 중건
1970	향교 일곽 해체 보수
1979	명륜당 해체 보수
1993	대성전 보수
1994	대성전 단청
1995	향교 일곽 보수
1998	외삼문 중건

2. 입지 및 배치

김천시에서 조금 벗어난 곳인 교동 산허리에 동향(東向)하여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 김천 톨게이트에서 좌회전하여 철교를 지나 직진한 다음 금릉교회 표시판을 따라 우회전 한 후 약 300미터 가량을 직진하면 금산향교

가 나타난다. 인근에 교동 연화지, 문화예술회관 등이 자리잡고 있다.

대지 조성은 경사가 급한 대지를 3단으로 조성하였으며, 건물 배치는 높은 계단을 올라 외삼문을 통과하면 명륜당, 동·서재, 내삼문, 동무, 대성전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학후묘(前學後廟)형이다. 또한 대성전과 내삼문, 명륜당과 외삼문이 단일 축선 상에 놓여있기는 하나 향(向)은 약간씩 다르다. 영남지역에서 동·서재의 일반적인 배치는 명륜당 앞에 위치하는 전재후당(前齋後堂)형이나 여기서는 명륜당 뒤에 위치하고 있는 전당후재(前堂後齋)형 배치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예는 호남지방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으나 경북지방에서는 흔치 않은 유형이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막돌허튼총쌓기한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흘립이 약한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기단 전면 좌측에는 4단으로 구성된 계단 1개를 두었으며, 기단 우측 전면으로 1단으로 된 계단을 두었다.

창호는 정면 각 칸마다 같은 형태의 쌍여닫이 울거미 널문을 달고, 측면은 중앙칸 중상부에 광창(光窓)을 달았으며, 바닥은 장마루를 깔았다. 문얼굴의 구성은 문미는 상인방과 겹하여 온연귀맞춤을 하고 하부는 하인방으로 문지방을 겹하고 있으며 맞댄맞춤을 하고 있다.

기둥머리에는 외1출목 2익공 형식의 공포를 구성하였는데, 살미의 끝이 날카롭게 뾰어 있으며, 하부는 쌍S자로 초각을 하였다. 첨차의 형상은 외목도리 밑의 행공첨차는 하부를 초각하고 마구리는 45° 정도 사절하였는데 주심첨차는 교두형으로 하였다. 창방 위에는 화반을 두지 않고 그대로 삼벽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화반을 생략한 예는 흔치않다. 또한 후면 어간에는 출목에서 장혀가 현재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가구의 구성은 5량으로 잘 다듬은 직선재의 대들보 위 3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를 세워 양봉과 뛴창방을 교차시키고 중도리와 장혀를 받친 후 종보를 올려놓았다. 종보 위에는 제형(梯形) 판대공을 세우고 종도리와 장혀 및 뛴창방을 건너지르게 하였다. 뛴창방과 장혀사이는 소로를 2개씩 끼워놓았다. 한편 측면에서는 전후에 고주(高柱)를 두었다.

전후면 모두 겹쳐마로 되어 있으며 외부는 가칠단청, 내부는 굿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용마루 좌우 망와(望瓦)와 전면 서측 내림마루 망와는 명문와를 사용하였다. 일부 파손되었기는 하나 대략 살펴보면 '康熙二十六年 戊辰二月日'을 읽어 낼 수 있으며 이는 연호(年號) 상으로는 1687년, 간지(干支) 상으로는 1688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 때에 대성전이 한 차례 보수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동무(東廡)

동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대성전 앞 우측에 있다. 원래 동·서 양무(兩廡)로 있던 것이 서무는 없어지고 이 건물만 남아 있다. 막돌쌓기한 기단 위에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운 3량가의 굴도리집으로, 정면은 대성전과 같은 모양의 쌍여닫이 울거미널문을 각 칸에 두었으며 측면에는 불박이 광창을 끼웠다. 종대

공은 어간에서 판대공, 좌우측벽에서 동자주를 사용하였다. 처마는 홀처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측면에만 방풍판을 달았고 대성전과 마찬가지로 내립마루 망와에 명문와를 사용하였다.

(3) 내삼문(內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강학공간의 지반보다 약 10자 정도 높게 하였다.

전면에 통간으로 7단의 계단을 두었으며, 단층 기단 위에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좌우 측면에서 중방 이하를 판벽으로 처리하였으며, 창호는 각 칸 모두 전면 평주에서 측면의 1/4가량 들어온 위치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간단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두었다. 어간 판문 전면에는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의 건물로, 1979년에 건물을 완전 해체한 후 중건하였는데 주요 구조재를 제외하고 거의 신재(新材)로 교체되었다.

정면은 대자의 고지를 이용하여 기단에서 마루까지를 7.5자 가량 띄워 누각과 같은 형식으로 하여 계자난간을 설치하였으나, 배면은 단층으로 하였다. 측면 구성은 우측면을 2칸으로 하였으나 좌측면은 칸살을 좁혀 3칸으로 하여 칸수를 다르게 하였다.

막돌허튼층쌓기한 6~7자 높이의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대청마루 좌측에 면하는 기둥만 방형 단면의 기둥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원형 단면의 기둥을 사용하였다. 기단 좌우측면으로는 대자의 경사로 인하여 명륜당 후면으로 오르는 계단을 각각 1개씩 두었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였는데, 살비의 끝을 날카롭게 만들었으며 창방과 장혀사이에는 소로를 끼웠다.

온돌방의 정면은 벽체 상부에 각각 쌍여닫이 세살창을 조그맣게 내고, 우측면은 2칸으로 하여 쌍여닫이 궁판 세살문을 2군데 두어 대청으로 통하게 하고 있으나 좌측면은 3칸으로 구성하여 각 칸마다 외여닫이문을 두었으나 후면칸은 벽체로 막아버렸다. 그러나 현재 기둥에도 문선을 결구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가구의 구성은 5량으로 하고 약간 훤 건실한 대들보 위 4분변작의 위치에 첨차, 양봉, 접시받침으로 구성된 포대공을 세웠으며, 종보 위에는 중앙이 넓고 하부가 좁은 마름보꼴의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와 장혀를 받고 있다. 대청에 면하는 방 상부 벽체의 가구구성도 좌측은 합보를 하여 판대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측은 대들보를 사용하고 파련대공으로 하여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

처마는 전후면 모두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압수막새를 사용하였다. 전면 서측 내립마루 망와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명문와(銘文瓦)이며, 내부에는 다수의 상량기문 등 편액이 걸려 있다. 이 가운데 동실 좌측벽 상부에 걸린 '錦山鄉校 重修記' 말미에는 '孔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一年'이라 되어 있으며, 서실 우측벽 상부에는 '錦山鄉校 重建上樑文'이 걸려 있는데 끝부분에 기록된 연대가 같아 모두 1980년에 해당하는데 이는 1979년에서 1980년 사이에 진행된 보수 내역을 알려주고 있다.

(2) 동재(東齋)

정면 3칸, 측면 3칸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의 구성은 측면 가운데 칸을 넓게 하고 나머지 칸은 가

운데 칸의 반 정도의 크기로 칸살을 잡아 퇴마루로 구성하였다. 정면의 2칸은 통칸으로 하여 온돌방으로 하고 나머지 1칸은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동재의 경우는 부엌내부 하인방에 남아있는 흄구멍의 흔적으로 보아 마루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창호의 구성은 정면 가운데 칸 출입문을 궁판세살문으로 하여 마루높이와 같게 하고, 좌측칸은 쌍여닫이 세살문으로 하여 문턱을 2자 가량 높여 놓았다. 측면에는 광창을 설치하였고, 배면에도 문틀은 있으나 현재는 벽체로 하였다. 단층 기단에 방형 단면의 기등을 사용하였으며, 가구는 2고주 5량가로 가칠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3) 서재(西齋)

서재는 동재와 평면 및 입면 형식이 유사하되 내부가 통칸으로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우측칸 전면에 온통 벽체를 쳤으나 문얼굴이 남아 있다. 전면 좌측 내림마루 망와와 후면 우측 내림마루 망와에 명문(銘文)이 남아 있다.

(4) 외삼문(外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인접된 도로보다 8자 정도 높게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내삼문과 같은 형태이며, 근년에 신축하였다. 기단 전면에 5단으로 된 계단을 1개 두었으며, 기단 위에는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단면의 기등을 세웠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각 칸 중앙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전면 어칸 우측 내림마루에 명문와가 있으며, ‘崇禎紀元后五 戊寅三月日’ 이 있어 1998년에 지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서재 후면에 두 칸 규모의 화장실과 화장실 옆의 외부로 향하는 협문이 1동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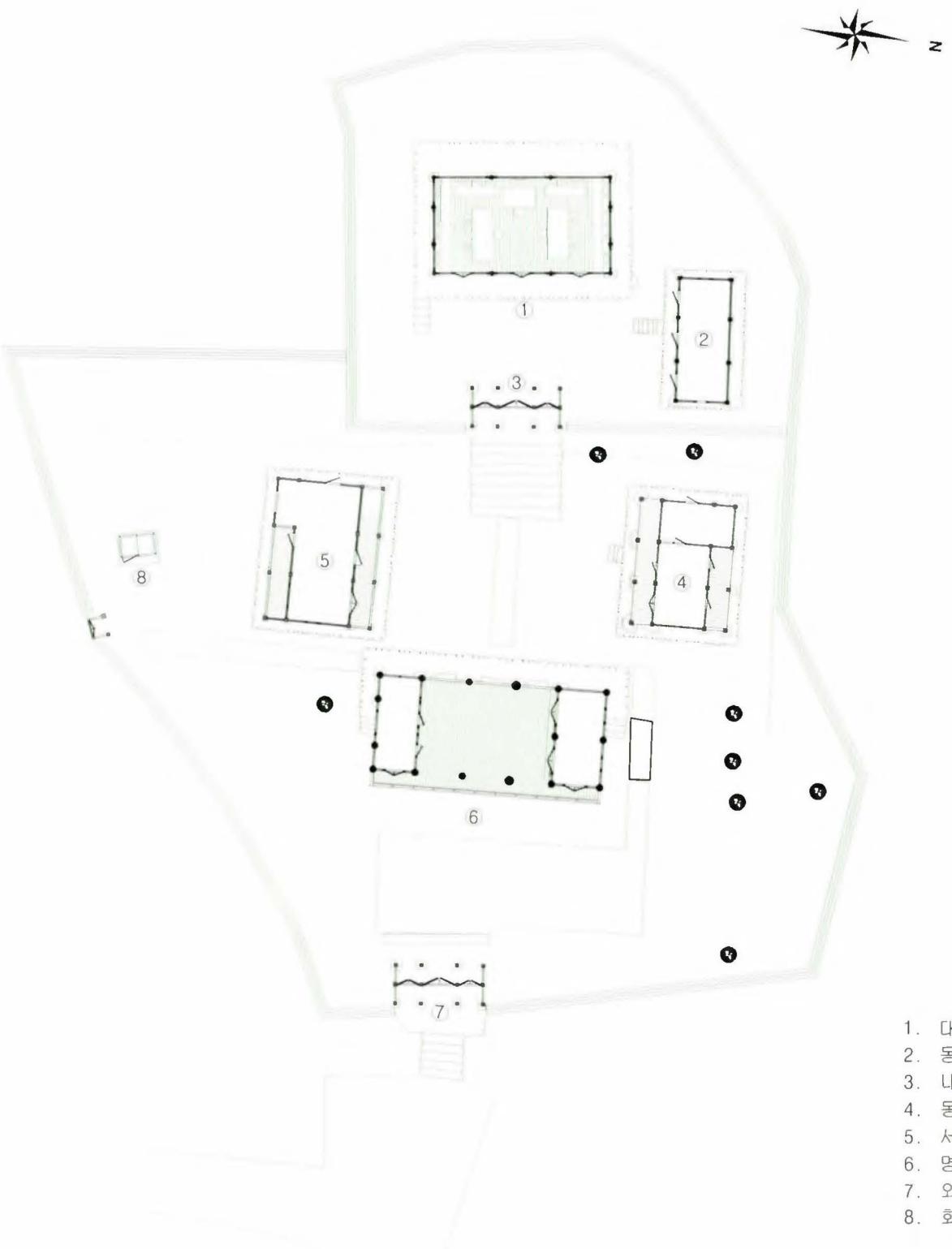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김산향교(金山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7호 (일과)	
창건시기	조선 초(추정)	입 지	구릉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 리 자	김산향교	
좌 향	동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堂後齋 동서 종축 1개	
중건시기	1634년 중건 1872년 중건 1970년 해체 보수	대지조성	3단 / 명륜당,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 宋朝 2賢 / 海東 18賢	인접시설	교동 연화지(蓮花池), 문화예술회관	
건축구성	대성전 / 동무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외삼문 / 화장실 / 협문			
특기사항	중심축선 상에 놓인 건물의 향이 일정하지 않고 약간씩 다름 경북지방에서는 흔치 않은 전당후재(前堂後齋)형 배치를 따르고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3칸 / 외1출목 이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측벽 2고주) / 장마루 / 연등천장		
기 단	단층기단 / 잡석 쌓기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 단	전면 1개(4단), 우측면 1개(1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둉	원형기둥 / 배흘림 약함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제형판대공
공 포	외1출목 2익공 / 주간 화반 생략	창 방	말각방형 / 직절
처 마	겹처마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내부 긋기단청, 외부 가칠단청 / 장마루 / 연등천장		
특기사항	익공계 건물임에도 주간에 화반 혹은 소로를 수장하지 않고 생략하였음 좌우 측면 가운데 칸에 광창을 두었음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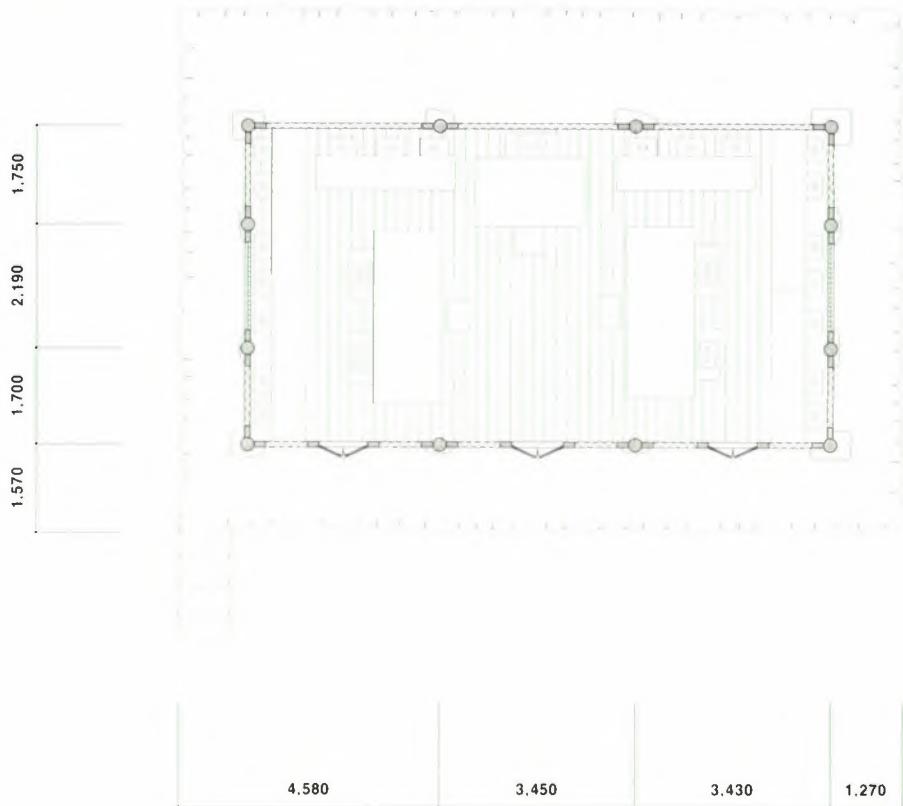
개 요	5×2칸 / 초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측벽 2고주)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기 단	단층기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 단	없음		종 보 : 4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둉	원형기둥 방형기둥은 서실 동편에 1개 사용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판대공, 파련대공(일부)
공 포	초익공 / 주간 소로 수장	창 방	말각방형 / 익공재 초각
처 마	겹처마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가칠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전면을 중층누각으로 꾸몄음		
특기사항	전면에 계자난간을 두었음 우측에서는 2칸으로, 좌측에서는 3칸으로 칸 수를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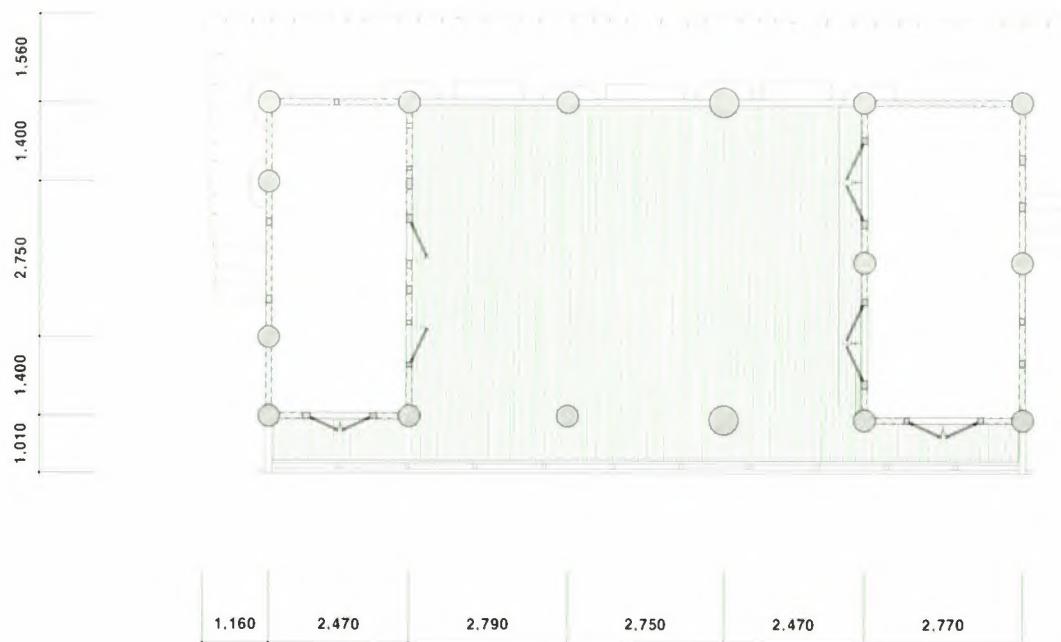
김산향교

김산향교 배치도

0 2 5 10M



김산향교 대성전



김산향교 명례당

0 0.5 1.0 2.0 4.0M



대성전



대성전 내부



▲ 대성전 전면 어칸 구성



▲ 대성전 전면 우주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전면 귀포



▲ 대성전 내부 가구



▲ 대성전 내부 대들보 결구



▲ 대성전 내부 중대공



▲ 대성전 내부 종대공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 명륜당 내부 가구



▲ 명륜당 전면 주상포



▲ 명륜당 내부 중대공



▲ 명륜당 내부 중대공



동무



동재



서재



▲ 내삼문



▲ 외삼문

11. 예천향교(醴泉鄉校)

- 지정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38호(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주소)
- 지정일 : 1992년 7월 18일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199-1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외삼문, 주소, 협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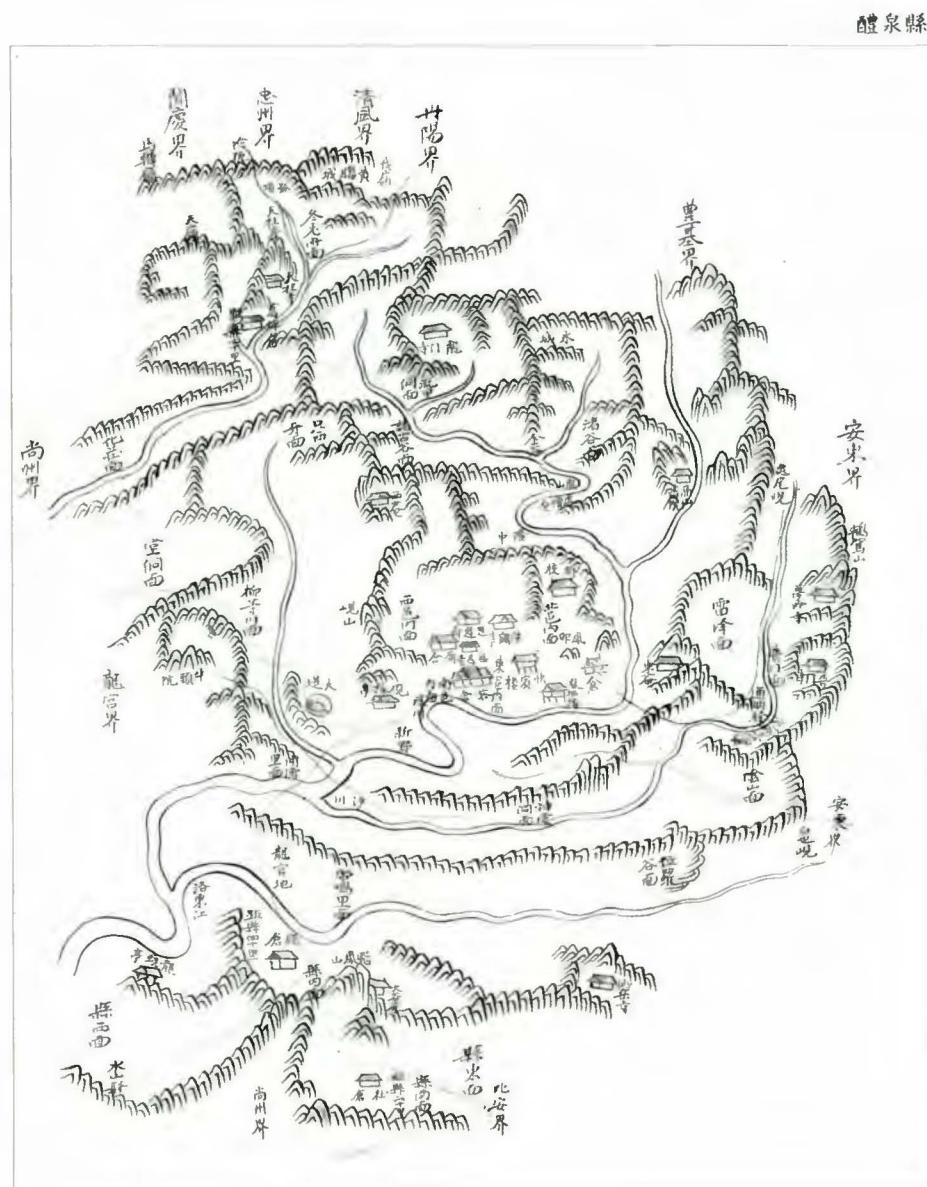
지형도



1. 연혁

예천은 소백산맥의 이남에 위치하여 삽한 소국시기에는 사벌국에 속하다가, 신라 제 12대 침해이사급(沾解泥師叔) 이후 신하에 복속(復屬)되어 수주현(水酒縣)이라 하였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757) 12월에는 9주(州) 중 상주(上州)에 속하여 처음 예천군(醴泉郡)으로 불려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고려 태조 18년(935)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자 예천을 보주(甫州)로 불렀다. 태조 21년(938) 전국에 12목(牧)을 설치한 후 보주(甫州)는 상주목(尙州牧) 소속이 되었다가, 예종 14년(1199)부터 무신정권에 대한 민란이 자주 발생하자 중앙정부는 최광의(崔光義)를 파견하여 정벌한 뒤 지보주사(知保州事)를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 태종 13년(1413) 보주(甫州) 혹은 보천(甫川)으로 고쳤고, 태종 16년(1416) 예천군(醴泉郡)으로 고쳐 안동진(安東鎮) 관하에 두었다. 1895년 지방관제가 개편되면서 8도를 폐지하고 23부를 둘에 안동부 16군의 하나가 되었다.

예천향교는 군의 북쪽
1리에 있다는 「新增東國
興地勝覽(신증동국여지
승람)」의 기록과 같이 현
재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栢田里) 199-1번 시에 위



치하고 있다. 『嶺南邑誌(영남읍지)』중의 「醴泉郡邑誌(예천군읍지)」에 의하면 향교가 옛날에는 현산(峴山)의 서쪽 기슭(현 서본리(西本里))에 있었는데 조선초인 태종 18년(1418)에 군수 김겸(金謙)이 현재의 위치인 현산의 북쪽으로 옮겨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후 『영남읍지』의 기록에 의하면 군수 심유행(沈濡行, 1656~1657 재임)과 이휘조(李徽祚, 1658~1659 재임) 양대에 걸쳐 중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명륜당 내의 「鄉校重修記(향교중수기)」로 「上之三十五年 戊戌孟夏記」와 「聖上卽位三年 丙寅記」는 각각 고종 35년(1898)과 고종 3년(1866)의 기문(記文)이며, 중건기(重建記)는 「戊戌八月記」로 고종 35년(1898)의 기문이다. 그리고 내삼문 막새기와의 「順治十四年七月 醴泉官瓦匠拜豎」라 한 명문(銘文)은 앞에 언급한 두 군수의 재임 기간에 포함된 효종 8년(1657)에 기와가 제작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 『영남읍지』에 의하면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 1587~1667)의 기문이 있다고 하는데, 같은 읍지의 「風谷」條에 김응조는 예천을 「素稱文面之鄉(소칭문면지향)」으로 평하고 있다.

향교의 이전에 관한 다른 기록으로는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에 영조 46년(1770) 판관(判官) 최승(崔僧)이 이전했다고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으며, 내삼문 후면에 놓인 명문와에 연산군 2년(1496, 弘治九年)의 명문(銘文)이 있다.

1963년에 한차례 보수하였고, 1985년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으며, 1987년에 외삼문을 이전하였다. 1990년에는 명륜당을 보수하였으며, 1991년에 명륜당 지붕 및 단청 등 미장 공사를 실시하여 이듬해에 완공하였다.

이상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추정)
1418	현 위치로 이전
1496	향교 일곽 보수(추정)
1656~1659	향교 일곽 중수
1770	이전(불명확)
1866	향교 일곽 중건
1898	향교 일곽 중건
1963	향교 일곽 보수
1985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됨
1987	외삼문 이전
1990	명륜당 보수
1991	명륜당 지붕 및 단청 등 미장 공사 실시

예천향교는 대성전 6칸, 명륜당 10칸, 동서재 각 3칸, 식루(食樓) 7칸, 주소(廚所) 3칸, 전곡청(典穀廳) 20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영남읍지』에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대성전, 명륜당, 주소 만이 남아 있어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2. 입지 및 배치

중설위(小設位) 향교로 흑옹산의 동쪽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창중고등학교와 담을 면하고 있다. 이 향교는 현존하는 건물 이외에 풍영루(諷詠樓, 정면7칸, 측면2칸, 맞배지붕)와 전곡청(典穀廳, 20칸), 양무(兩廡, 각 3칸), 양재(兩齋, 각 2칸) 등 6동이 있었으나 모두 없어지고 풍영루 자리에는 대창고등학교의 예술관이 세워져 있다.

외삼문으로 진입하면 전면 우측에 별도의 공간을 두고 주소(廁所)가 자리잡고 있으며 좌측으로 사주문이 서 있다. 다시 사주문을 통과하면 전면 좌측으로 명륜당이 자리잡고 있으며, 양재는 없다. 명륜당 후면의 내삼문을 통과하면 전면 중앙에 대성전이 자리잡고 있다. 전면과 측면 일부에는 민가가 다수 위치하고 있으나 후면과 측면 일부는 다수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대지를 3단으로 정지하여 명륜당이 앞에 오고 대성전이 뒤에 가는 일직선 축으로 배치된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이다. 남향하게 하여 제향영역과 강학영역을 담으로 분리하였고, 동쪽담 밖으로는 '口'자형 주택으로 된 주소(廁所)를 두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하부를 막돌로 쌓은 후 그 위에 다듬은 돌 허튼층쌓기를 한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모두 약한 흘림이 있는 원형 단면의 기둥을 사용했다. 기단 전면에는 좌우칸 중앙에 맞추어 3단으로 구성된 계단을 각각 1개씩 두었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고, 전면 각 칸에 두 짹 띠살문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외1출목 2익공의 공포를 구성하였는데, 익공쇠서의 끝을 날카롭게 하였으며, 첨자는 양끝을 비스듬히 깎고 하부는 쌍S자로 초각 하였다. 창방 위에는 전후의 형태가 다른 화반을 각 칸마다 1개씩 두었고 출목사이는 순각판으로 막았다.

내부 가구는 5량가로 되었는데, 전후 평주 위에 폭이 좁고 양면을 다듬은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양봉(梁奉)과 대접받침으로 구성된 중대공을 놓아 종보를 받았고 그 위에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중도리장혀 밑에는 첨차 없이 뜬창방을 끼워 놓았으나 종도리장혀 하부에는 뜬창방을 결구하지 않았고, 뜬창방과 장혀사이에는 소로를 2개씩 끼웠다. 좌우 측벽 상부의 대공은 파련대공 대신에 각대공(角臺工)을 세우고 하부에 걸침목으로 보강시켜 복화반(覆花盤)과 같은 형상의 대공을 사용하고 있다. 좌우 측벽에서는 전후에 고주를 두었다.

내부는 연등천장에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좌우 측면 박공 부분에는 풍판을 달았으며, 정면은 겹쳐마로 하고 막새기와로 마무리하였으나, 후면은 홀처마로 처리하고 숫기와 끝을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또한 전면 만 모로단청하고 나머지는 가칠단청을 하는 등 선면과 다르게 처리하였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2현, 그리고 해동 18현의 위패를 모셨다.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명륜당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륜당과는 대지의 높이를 달리하고 있다.

단층 기단 위에 전면에는 약간 높게 솟은 장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좌우 측면에 벽체를 구성하였으며, 각 칸 후면 기둥 옆에 맞추어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납도리를 쓰고 있으며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놓고 종도리를 받았다. 가칠단청으로 마무리된 매우 소박한 건물로, 기와는 배면에만 암막새기와를 올려놓았는데, 일부 명문이 남아 있다. 이 중 '弘治九年' 명의 명문와는 조선초인 연산군 2년(1496)에 해당하며, '順治十四年' 명의 명문와는 효종 8년(1657)에 해당한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억공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명륜당 앞마당에 비하여 10尺 정도로 높게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얹혔다. 80cm정도 높이의 막돌허튼총쌓기한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으로 세웠다. 창호의 구성은 온돌방 전면은 쌍여닫이 세살창을 달았는데, 창얼굴의 꾸밈은 하인방위에 문선(門扇)을 세우고 창윗틀과 상인방을 겸하게 하고, 창밑틀은 하인방 보다 높게 하여 그 사이는 흙으로 된 머름을 두었다. 부재는 모두 맞댄맞춤으로 하였다. 마루로 통하는 문은 각 칸마다 1개소씩의 두어 좌·우 온돌방에 4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문은 모두 쌍여닫이 궁판세살문으로 하인방과 문밑틀을 겸하고, 상인방과 문윗틀이 같은 부재로 되어 있으나 모두 신재(新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방의 좌우 측면에도 같은 형태의 외짝문이 각 칸에 1개씩 달려 있다. 대청의 전면에는 미서기 유리문을 달고 배면에는 어칸에만 유리문을 달아 출입하게 하였다.

기둥머리에는 이익공을 결구하였는데, 무출목 이익공으로 살미의 형상은 대성전과 같이 날카로운 쇠서를 가지고 있다. 창방 위에 초각한 화반을 각 칸에 1개씩 올려놓았으며 정면과 배면은 그 형상이 같으나 서측면만이 다르게 나타난다.

가구의 구성은 5량가로 하여 전·후 평주 위에 대들보를 걸고 보아지를 끼운 동자주 대공을 올려 그 위에 종보를 받고 파련대공을 세웠다. 종도리와 중도리 장혀 밑에는 뜬창방을 결구시키고 사이에는 소로를 끼워 놓았다.

대들보의 형상은 자연재를 약간만 치목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단면의 형상은 양 볼을 빗깎아 윗면을 아랫면보다 약간 넓게 하였다. 종보의 보머리는 여느 향교와 달리 보아지와 같은 두께로 하여 초각하였다.

처마는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기와의 끝에는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내부 평면은 측면 2칸을 온돌방으로 꾸며 좌우에 배치하고 중앙은 우물마루를 시설하였으며, 온돌은 지반자로, 가운데 마루는 연등천장으로 하였다.

내부에는 다수의 기문이 걸려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고종 연간의 기문 3개와 '檀紀四二九六癸卯' 명의 '鄉校重修記'(1963년에 해당함), '白鹿洞規' 등이 있다.

이 건물에 있어서 재미있는 것은 충량(衝樑)머리에 덧대어 충량과 같은 형태의 자연곡재를 사용하여 각각 청룡과 황룡을 그리고 대들보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 부재의 끝에는 용머리를 그려 붙였다. 전면 평주 하부에 같은

높이와 크기의 장부구멍이 있어 쪽마루를 설치한 흔적이 아닌가 여겨진다. 건물 동측 후면에 비좌(碑座) 1개가 남아 있다.

(2) 사주문(四柱門)

명륜당의 정문 역할을 하며 명륜당의 우측 귀퉁이에 건립되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며, 향교 대지 일부가 대창중고등학교로 편입되면서 원래의 문 위치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다. 기 타

기타 건물로 주소(廁所)와 외삼문이 있다.

주소는 명륜당 담 건너 우측의 한단 낮은 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용 건물로 정면 4칸, 측면 6칸의 '口'자형 와가(瓦家)이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내부에 '重修記'가 걸려 있다.

외삼문은 향교의 정문역할을 하며, 주소 앞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평지붕으로 되어 있다. 기단 전면에 4단으로 된 계단을 두고, 낮은 단층 기단 위에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놓았다. 중앙의 창호를 구성하기 위한 설주만 방형 단면의 기둥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원형 단면의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였다. 좌우 측벽에만 회사벽을 꾸몄으며 각 칸 중앙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이며, 학교 건물로 인하여 중심축에서 비껴나 현재의 위치에 1987년에 이전하였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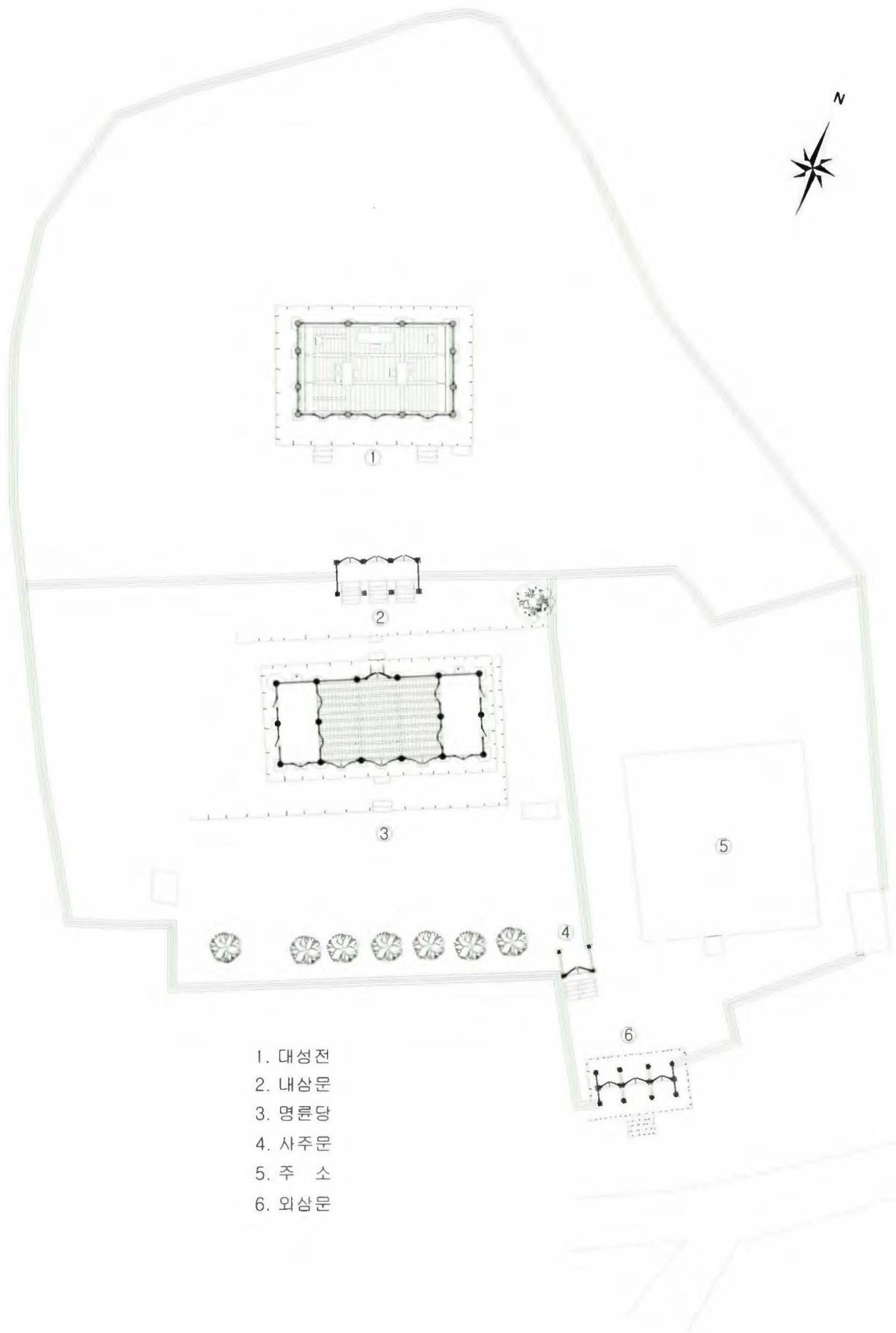
향교 일반			
(차수단위=mm)			
지정명칭	예천향교(醴泉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38호 (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주소 등 4동)
창건시기	조선 초(추정)	입 지	구릉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리자	예천향교
좌향	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남북 종축 1개
중건시기	1418년 현 위치 이건 1770년 이건(추정)	대지조성	3단 / 명륜당, 내삼문 기준
설위	5聖 / 宋朝 2賢 / 海東 18賢	인접시설	대창중고등학교
건축구성	대성전 / 내삼문 / 명륜당 / 사주문 / 외삼문 / 주소		
특기사항	양무와 양재가 생략된 간략한 배치임 전면의 학교 건립으로 외삼문을 이건 하는 등 현재의 향교는 원형을 상당히 손실하였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요	3×3칸 / 외1출목 이익공 / 겹처마(전면) 맞배지붕 / 5량가(측면 2고주) / 우물마루 / 연등천장		
기단	단층기단 / 전면 삼벌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단	전면 2개(각 3단)		종 보 : 3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 배흘림 약간	대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어간), 각대공(측벽)
공포	외1출목 2익공 / 주간 화반 수장	창방	말각방형 / 초각
처마	겹처마(전면), 훌처마(후면)	지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장	회사벽 / 전면 모로단청, 나머지 가칠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		
특기사항	전면만 겹처마에 막새기와를 두었으며, 후면은 훌처마에 아귀토로 마감함 좌우 측벽에서는 각대공(角臺工)에 하부에 받침목을 두어 복화반과 같은 형태를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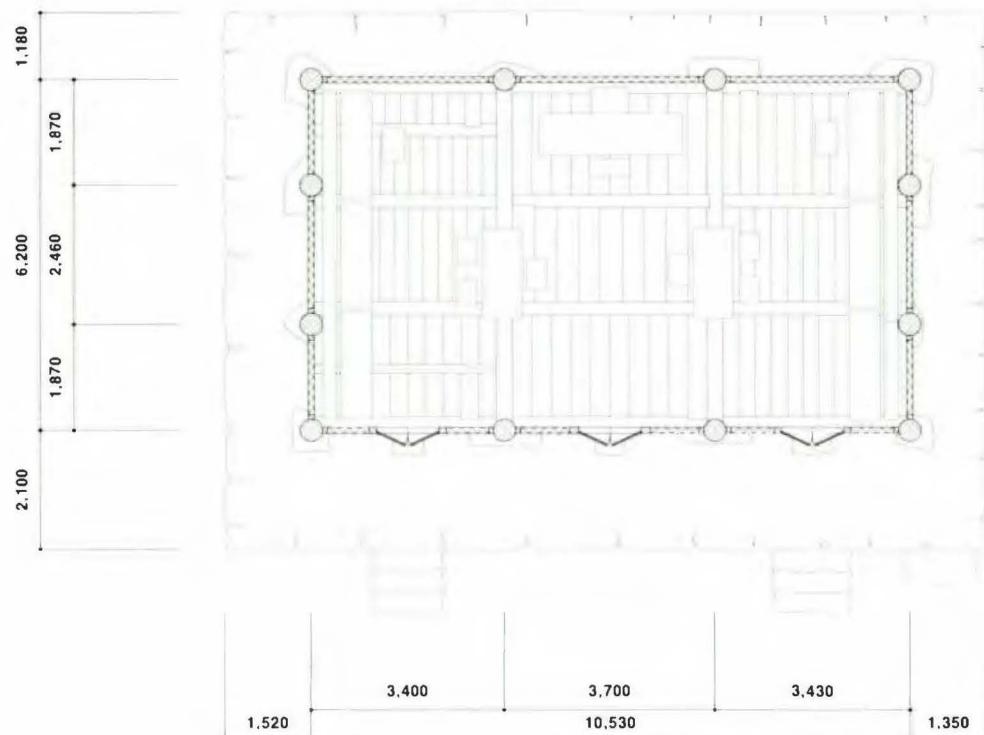
명륜당 건축 요소

개요	5×2칸 / 이익공 / 겹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기단	단층기단 / 잡석쌓기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단	전면 1개(9단)		종 보 : 3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대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포	이익공 / 주간 화반 수장	창방	말각방형 / 익공재 초각
처마	겹처마	지붕	팔작지붕
수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특기사항	지형차로 인하여 전면에 축대를 구성하였음 팔작지붕에서 좌우측벽 중앙 평주에서 결구되는 충량을 좌우 협간에 두어 어간 좌우 대들보에 충량 머리를 걸게 하였고, 각각 청룡과 황룡을 그려 넣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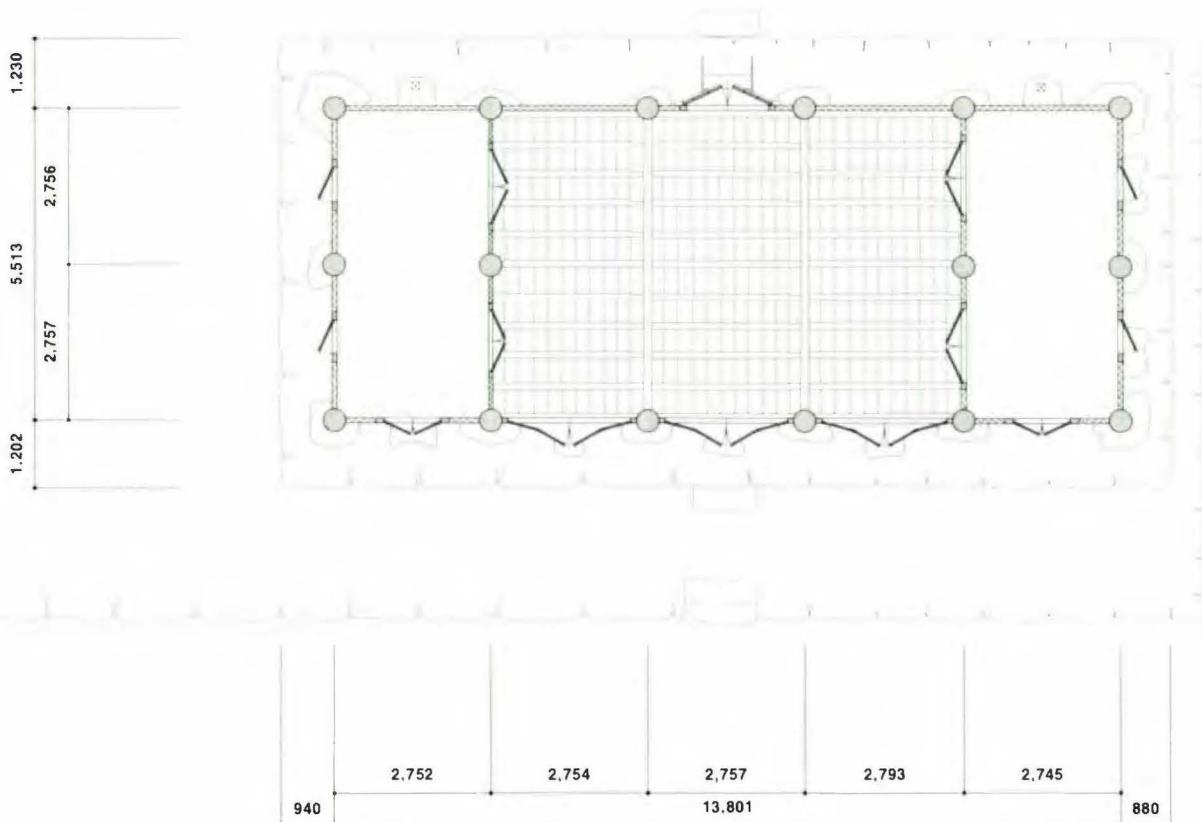


예천향교 배지도

0 2 5 10M



예천향교 대성전



예천향교 명륜단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 대성전 측면



▲ 대성전 전면 평주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대성전 내부 어칸 구성



대성전 내부 측벽 가구



대성전 내부 중대공



대성전 내부 종대공



명륜당



명륜당 내부



● 명륜당 후면



● 명륜당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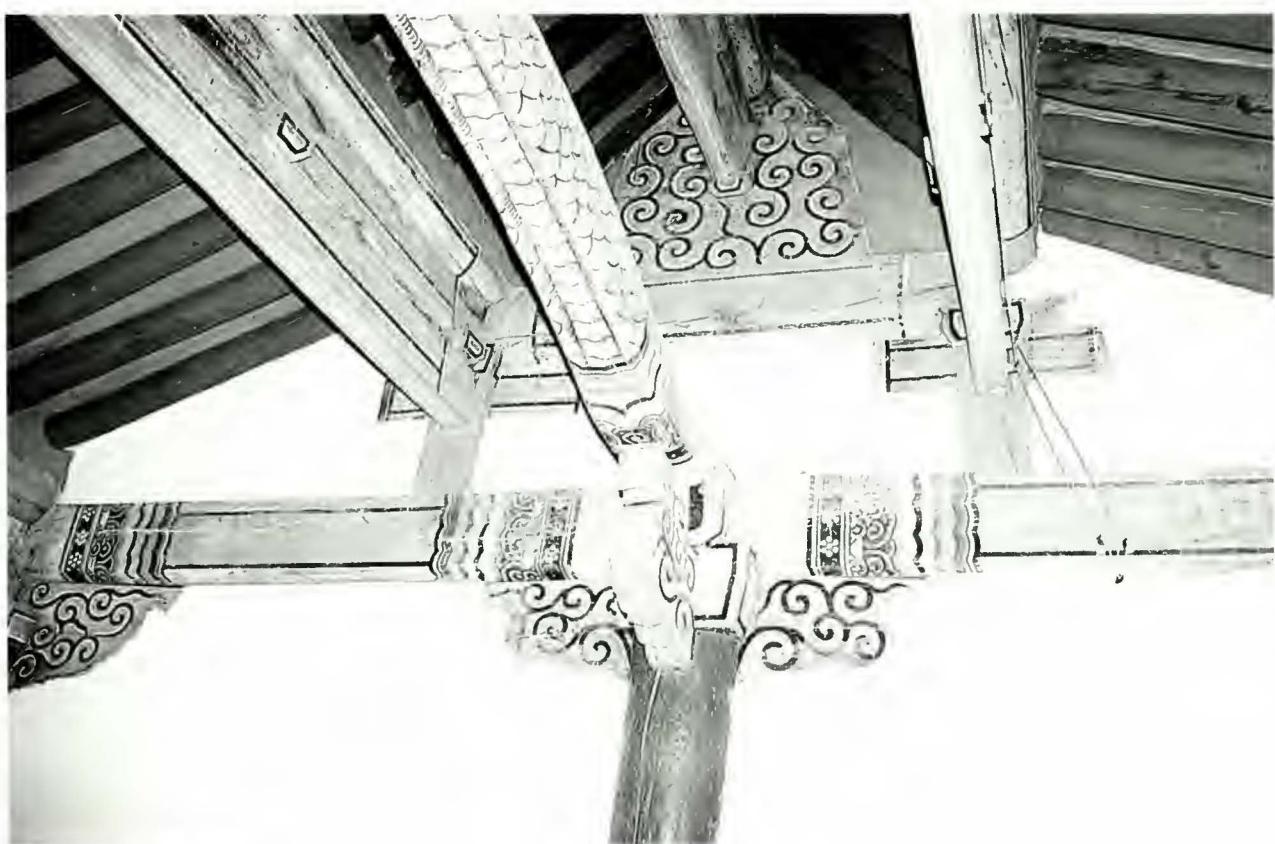
● 명륜당 전면 주상포



●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내부 어칸 가구



명륜당 내부 측벽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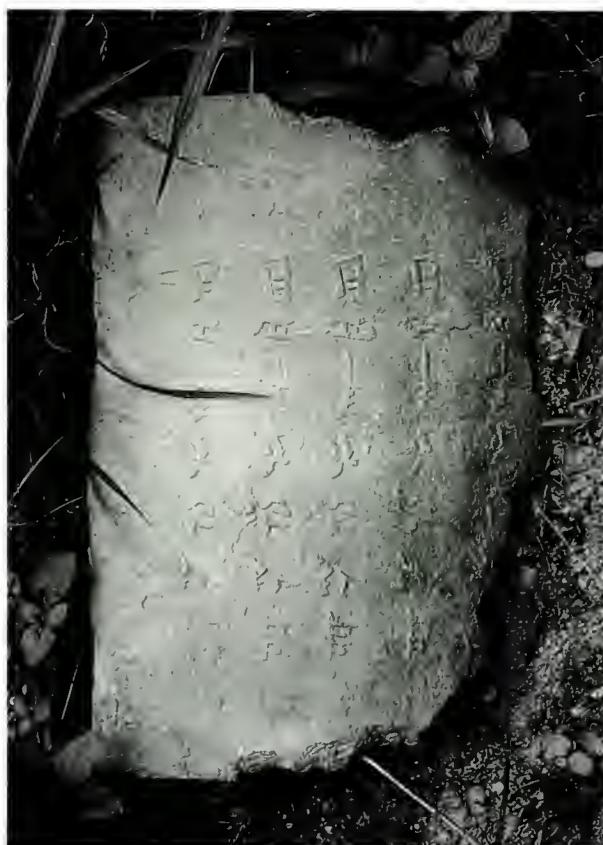
내삼문



외삼문



전경



명문 암기와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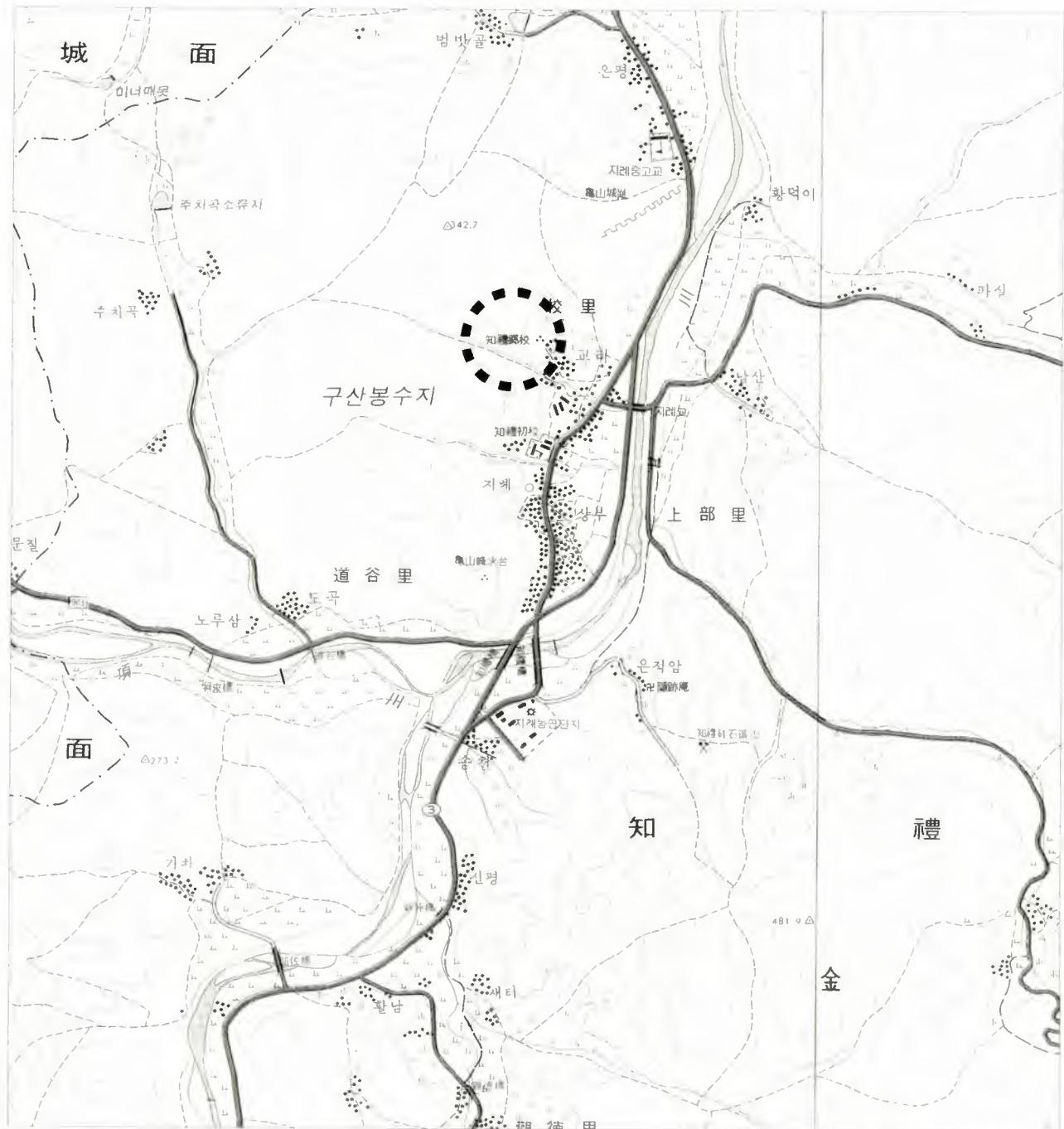


사주문

12. 지례향교(知禮鄉校)

- 지 정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18호(대성전)
 - 지정일 : 1985년 8월 5일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교리 739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사반루, 사주문, 교직사 등

지형도



1. 연혁

지례향교에 관한 자료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향교의 역사는 한 읍(邑)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지례의 연혁을 통해 향교창건의 사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례는 본래 신라의 지품천현(知品川縣)이었다. 경덕왕의 전국적 군현 개편에 즈음하여 지금의 이름인 지례현으로 하여 개령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그 후 고려 현종 조에 경산부(京山府)의 속읍(屬邑)이 되었다가 공양왕 때 감무(監務)를 파견하였다. 조선조 태종 때에 현감을 파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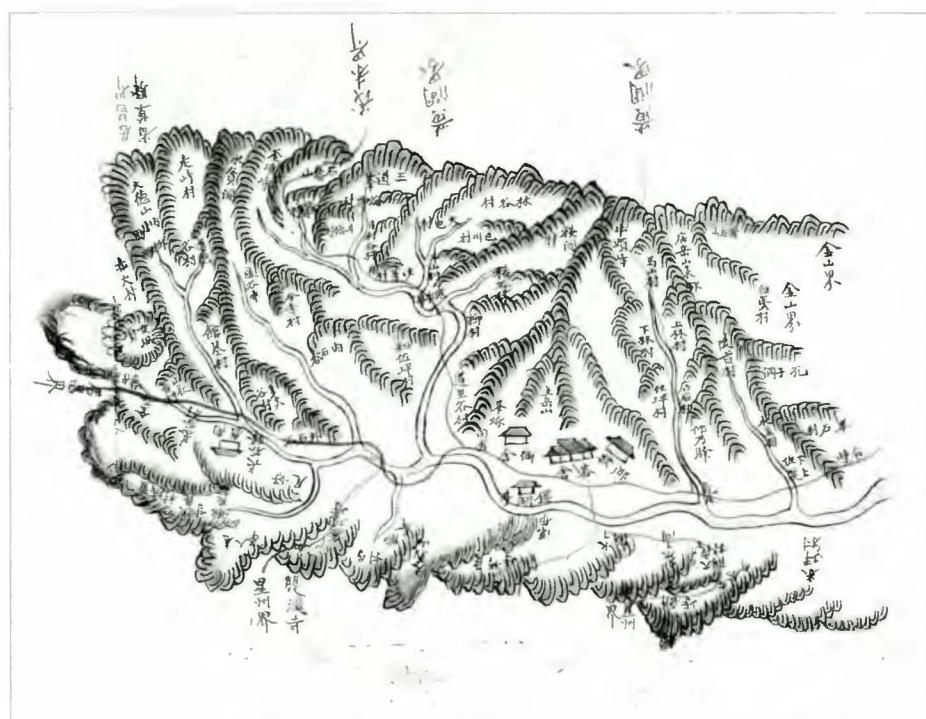
기록에 의하면, 지례향교는 세종 8년(1426)에 당시 지례 현감 정옹(鄭雍)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은 ‘明倫堂記’를 근거로 한 것이며 이 기문의 말미에는 ‘皇明弘治庚午秋七月既 通訓大夫行成均直講延安李淑鑄識’이라 되어 있으며 이는 중종 5년(1510)에 해당한다. 이후 성종 16년(1485)에 현감 김수문(金秀文)이 명륜당을 건립하였다. 또한 1895년에 편찬된 「嶺南邑誌(영남읍지)」「知禮邑誌(지례읍지)」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재임(齋任)인 김여권(金汝權)이 성묘위패를 향교 후원의 정결처에 숨겼다가 왜군이 물러간 후에 남면(南面) 등곡(藤谷) 송천상(宋天祥)의 집에 약 8년간 이안(移安)하여 무사히 보존하였다고 한다. 또 명륜당 내의 중수기 에 의하면 숙종 16년(1690) 현감 유후광(柳後光)이 교궁을 중수하였고, 영조 50년(1774)에 사반루(思泮樓)를 중 수 상량 하였다. 1857년에 사반루를 중건하였으며, 1913년에 금산향교에 편입되었다. 1915년에 대성전과 재방(齋房)을 보수하였고, 1927년에 교궁의 제구(祭具)와 비품을 새롭게 하였으며, 1930년에 향교 일곽을 중수하였다. 1933년에 대성전을 번화보수 하였고, 해방 이후 1946년에 복설 되었다.

한편 「지례읍지」에 의하면 무오년에 현감 이병건(李秉健)이 노유(老儒) 이원근(李元根)과 더불어 흥학당(興學堂)을 창건하였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퇴락이 심해지자 임신년에 현감 이복상(李復祥)과 박도(朴濤)가 향교의 남 쪽 2백보 지점에 이건하

였다고 한다.

한국 전쟁 중에는 전교 문맹곤(文孟坤) 등이 영 정과 위패를 도곡리 문씨 재실(文氏 齋室)에 봉안하였다가 이듬해 전교 이 전화(李建和)가 복원하여 다시 봉안하였다 한다. 또한 1952년에 제작된 ‘大成殿三門重修記’에 의하면 대성전과 명륜당의 창호, 삼문 등을 보수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성전 내부에는 묵

知禮



판음화(墨版陰畫)의 공자 영정(影幀)이 있었는데 1978년에 도난 당하였다고 한다. 이 그림은 병마사 이회가 중국 연경에서 가져온 것으로 현종 3년(1662) 향교로 옮겨 봉안하였다. 1960년에 향교 일곽을 보수하였으며, 1961년에 대성전을 보수하고, 1973년에 대성전을 보수하였다. 1980년에 사반루를 해체보수 하였고, 1984년에 사반루를 중수하였으며, 1986년에 서재를 중건하는 등 일곽을 정비하였다. 1988년에 군수 김덕배가 대성전, 명륜당과 서재를 보수하였으며, 1990년에 동재를 복원하였다. 1996년에 사반루를 보수하였고, 2001년에 향교 일곽을 보수 및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26	창건
1485	명륜당 건립
1690	향교 일곽 중수
1774	사반루 중건
1857	사반루 중건
1913	금산향교에 편입
1915	대성전, 재방(齋房) 보수
1927	제구(祭具) 등 비품 새로 마련
1930	향교 일곽 중수
1933	대성전 번화보수
1950	위패 이안
1951	위패 환안
1952	대성전, 명륜당 및 삼문 보수
1960	향교 일곽 보수
1961	대성전 보수
1973	대성전 보수
1980	사반루 해체보수
1984	사반루 중수
1986	서재 중건 및 일곽 정비
1988	대성전, 명륜당 및 서재 보수
1990	동재 복원
1996	사반루 보수
2001	향교 일곽 정비

2. 입지 및 배치

마을 전체는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향교는 지례 읍내 중심에서 철물점 쪽을 따라 골목 안으로 약

300미터를 직진한 곳, 마을 제일 뒤쪽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대지를 2단으로 구획하여 건물을 앉혔는데, 대성전과 명륜당은 동일축선상에 있지 않고 명륜당이 우측으로 비켜서 꺾인 축을 이루고 있다. 소설위(小設位)의 향교로 동서무는 없으며, 명륜당 앞에 양재(兩齋)를 두었다. 전면에 누문을 세워 정문과 겹하게 하였으나 후에 다시 누문 앞에 사주문을 세워 정문으로 삼았다. 일제시대 때 공민학교로 사용되었으며 1986년 중수하여 말끔하게 단장되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 쌓기 한 기단을 5척 가량 높게 하여 쌓은 뒤 덤벙주초를 놓고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문틀은 온연귀맞춤하여 고식(古式)으로 보이나, 문은 쌍여닫이로 하고 창살에 무늬를 넣어 창호지를 바른 통상적인 문짝의 형태에서 벗어났다. 외1출목 2익공의 건물로, 살미의 끝을 날카롭게 하고 하부는 초각(草刻) 하였다. 첨차의 형상은 주심첨차는 교두형(翹頭形)으로 하였으나, 출목첨차는 단부를 사절(斜切) 시키고 하부를 쌍S자로 초각하였다. 대들보의 머리를 외목도리 밖까지 빼내고 마구리를 마름모꼴로 다듬었다.

가구는 어간에서 5량가이며 대들보는 동실의 서편과 서측퇴칸의 동편 중간에 평주와 유사한 높이의 기둥을 두고 맞보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었다. 4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는데, 중대공은 동자주를 세워 보아지를 끼운 포대공으로 뛴장혀를 결구하고 사이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종보 위에는 패련대공을 세웠으며, 중도리와 마찬가지로 장혀 밑에 뛴장혀를 결구시키고 소로를 수장하였다. 대들보는 약간 굽은 듯 하지만 직선에 가까운 부재를 사용하였는데, 단면의 형상이 우측은 원형에 가까운데 비해 좌측은 보의 볼을 약간 빗깎아 놓아 양쪽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 창방 위에는 화반을 생략하고 박공 부분에 활주를 세워서 보강하였으며, 측면에서는 전후에 고주를 둔 2고주 5량가로 되어 있다.

내부 바닥은 최근에 모르타르마감이었던 것을 전돌로 교체하였고, 측면 어간 상부 벽체에는 격자살의 광창(光窓)을 내었다. 대들보 하부에 가는 기둥을 배면 쪽으로 세워 문선왕의 위패를 강조하였고 어간 후벽에 감실을 설치한 점 등이 특이하다. 모로단청 하였으며 대들보 중앙에 용(龍)문양이 그려져 있다. 처마는 겹처마로 되어 있고 양 측면에는 풍판을 달았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4현, 해동 18현의 위패를 모셨다.

(2) 내삼문(內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장대석 단층 기단 전면에 계단을 두고 초석 위에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좌우 측면에는 벽체 없이 중방으로 전후 평주를 연결하였으며, 각 칸 전면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놓아 중도리를 받았다. 처마는 전후 흙처마로 후면 동측 내림마루에 명문와가 남아 있으며, 동측 담 끝 모서리 막새에도 명문이 있으나 마멸이 심해 판독이 어렵다. 판문 전면에 3태극을 도채하였으며, 모로단청을 하였다. 전면 어간 도리와 장혀 중앙에 매화, 좌우칸에는 국화 등 화초(花草)를 그려 넣었다.

내부 바닥에는 블록을 깔았으며 상부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경사가 심한 대지 위에 건립한 관계로 전면 기단을 3단으로 축조하였고, 높이는 대략 6척 정도로 높은 편이라 동서재를 굽어볼 수 있다. 우측 퇴칸은 온돌방을 놓아 동실(東室)을 구성하고, 나머지 8칸은 전부 우물마루로 구성하고 있으나, 좌측 퇴칸에 천정과 기둥이 남아 있고 천장상부는 현재 다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아 원래는 좌측도 온돌방, 즉 원래 서실(西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실 전면에는 헛마루를 내어 달고 하부에 아궁이를 두었으며, 굴뚝은 후면에 두었다.

자연석 초석 위에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어간에서는 단순히 기둥머리에 도리와 보를 결구하였지만, 좌우 귀기둥에서는 짤막한 도리받침을 도리 하부에 결구하였다. 벽체의 구성은 정면에는 동실 전면에 쌍여닫이 세살창을 달고, 마루 쪽에는 사분합문을 달았는데 이것은 학교로 사용된 후에 새로이 설치한 것이다. 명륜당 우측면은 현재 벽체로 되어있으나 외여닫이문이 2개 있었던 흔적이 있으며, 좌측면도 인방재와 벽체를 새로 교체하기 이전에 문틀이 남아 있었다. 당(堂) 후면은 머름중방 위에 쌍여닫이 울거미널창을 드리우고 있으나 기둥에 남아있는 홈구멍의 높이로 보아 원래는 현재의 높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칸 전면에는 네 짹 띠살문을 달았는데 원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각각 상부에 광창이 있으나 서측협칸과 서측퇴칸은 어간에 의해 광창의 높이가 절반정도로 낮고 상부에 회사벽을 꾸며 넣었다.

가구는 5량가의 굴도리집으로 장식성이 없는 소박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4분변작의 위치에 짧은 동자주를 세우고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세워 장혀와 첨차를 끼우고 있다. 중도리와 주심도리는 장혀 없이 간소하게 하였으며, 서측면에 전면 쪽으로 방형 단면의 설주가 구성되어 있다.

지붕은 홀처마로 되어 있으며 풍판은 달지 않았으며, 우측전면기둥에 까치발을 세워 도리를 받치고 있다.

(2) 동재(東齋)

1990년에 새로 신축하였다.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 전면 중앙에 2단의 계단 1개를 놓고 그 위에 초석을 놓아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서재의 형식을 대부분 따랐으며 남측간의 경우 서재와 동일하게 하부를 벽체 없이 띠워 누각처럼 처리하였고 다만 전후면과 남측면의 벽체를 판벽으로 처리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과 북측면에 헛마루를 두었다. 어간과 북측간 전면에는 각각 두 짹 띠살문을 달고 후면에도 두 짹 여닫이창을 내었다. 내부는 남측간을 우물마루로 두고 나머지는 온돌을 두었으며 북측간 후면에 굴뚝을 내었다. 가구는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놓은 간략한 3량가로, 홀처마로 되어 있으며 단청은 하지 않았다.

(3) 서재(西齋)

1986년에 중전하였으며 이전과 약간 차이가 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 전면 중앙에 2단의 계단을 1개 두고, 그 위에 초석을 놓아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으며 전면에 헛마루를 두었다. 동재와 마찬가지로 대지의 경사로 인하여 남측 1칸은 높게 기둥을 두어 누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민도리식으로 되어 있으나 장혀가 어간 좌우 기둥 단부에서 조금 안쪽으로 나와 빗깎여 어간에서는 장혀가

생략되어 있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나 남측칸은 중방 하부에 판벽을 구성하였고, 어간에 두 짹 띠살문을, 북측칸에는 머름을 구성하고 두 짹 띠살창을 달았다. 북측칸은 후면에 외짜 띠살문을 달고 하단에 아궁이를 구성하였으며, 내부에 온돌을 놓고 기단 북쪽에 굴뚝을 내었다. 가구는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길고 중앙에 동자주를 놓은 간략한 3량가이다. 처마는 훌처마로 되어 있으며 단청은 하지 않았다.

(4) 사반루(思泮樓)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중층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단층 기단 위에 하층에는 출입문이 달려 있어 사주문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외삼문의 역할을 하였다. 초석은 후면 어간 동측만 방형 초석을 놓고 나머지는 자연석 초석을 사용하였다. 상층 기둥과 하층 기둥은 별재(別材)로 되어 있고, 하층은 단면이 굽은 반면 상층 기둥은 가는 편이다. 후면 서측칸에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다. 하층 각 칸에는 중앙에 쌍여닫이 띠장널문을 달았으며, 상층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고, 마루둘레에 계자각난간을 설치한 평범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의 구성은 5량가의 초익공으로 익공살미는 짧고 살미하부에 연봉형태로 초각하였으며 살미 위에 봉두(鳴頭)를 만들어 보머리에 끼우고 있다.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고, 삼각형판재를 끼워 창방을 받게 한 것이 특이하게 보여지며, 층량을 대들보 위에 얹어 종보를 받고 있다. 대들보 위에는 3분변작의 위치에 포대공을 구성하여 종보를 받았으며, 종보 중앙에는 판대공을 놓았다. 외기 교차점 하부에 달동자를 두었는데, 연봉을 초각하려다만 듯 벽으로만 문양을 그려놓은 상태이며, 상층 좌우 측면에는 가새를 두었다.

추녀 네 귀퉁이에는 활주를 비스듬히 세우고 있으며 활주 초석은 기단 위에 놓여져 있다. 단청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백골집으로, 1980년에 해체 보수하였고 1984년과 1996년에 각각 보수하였다.

명륜당 내부에 걸려있는 '思泮樓重修上樑文' 말미에는 '崇禎紀元後三甲午' 라 되어 있어 현재 건물 이전에 영조 50년(1774)에 한 차례 중수 상량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상층 내부 어간 동측편 대들보 서쪽면에는 1984년에 작성된 '思泮樓重修記'가 걸려있고, 동측칸 후면에는 '崇禎四丁巳(철종 8년, 1857년에 해당함)' 년명의 '思泮樓重建記' 가 걸려 있어 이 건물이 1857년에 건립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5) 사주문(四柱門)

사주문은 정남향으로 사방 단 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단층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좌우 측벽 중방 하부만 회사벽을 꾸몄으며, 전면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와 화장실, 그리고 기타 기념비 들이 자리잡고 있다. 교직사(校直舍)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서재 담 후면에 별도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화장실은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교직사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 누문 동편에는 1988년에 세운 '大成殿明倫堂重修紀念碑' 와 1991년에 세운 '東齋建立紀念碑', 그리고 1996년에 세운 '思泮樓重修紀念碑' 등이 서 있다. 또한 동편 뒤쪽으로는 2001년에 세운 '鄉校大重修紀念碑' 가 자리잡고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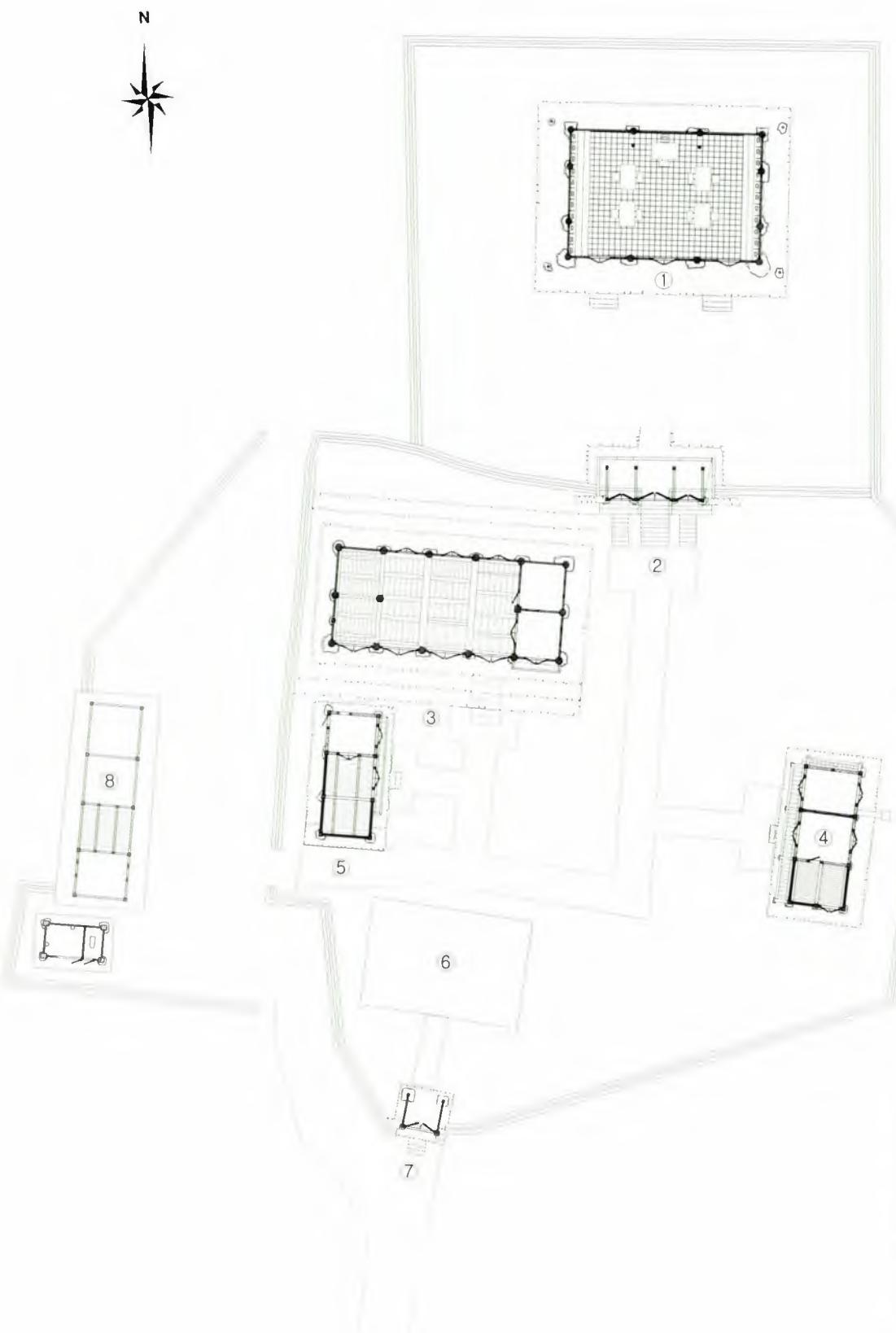
향교 일반				(차수단위=mm)
지정명칭	지례향교(知禮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18호 (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세종 8년(1426)	입 지	구릉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리자	지례향교	
좌향	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남북 종축 2개	
중간시기	1690년 중수	대지조성	없음	
설위	5聖 / 宋朝 4賢 /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사반루 / 사주문 / 교직사			
특기사항	대성전이 명륜당과 완전히 다른 축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향교 건립 초기의 특징임 대성전과 명륜당의 향이 약간 다르며, 중층 누각이 있음에도 별도의 사주문을 건립함			

대성전 건축 요소

개요	3x3칸 / 외1출목 이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측벽 2고주) / 전돌 / 연등천장		
기단	단층기단 / 전면 네벌대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단	전면 2개(각 5단)		종 보 : 4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대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포	외1출목 2익공	창방	말각방형 / 뺨목 직절
처마	겹처마	지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전돌 / 연등천장		
	좌우 측면 가운데칸 중방 상부에 광창(光窓)을 두었음		
특기사항	어칸 후면쪽으로 대들보 하부에 가는 원기둥을 두어 공자의 위패를 강조하였음 어칸 후벽에 감실(龕室)을 두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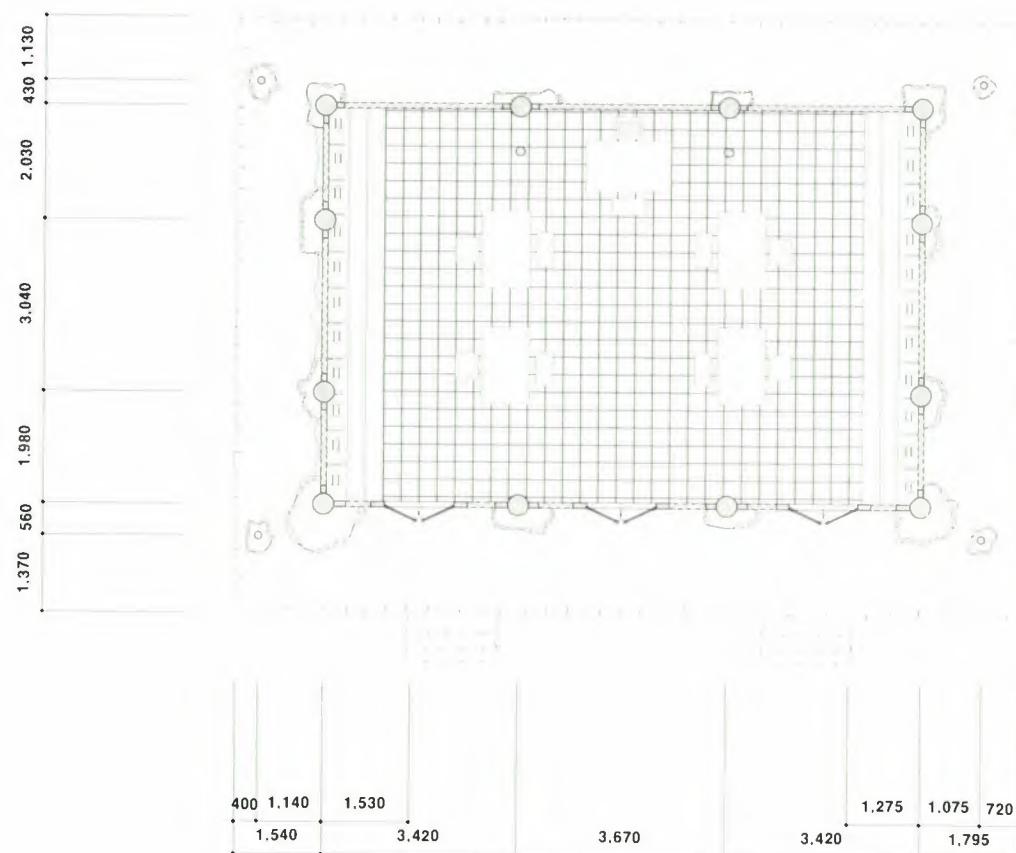
명륜당 건축 요소

개요	5x2칸 / 민도리 / 홀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기단	3중기단(전면)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단	1개(동측 협칸, 7단)		종 보 : 4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방형기둥 - 동실 서벽 중앙	대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파련대공
공포	민도리	창방	말각방형 / 뺨목 직절
처마	홀처마	지붕	맞배지붕
수장	회사벽 / 가칠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서실은 없으나 서측퇴칸 후면칸 상부에 다락을 구성하였음		
특기사항	네 귓기둥 뺨목 하부에 까치발을 세워 도리를 받았음 동실 전면에 툇마루를 두고 하부에 아궁이를 두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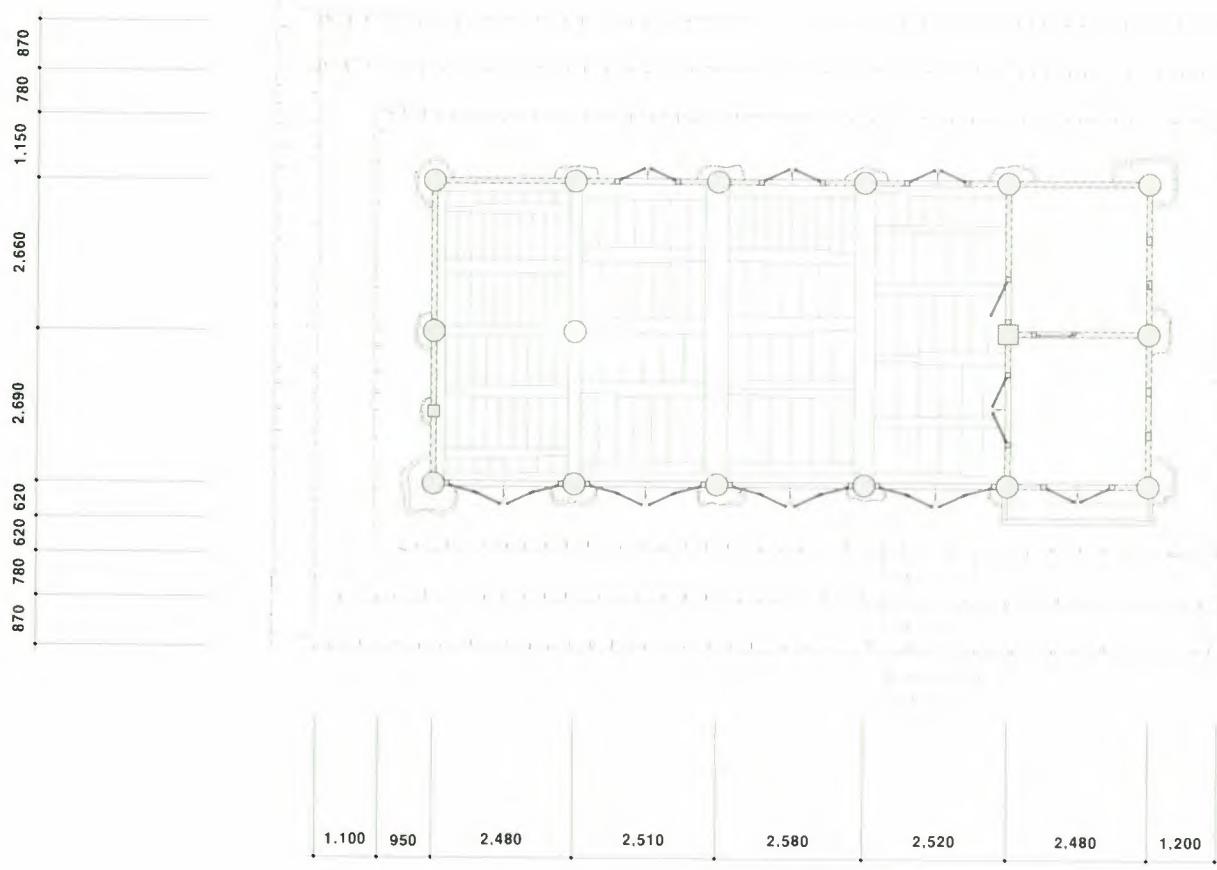


지례향교 배치도

0 2 5 10M



지례향교 대성전



지례향교 명륜당



대성전



대성전 내부



▲ 대성전 전면 어칸 구성



▲ 대성전 전면 창호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전면 귀포



▲ 대성전 내부 가구



▲ 대성전 내부 중대공



▲ 대성전 내부 중대공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 명륜당 측면



명륜당 우측 퇴칸 구성



▲ 명륜당 주상부 짜임



▲ 명륜당 전면 평주 초석



▲ 명륜당 내부 어칸 가구



▲ 명륜당 내부 퇴칸 가구



▲ 사반루



▲ 사반루 내부 가구



동재



서재



◀ 내삼문



◀ 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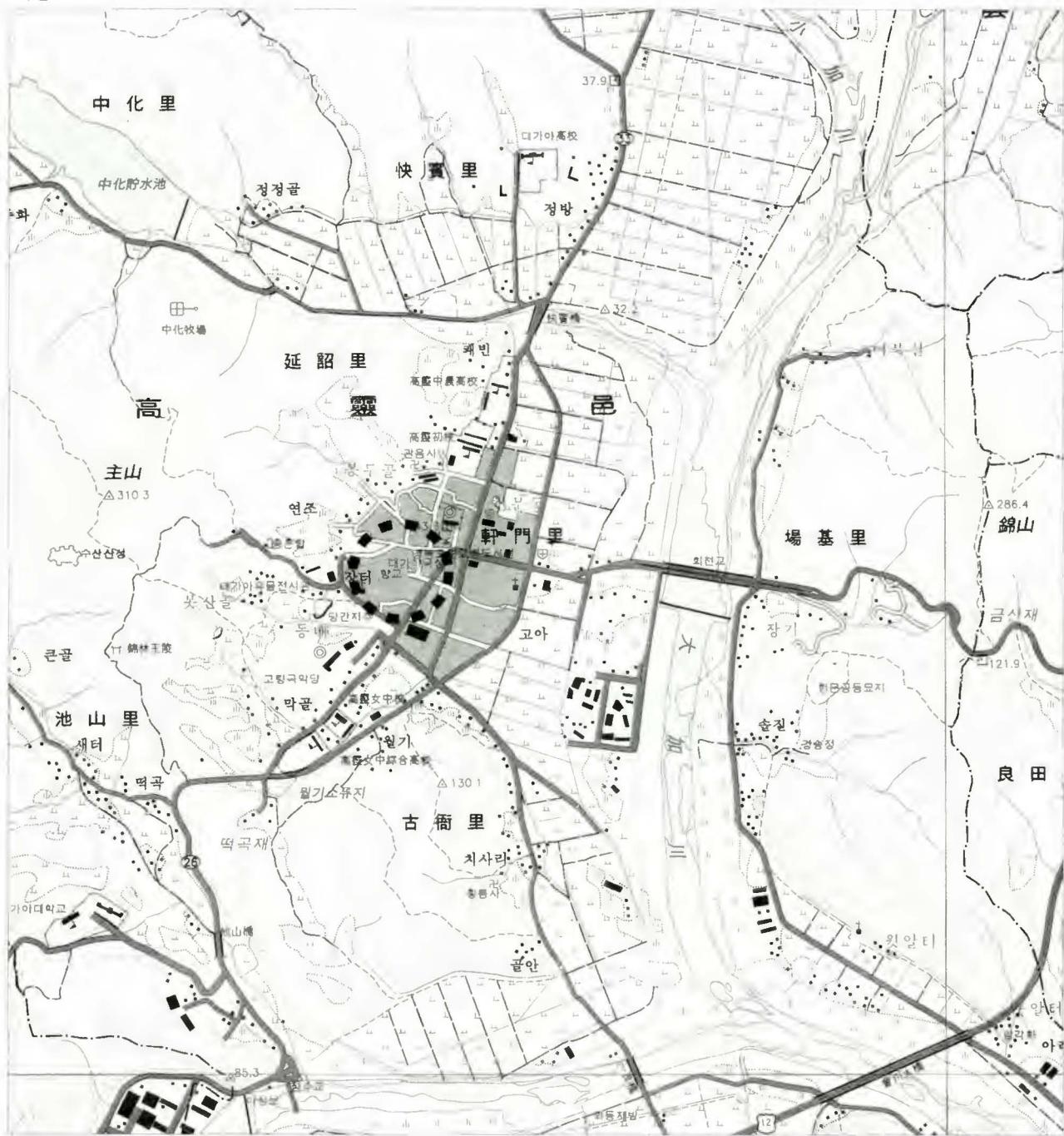


◀ 교직사

13. 고령 향교(高靈鄉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9호(일곽)
- 지정일 : 1990년 8월 7일
-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608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외삼문, 빙흉재, 교직사, 화장실, 협문 2동 등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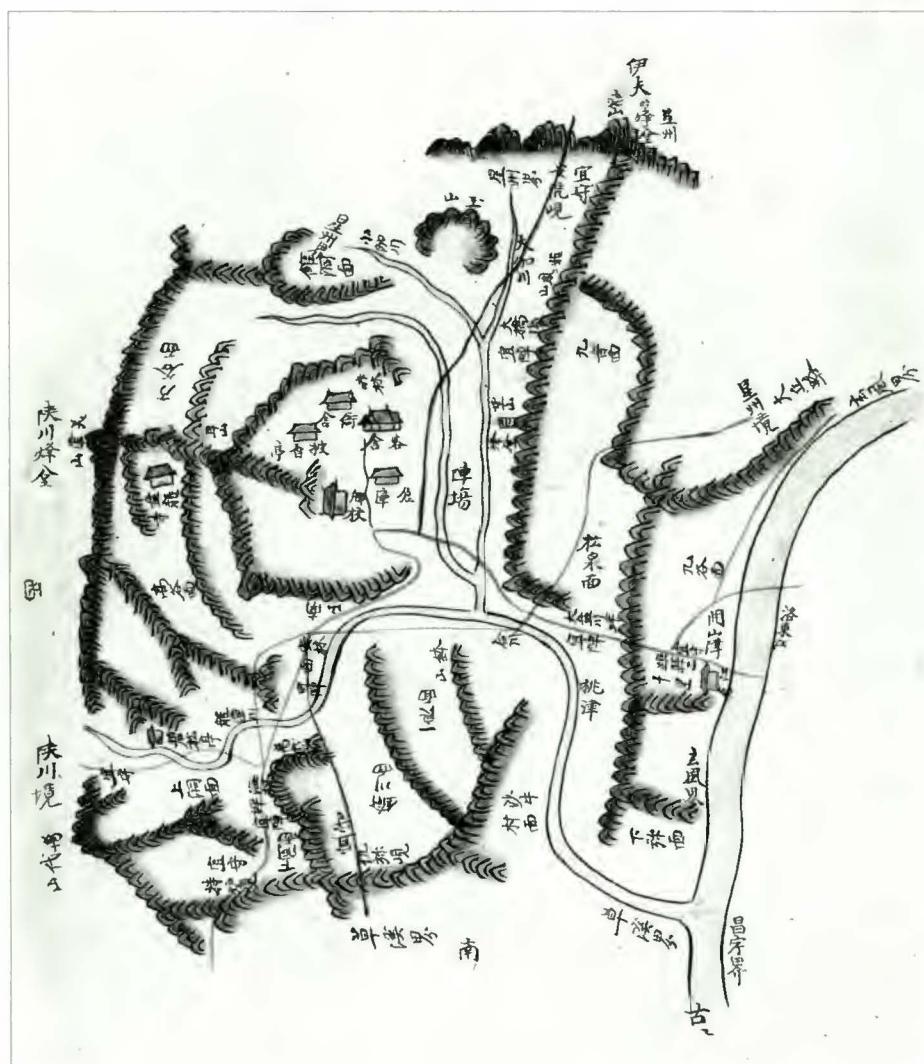


1. 연혁

고령은 본래 가야(伽倻)의 땅으로 고령 일대에는 청동기 문화에 해당하는 양전동 암각화가 있고, 무문(無紋) 토기 등이 출토되어 그 역사적 시작은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는 신라 진평왕 대에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편성되었었다. 이후 경덕왕 대에 이르러 고령군(高靈郡)으로 개칭되었으며 고려 초기에 경산부(京山府)에 속하였다. 그 후 고려 명종 대에는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태종 대에 현감(縣監)을 두었고, 1895년에 군(郡)이 되어 현자에 이르고 있다.

고령향교의 창건 기록은 명확하지 않으나 현감과 훈도 1인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 태종 13년(1413)년, 군(郡) 서쪽 2리에 있는 이산(耳山) 아래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한 차례 이전하였다가 임진왜란 중에 화재로 전소되었다. 왜란이 끝난 후 현종 4년(1663)에 현감 조봉원(趙逢源)에 의하여 현 관음사 뒷산 아래에 복원하였으나 자리가 좋지 않다 하여 숙종 27년(1701)에 현감 구문유(具文遊)가 현재의 대성전 북쪽 담 인근(대가야성지비 자리)으로 옮기려고 시도하였으나 완전히 옮기지 못하고 이듬해인 숙종 28년(1702)에 최종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대성전과 명륜당을 비롯하여, 동서재, 창고, 주방, 외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高

靈鄉校 實測調查研究報告書』에 따르면 교지(校地) 개척 당시에 백토(白土)가 현재의 명륜당 위치까지 발견되어 규모를 협소하게 지었다고 한다. 1819년에 최상봉(崔尙鵬)이 쓴 「縣學重修記(현학중수기)」(己卯年)에 따르면 목장(木匠), 철장(鐵匠), 와장(瓦匠), 토장(土匠), 도화장(圖畫匠) 등 여러 명의 장인들을 불러 공사를 하였으되, 3월에 향축(香祝)하고, 같은 달 경술(庚戌)일에 먼저 문당(門堂)과 고(庫), 포(庖) 등을 수리하고, 4월 병술(丙戌)일에 성패(聖牌)를 정당(正堂)에 옮긴 다음 전



우(殿宇)를 수리하였다. 이 때 벽체를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 하였으며, 5월 계미(癸未)일에는 환안례(還安禮)를 거행하였다.

1917년에 빙홍재를 건립하였고, 1964년에는 주사(廚舍) 1동을 명륜당 우측에 담과 연결하여 신축하였으며, 1974년에 명륜당 해체보수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빙홍재와 동무를 건립하였는데 동무는 인근의 민가를 매입한 것으로 빙홍재는 1985년에, 동무는 1992년에 현재의 위치에 재축(再築)하였다. 이외에 내삼문은 1983년에, 외삼문은 1974년, 그리고 협문 등은 1990년도에 재축하였으며, 교직사는 1992년에 이전 공사를 시작하여 1993년에 마무리하였다. 이어 이듬해인 1994년에 서무를 건립하였으며, 1995년도에 대성전 정밀실측 조사를 실시하였다. 1997년에 내삼문 주변 담을 보수하고 명륜당을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13	창건(추정)
연대 미상	백전우협(栢田右峽, 잣나무 밭 오른쪽 계곡) 동부동(東阜洞) 뒤(현 연조동)로 이건
임진왜란 중	소실
1663	이건
1701~1702	이건(현 위치)
1819	향교 일곽 중수
1917	빙홍재 건립
1964	주사(廚舍) 신축
1974	명륜당 해체 보수 및 외삼문 복원
1979	향교 일곽 조경공사
1983	내삼문 복원 제상(祭床) 25좌(座) 마련
1984	향교 일곽 담 보수
1985	빙홍재 이건 재축, 대성전 기단 개축
1990	대성전 부식재 교체 및 번화 보수, 협문 복원, 일곽 담 보수
1992	동무 재축, 진입로 포장공사
1993	교직사 이건 재축
1994	서무 복원
1995	대성전 정밀 실측 및 일곽 건물 간이실측
1997	명륜당 보수 및 일곽 담 보수

고령향교는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 외삼문, 빙홍재, 교직사, 화장실 및 협문 2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입지 및 배치

고령향교는 읍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편이나 향교가 자리한 대지 자체는 경사가 거의 없어 평지와 다름없다. 현재의 진입은 향교 전면이 아닌 교직사와 사이에 놓인 후면 도로를 통하여 측후면에서 접근하게 되어있으며, 일반적인 남향이 아닌 동향(東向)을 하고 있다.

전체 영역은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진입하다 보면 길 좌측, 남쪽으로 교직사 1동이 별도의 전면 마당과 함께 교직사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명륜당 좌측 담 밖에 마련된 주차장을 지나 향교의 전면에 이르면 외삼문이 자리잡고 있다. 조경 공사를 한지 시간이 꽤 되어 전면에는 비교적 큰 나무들이 자리잡고 있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동서재가 없이 명륜당만으로 구성된 강학영역이 전면에 자리잡고 있는데, 측면을 돌아 후면의 내삼문을 진입하면 제향영역이 나타난다. 제향영역은 동서무와 대성전 그리고 빈홍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빈홍재는 별도의 담이 길게 건물의 후면을 가로 정도로 충분히 나와 있어 제향영역과도 구분이 된다. 또한 빈홍재는 빈홍재 동측면으로 별도의 협문이 있어 출입이 바로 가능하게 되어있다.

고령향교는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따르고 있으며, 동서재가 생략되어 있고, 빈홍재라는 독특한 재사(齋舍) 건물이 제향영역에 자리잡고 있는 독특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대성전과 명륜당은 비교적 조선 후기의 건축적 풍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 근래에 건립되었거나 이건되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두터운 판석으로 1단을 쌓고 상면은 장대석으로 돌린 단층 기단 전면에는 각 칸 중앙에 각각 2단으로 구성된 계단 1개씩이 놓여져 있다. 초석의 형태는 기둥 직경과 거의 상면의 직경이 동일하며 일부 초석에는 원형 주좌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귀갑(龜甲)문양이 새겨져 있는 초석도 있다. 기둥은 약한 배흘림이 있는 원형 단면의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기둥 위에는 초익공을 구성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좌우 측면과 후면은 중방 하부를 바깥에서 널판으로 마감하였다. 전면은 판벽으로 되어 있고, 각 칸 모두 중앙에 두 짹 널문을 달아 출입하게 하였다. 공포는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창방과 초익공을 결구한 다음 그 위에 주두를 놓고 장혀와 대들보를 결구한 다음 다시 도리를 놓아 구성하였다. 보머리는 수장폭과 같은 두께로 빼내어 외단을 궁글려 언뜻 이익공처럼 보이게 구성하였다.

내부 기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4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짤막한 동사주로 되어 있으며, 그 위에 종보를 걸고 파련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측면에서는 대들보 중앙에 설주를 두었으며, 종대공이 제형 판대공으로 되어 있다.

내부 바닥은 현재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상부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으

며 특이한 점은 전면 좌우측 협칸 중방과 상방 사이에 용(龍)을 그린 벽화를 두었다. 지붕은 전후면 모두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고,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다.

현재 대성전 현판 좌측 모서리에는 ‘崇禎甲辰九月日成寢郎須額’이라는 병문이 새겨져 있고, 기단 우측면 판석에 ‘康熙二年癸卯十一月一日立柱甲辰三月日施功石工周天殿’이라는 음각 글귀와 당초문(唐草紋) 등이 있으며 이는 각각 1663년과 1663년에 해당한다. 이는 즉 166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664년에 완공한 기록으로 추측된다. 이후에도 몇 차례 대규모 보수를 거쳤기는 하나 현재의 건물은 조선 후기의 풍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 대성전 전면에는 석탑이나 석등 혹은 부도를 구성하는 석재로 추정되는 석물이 놓여져 있다.

(2) 동무(東廡)

동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낮은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각 칸 전면에 두 짹 띠살문을 달고 측면에 벼락닫이창을 달았다.

내부는 통칸으로 바닥은 우물마루로, 상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좌우 측면에서는 종대공 하부에 설주를 세웠다. 지붕은 전후면 모두 홀처마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제기고로 사용되고 있고, 1992년에 재축되었다.

(3) 서무(西廡)

서무는 동무와 동일한 평면 및 입면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는 전사청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4년에 동부를 본따 새로 지었다.

(4)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 전면에 2단의 계단이 조성되어 있고, 건물 자체는 자연석으로 쌓은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놓여져 있다. 초석의 형태는 방형의 판석 위에, 요강 모양의 초석을 가공하여 얹었으며, 그 위에 원형의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좌우 측벽에만 회사벽을 구성하였고, 창호는 전면에 각 칸 모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기둥 상부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는데, 익공재의 외단은 살미 위에 만개한 연꽃을 달아 초각하였으며, 보머리는 직절하고 외단에 봉황두를 초각하여 끼워 넣었다. 또한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고, 창방 뺨목은 단부에 소로를 수장하여 장혀를 받았으며 단부는 초각하였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놓고 소로를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전후면 모두 홀처마로,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바닥은 시멘 몰탈로 마감하였다. 석간주 가칠 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좌우 측벽 일부에 인동초 문양을 넣었다.

어칸 종도리 장혀 하부에는 ‘龍 孔紀二千五百三十四年癸亥七月十六日午時上樑 虎’라는 상량묵서명이 남아 있어, 1983년에 지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외에 내삼문 전면 북편으로 석탑재로 추정되는 석물 1개가 놓여져 있다.

(5) 빈흥재(賓興齋)

빈흥재는 제향영역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별도의 담으로 구분되어 있고 출입 또한 협문을 통하여 따로 출입하게 되어 있다. 서무 후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정면 4칸, 측면 2칸의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구성한 민도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초석을 놓았으며 초석의 형태는 자연석과 방형으로 다듬어 방형 주좌를 둔 초석이 섞여 있다. 그 위에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으며,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다. 내부 평면은 중앙 2칸을 마루로 두고 각각 좌우에 협실을 둔 중당협실(中堂夾室)형으로 되어 있다.

전면에는 창호를 구성하지 않고 퇴칸을 구성하였으며, 좌우 실의 전면에는 두 짹 띠살문을 달았다. 가운데 대청으로 향하는 면에는 사분합문에 불발기창을 두었다. 양 실의 전면 상부에는 각각 다른 서체로 된 ‘賓興齋’ 현판이 걸려 있고, 우측실의 우측면 퇴칸 상부에는 ‘靈川詩社’라는 편액을 걸었다. 가운데 대청의 후면은 판벽을 구성하고 각 칸 모두 두 짹 당판문을 달고 상부에 작은 널창을 달았다.

기둥머리는 사괘를 트고 짤막한 익공재와 장혀를 걸고 보와 도리를 위에 얹은 민도리 식으로 결구되어 있다. 가구는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제형 판대공과 소로를 수장한 도리방향 첨차가 결구된 형태의 종대공을 놓고 종도리 장혀를 받고 있다. 단청은 하지 않았으며, 중앙의 대청은 우물마루에 연등천장으로, 좌우 실은 온돌에 지반자로 마무리하였다.

빈홍재 내부 좌측 어칸 종도리 장혀 하단에는 ‘孔子誕降二千四百六十八年丁巳十二月十一日庚午辰時 上櫈’이라는 상량목서명이 남아 있으며 이는 1917년에 해당하여 건물의 건립연대를 알 수 있다. 1996년도에 간행된 「高靈鄉校實測調查研究報告書」에 의하면, 이 건물은 원래 현재의 서무 자리에 있었으며, 서무를 복원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라 하였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둔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은 자연석으로 4단을 쌓은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으며, 내부 고주 좌우 각 4본만은 방형 기둥을 사용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 평면은 가운데 3칸을 당으로 두고, 좌우에 동실과 서실을 둔 전형적인 중당협실(中堂夾室)형 평면을 가지고 있다. 양 실의 전면은 두 짹 띠살문을 달았으며, 동서 실의 후면칸 좌우 측벽쪽 벽체에는 중방 상부에 벼락닫이 창을 두었고, 가운데 대청 쪽으로는 각각 외짝 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대청 후벽에는 각 칸 모두 두 짹 당판문을 달았다.

기둥 상부에는 초익공을 구성하였는데, 외단은 직절한 몰익공식으로 되어 있으며, 좌우 퇴칸 실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익공재의 안쪽을 길게 확장하여 뒷보와 같은 길이로 고주 측면을 따고 뒷뿌리가 결구되었다.

내부 가구는 5량가로 좌우 퇴칸에서 각각 2고주를 두었다. 어칸에서는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짤막한 동자주 위에 보 방향 익공과 장혀, 주두로 구성된 포대공으로 되어 있으며, 종대공은 종보의 중앙에 놓여서 제형 판대공 형식으로 종도리를 받고 있다. 좌우 퇴칸에서는 전후면에 방형 단면의 고주를 두었다.

내부는 중앙 대청의 경우 우물반자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고, 좌우 실은 온돌과 지반자로 구성되었다. 지붕은 전후면 모두 겹쳐마로 되어 있으며, 단청은 하지 않았다.

명륜당 용마루 망와에는 ‘康熙四十年辛巳四月日高靈官上口’이라는 명문이 있고 이는 1701년에 해당하여,

1701년 당시의 이전을 증명하고 있다. 일제 시대 고등공민학교 교사(校舍)로 사용되어 일부 부재의 훼손 흔적이 남아있으며, 1974년에 한차례 해체 보수하였다. 전반적으로 초기 이전 당시의 풍격을 지니고 있다.

(2)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어간이 좌우협간 보다 높은 솟을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야트막한 장대석 단층기단 위에 전후면은 원형, 중앙의 설주에는 방형의 초석을 정렬하여 놓았다. 원형 초석의 크기는 원형 기둥의 단면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였다. 익공재의 외단은 쇠서로 끝부분을 약하게 숙였고,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으며, 바닥은 시멘몰탈,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벽체는 좌우 측벽에만 회사벽을 구성하고, 중앙 설주 옆에 맞추어 각 칸 모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외삼문 후면에는 명륜당으로 이어지는 담도가 설치되어 있다.

어간이 좌우 협간보다 넓고, 가구는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은 일반적인 3량가를 취하고 있으며, 전후면 홀처마로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판문 전면에는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고, 어간 종도리 장혀 하단에 ‘孔子誕降二千五百二十五甲寅十月二十九日丁亥午時 立柱上樑’이라는 상량묵서명이 남아 있으며, 이는 1974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 교직사와 협문, 화장실 등이 건립되어 있다.

교직사(校直舍)는 향교 영역 서편 담 밖에 길을 사이에 두고 자리잡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가구의 구성은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었으나 전후 기둥 간격이 넓어 동자주를 세운 대들보의 하단에 설주를 세우고 전후면 두 칸으로 구분하였다. 얇은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거칠게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시멘몰탈로 마감하였으며, 내부는 모두 다섯 개의 실로 나뉘어져 있다. 어간은 앞쪽에 마루를 구성하고 안방을 뒤에 놓았으며, 좌측 협간은 전후를 구분하고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측 협간은 마찬가지로 전후 칸으로 나뉘었으며 전면 칸이 넓게 되어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4년에 명륜당 오른편에 있던 건물을 1993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다시 지었다.

협문(夾門)은 모두 2개가 있는데, 명륜당의 서편에 있는 협문은 명륜당에서 교직사 쪽으로 통하는 문이며, 다른 하나는 빈홍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직사 쪽으로 통하고 있다.

화장실은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3량가 맞배지붕 건물로 향교 영역 서편 밖에 자리잡고 있다.

이외의 시설로는 현재 향교 동편 담 밖에 ‘大伽倻城址碑’가 자리잡고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차수단위=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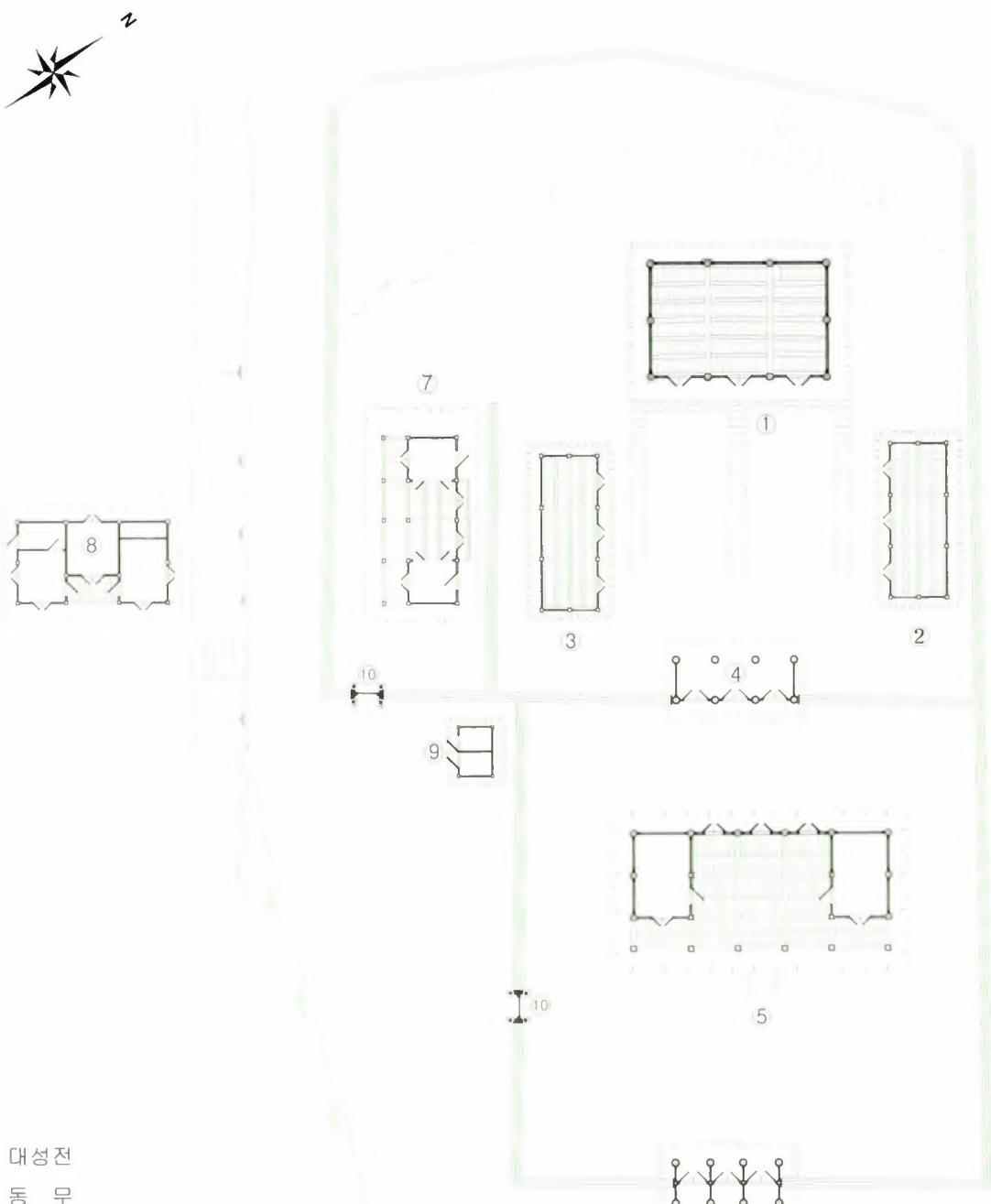
지정명칭	고령향교(高靈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9호(일과)
창건시기	조선 태종 13년(1413) 추정	입 지	구릉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리자	고령향교
좌향	동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남북 종축 1개
중건시기	1663년 이건 1701~1702년 이건(현 위치)	대지조성	없음
설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大伽倻城地碑(대가야성지비) 등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내삼문 / 명륜당 / 외삼문 / 빈흉재 / 교직사 / 화장실 / 협문 2		
특기사항	동서재가 생략된 간결한 배치 형식을 지니고 있음 별도의 재사(齋舍)가 제향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요	3×3칸 / 초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 주고 2770 / 주간 어칸 3430 협칸 3140 / 수장폭 105 / 도리단면 약 Ø=300 보단면 : 대들보 450×420, 종보 180×270 / 주심처마길이 1750 / 기단높이 전면 550 / 초석크기 약 Ø=400 전후		
기단	단층기단 / 외벌대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단	전면 3개(2단)		종 보 : 4분변작
초석	정평주초 / 원형초석+귀갑문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 Ø=330 전후	대공	중대공 : 동자주 중대공 : 파련대공
공포	초익공 / 주간 소로 수장	창빙	장빙형 / 뺨목 첨자형 초각
처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장	회사벽+널판 마감, 판벽 / 모로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 초석 일부에 귀갑(龜甲)문양이 새겨져 있음		
특기사항	기단 우측면에 건물 영건과 관련된 명문이 새겨져 있고 당초문이 새겨져 있음 현판 좌측에 명문이 남아 있으나 보수가 많아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의 건물로 판단됨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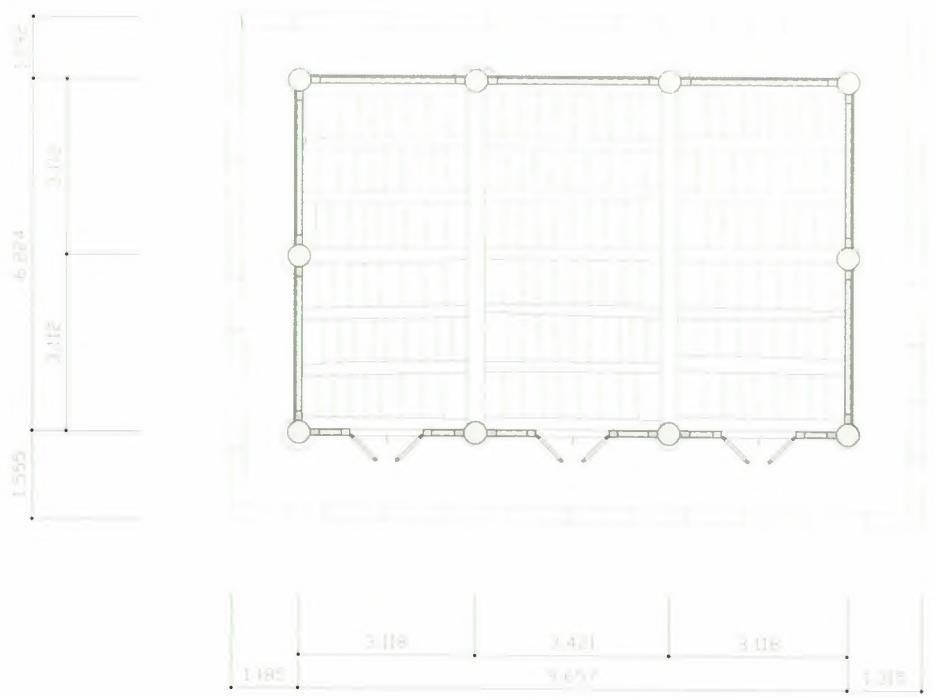
개요	5×3칸 / 초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주고 2810 / 주간 279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Ø=240 / 보단면 : 대들보 440×350, 종보 340×210 주심처마길이 2180 / 기단높이 전면 880 후면 750 / 초석크기 약 600×8500 전후		
기단	단층기단 / 네벌대 / 바른층쌓기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단	전면 1개(3단)		종 보 : 3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 Ø=210 방형기둥 : 210×210(下 230×230)	대공	중대공 : 포대공 중대공 : 판대공
공포	초익공(몰익공)	창방	장방형 / 뺨목 단부 직절후 궁글림
처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지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장	회사벽 / 단청 없음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특기사항	지붕 용마루 망와에 이건 관련 기록 남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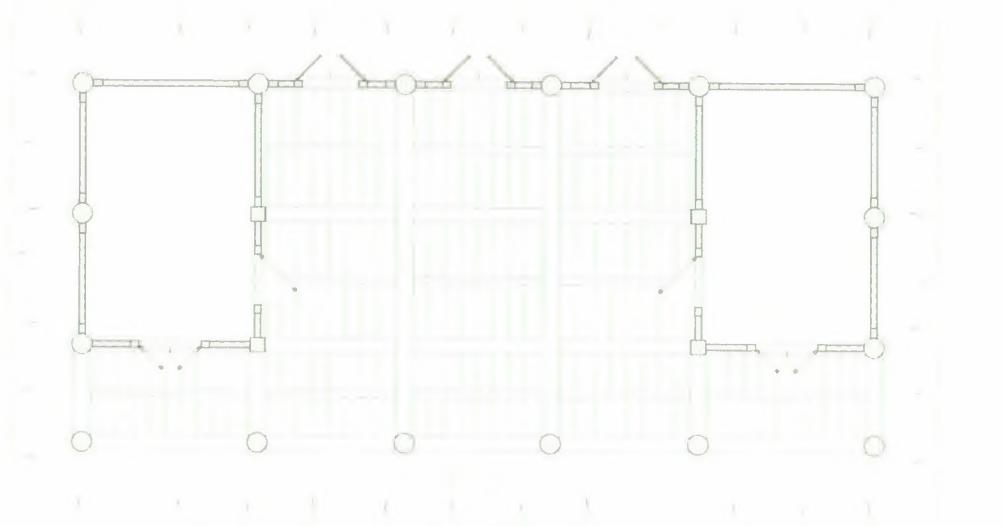
1. 대성전
2. 동 무
3. 서 무
4. 내삼문
5. 명륜당
6. 외삼문
7. 빙흉재
8. 교직사
9. 화장실
10. 혐 문

고령향교 배치도

0 2 5 10M



고령향교 대성전



고령향교 명륜당





대성전



대성전 내부



대성전 측후면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전면 평주 초석



대성전 내부 가구



대성전 내부 종대공



대성전 내부 중대공



명륜당



명륜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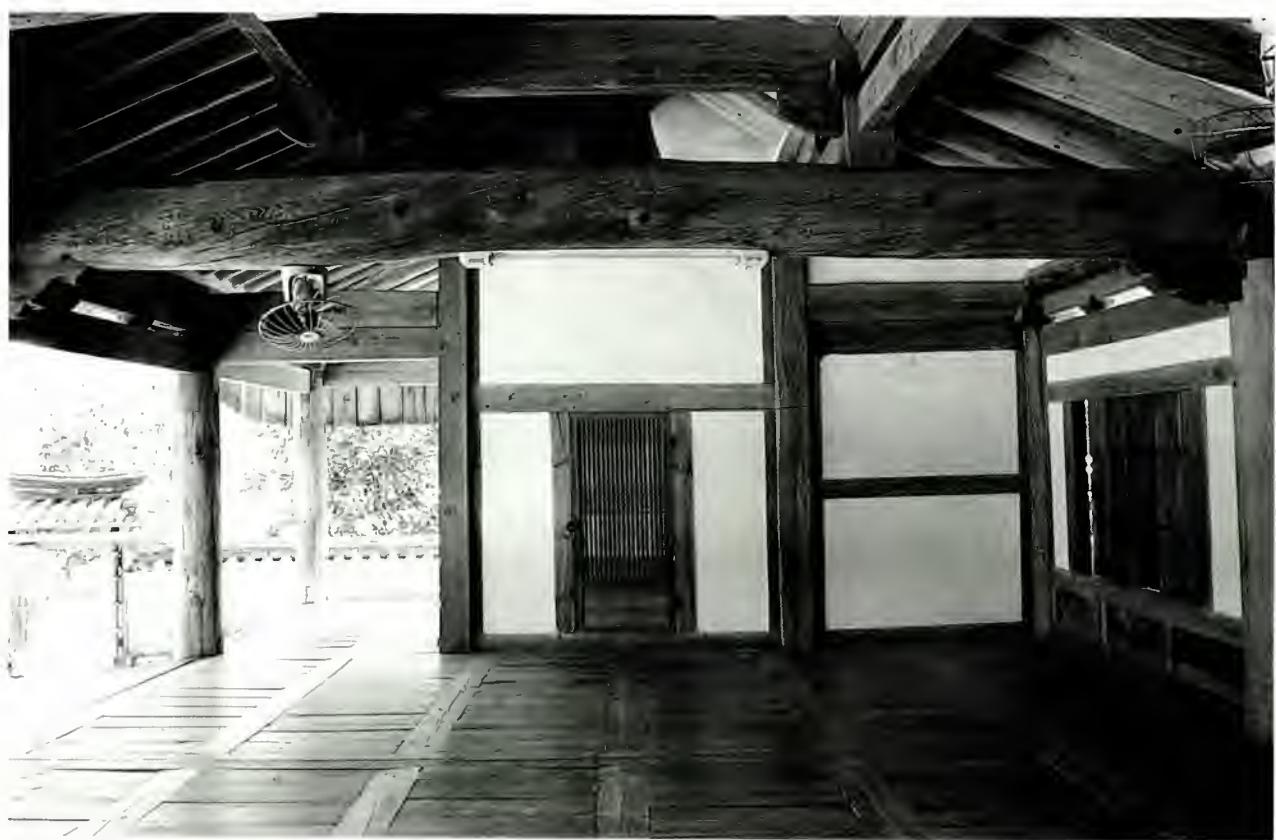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종대공



명륜당 내부 종대공



명륜당 내부 협칸



명륜당 내부 당 후벽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 빈흥재



빈흥재 내부



• 빈홍재 내부 당 후벽



• 빈홍재 전면 퇴칸



• 빈홍재 내부 종대공



• 빈홍재 현판



교직사



빈흥재 협문



명륜당 협문



내삼문 후면 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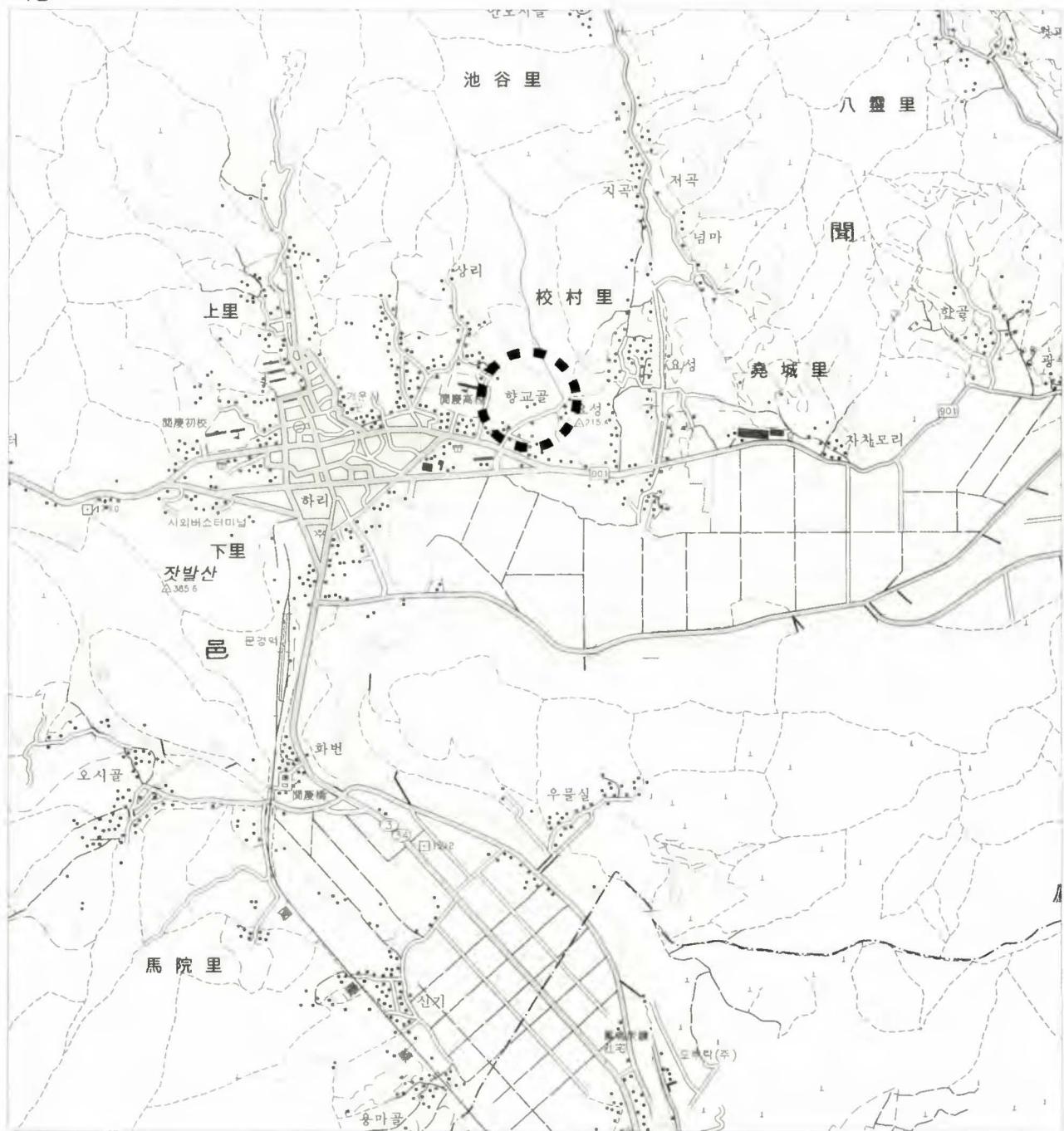


전경

14. 문경향교(聞慶鄉校)

- 지정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32호(대성전)
- 지정일 : 1985년 8월 5일
-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322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외삼문, 제기고, 화장실, 협문 등

지형도



1. 연혁

문경현(聞慶縣)은 본래 신라 초에 관문현(冠文縣)이었다가 경덕왕 때 관산(冠山)으로 고쳐 고령군(古寧郡)에 소속시켰다. 고려 때 문희군(聞喜郡)으로 고쳤고 현종 때에는 상주에 소속시켰다가 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속현으로는 가은현(加恩縣)과 호계현(虎溪縣)이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연혁을 지닌 문경 향교는 조선 태종 때(1399~1417) 창건되었다고 하나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선조 31년(1598)에 대성전을 재건하였고, 숙종 2년(1676) 3월에는 명륜당을 재건하였다. 순조 26년(1826)에는 명륜당을 중수하였으며, 동왕 30년(1830)에 외삼문을 지었고, 고종 9년(1872)에는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향교 보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19세기 중엽~20세기초의 내용을 기록했다고 보이는『總校修善錄(향교수선록)』이 있다. 연도별 수선내역 중 건물부문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聞慶縣



계묘(癸卯, 1903)년 8월 12일에 담과 중문(中門)을, 1909년으로 추정되는 을묘(乙卯) 8월 25일에 명륜당 주초와 내삼문을 개수하였고, 정묘(丁卯, 1917)년 6월 19일에는 외삼문을 중건하고 내삼문을 개수하였다. 계유(癸酉, 1933)년 5월 18일에는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를 모두 번와보수 하였다.

이후 1985년에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1987년에 대성전을 보수하였고, 1990년에 명륜당과 양재(兩齋)를 보수하였으며, 1993년에 일곽을 보수하였다.

이상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추정)
임진왜란 중	소실
1598	대성전 중건
1676	명륜당 중건
1826	명륜당 중수
1830	외삼문 중건
1872	대성전 중수
1903	담, 중문 보수
1909	명륜당 주초, 내삼문 개수(추정)
1917	외삼문 중건, 내삼문 개수
1933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번와보수
1985	문화재자료 지정
1987	대성전 보수
1990	명륜당, 양재(兩齋) 보수
1993	향교 일곽 보수

2. 입지 및 배치

문경향교는 문경읍내에 자리잡고 있는데 위치는 문경고등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전면에 봉오산(鳳鳴山)이 바라보이는 경사가 심한 주흘산 산자락으로 향은 남서향이다. 대지를 3단으로 조성하고 내삼문, 명륜당, 외삼문, 대성전을 중앙에 둔 종축적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성전과 내삼문 그리고 외삼문의 향이 $S22^{\circ}W$ 로 남서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명륜당은 같은 남서향이되 $S12^{\circ}W$ 로 약간 다른 향을 갖고 있고, 동서재도 명륜당의 향과 직각을 이루고 있다. 또한 대성전 어칸과 내삼문 어칸은 동일한 축에서 어긋나 있으며, 전면의 외삼문으로부터 차례로 약간씩 서쪽으로 편향되면서 자리잡은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면에 명륜당을 두고 대성전을 가장 높은 곳에 배치시킨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방식을 취하였다. 명륜당과 내삼문사이에는 동·서재를 직각으로 배치시켜 서로 마주보게 한 충청지방과 전라지방에 흔히 보이는 전당후재(前堂後齋)형이 본 향교 배치의 특징이다. 또한 대성전 앞에 제기고를 두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은 전면을 2단의 장대석으로 쌓았으며, 그 위에 원형 초석을 놓고 좌우 측면 중앙 기둥을 방형 단면의 기둥으로 놓고 나머지는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초석은 동측칸 후면 좌우 만을 자연석으로 하였으며 원형 초석은 높이가 약간 높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전면에만 창호를 두었는데, 전면 각 칸을 4분하여 어칸의 경우 중앙에 두 짹 판문을, 좌우칸은 각각 어칸에서 두 번째 등분한 칸에 외짝 판문을 달았다. 전면 어칸 상부와 좌우 측벽 전면칸에는 각각 광창(光窓)을 두었다.

기둥머리에는 전면에 이익공, 후면에는 초익공을 구성하였다. 전면의 경우 출목 없이 2익공으로 하였는데, 살미의 형상은 1익공 살미는 끝부분을 비스듬하게 깎아 양서(仰舌)로 하고, 2익공살미는 끝을 날카롭게 하여 수서(垂舌)로 하였는데 연꽃과 연봉을 첨가시키고 있어 후기적인 수법을 보이고 있다. 보머리는 도리 밖으로 빼내고 봉두(鳳頭)를 끼워 놓았다. 후면은 초익공으로 하고 초각하지 않고 직절한 판재를 그대로 사용했다. 주간에는 3개의 소로를 수장한 장방형이 화반을 올렸다.

가구는 5량가로 하였는데,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얹었다. 대들보는 단면이 방형에 가까운 직재(直材)로, 모두 4개를 사용하였으며,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만을 세워 종보를 올렸다. 종보 위에는 제형판대공을. 좌우 측벽에서는 동자주를 세워 송도리를 받게 하는 등 일체의 장식재를 배제한 매우 간결한 구조를 채택하였다. 측면에서는 대들보 중앙 하부에 방형 단면의 설주를 두었다.

맞배지붕을 하여 양 측면에 풍판을 달아놓고, 전면은 부연을 달아 겹쳐마로 처리하고 후면은 홀쳐마로 하여 정면을 강조했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를 최근에 설치하였으며,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2현, 해동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2) 제기고(祭器庫)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만 기단을 제대로 두고 측면은 조성하지 않았으며, 전면은 방형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남측칸 전면에는 외짝 판문을, 북측칸 전면에는 띠살문을 달았으며, 후면 벽체는 외부와 직접 면하고 있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좌우 귓기둥에서 도리 뺄복받침을 두었으며,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동자주를 세웠다. 내부는 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측칸은 우물마루, 북측칸은 온돌을 두었다. 지붕 용마루 좌우 망와 하단에 숫기와 1개를 세워 장식하였다.

본 건물은 위치로 볼 때는 동무(東廡)에 해당하며, 현지 문화재 안내판에도 동무로 명기되어 있으나, 평면 형식이 마루와 온돌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제기고 혹은 전사청으로 불리는 것이 옳다.

(3) 내삼문(內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면에 17단의 계단을 두고 나지막한 단층 기단 위에 정평주초 형식으로 약간 높직한 방형 혹은 부정형의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기단 전면은 장대석으로, 후면은 자연석으로 하였다. 좌우 측벽에는 대들보 하부에 회사벽을 꾸

미고, 각 칸 모두 전면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외단을 직절한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전후면 어칸에는 소로를 수장하였고 좌우칸 전면에는 원형 화반을 수장하였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두었다. 전후면 모두 홀처마이며, 내부는 연등천장으로 바닥은 시멘몰탈로 마감하였다. 지붕 용마루 좌우 망와 하부에는 숫기와 1개를 세로로 두어 장식하였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높은 축대 위에 잡석으로 기단을 쌓아 초석을 놓은 후 약간의 배흘림이 있는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평면형식은 정면 4칸 중 가운데 2칸을 우물마루로 하여 당(堂)으로 두고, 양측칸에 온돌방을 두어 각각 동실(東室)과 서실(西室)을 꾸몄다. 또한 사방에 쪽마루를 시설하고 계자각 난간을 둘렀는데 배면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고 서측면에 쪽마루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다. 이는 명륜당 뒷쪽에 동·서재가 배치된 관계로 동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전면은 높은 축대 위에 있어 누각과 같은 느낌을 받도록 하였으며, 정면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마루의 정면과 배면에는 사분합문을 각 칸에 내고, 온돌방 전면에는 쌍여닫이 세살창을, 대청의 우측면에 외여닫이문, 좌측면에는 외여닫이문과 창을 각각 내었다. 내부 동서실의 당 쪽 창호 및 벽체는 현재 내부 중도리 장혀에 남아 있는 걸쇠로 보아 원형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 위에는 2익공을 구성하였고 보녀리는 도리 밖으로 빼내었다. 살미의 형상은 끝부분을 사설(斜削)시키고 연꽃과 연봉을 침가시켜 초각한 조선후기양식으로 보여진다.

가구는 5량가로 되어 있으며, 단면이 원형에 가깝게 치복한 대들보를 전후 평주에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에 보아자와 첨차를 끼운 포대공으로 놓았다. 종보 위에는 첨차를 끼운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했는데, 대성전과는 살미 형상은 같으나 가구 수법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들보는 1본을 사용하고 좌우 실 벽체 상부는 맞보를 하였으며 하부에는 보아자를 두고 있다. 창방을 4면으로 짜 돌리고 그 위에 파련각한 화반을 각 칸에 1구씩 끼워 놓았다.

지붕은 홀처마로 구성하여 팔작지붕을 올렸는데 기와의 끝을 아귀토로 마무리하였다. 현재 전면에 차양을 덧댄 상태이며, 전면 좌우 퇴칸 중앙에 기단을 따내어 아궁이를 만들었으며, 후면에 굽뚝을 두었다. 단청은 따로 하지 않았으나 내부 대들보 측면에 화려한 용(龍) 문양을 그려 넣었으며, 동재쪽으로 내민 추녀가 다른 추녀에 비해 약간 짧다. 내부에는 1935년(孔夫子誕降二千四百八十六年)에 제작된 '重修記' 와, '聞慶鄉校重修記' 등의 기문이 남아 있다.

(2) 동재(東齋)

동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기단은 막돌쌓기로 하여 단 차이를 두고 있는데, 남측칸 마루 부분의 기단에서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낮게 하여 누마루와 같은 느낌이 들도록 의도하였다. 이는 지붕의 형태 또한 팔작지붕으로, 맞배지붕에서 형성할 수 없는 측면 공간을 의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면 3칸 중 2칸을 뒤로 후퇴시켜 앞부분은 뒷마루로 구성하고 뒷부분은 어칸과 북측칸을 통칸으로 하여 온돌방으로 꾸몄다. 남측칸은 우물마루를 깔고 현함을 둘렀다.

자연석 주초를 놓고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으며, 어칸 전면에 두 짹 띠살문을 달고 북측칸 전면에는 외짝 띠살문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로, 추녀의 뒷뿌리를 종도리 위에 얹었다. 방은 온돌과 지반자로 되어 있으며, 남측칸만 우물마루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남측칸 하부에 아궁이를 두고 북측면에 굴뚝을 내었다. 남측칸 북측벽 상부에는 '東齋' 현판이, 후벽 상부에는 '鄉校東齋小識'이라는 이름의 병인(丙寅)년간 기문이 걸려 있다.

(3) 서재(西齋)

서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우진각지붕 건물이다. 동재에 비하여 규모가 작으나 평면 형식은 남측칸을 마루로 하고 북측칸과 어칸을 통칸으로 하여 방으로 두는 등 동재와 동일하다. 그러나 동재와 달리 건물 후벽이 외부와 직접 면하고 있다.

나지막한 위에 초석을 놓고 남측 전후 귀기둥은 원형 단면의 기둥을, 나머지는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을 꾸몄으며, 북측칸 전면과 어칸 남측벽에 각각 외짝 띠살문을 달았다. 가구는 동재와 동일하며, 지붕은 홀처마로 내부 실은 온돌로 되어 있고, 남측칸은 마루로 되어 있되 천장은 모두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단청은 동재와 마찬가지로 하지 않았으며, 남측칸 북측벽 상단에 '西齋' 현판을 걸었다.

(4) 외삼문(外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홀처마 맞배지붕으로 솟을삼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면에 18단으로 된 계단 1개를 두었으며, 야트막한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약간의 배흘림이 있는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좌우 측벽 대들보 하부에만 회사벽을 꾸몄으며, 전면 각 칸 모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외단을 직절한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주간에 소로를 수상하였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가칠단청 하였으며 바닥은 시멘몰탈로 마감하였다. 전후면 홀처마로 연등천장으로 처리하였다.

전면 어칸 상부에 '繼開門' 현판을 달았으며, 현판 좌측에 '崇禎紀元後四庚寅仲秋下浣'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이 건물이 순조 30년(1830)에 지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화장실과 협문이 있다.

화장실은 명륜당 동편에 위치하며,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협문은 명륜당 서편에 1개가 있으며, 사주문(四柱門) 형식으로 외부와 직접 면하고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자수단위=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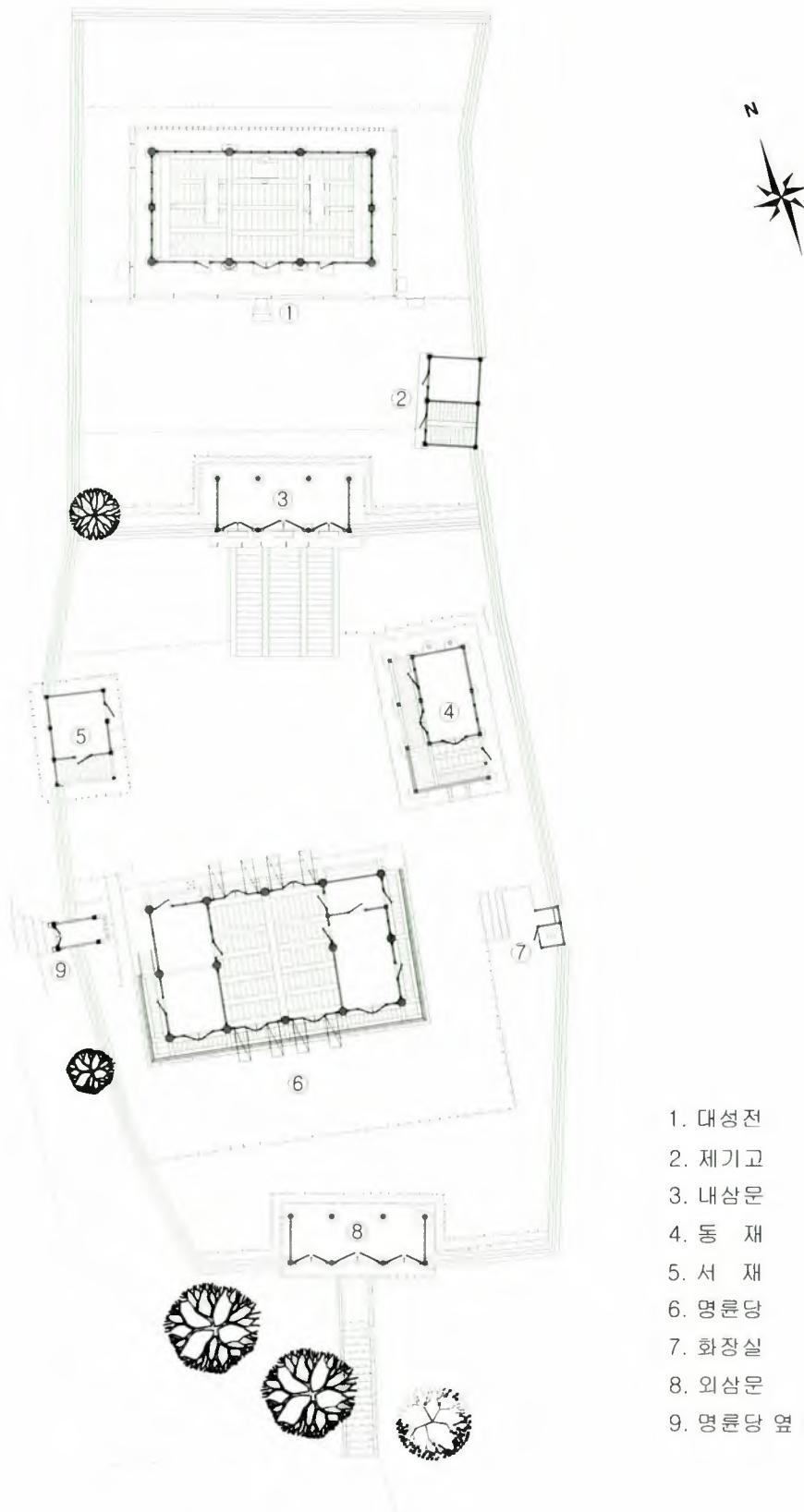
지정명칭	문경향교(聞慶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32호 (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조(주정)	입 지	경사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 리 자	문경향교
좌 향	남서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堂後廟 남북 종축 1개
중건시기	1598년 중건 1676년 중건	대지조성	3단 / 명륜당,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 宋朝 2賢 / 海東 18賢	인접시설	문경고등학교
건축구성	대성전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외삼문 / 제기고 / 화장실 / 협문		
특기사항	대성전과 명륜당의 향이 약간 다름 동재와 서재의 평면을 서로 다르나 남측칸을 누각(櫻閣)의 개념으로 처리하였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2칸 / 이익공(전면), 초익공(후면) / 겹처마(전면), 훌처마(후면) 맞배지붕 / 5량가 우물마루 / 연등천장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기 단	단층기단 / 전면 이벌대	도 리	5량 / 굴도리
계 단	전면 1개(3단)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초 석	정평주초 / 원형초석	창 방	말각방형 / 뺨목 직절
기 등	원형기둥, 방형기둥 방형기둥은 좌우칸 중앙에 사용함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공 포	이익공(전면), 초익공(후면)		
처 마	겹처마(전면), 훌처마(후면)		
수 장	회사벽 / 가칠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		
특기사항	전면 어간 싱부와 좌우측면 전면칸에 각각 광창(光窓)을 두었음 전면 좌우칸에는 각각 외짝 판문을 달았으며 어칸쪽에 가깝게 두었음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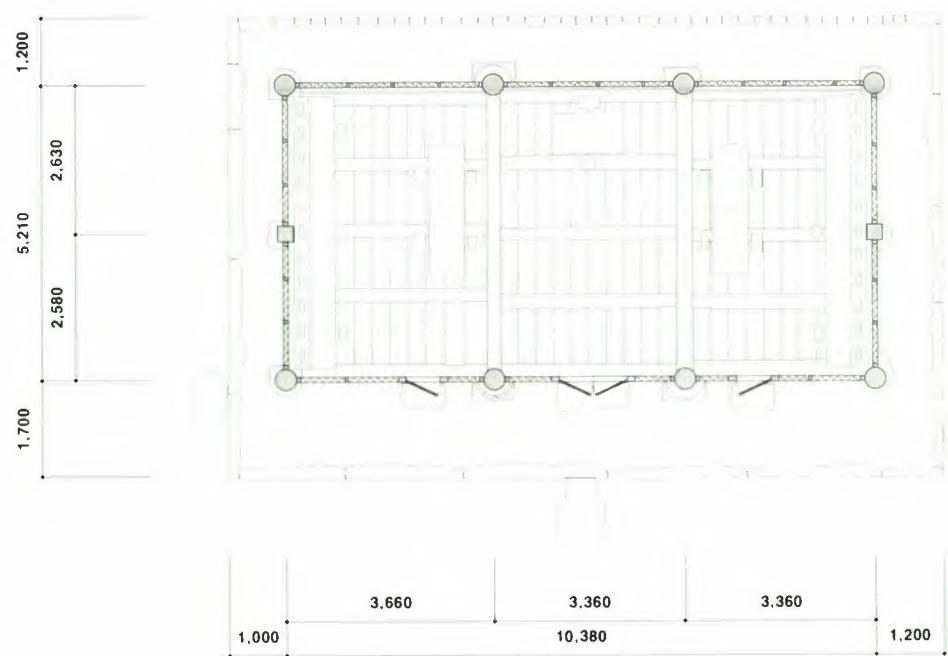
개 요	4×2칸 / 이익공 / 훌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기 단	단층기단 / 잡석쌓기	도 리	5량 / 굴도리
계 단	없음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창 방	말각방형 / 뺨목 익공재 초각
기 등	원형기둥	지 붕	팔작지붕
공 포	이익공 / 주간 화반 수장		
처 마	훌처마		
수 장	회사벽 / 백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특기사항	전면과 좌우 측면에 계자난간을 돌렸으며, 후면에도 뒷마루를 내었음 전면 좌우 퇴칸 기단 전면에 아궁이를 내었음 단청은 따로 하지 않았으나 내부 대들보에 용(龍)문양을 그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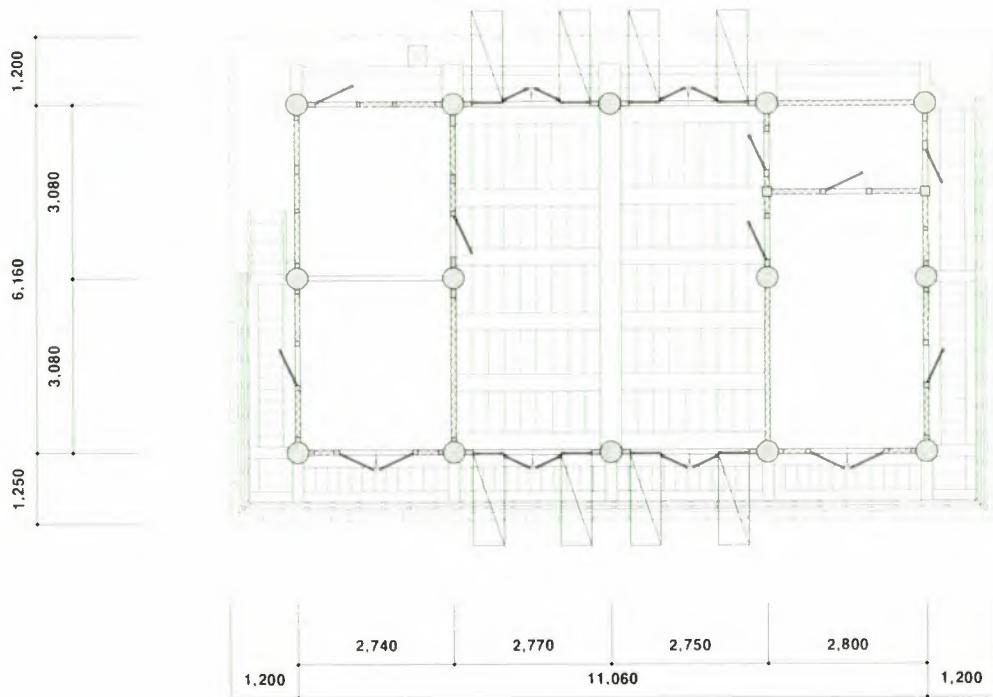
1. 대성전
2. 제기고
3. 내삼문
4. 동 재
5. 서 재
6. 명륜당
7. 화장실
8. 외삼문
9. 명륜당 옆 협문

문경향교 배지도

0 2 5 10 M



문경향교 대성전



문경향교 명례단

0 0.5 1.0 2.0 4.0M



▲ 대성전



대성전 후면



▲ 대성전 전면 어칸 구성



▲ 대성전 전면 어칸 평주 초석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전면 귀포



▲ 대성전 내부 가구



▲ 대성전 내부

문경향교

斯道報



▲ 명륜당



▲ 명륜당 후면



명륜당 전면 공간



▲ 명륜당 전면 귀포



▲ 명륜당 기단



명륜당 내부



명륜당 내부 어간 가구



명륜당 내부 협간 가구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제기고



명륜당 옆 협문



▲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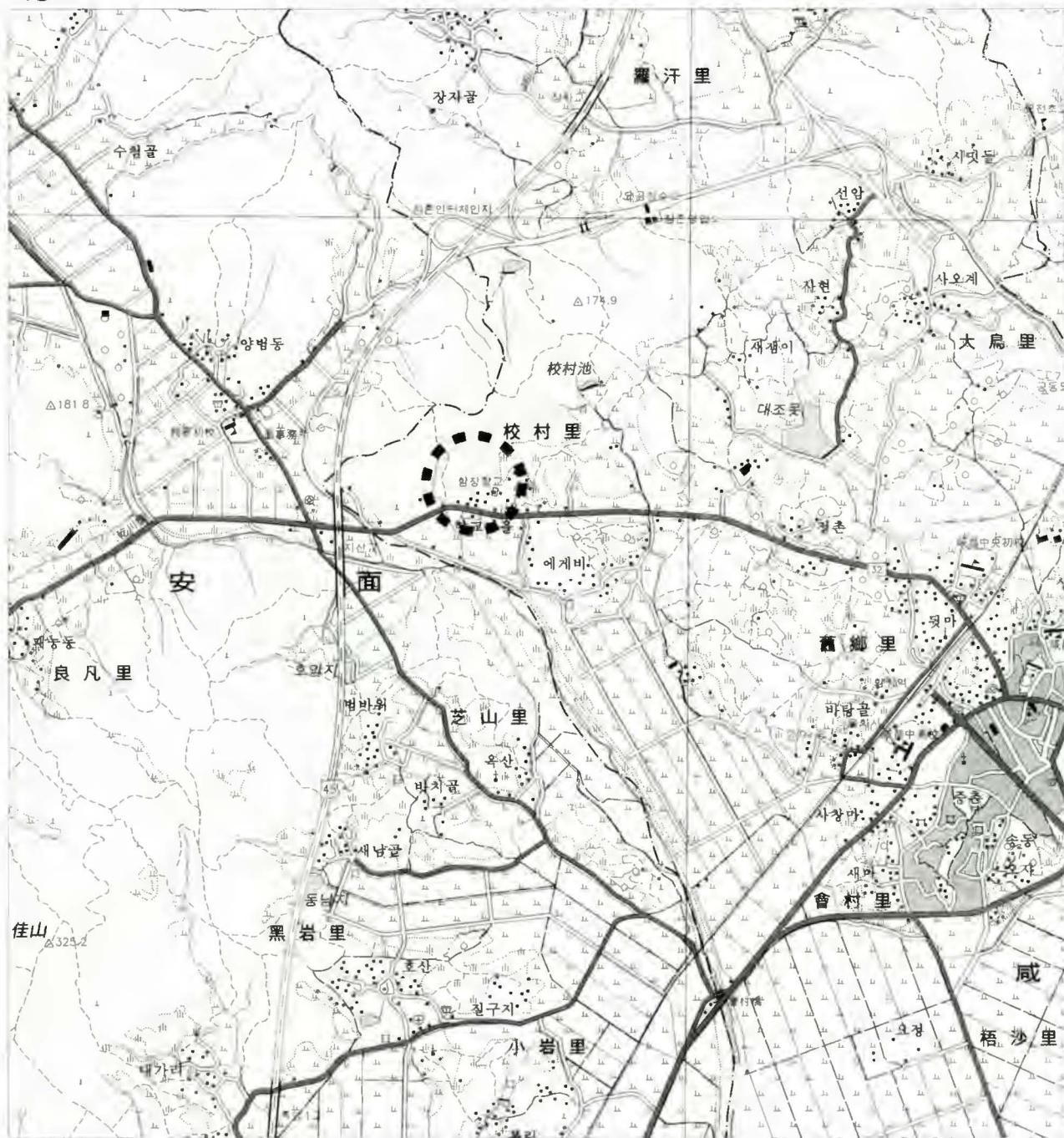


교직사

15. 함창향교(咸昌鄉校)

- 지정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24호(일곽)
- 지정일 : 1985년 8월 5일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면 교촌리 304-1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외삼문, 교직사, 협문 등

지형도



1. 역학

합창은 본래 고령가야국이었다. 신라에서 취하여 고동람군으로 하였다가 경덕왕 때 고령이라고 하였다. 고려 광종 때 합령으로 하였다가 현종 9년에 합창으로 고쳐 상주의 속읍으로 삼았다. 그 후 명종 조에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조선 태종 조에 혼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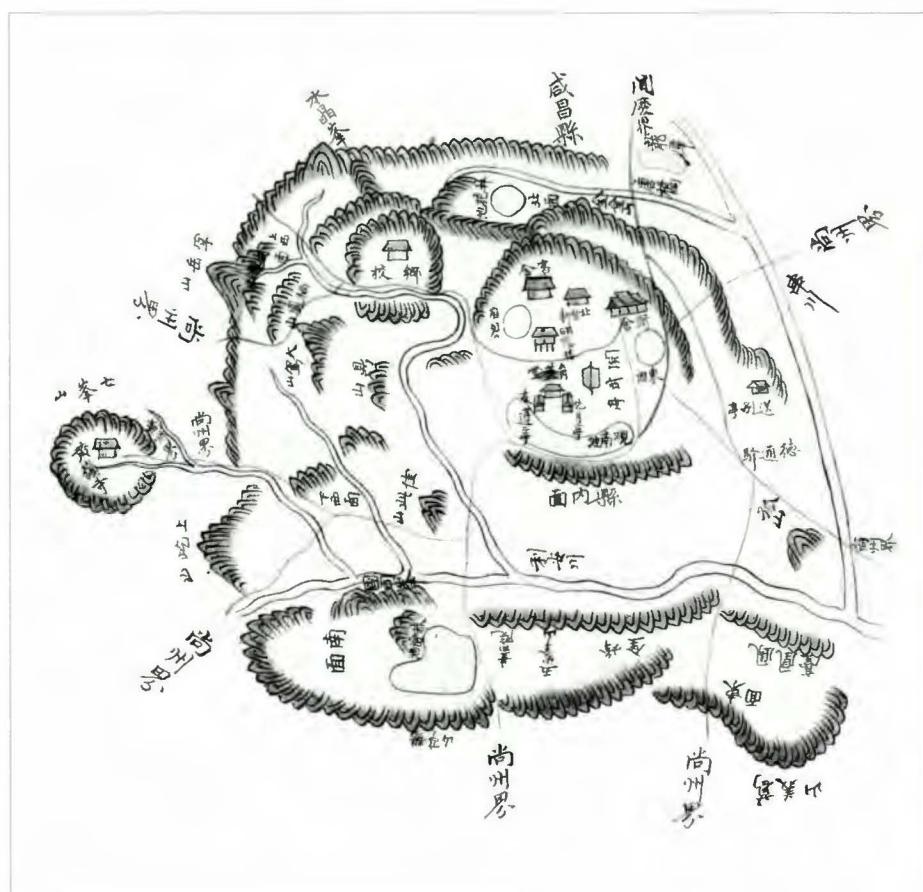
함창향교는 조선 태조 7년(1398)에 건립된 후 태종 17년(1417)에 이전하였다고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으며 창건연대는 미상이다. 향교가 비록 고려인종대에 처음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나 고려말까지는 대개 소수의 대읍(大邑)에 향교가 설치되었을 뿐이었다. 조선조에 들어와 태조가 즉위하면서 각 도의 안찰사에게 명하여 향교진흥책을 명하고 부목군현에 1교씩 설치케 한 이래 성종 조 무렵이면 ‘일읍일교(一邑一校)’ 가 확립되었음을 감안할 때 함창의 연혁을 통해 그 청간연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함창향교는 그 읍의 연혁으로 미루어 보아 빠르면 려말선조, 늦어도 조선 성종조 이전에 창건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현의 서쪽 5리에 향교가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현재 향교에는 무자(戊子) 10월 23일의 『향교중건문서』 1책이 남아 전한다. 무자년은 향안에 의거 그 연대를 추정하면 인조 26년(1648)에 해당한다. 그 속에 실려 있는 「명륜당조역완의책」에 의하면 현내면에서 노 7명, 상서면에서 30명, 남면에서 1명, 동면에서 15명, 북면에서 18명, 도합 71명이 각 가별로 1명씩 동원되어 명륜당의 중수에 임하였다. 그 외 『부훤당집』에 함창향교중수가 실려 있다.

1907년에 현감 이종호(李鐘浩)가 명륜당을 중수하였으며, 1925년에 교산(校山)을 환수 받았고, 1972년에 향교 일곽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있었단다. 1982년에 외삼문을 중건하고, 1986년에는 명륜당을 중건하였다. 1990년에 일곽을 정비하였고, 1992년도에 방충·방연재 도포 공사를 신시한 바 있다. 1993년에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이상의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咸陽縣



1398	창건(추정)
1417	이건(추정)
1648	향교 일곽 중건
1907	명륜당 중수
1925	교산(校山) 환수
1972	향교 일곽 보수
1982	외삼문 중건
1986	명륜당 중건
1990	일곽 정비
1992	방충·방연제 도포
1993	명륜당 중수

2. 입지 및 배치

함창읍 소재지에서 서쪽 이안면으로 약 4km되는 교촌동에 본 향교가 있다. 읍내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고가도로를 지나 약 6~700미터 가량 직진하다 보면 길 우측으로 함창향교가 자리잡고 있다.

향교는 경사가 심한 산언덕에 3단으로 대지를 조성하여 남북축선을 기준으로 대성전을 북쪽 세일 높은 곳에 위치시키고 명륜당을 그 앞에 배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형의 배치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동서재는 명륜당 뒤쪽에 두어 안마당을 형성하는 등 전당후재(前堂後齋)형의 배치 규범을 따르고 있다.

외삼문과 명륜당, 내삼문과 대성전을 중심으로 남북 종축을 이루고는 있으나 명륜당의 향이 약간 다르며 진입할수록 약간씩 서편으로 편향되고 있으며, 또한 강학영역을 구성하는 동서재가 명륜당의 향과 직각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서는 어긋나 있다.

향교로 진입하는 길목 입구 왼편에 함창향교 표지석이 서있고, 오른편으로 다수의 비석군이 자리잡고 있으며, 외삼문 전면 왼편으로 수령이 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목(杏木) 1그루가 서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전면에 퇴칸을 구성한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억공계 겹쳐마 맞배지붕 건물로, 정면 어칸은 약간 넓게 잡고, 측면 어칸은 4척 가량 더 넓게 칸살을 구성하였다. 기단 전면에는 좌우측칸 전면 중앙에 각각 5단으로 구성된 계단을 1개씩 놓았다. 막돌쌓기한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문얼굴의 구성은 전면 벽체에 반연귀로 맞춤한 문설주를 세워 쌍여닫이 울거미 널문을 3곳에 달아 놓았으며 좌우 측면과 후면은 회사벽을 꾸몄다.

기둥머리에는 이익공을 구성하였는데 주간에는 화반을 놓았다. 살미의 형상은 쇠서의 끝을 날카롭게 뾰게 하였는데, 아직 연봉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화반은 전면만 초각하였고 고주열과 후면에서는 단순하게 좌우를 빗깎았다.

가구는 어간에서 1고주, 좌우 측벽에서 2고주 5량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고주(高柱)는 모두 풋보와 대들보를 측면에서 끼우고 있다. 내부가구는 거의 직선재로 된 대들보 위 4분변작의 위치에 보아지. 첨차 및 소로로 구성된 중대공을 세워 뜬창방을 결구시켰는데, 중도리장혀와 뜬창방사이에 화반을 끼운 것이 특이하다. 종보 위에 파련대공을 얹어 종도리를 받게 하였는데, 역시 뜬창방을 건너지르게 한 후 소로를 끼워 놓았다. 전면 평주와 고주 상부에서는 풋보와 대들보를 도리 밖으로 빼내고 보머리는 상부를 두세 번 둥글게 깎았다.

내부는 장마루를 깔았으며 상부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고, 처마는 겹처마로 되어 있다. 좌우 측면에 방풍판을 달았으며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4현, 해동 18현의 위패를 모셨으며, 어간 후벽에 공자의 초상을 걸어 놓았다. 근래에 보수하면서 어간 우측 고주를 신재(新材)로 교체하였다.

(2) 내삼문(內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흙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계단을 두었으며, 낮은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8각형으로 치목된 기둥을 세웠다. 기둥 상부는 동서재와 마찬가지로 방형이되 방형의 단부 하단을 뾰족하게 깎아낸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면 각 칸에 두 짹 판문을 달았으며, 좌우 측벽에는 'ㅅ' 자 모양의 가새를 대고 널판을 대었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동자주를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바닥은 시멘몰탈로 마감하고 상부는 연등천장으로 두었다. 후면 동측에는 대나무를 다수 식재하였다. 전면 좌우 측면에서 연결된 담이 전면 기둥과 맞닿아 있지 않고 대성전 쪽으로 방향을 틀어 약간 안쪽으로 담을 확장한 다음에 단면을 형성한 점 등이 특이하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지형의 단 차이를 이용하여 정면에서 보면 2층의 누각 형식으로 되어 있고, 배면에서는 그대로 돌층계를 올라 당(堂)으로 오르게 되어 있다.

건물 후면으로 어간 중앙에 기단 일부를 따내어 3단의 계단 1개를 구성하였다. 잡석쌓기한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전면 기둥열만 누하주(樓下柱)로 하여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으며, 그 뒤에 다시 축대를 높게 쌓은 후에 측면과 배면은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마루전면 벽체는 판벽으로 하고 하부에 머름을 넣어 쌍여닫이 판장문을 달았으며, 배면에도 판벽으로 하여 쌍여닫이 판장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측면과 배면에 쪽마루를 시설하여 난간을 둘러놓았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였는데 대성전의 익공과 형태가 동일하며,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가구의 구성은 5량으로 하였으며, 견실한 부재로 된 대들보 위에 보아지와 첨차를 직교시킨 중대공으로 종보를 받게 하였다. 종보 위에는 어간에서는 파련대공, 좌우 퇴칸에서는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하고 뜬창방을 끼웠다. 화려하거나 소박하지도 않은 견실한 부재를 사용한 일반적인 가구구성 수법이다. 온돌방의 상부는 칸살을 크게 한 우물반자이고, 우측 마루방 상부의 외기 부분도 우물반자로 막았다.

내부는 중앙에 우물마루를 두고 우측엔 2통간의 온돌방을, 좌측엔 후면측 1칸을 온돌방으로 하여 각각 서실과 동실로 삼았다. 동실 전면에는 마루를 깔았으나 기둥과 보 하부의 장부 흔적으로 보아 마루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좌우실 후면에 각각 아궁이를 두고 좌우 측면으로 각각 굴뚝을 내었는데, 서실의 경우 전후간을 통간으로 하여 온돌을 놓기 위해 기단을 남측간 하부까지 축조한 반면 동실은 북측간 한 칸 만을 온돌을 두었기 때문에 남측간 하부는 기단을 높게 쌓지 않고 누하주를 둔 점이 특이하다.

내부 대들보 좌우 측면에는 1993년(檀紀 4326)에 제작한 ‘文廟重修記’가 걸려 있으며, 임술(壬戌, 1982)년 명의 ‘鄉校補修記’에는 외삼문을 신축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정미(丁未, 1907)년 명의 ‘鄉校明倫堂典司鹿重修記’에는 당시의 명륜당 중수 사실을 언급하는 등 다수의 기문이 걸려 있다. ‘請禁錄坑□批答’ 말미에는 ‘上之四十年甲申’이라 되어 있어 영조 40년(1764)에 해당하며, ‘校山還付事實’은 을축(乙丑)년에 제작된 것으로 1925년에 해당한다. 또한 ‘鄉會節目’은 ‘上之十三年己酉’로 제작연대가 정조 13년(1789)에 해당한다.

명륜당은 1986년에 복원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전에는 통간마루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청한 흔적이 업는 백골집으로 내부 어간과 동측 협간 종보 서측면 상단에 방형의 나무 캐를 두었다. 최근에 복원하였기는 하나 기둥 하부의 그렁이가 매우 우수하며 배흘림기둥의 치복 수법이 훌륭하다.

(2) 동재(東齋)

명륜당과 내삼문 사이에 약간 경사진 대지에 이례적으로 기단을 5척 정도로 높게 쌓아 건물을 세웠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흙처마로 된 맞배지붕 건물로, 전면에 퇴칸을 구성하였다. 전면 중앙에 기단 일부를 안쪽으로 파고들며 5단의 계단을 구성하였고, 기단 위에 자연식 초식을 놓은 다음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이간과 남측간 전면에는 각각 두 짹 띠살문을 달고 북측간 전면에는 외짝 띠살문을 달았는데 창호의 높이가 북측간이 높다. 남측면에도 중앙에 두 짹 띠살문을 달았으며, 후면에는 각 칸 모두 외짝 띠살문을 달았고,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다.

기둥의 치복 수법은 약간 특이한데, 방형 기둥을 보죽임 하여 8각형 단면의 기둥에 가깝게 하였으나, 도리와 보가 결구되는 상부는 방형을 유지하면서 방형 단면의 각 모서리를 아래로 뾰족하게 따내었다. 가구는 5량가로 전면에 고주를 두었으며, 4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로 된 중대공과 종대공을 두었다.

내부는 어간과 북측간을 통간으로 두고 남측간을 따로 구획하여 모두 온돌을 두었으며, 아궁이의 위치는 남측간의 경우 남측기단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측간 기단 상면에 두었으며 모두 후면에 각각 굴뚝을 내었다.

(3) 서재(西齋)

동재와 마찬가지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흙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동재와 마찬가지로 대지의 조건상 기단을 높게 축조하여 건물을 세웠으며 건축적 특성은 대부분 동재와 유사하나 평면 구성이 약간 다르다.

서재는 전면에 뒷마루를 두고 어간과 남측간은 통간으로 온돌을 구성하였으나, 북측간만은 다른 칸의 1/3 정도의 폭으로 구성하고 마루를 두었다. 기단 남측에 아궁이를 두고 어간 후면에 굴뚝을 내었으며, 동재와 달리 후면이 외부로 면하고 있다. 또한 후면 어간에 창호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교직사로의 직접적인 통로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간 북측면에는 북측간의 마루로 통하는 외짝 띠살문을 달았으며, 어간과 남측간 전면에 각각 두 짹 띠살문을 달았으나 크기는 상방의 높이 조절로 인하여 남측간의 것이 낮다.

(4) 외삼문(外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면에 계단을 두고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았으며, 그 위에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좌우 측벽에 회사벽을 꾸몄으며, 각 칸 전면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처마는 흘처마로 되어 있으며, 각 칸 판문 전면에 2태극 문양을 그려 넣었다. 내부 바닥은 시멘몰탈로 마감하였고 상부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1982년에 새로이 복원한 건물이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와 협문이 있다.

교직사는 향교 서편 담 밖, 서재 후면에 자리잡고 있다. ‘ㄱ’ 자형 살림집으로 외부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남북방향으로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에 남측칸에 접하여 3칸 건물이 붙어 있는 평면을 구성하고 있다. 북측 2칸은 마루로 되어 있고 남측 2칸은 부엌이다. 옆으로 붙은 3칸은 각각 방으로 되어 있으며,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놓고 종도리를 받았다.

협문은 서재 북편 담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며 교직사 쪽으로 통하고, 일각문(一腳門)의 형태로 되어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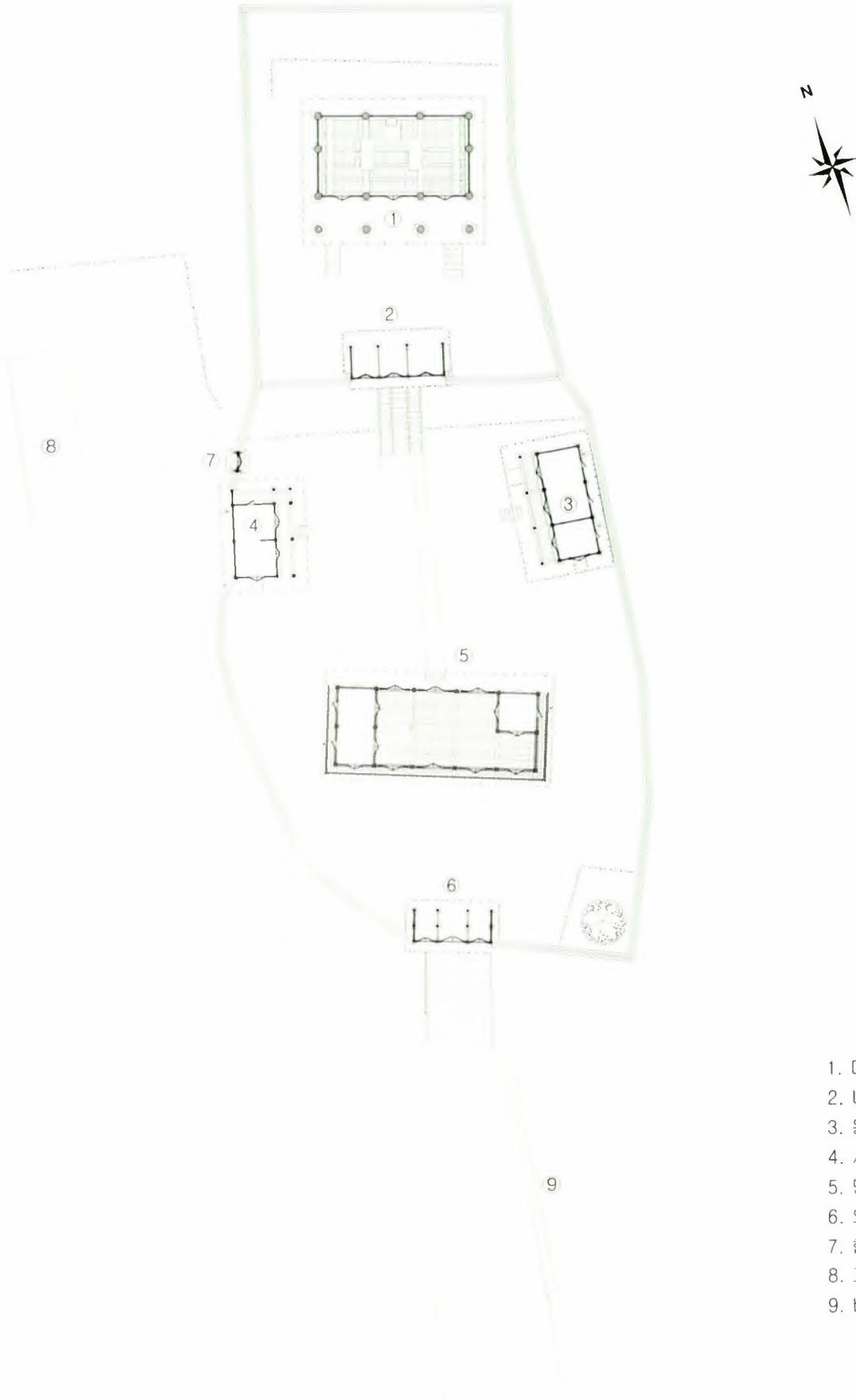
향교 일반				(지수단위:mm)
지정명칭	함창향교(咸昌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24호 (일곽)	
창건시기	조선 태조 7년(1398, 추정)	입지	산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리자	함창향교	
좌향	남향	배치형식	前廟後學 / 前堂後齋 남북 종축 1개	
중건시기	1417년 이간(추정) 1648년 중간	대지조성	3단 / 명륜당, 내삼문 기준	
설위	5聖 / 宋朝 4賢 / 海東 18賢	인접시설	진입부에 행목(杏木) 식재	
건축구성	대성전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외삼문 / 교직사 / 협문 등			
특기사항	진입시 건물의 중심이 서쪽으로 약간씩 편향되는 특징이 있음 대성전과 명륜당의 향이 약간씩 다름			

대성전 건축 요소

개요	3×3칸 / 이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1고수 5량가(측벽 2고주) / 장마루 / 연등천장			
기단	단층기단	보	대들보 : 전고주후평주 걸침	
계단	전면 2개(각 5단)		종 보 : 4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대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포	2익공 / 주간 화반 수장	창방	말각방형 / 하단을 부드럽게 빗깎음	
처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지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장마루 / 연등천장			
특기사항	어칸 후벽에 공자 초상 모심 최근 보수 공사 과정에서 일부 구조부재를 신재(新材)로 교체함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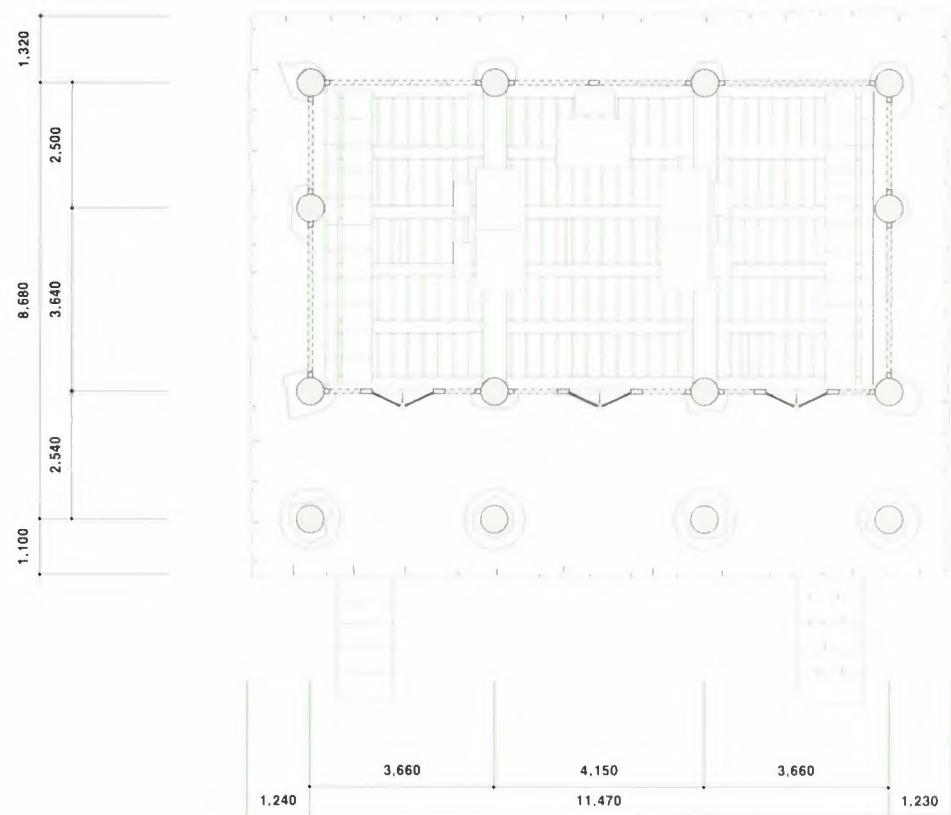
개요	5×2칸 / 초익공 / 홀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우물반자(실)			
기단	단층기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단	1개(후면 어칸, 3단)		종 보 : 3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 전면 상하층 기둥 별재	대공	중대공 : 보아자+첨자 종대공 : 파련대공(좌우 퇴칸 판대공)	
공포	초익공 / 주간 소로 수장	창방	말각방형 / 단부 익공재 초각	
처마	홀처마	지붕	팔작지붕	
수장	회사벽 / 백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우물반자(실)			
특기사항	대지의 단 차이를 이용하여 전면은 중층과 유사한 구성을 하였음 서실은 전후칸을 온돌로 하여 기단이 전면부로 돌출된 'ㄱ' 자 형태로 되어 있음 동실은 전면칸 마루 바닥 등에 장부 구멍 등의 흔적이 있어 방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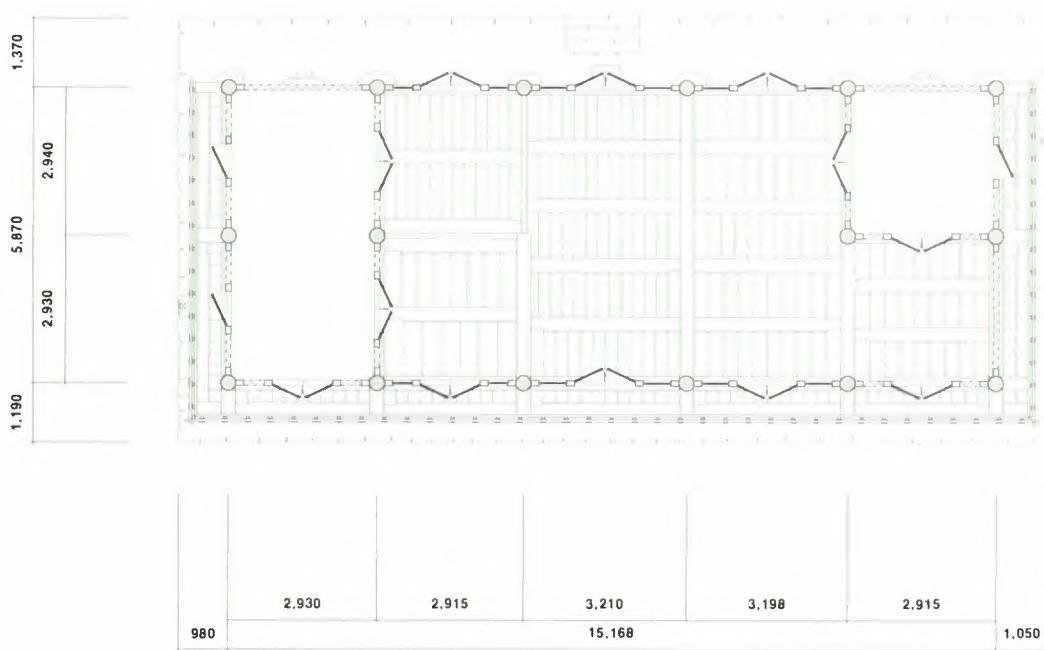
1. 대성전
2. 내삼문
3. 동 재
4. 서 재
5. 명륜당
6. 외삼문
7. 협 문
8. 교직사
9. 비석군

함창향교 배치도

0 2 5 10M



함창향교 대성전



함창향교 대성전





대성전



대성전 내부



▲ 대성전 후면



▲ 대성전 전면 퇴칸



▲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대성전 내부 측벽 가구



명륜당



명륜당 내부



▲ 명륜당 후면



명륜당 전면 평주 초석



▲ 명륜당 전면 주상포



▲ 명륜당 전면 귀포



▲ 명륜당 내부 어칸 가구



▲ 명륜당 내부 협칸 가구



▲ 동재



▲ 서재

함
창
향
교



내삼문



외삼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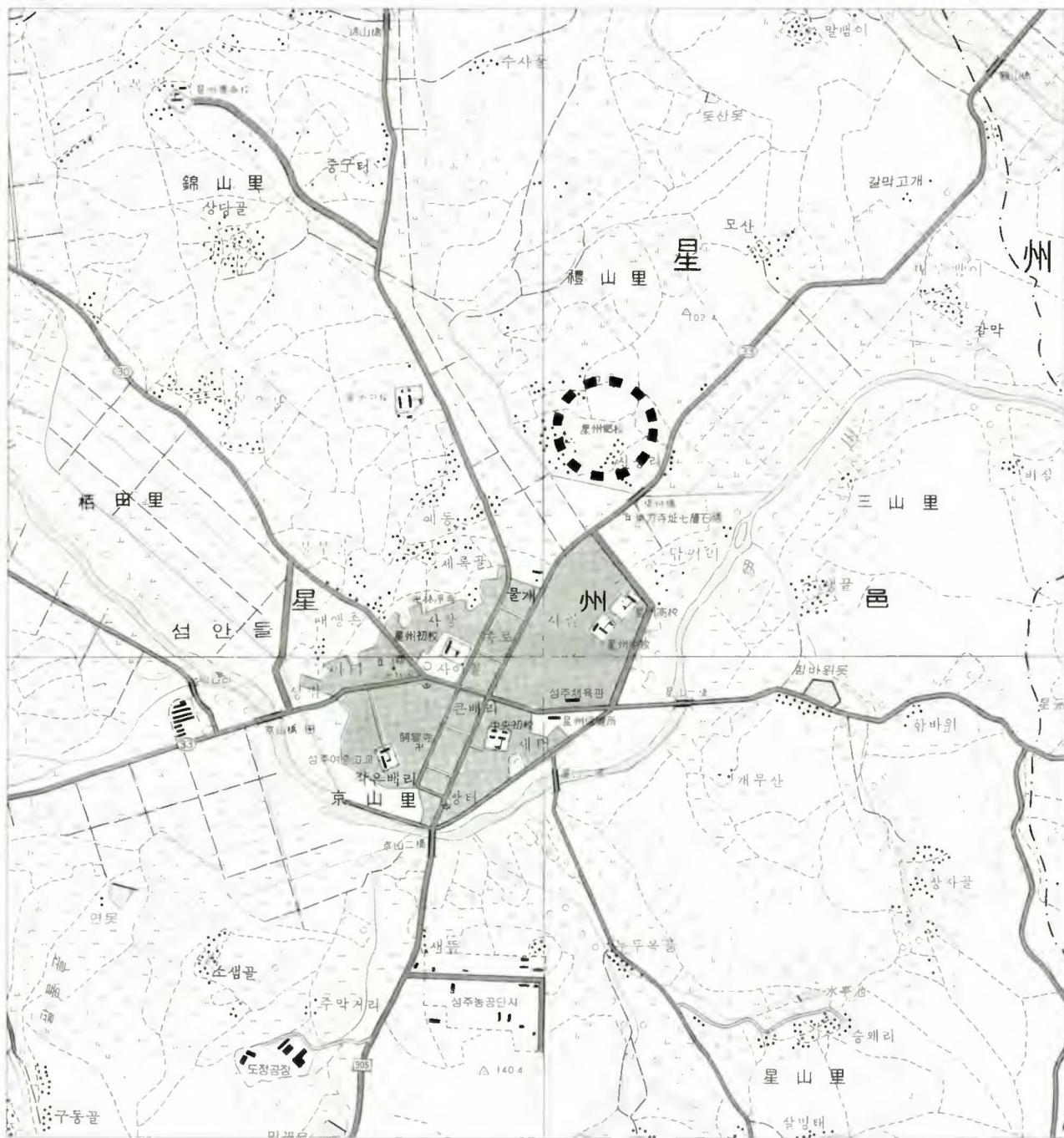
교직사 일곽

함
창
향
교

16. 성주향교(星州鄉校)

- 지정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14호(대성전)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5호(명륜당)
- 지정일 : 1985년 8월 5일(대성전)
: 1985년 12월 1일(명륜당)
- 소재지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31
- 건축구성 : 대성전, 동서무, 대성문(내삼문), 사주문, 명륜당, 입덕문(외삼문), 사주문(교직사 쪽 출입문), 양사재, 전사청, 교직사 2동, 화장실, 협문 등

지형도



1. 연혁

삼국유사에 보면 성산가야(星山伽倻)는 6가야의 하나이며, 신라가 취하여 본피현(本彼縣)을 설치하였다. 신라 경덕왕 때 본피현의 이름을 신안(新安)으로 고치고 성산군의 속현이 되었으며 후에 고쳐서 벽진군(碧珍郡)이 되었다.

고려 태조 23년(940) 다시 경산부(京山府)가 되었으나 경종 6년(982)에 격이 낮아져 광평군(廣平郡)이 되었고, 성종 14년(995)에 대주(岱州)로 칭하고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었다. 현종 3년(1013)에는 단련사를 폐지하였다. 동왕 9년(1018)에 지경산부사(知京山府使)로 고쳤다. 충렬왕 21년(1295)에는 흥안도호부(興安都護府)로 승격되었다. 동왕 34년(1308) 또 승격되어 성주목(星州牧)이 되었다. 충선왕 2년(1310) 모든 목(牧)이 없어지면서 경산부로 강하되었다.

조선시대 들어서도 고려 때의 제도를 따라 경산부를 두었다. 태종 조에 목(牧)으로 승격되었으나 1614년에 주인(州人)이 역모에 연루된 일로 신안현으로 강등되었다. 인조반정으로 복호와 함께 목이 되었으나 다시 1631년에 역모에 걸려 성산현으로 강등되었다. 1640년에 복호되었다가 1644에 또 역모로 성산현이 되었다. 1653년 다시 목이 되었으며 속현이 둘(가리현 · 화원현)이었다.

이와 같은 지역 연혁을 지난 성주의 향교는 성주읍 예산리 교촌마을 동쪽 산밑에 자리잡고 있으며, 1398년(태조 7년) 서울에 성균관, 지방에 향교를 세울 때 건립되었다.

대성전에는 처음 중국 곡부(曲阜)에서 전해진 공자의 화상(畫像)과 그 밖에 중국의 4성, 10철, 송나라 5현의 위패를 모셨으나 후에 공자, 4성, 10철이 흙으로 빚은 소상(塑像)으로 바뀌었다. 그 후 목사 강중진(康中珍)이 공자의 소상을 나중에 위패로 바꾸었고 동 · 서 무에는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모셨다.

명륜당의 가운데 대청 마루 벽에는 허종항(許從恒)과 김안국(金安國)의 시(詩)가 걸려 있고 김종직(金宗直)의 부자묘(夫



子廟) 부(賦)가 걸려 있다.

창건 이후의 중수 및 중건 기록이 대체적으로 미비한 편이며, 명륜당 내부에 1879년에 제작된 중수기장이 있어 이 시기에 한 차례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61년에 명륜당을 중수한 것으로 추정되며, 1980년에 위패를 일신하였고, 1990년에 일곽을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98	창건
1879	향교 일곽 중수
1961	명륜당 중수
1980	위패 일신(一新)
1990	일곽 정비

2. 입지 및 배치

성주향교는 30번 국도를 따라가다 구미에서 애관 쪽으로 가는 33번 국도와의 교차 지점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전력 성주지점을 보며 우회전하여 약 700여 미터를 직진하다 보면 7층석탑이 보이는데, 이 탑 맞은편 진입로를 따라 오르는 길에 있다. 시가지의 전체적으로 보면, 북측 언덕 위에 자리하여 시내를 굽이보고 있으며 멀리 우측으로 가야산(伽倻山)을, 좌측으로 상산(星山)을 바라보고 있다.

건물의 배치는 명륜당과 대성전이 담을 사이에 두고 좌우에 병치(竝置)된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형태를 띠고 있다. 높은 계단을 올라 입덕문(入德門)을 들어서면 좌측에 양사재(養土齋)가 있고 문 정면에 넓은 마당을 건너서 명륜당이 서 있다. 당의 우측 일곽은 약간 높은 대지에 담을 두르고 대성전과 동·서무를 배치시켰다. 대성전 전방에는 내삼문과 외문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직접 출입케 하였고, 명륜당과의 사이에는 일각문을 설치하여 내통케 했다. 명륜당 좌측 담밖에 'ㄱ' 자형의 교직사가 있다. 옛날에는 만화루, 동·서재가 담 내에 있었고, 양현청, 양몽재가 담 바깥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만화루는 임진왜란 때, 명륜당 앞 좌우에 각 3칸으로 되어 있던 동재와 서재는 6·25 때 소실되었다.

현재 향교로 진입하는 길목 어귀에 고종 8년(1904, 上之八年甲辰)에 만든 기념비(紀念碑) 외에 다수의 흥학비(興學碑), 선정비(善政碑) 등이 자리하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 전면에는 좌우칸 중앙에 각각 5단의 계단을 1개씩 두었다. 기단은 전면에 장대석을 3단으로 쌓아 축조하였으며, 그 위에 둉글게 다듬은 운두가 높은 초석을 놓고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기단 전면의 면석 중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2단 째에 거북 모양을 새겨놓

았으며, 기타 면석 중에서도 형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문양이 새겨진 듯한 석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부 기둥에는 안쏠림 기법을 적용하였다.

창호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 3칸 모두에 문을 달아 놓았는데 모두 쌍여닫이 울거미 널문으로 하였다. 널문은 어간의 경우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나 좌우 칸의 경우는 각각 어간쪽 기둥에 문선이 닿아 있도록 편향되어 자리잡고 있다. 양 측면의 중앙칸에는 격자살의 광창을 2개 연접시키고 널덧문을 달아 2중창으로 하여 빛의 유입을 차단하였는데, 널덧문은 좌우로 개폐가 가능한 점으로 보아 필요한 경우 광창(光窓)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머리에는 다포를 구성하였는데, 내외 2출목의 장엄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향교 대성전 건물 가운데 다포로 되어 있는 것은 경상북도 지역 내에서 성주향교와 대구향교 뿐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서울 문묘와 전라북도 익산향교 등 극히 일부에서만 볼 수 있어 있는 드문 경우이다. 외부에 돌출된 살미의 형상은 초제공과 2제공은 단부를 사절시킨 양서로 하고, 3제공은 운형으로 초각하여 외부로 돌출된 보머리를 받고 있다. 첨자는 다포계 건축에 공통적인 교두형으로 하였다. 후면 어간 동측 주상포 3제공의 형태가 다른데 이는 후대에 보수시의 흔적으로 보인다. 또한, 어간과 좌우칸의 주간이 다르되 주간포의 숫자는 동일함에 따라, 다포계 건축에서 나타나는 의장 수법인 첨차길이의 조절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창방 좌우 뺄목은 궁글려 초각하였으며, 전면 어간 중앙에 ‘大成殿’ 현판을 걸었다.

내부에서는 내목 상벽에 벽체를 구성하고 주간포 후면 상부에 각각 내목상벽화반을 두었다. 또한 동자주 측면으로는 주상포 내복도리와 연결된 계량 뒷뿌리가 끼워져 있다.

가구의 구성은 어간에서 무고주, 좌우 측벽에서 2고주 5량가로 되어 있다.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4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동자주에 사괘를 트고 뜬창방과 보방향으로 외단이 직절된 동자주 익공을 놓고 주두를 놓아 장혀와 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에는 제형 판대공을 두어 뜬창방과 장혀를 결구하여 종도리를 받았다. 중대공과 종대공 모두 사이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측벽에서는 전후에 고주를 두었으며, 창방과 평방을 측면 전후간으로도 두었다. 다포계로는 특이하게 반자를 구성하지 않고 연등천정을 함으로써 시원스런 공간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지붕은 전후면 모두 겹치마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시멘몰탈로 마감하였다. 그러나 초석의 상부 좌우면을 일부 따내고 문 하방을 연결한 것으로 보아 원래의 바닥은 다른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공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2현, 해동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성주향교는 원래 소상(塑像)을 모셨었는데, 조선 초기 향교의 노비가 개성 성균관에 다녀와 흙으로 빚어 놓았던 것이 세월이 오래되어 퇴락 되자 목주(木主)로 바꿨다고 한다. (재인용, 『京山誌』卷, 學校條 : 『慶北鄉校誌』, p.713)

내부에는 모로단청이 되어 있으며, 외부는 현재 가칠단청으로만 되어 있으나 일부 부재에서 모로 단청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전면 어간 서측 주간포의 문양이 달라 이 역시 후대의 보수 흔적임을 알 수 있다. 내목상벽에도 당초문양을 도채하였으며, 전면 포벽에도 상당 부분이 탈락되어 원형을 찾기 어려우나 일부 문양이 남아 있다.

현재 내부에 놓인 제기(祭器) 역시 제작 수법과 사용된 문양 등이 우수하여 조선 후기로 그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되, 초석과 기둥 등 주요부재의 치목 수법과 공포의 구성양식 등 건축적인 특징은 조선 중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래의 지붕 형태가 팔작지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2) 동무(東廡)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 선면 좌우간 중앙에 1단으로 된 계단을 각각 두었다. 막돌쌓기한 낮은 기단 위에 전면 남측 귀기둥 초석만 원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연석 초석을 놓았으며, 배흘림이 약간 있는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전면 각 칸에 두 짹 판문을 달고, 측면에는 광창(光窓)을 설치하였으며 후면은 중방 없이 삼벽을 구성하였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였는데, 남측간 전후 귀기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후면이 서로 다른 형태의 익공재로 되어 있어, 보수시에 일부 변형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주간에 화반 대신 소로를 수장하였고, 익공재의 외단은 짤막한 쇠서형태로 되어 있으며, 가구는 3량가로 중앙에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내부 바닥은 시멘톨탈로 마감하였으며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전후면 홀처마로 풍판은 달지 않았으며 굿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3) 서무(西廡)

입면 및 평면의 형태는 동무와 동일하되, 동무와 달리 전후면 익공이 모두 동일하며, 남측간 전후 귀기둥에 원형 초석을 사용하였다.

(4) 전사청(典祀廳)

서무 후면을 향하고 있으며,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 초석 위에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우고, 각 칸 전면에 외짝 판문을 달았으며, 나머지는 삼벽을 구성하였다. 후면의 경우 중방과 하방사이에 창호를 구성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되어 있다. 남측 협문과의 사이에 간략한 토담을 쌓았고, 북측에서는 동편 기둥으로, 남측에서는 서편 기둥 쪽으로 담이 연결되는 등 전체적으로 강학영역과 제향영역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점이 특이하다.

(5) 내삼문(內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지형 차이를 이용하여 구축한 축대가 있고 동측간 전면에만 계단이 놓여져 있어, 내삼문이 원칙적으로 동입서출(東入西出)의 원칙에 따라 들어가는 기능(入)을 수행하는 데 중심을 두었음을 추측할 수 있고, 안쪽으로 전사청 남측 협문으로 별도의 답도(踏道)가 있어 나가는 기능(出)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층 기단 위에 어カン 후면 좌우에는 원형 초석을, 나머지는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좌우 측벽 전면 부분으로만 삼벽을 구성하였고 중앙에 설주를 두어 각 칸 모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문하방의 높이가 높아 하부에 삼벽을 구성하였으며, 기둥 상부에는 주두 없이 소로를 좌우 단부에 수장한 도리 방향 첨차를 결구하고 바로 장혀와 짤막한 보아자를 결구하는 등, 실제적으로 초익공과 유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으며, 처마는 홀처마로 되어 있다. 가칠단청 하였으며, 각 칸 판문 전면에 2태극을 도채하였고, 문상방 상부에 홍살을 꾸몄다.

방풍판은 달지 않았으나 박공널에 방환(方環)을 박아 장식하고 자연재를 사용한 대들보 및 가구 구성 등 전체적으로 작지만 당당한 풍격을 지니고 있다.

(6) 사주문(四柱門)

내삼문 앞에 있는 과정적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경사가 급한 계단을 두었으며, 외부에서 직접 내삼문으로 들어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판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건물은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았는데 후면 동측에는 장방형 초석을 사용하였다. 그 위에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으며, 전면에 두 짹 판문을 달고 좌우측면은 심벽을 구성하였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추측컨대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에 따라 대성전을 동편에 두었으며 전면에 내삼문을 따로 두었기는 하나 외부에서 직접 내삼문을 접하기 전에 외문을 다시 두어 과정적 공간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륜당에서 전사청 남쪽의 문을 이용하였다기 보다는 명륜당 동편 담 중앙의 협문을 통해 이 과정적 공간을 거쳐 내삼문의 동측간으로 출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계단 전면에 하마석(下馬石)이 놓여져 있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막돌쌓기한 기단 위에 커다란 자연석 초석을 놓았다. 기단 전면 중앙에는 8단으로 구성된 계단을 놓고 좌측 퇴칸 전면 중앙에는 5단으로 된 계단을, 기단 좌측 전면쪽에는 다시 3단으로 된 계단을 두었다. 기둥은 전후면에는 원형 단면의 기둥을, 가운데 고주는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는데, 어간 전후면의 기둥이 다른 기둥에 비하여 지름이 큰 점이 특이하다.

벽체는 심벽으로 되어 있으며, 당 후벽은 심벽으로 한 후, 하부에 흙으로 된 머름을 들이고 그 위에 쌍여닫이 띠장 널창을 각각 설치하였으며, 외부에 쪽마루를 시설하였다. 실 전면은 외여닫이 세살문을 내고, 대청과 면하는 부분의 2간 중 앞 칸은 가운데 설주가 있는 쌍여닫이 띠살창으로 하고 뒷부분은 외여닫이문을 달아 놓았다. 또 온돌방 앞의 뒷마루 전면기둥에 중방을 걸어 상부는 심벽으로 하였고, 중방하부는 개방되어 있는데, 문설주를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 장부구멍이 남아 있고 이 문설주와 양측 원주사이에 토벽이 설치되어 있었던 듯한 장부 구멍이 남아있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였는데, 일부는 외부에 짤막하게나마 초각하였으며 상당수는 외단을 직절하였고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였다.

가구는 어간에서는 무고주, 좌우 실 좌우로는 전후에 고주를 둔 2고주 5량가의 구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두었다. 중대공은 동자주를 올려 보아지를 끼우고 뜬창방을 건너지도록 구성되었으며, 그 위에 종보를 올렸다. 종대공은 제형판대공으로 마찬가지로 뜬창방을 결구시키고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가구 수법은 대성전의 것과 유사하다.

평면구성은 정면 5칸 중 중앙 3칸의 전면이 개방된 당(堂)이고, 양 퇴칸은 각각 앞쪽의 1칸 뒷마루와 뒤의 2통칸 온돌방이 배치되어 있어 중당협실(中堂夾室)형의 배치를 따르고 있다. 각각 연등천장과 지반자로 마감하였다. 좌우 실의 천장 위에는 고미다락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 쪽과 뒷마루쪽에서 출입하도록 자귀로 다듬은 판문이 달려있다.

전후면 겹처마를 두었으며,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다. 내부 어간 후벽과 동실 서벽 상부에는 각각 '明倫堂' 현판을 걸었다. 전면 동측 퇴칸 동측벽 상부에는 '鄉校重修記' 가 있는데 말미에 '上之十六年己卯六月下澣' 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고종 16년(1879)에 해당한다. 이외에 다수의 기문이 걸려 있다. 또한 신축(辛丑)년 명의 '明倫

堂重修記'는 문맥상 1961년의 기록으로 추정되며, '右節目爲成給事即到付'라는 제목의 기문 하단에는 순상국(巡相國) 김명진(金明鎮)과 기축(己丑) 임진(壬辰)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1889년에 향교에서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성해 준 순상국 김명진의 공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무신(戊辰)년 병의 '暗行御史爲相考事'라는 제목의 기문이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타 향교에 비해 큰 규모에 속하는 건물로 조선 중기양식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

(2) 양사재(養士齋)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강학영역의 남쪽에 자리하여 명륜당과 마주보고 있다. 단층 기단 위에 거칠게 원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놓고,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으며, 벽체는 심벽으로 되어 있다. 전면에 1/3칸을 퇴칸으로 구성하여 마루를 두었고, 나머지를 온돌방으로 구성하였다. 전면에는 두 짹 띠살문을 달고, 후면에는 중방 상부에 벼락닫이창을, 하부에는 외짝 띠살창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이나 퇴칸을 구성하기 위해 고주를 두었으며, 처마는 홀처마로 되어 있다. 후면에 아궁이를 내고 서편 기단 상부에 굴뚝을 내었다.

(3) 입덕문(入德門)

사방 단간 규모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강학영역으로 통하는 외삼문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전면에 계단이 있는데 대지 자체의 조건으로 인하여 급경사로 되어 있다.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으며 좌우에 심벽을 구성하고 전면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홀처마로 되어 있으며 전면 상부에 '入德門' 현판을 달았다. 건물이 좌우 담을 약간 안으로 꺾어 들어온 위치에 두었는데 이러한 구성은 경북 지역 향교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성으로도 볼 수 있으나, 대지 조건으로 전면에 계단을 구성하면서 약간 뒤로 물려 지었을 가능성도 있다. 전면 서편에 1991년(孔紀 2542)에 세운 공적비가 있고, 동편으로 '星州鄉校' 표석과 '明倫井' 지정 표석이 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校直舍) 2동과 사주문, 협문, 화장실 등이 있다.

교직사 영역은 대문채와 'ㄱ'자형의 교직사로 이루어져 있다. 교직사는 남향한 부분은 2칸 대청과 1칸 온돌방 및 부엌이 있으며, 이 부엌과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에 다시 2칸 부엌과 2칸 온돌방이 연접하여 있다. 즉, 각각은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 두 동이 연결된 형태로, 간략한 3량가의 가구로 되어 있다.

사주문은 전체 향교 영역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주된 출입은 이 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사방 단간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기단은 전면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반에 약간 덮힌 상태이다. 자연석 초석 위에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으며, 좌우 측면에 심벽을 구성하였다. 중앙에 두 짹 판문을 달았고,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좌우 방풍판은 생략하였다.

협문은 모두 3개가 있다. 모두 일각문(一腳門)의 맞배지붕 건물로, 하나는 전사청 남측에 자리하여 명륜당에서 대성전 방향으로 문이 열리며, 바로 통하도록 하였다. 다른 하나는 명륜당 마당 동편 담 가운데에 놓여 내삼문 쪽으로 문이 열려 통하는 문이 있는데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고 형식은 간략하나 기둥의 치목 수법이 훌륭하다. 마지막 하나는 명륜당 마당 서편 담 가운데 놓여 명륜당 쪽으로 문이 열리며, 교직사 영역과 통한다.

화장실은 교직사 후면에 있는데,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3량가 맞배지붕 건물이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차수단위=mm)

지정명칭	성주향교(星州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14호(대성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5호(명륜당)
창건시기	조선 태조 7년(1398)	입 지	산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리자	성주향교
좌향	남향	배치형식	左廟右學
중건시기	미상	대지조성	2단(외부에서 대성전 진입시)
설위	5聖 / 宋朝 2賢 / 海東 18賢	인접시설	7층석탑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대성문(내삼문) / 사주문 / 명륜당 / 입덕문 / 사주문 / 양사재 / 전사청 / 교직사 2동 / 화장실 / 협문 등		
특기사항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 규범을 따르고 있음 원래 누각을 비롯한 다수의 재사건물이 있었으나 소실되었음		

대성전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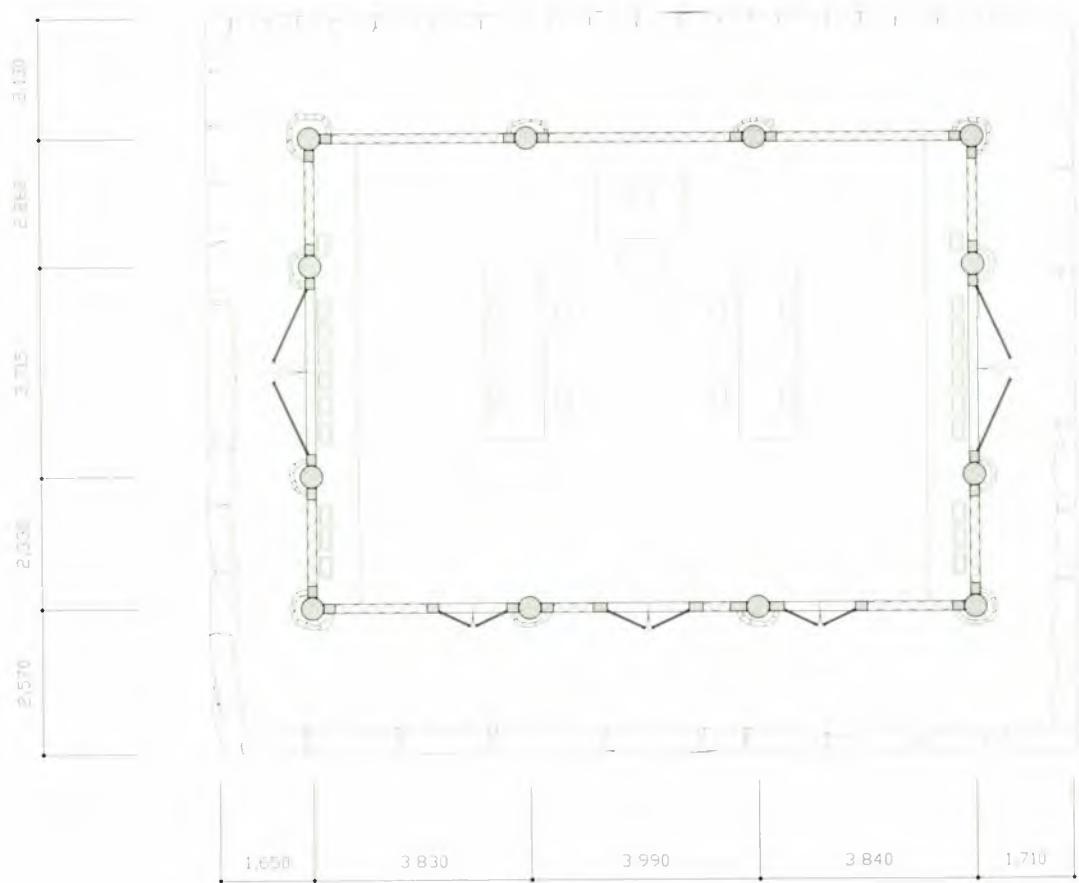
개요	3×3칸 / 다포, 내외2출목 / 겹처마 맞배지붕 / 무고주 5량가 / 시멘몰탈 / 연등천장		
기단계단	단층기단 / 전면 삼벌대 전면 2개(각 5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석	정평주초 운두가 약간 높음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대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판대공
공포처마수장	내외2출목 다포 / 각 칸 간포 2개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회사벽 / 내부 모로단청, 외부 가칠단청 / 시멘몰탈 / 연등천장	창방	말각방형 / 초각 맞배지붕 / 방풍판
특기사항	좌우 측면에 이중으로 된 광창(光窓)을 두었음 향교 대성전 건물 가운데 드물게 다포 형식을 취하고 있음 포벽 및 창방 등에 다양한 단청 흔적이 남아 있음 주요 구조부재의 치목 기법 및 공포재의 초각 수법으로 보아 조선 중기의 건물로 보임	지붕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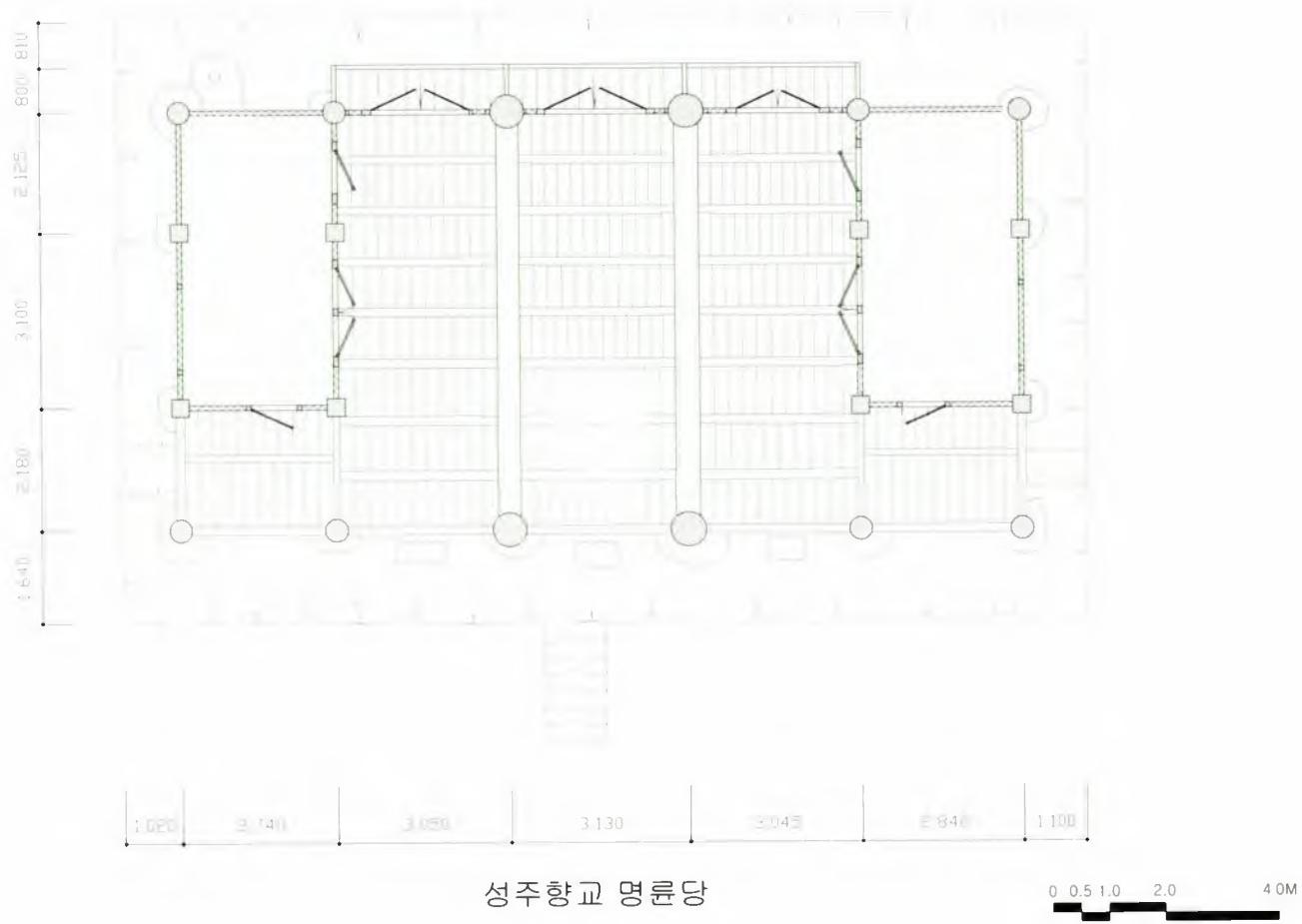
개요	5×3칸 / 초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어칸 5량가, 좌우 협·퇴칸 2고주 5량가 우물마루·연등천장(당), 온돌·지반자(실)		
기단계단	단층기단 / 잡석쌓기 3개(어칸 8단, 좌측 퇴칸 5단, 기단 좌측 전면 3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리	5량 / 굴도리
기둥	원형기둥 어칸 전후면 기둥 4본이 특히 굵음	대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공포처마수장	초익공 / 주간 소로 수장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심벽 / 백골청 / 우물마루·연등천장(당), 온돌·지반자(실)	창방	말각방형 / 단부하부를 살짝 궁글림 맞배지붕 / 방풍판
특기사항	좌우 실 상부에 고미다락을 두고 서책 등을 수장하였음 전면 퇴칸의 벽체 구성과 창호 구성 수법이 다양함 전체적으로 조선 중기적인 특징들이 많이 남아 있음	지붕	

성주향교 배치도





성주향교 대성전



성주향교 명륜당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대성전 전면 공포대



대성전 전면 평주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주간포



▲ 대성전 측면 풍판 및 창호



▲ 대성전 전면 우주



▲ 대성전 창방 및 평방 뺨목



▲ 대성전 기단 전면 거북 조각



▲ 대성전 내부 가구



▲ 대성전 내부 어칸 구성



▲ 대성전 후면 주상포 내부



▲ 대성전 후면 주간포 내부



명륜당



명륜당 측면 구성



▲ 명륜당 전면 어칸 구성



▲ 명륜당 전면 퇴칸 공간



▲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내부 창호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당 후벽



동무



동무 전면 우주



△ 동무 전면 귀포



△ 동무 내부 가구



• 서무



• 전사청



◀ 양사재



▲ 내삼문



▲ 내삼문 측면



▲ 내삼문 전면 주상포



▲ 내삼문 어칸 홍살 구성



사주문(교직사 쪽 출입문)



입덕문



입덕문 현판



사주문(내삼문 앞)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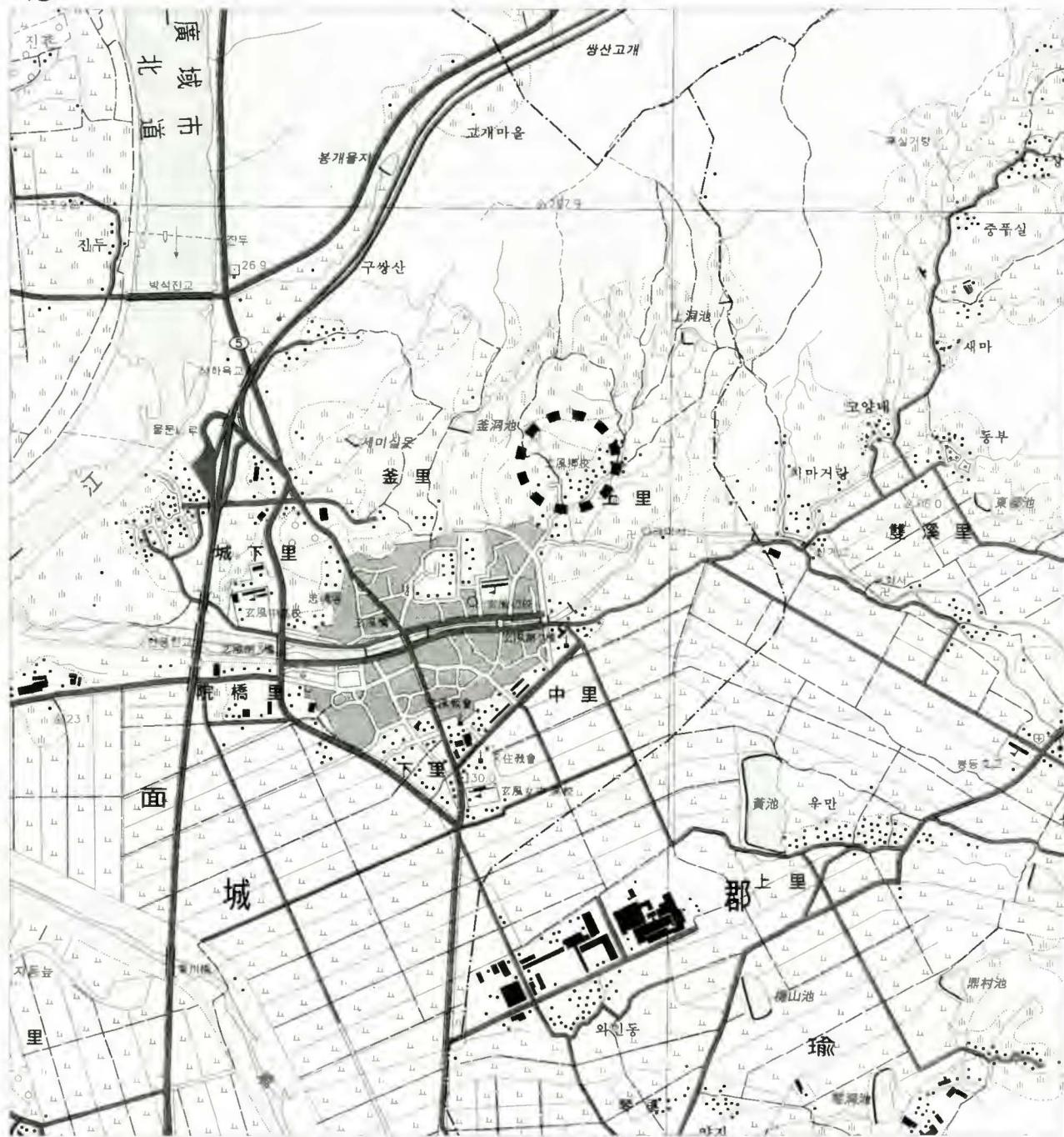


강학공간

17. 현풍향교(玄風鄉校)

- 지정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7호(대성전)
 - 지정일 : 1995년 5월 12일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326-1
 - 건축구성 :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외삼문, 교직사, 화장실, 협문 등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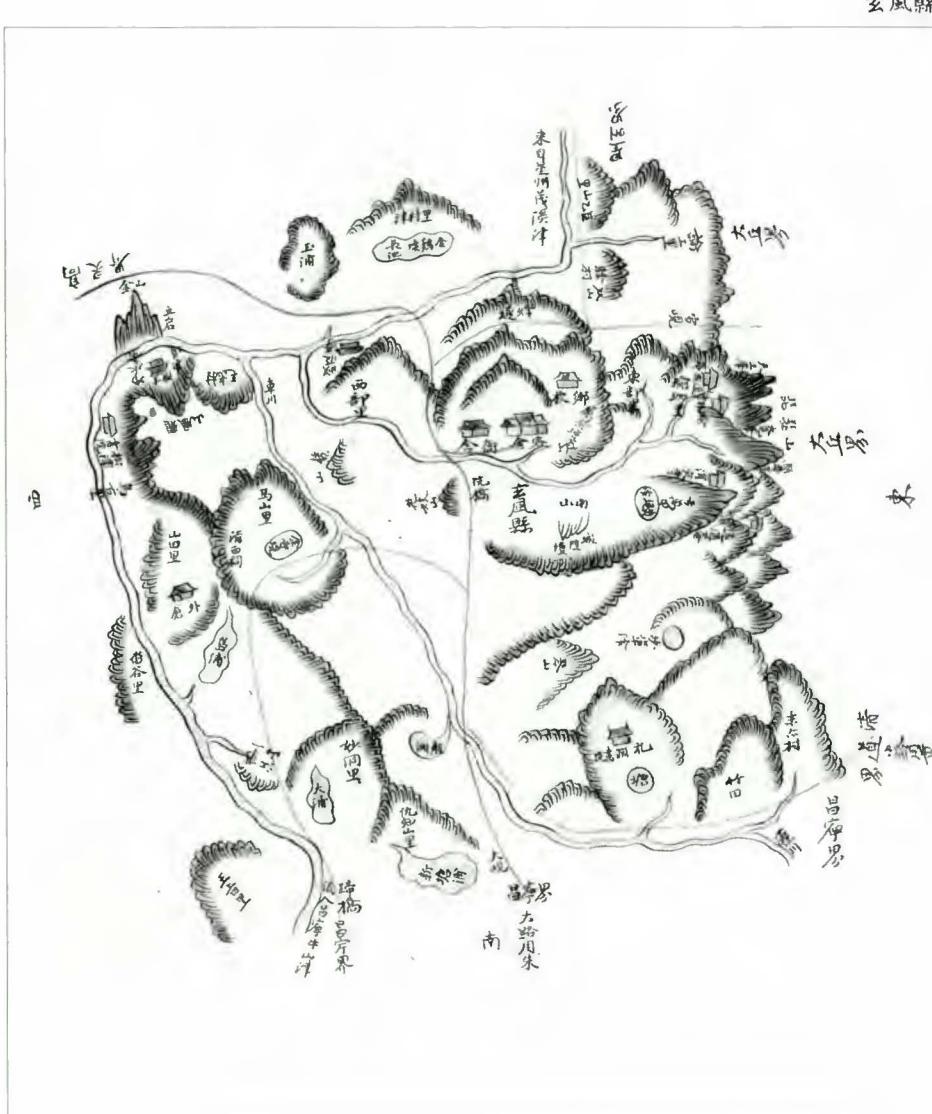
1. 연혁

현풍은 본래 신라 주량화현(혹은 삼량화현)이었으나 경덕왕 때 현효로 고쳐 화왕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 때 이름을 고치고 현종 때 밀양군에 소속되었으나 공양왕 때 감무를 두고 밀양의 구지산부곡을 떼어 여기(현풍)에 부속시켰다. 조선시대에는 행정구역의 일괄적인 개편 방침에 따라 현감을 두었다.

현풍향교의 창건 년대는 미상이나 조선 초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현풍 제8대 현감 이영도(李詠道)가 구(舊) 교동(校洞)에 중건하였으며 영조 34년(1758) 제63대 현감 김광태(金光泰)가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그 후 철종 8년(1857)에 향교 중수가 있었고, 고종 9년(1872)과 고종 20년(1882)에 다시 일곽에 대한 중수가 진행되었다. 또한 고종 38년(1901)에 현감 허길(許桔)이 향교 일곽을 중수하였고, 1914년에도 향교 일곽에 대한 중수가 단행되었으며, 1918년에는 동서무 중수되었다. 1931년에는 당시 군수였던 신현구(申鉉求)가 대성전, 동서무 및 명륜당을 중수하였으며, 1942년에는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이후 1974년에 대성전, 명륜당에 단청을 새롭게 하였으며, 이듬해인 1975년에 동서무를, 1978년에 내삼문을 중수하였고 1979년에는 외삼문을 각각 중수하였다. 1982년에도 향교 일곽을 중수하였으며,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약 4개월간 대성전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등 실로 여러 차례에 걸친 건물의 중건, 중수가 있었다.

『사적록』의 뒷부분에는 1970년 이후 1990년 까지 현풍향교의 건물 보수 및 각종 비품 마련에 대한 사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추정)
임진왜란 중	소실
17세기 초	이전(추정, 대성전 명문와 및 명륜당 현판 기록 등 참조)
1668	외삼문 중건
1758	이전(현위치)
1857	향교 일곽 중수
1872	향교 일곽 중수
1882	려제당 중수
1892	내삼문 중건
1901	려제당 중건
1914	향교 일곽 중수
1918	동서무 중수
1931	향교 일곽 중수
1942	대성전 중수
1974	대성전, 명륜당 단청
1975	동서무 중수
1978	내삼문 중수
1979	외삼문 중수
1982	향교 일곽 중수
1994	대성전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외삼문, 교직사,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지 및 배치

달송군 현풍면 상동 마을의 뒤쪽 나지막한 산 입구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대지를 3단으로 조성하여 대성전과 명륜당이 축을 이루면서 좌·우에 동·서재와 동·서무를 각각 배치시킨 일반적인 전학후묘형이다. 건물에 사용된 석재는 사찰의 탑신부재와 연화문 초석이 많이 보이고, 근처에도 흩어져 있으며, 기단은 물론 담하부 및 축대 등에도 여러 불교 관련 부재들이 남아 있어 이곳이 원래 절터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면에 교직사가 좌측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독립 영역을 이루고 있다. 내삼문을 들이서면 전면 중앙에 명륜당이 자리잡고 있으며 좌우측으로 각각 동재와 서재가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전재후당(前齋後堂)형 배치를 형성하고 있다. 명륜당의 측면을 돌아 후면의 내삼문을 통과하면, 다시 제향영역으로 들어서며 중앙에 대성전이 놓여있고 좌우측에 동무와 서무가 자리잡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풍향교는 약간의 경사진 구릉지에 위치하며, 명륜당이 전면에 놓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갖고 있고, 대성전과 함께 단일 남북 종축을 형성하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은 장대석을 한단 놓고 위에 판석을 세웠는데 향교건축에는 잘 채택하지 않는 고급수법이다. 기단 면에는 사찰의 석등, 석탑 등의 전면에 놓이는 배례석(拜禮石) 등을 기단 정면 중앙과 우측 계단 우측편에 사용하였다. 또한 안상(眼象)이 새겨진 석재를 기단상면에 두기도 하였다. 기단상면은 전돌을 깔았으며, 연화문양을 새긴 초석을 전면에 놓고 후면은 덤벙주초와 탑신석, 석등 하대석 등으로 보이는 주초를 사용하고 있다. 기단 전면에는 좌우간 중앙에 맞추어 5단으로 구성된 계단을 각각 1개씩 두었으며, 내삼문 후면에서 이어진 담도와 연결되어 있다. 대성전내의 바닥은 최근에 장마루를 깔았는데, 이전에는 전돌로 바닥을 마감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측면과 배면의 벽체에는 벽선을 많이 넣어 견고하게 하였고, 창호는 전면 각 칸에 쌍여닫이 울거미널문을 두었다.

공포는 외1출목 이익공을 구성하였는데, 살미는 양서로 하여 연화와 연봉을 첨가시키고, 그 위에 보머리를 봉황두(鳳凰頭)로 초각하였다. 주심첨차는 교두형으로 하고 출목첨차는 마구리를 약간 사절시켜 밑면은 연봉(蓮峰)을 초각하였다. 창방 위에는 전면에 소로를 3개 끼운 화반을 넣고, 배면엔 쌍소로 화반을 1개씩 끼우고 있으며, 형상은 상부가 넓고 하부를 좁게 하여 초각을 하였는데 정면과 배면 화반의 형상은 동일하며 투각(透刻)하였다. 가구는 어칸에서 5량가, 좌우 측벽에서 2고주 5량가로 약간 휘어진 대들보 위에 양봉을 끼운 동자주를 세웠다. 또한 중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올려 종도리를 받고 있다. 중도리 장혀와 종도리장혀 밑에 각각 뜬창방을 결구시키고 소로를 끼워 놓았다.

처마는 겹처마로 하였는데 굵기가 큰 서까래를 사용하고, 방풍판을 양측면에 설치하였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聖)의 신위를 모셨으며 바닥은 장마루로,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모로단청을 하였으며, '乾隆二十三年'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망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758년에 해당한다. 또한 '萬曆三十三年三月 書院造瓦'라는 명문이 새겨진 막새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1605년에 해당한다. 건물의 건립연대는 건물의 특성과 중수상량문 등의 기록을 참고할 때 조선 후기, 약 18c 전후의 건물로 추정된다.

(2) 동무(東廡)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는 통칸으로 되어 있다. 장대석으로 돌린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훌립이 있는 원주(圓柱)를 세운 초익공 건물로, 살미의 형상은 양서로 하여 연꽃으로 장식하고 보머리에 봉황두(鳳凰頭)를 끼워 넣었다. 벽체는 모두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정면 각 칸 모두 두 짹 널문을 달았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좌우 측면에는 방풍판을 붙였으며, 내부는 우물마루에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모로단청으로 마감하였으며, 내부에 단청

을 한 흔적이 남아있고, 해동 18현의 위패가 동서무에 각각 9위씩 나뉘어 모셔져 있다. 망와(望瓦)에는 건륭(乾隆) 23년명 명문이 있는데 이는 1758년으로 이전 시기와 일치한다. 동무는 전체적인 건축적 특징으로 보아 19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3) 서무(西廡)

서무는 동무와 같은 평면 및 입면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남측면 중방 하부를 화방벽으로 꾸민 점이 다르다. 동무와 마찬가지로 건륭 23년명 망와를 사용하였다.

(4) 내삼문(內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는 강학영역과의 단 차이를 이용하여 5단으로 구성된 계단이 각각 좌우 협간 정면 중앙에 놓여져 있다. 기단은 야트막하게 장대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그 위에 상면이 평평한 자연석을 놓고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좌우 측면에만 구성하였는데 일반적인 회사벽이 아닌 담을 기둥의 절반 높이 정도로만 축조하였다. 출입문은 정면에 두었으며 각 칸 모두 두 짹 판문을 달아 내었다.

가구는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제형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은 일반적인 3량가이며, 치마는 훌처마로 되어 있다. 바닥은 전돌을 깔았으며 내부 천장은 연동천장으로 되어 있다. 어간 종도리 장혀 하부에는 '龍 舊光緒十八年壬辰七月十四己亥巳時立柱上樑 新檀紀四千三百十一年戊午十一月二十四日己未午時上樑 四課 戊午火 己未火 甲子金 庚午土 虎'라고 쓴 상량묵서명이 남아 있는데 이는 원래의 건물은 1892년에 건립되었었으며, 현재의 건물은 1978년에 신축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둔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내부 평면은 중당협실(中堂夾室)형으로 중앙 3칸을 당(堂)으로 두고 좌우에 실(室)을 마련하였다. 실은 측면 1칸 반을 온돌방으로 시설하였으며, 건물은 막돌쌓기한 5척정도의 높은 기단 위에 지었으며, 탑재인 듯한 초석을 사용하고 배면은 덤벙주초를 올려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계단은 정면 중앙에 1개를 두었고 9단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계단 좌측에 문화재지정 비석이 서있다. 좌우 실 전면 퇴칸 하부에 아궁이를 설치하였고 후면과 좌측면으로 굴뚝을 내었다.

방은 통칸으로 구성하고 전·측면에 쌍여닫이 세살문을 달고, 방 전면 마루에는 난간대를 만들었으나 창건 당시의 형태는 아니다. 마루 배면은 판벽으로 하고 하부에 머름을 한 쌍여닫이 띠장널창을 둔데에 끼워 놓았다. 창틀의 구성은 연귀맞춤으로 하고, 판벽의 띠장과 머름동자도 문틀에 연귀맞춤으로 결구하고 있다. 우측면 온돌방 배면에는 벽장을 시설하여 놓았다. 또 좌우 측면에는 후면칸 중방 상부에 작은 광창을 내었다.

공포는 전면에는 2익공으로 하였으나 배면은 초익공이다. 전면의 경우 살미의 형상은 대성전과 동일하고, 첨자의 형상은 마구리를 사절시켜 독특하게 하고 있다. 창방 위에는 소로를 3개 수장한 화반을 전면 중앙 3칸에 두고, 좌우 퇴칸은 소로를 1개 수장한 화반을 두고 있다. 배면은 화반 없이 소로만 끼워 놓았으며, 우측 퇴칸의 창방의 굽기가 다른 칸 보다 약간 굽은 것을 사용하였다. 보머리는 수장폭만큼 내밀어 봉황두로 초각하였다.

가구의 구성은 초각장식이 없는 건실한 5량구조로 장방형의 단면에 하부를 둉글게 한 대량을 사용했으며, 초각하지 않은 보아지를 끼운 동자주 대공과 제형판대공으로 각각의 도리를 받게 하였으며, 중·종도리 장혀 밑에는 뜬창방을 결구시켜 놓았다. 전체적으로 3분면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으며, 측면에서는 설주를 놓아 대들보를 받고 있다.

지붕은 전후면 모두 겹치마로, 양측면에는 방풍판을 달아 놓았다. 서실(西室) 후면에는 반칸을 더 내밀었으며, 내부에는 대들보 전후면과 좌우 실 전면 등에 다수의 기문이 개액되어 있다. 특히 정면 어간 상부에 걸려 있는 ‘明倫堂’ 현판 좌측에는 ‘退溪先生書崇禎癸酉五月刊’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이는 1633년에 해당하며 퇴계 이황(1501~1570) 사후에 집자하여 만든 현판으로 보인다. 대성전과 동서무의 부재 초각 수법으로 보아 동일한 목수가 지은 듯하며, 전체적인 특징으로 보아 19세기 정도로 건립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2) 동재(東齋)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으로 2단을 쌓은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전면 남측퇴칸 귀기둥 초석은 방형의 주좌를 두었으며, 아궁이는 남측협칸 후면에 두고 굴뚝을 바로 그 옆에 나란히 설치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북측면 중방 하부는 화방벽으로 되어 있다. 창호는 전면의 경우 어간과 남측 협칸에 두 짹 띠살문을 달고 북측 1칸은 내부를 부엌으로 사용하며 전면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후면에는 어간에만 외짝 띠살문을 달고 남측칸의 경우 문선은 남아 있으나 창호는 없다. 남측면 중방과 상방 사이에 벼락닫이 창을 달았다.

내부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재형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은 구조로 되어 있다. 북측 협칸은 바닥은 봉당으로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두 칸은 온돌을 두고 지반자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전후면 홀처마로 막새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기단 전면에는 탑의 면석(面石)을 디딤돌로 놓아두었다. 동재는 현재 주사(廚舍)로 사용되고 있으며 좌측 협칸은 부엌으로 개조되었다.

(3) 서재(西齋)

서재는 동재와 동일한 규모로 되어 있으나, 기단이 약간 높고 전면 기단 상면을 장대석으로 돌렸다. 또한 기단 전면 중앙에 놓인 디딤돌은 동재와 마찬가지로 탑의 면석을 사용하였으며, 창호는 전면 각 칸 모두 두 짹 띠살문을 달았다. 후면에는 각 칸 별로 따로 온돌을 설치한 듯 아궁이와 굴뚝이 각각 3개씩 조성되어 있다. 남측 칸 전면에는 귀부(龜趺)를 갖춘 비석 2기가 놓여져 있다. 이 가운데 남측에 있는 것은 오래되고 훼손 정도가 심하여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다른 하나는 향교를 이건했던 현감 김광태를 기리는 기적비(記績碑)이다.

(4) 외삼문(外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 좌우 측면과 후면으로 배수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건물 후면으로는 배수로 위를 걸쳐 두 개의 판석이 놓여져 있다. 야트막한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좌우 측면에서 기둥의 절반 만한 높이로 담을 축조한 것으로 대체하였다. 창호는 전면에 각 칸 모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였는데 익공재 외단은 직절하였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 상면에 제형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고 있다. 바닥은 강회다짐으로 마감되었고 천장은 연등 천상이며, 홀처마로 되어 있다. 단정은 하지 않았고, 솟을삼문의 형태는 아니나 판문의 크기를 어간은 크게 하

고 좌우칸은 이보다 낮게 하였으며, 좌우 협간의 판문 상부에는 간략한 홍살을 꾸몄다. 어칸 종도리 장혀 하부에는 “龍 舊康熙七年正月十六日上檀 新檀紀四千三百十二年九月二十八日戊子申時上檀 四課 己未火 戊子火 甲戌火 庚申木 虎”라는 상량묵서명이 남아 있는데 이는 이전의 것이 1668년에 건립되었으며 현재의 외삼문은 1979년에 건립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다. 기타

이외의 건물로 교직사와 화장실이 있다.

교직사는 향교 전면 남측 외삼문 바깥에 자리잡고 있다. 동편 담 가운데에 교직사로 통하는 협문이 있으며 교직사는 별도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민도리계 팔작지붕 건물에 서쪽 협간 전면으로 한 칸이 덧붙은 ‘ㄱ’ 자형 집으로 최근에 건립되었다. 가구는 간략한 5량가로 되어 있으며 덧붙은 서편 한 칸만 3량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화장실은 강학영역 남측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다. 낮은 기단 위에 전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3량가 민도리계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근래에 신축되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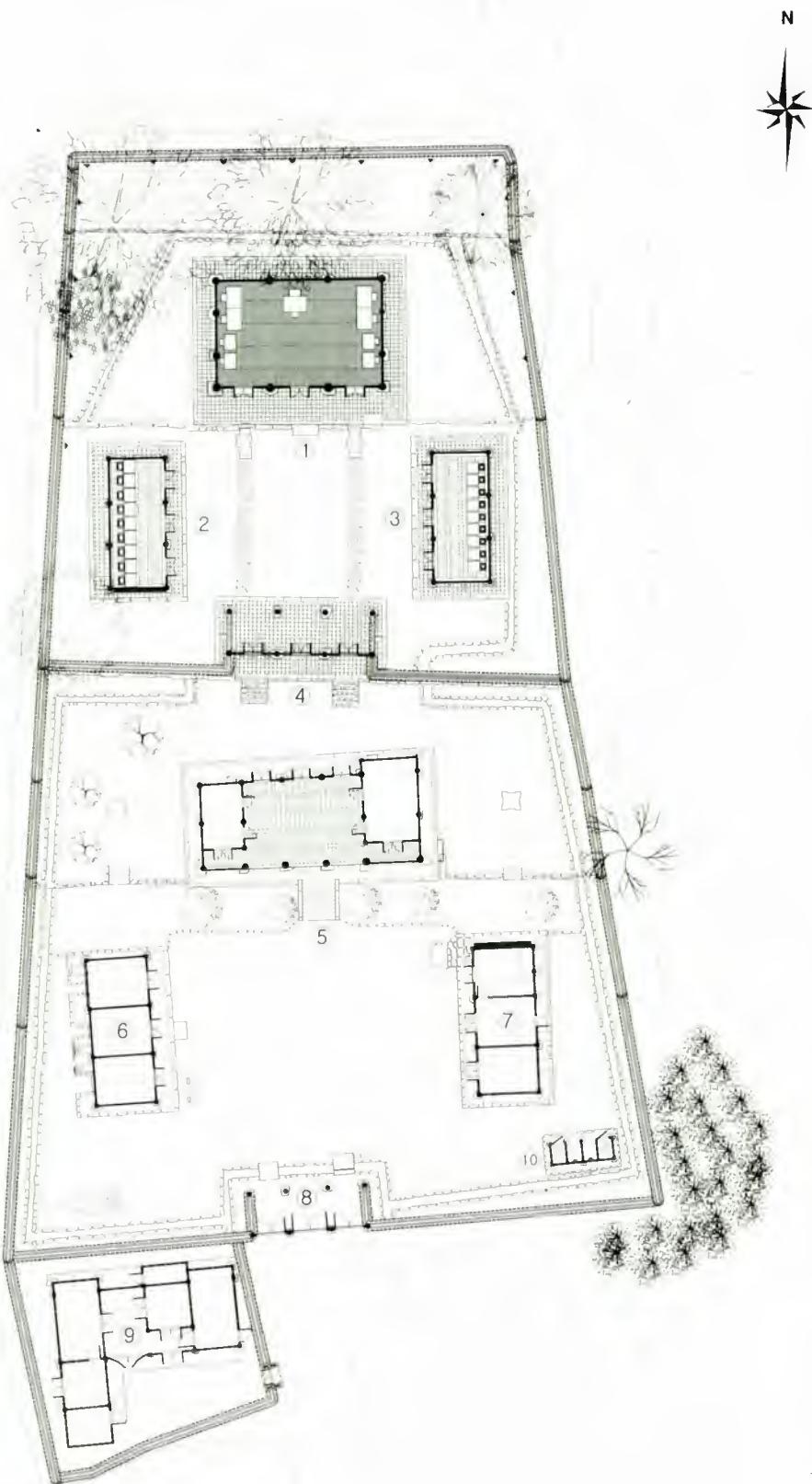
향교 일반				(크수단위:mm)
지정명칭	현풍향교(玄風鄉校)	지정현황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7호(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초 추정	입 지	구릉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현풍향교	
좌 향	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남북 종축 1개	
중건시기	1663년 이건(추정) 1758년 이건(현 위치)	대지조성	3단 구성 / 명륜당,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외삼문 / 교직사 / 화장실 / 협문			
특기사항	건물과 향교 일곽 곳곳에 사찰 관련 석재 흔적이 많아 원래 사찰터 였을 가능성이 높음 명문와와 현판, 기문 등 건물 연혁과 관련된 자료가 다수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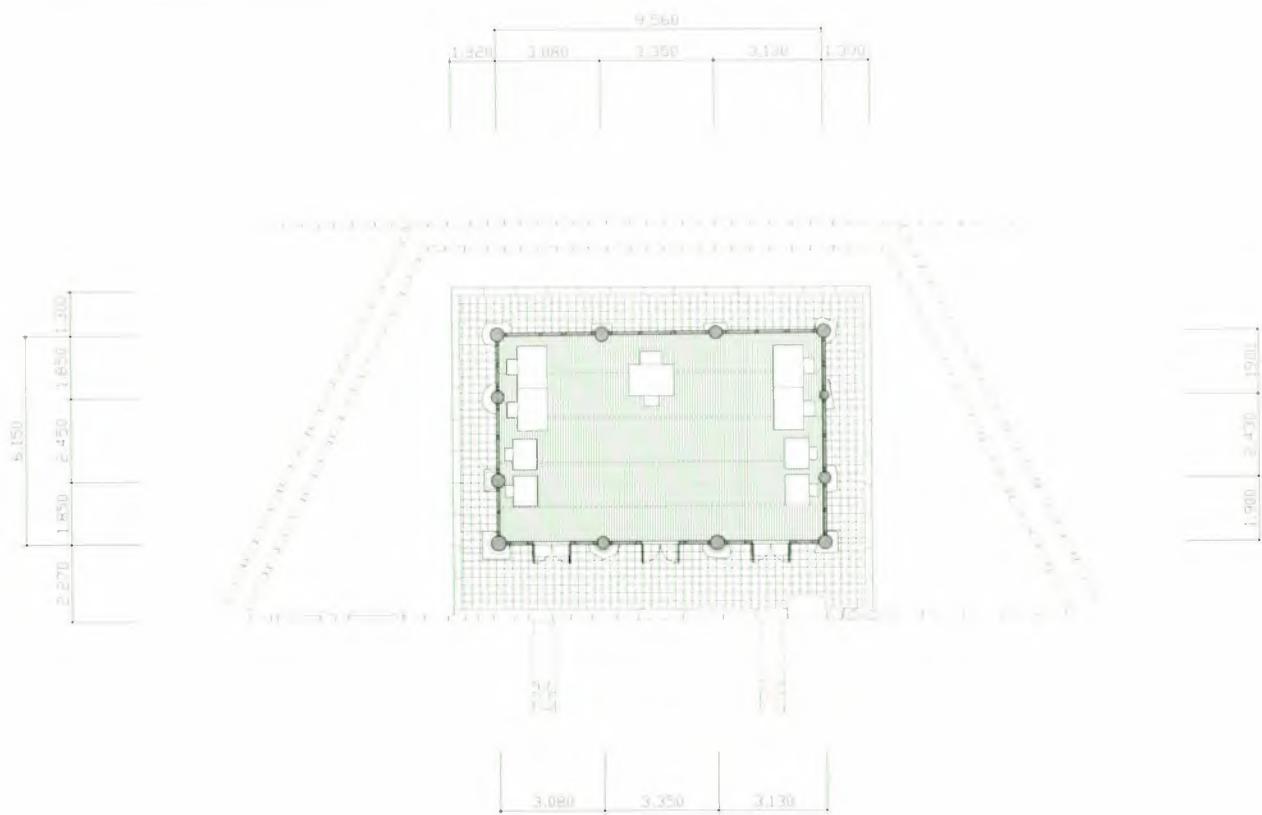
개요	3×3칸 / 외1출목 2익공(전면), 초익공(후면)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장마루 / 연등천장 주고 2630 / 주간 3400 / 수장목 85 / 도리단면 약 Ø=300 / 보단면 450×450 주심처마길이 2300 / 기단높이 1100 / 초석크기 약 650×650 전후
기단	단층기단
계단	전면 2개(5단)
초석	정평주초 / 자연석+연화대석(섞임)
기둥	원형기둥 / Ø=330 전후
공포	초익공 / 주간 소로 수장
처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직절
수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장미루 / 연등천장 초석 일부는 8각의 석등 하대석을 사용하였음
특기사항	기단 및 초석, 기단 면석 등의 석물에 사찰 관련 석조물 부재가 다수 섞임 명문와 등이 남아 있으며, 18세기 전후의 건물로 추정됨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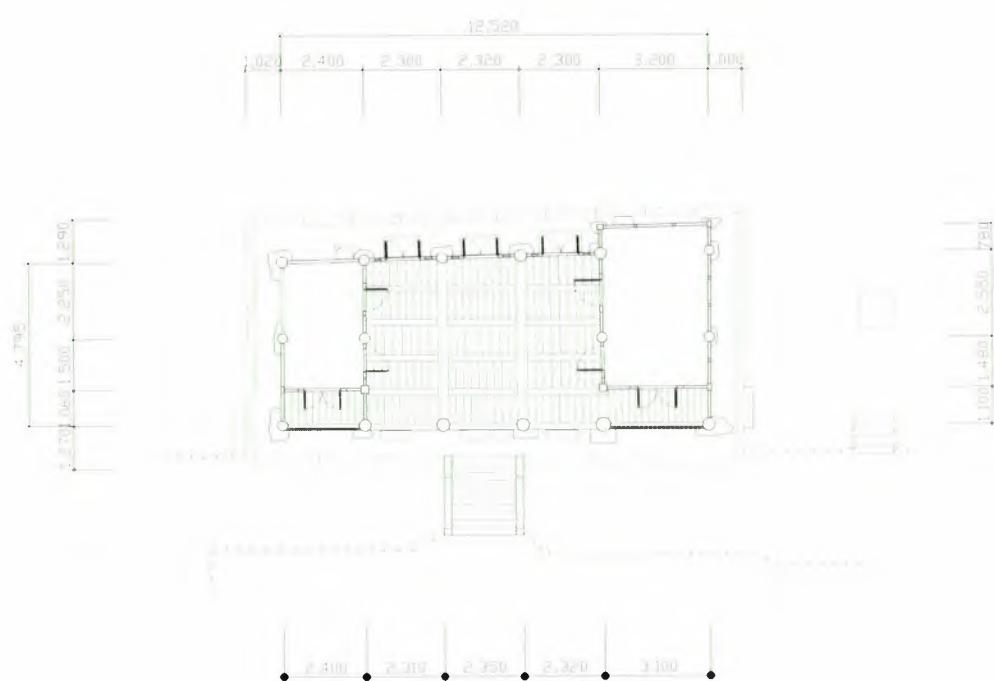
개요	5×3칸 / 2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주고 2550 / 주간 2370 / 수장목 105 / 도리단면 Ø=230 / 보단면 370×430. 주심처마길이 1600 / 기단높이 전면 1120 / 초석크기 약 920×960 전후
기단	단층기단 / 허튼층쌓기
계단	전면 1개(9단)
초석	덤벙주초 / 자연석+탑재
기둥	원형기둥 / Ø=370
공포	이익공 / 주간 소로수장 화반(전면)
처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수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주초석 일부에 탑재 사용
특기사항	명륜당 현판에 주희가 아닌 퇴계 이황의 글씨를 집자(集子)하여 새김 대성전, 동서무의 초각 수법이 농일하여 동일 목수가 지은 것으로 추정됨



현풍향교 배치도



현풍향교 대성전



현풍향교 명륜당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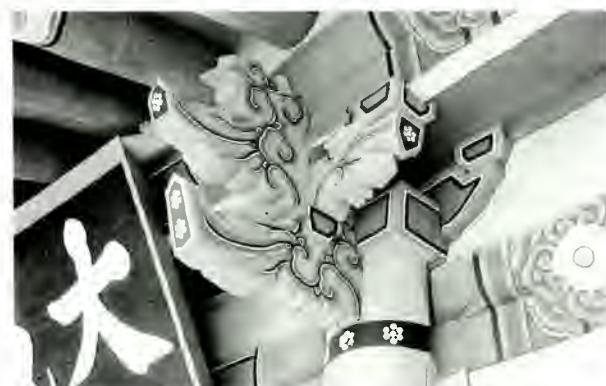
대성전 내부



대성전 전면 공포대



대성전 전면 평주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우주 초석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대성전 내부 측벽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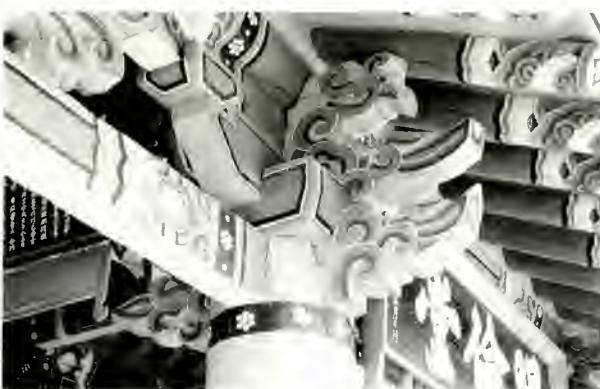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명륜당 전면 공포대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퇴칸 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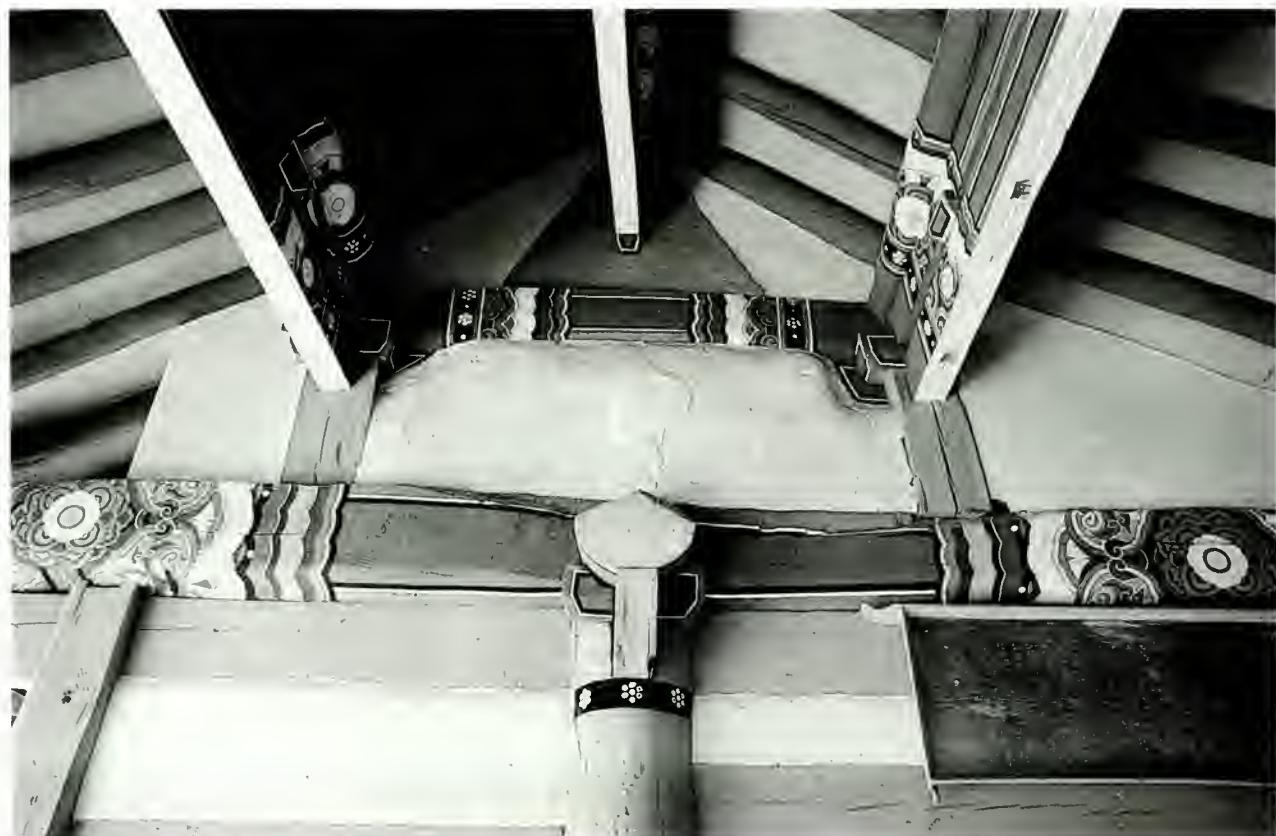
명륜당 전면 거포



명륜당 전면 초석



명륜당 내부 어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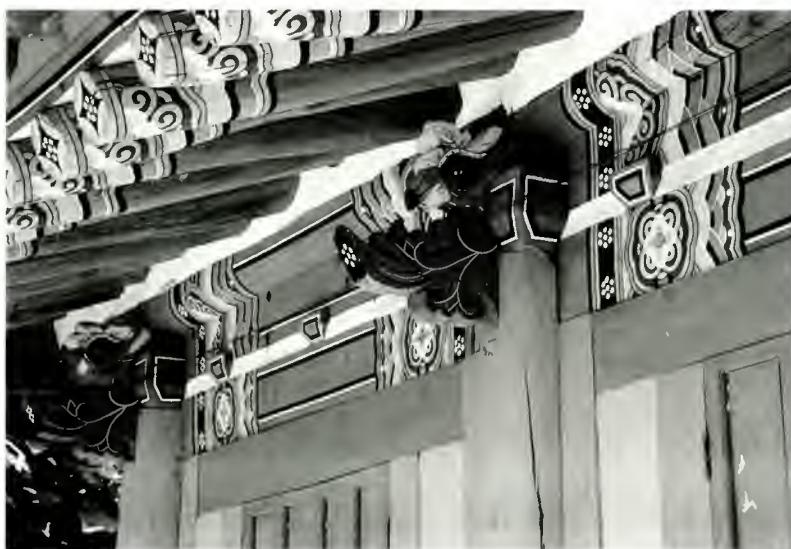
명륜당 내부 협칸 가구



• 동무



• 동무 내부



◀ 동무 전면 공포대



◀ 서무



◀ 동재



◀ 서재



▲ 내삼문



▲ 외삼문



▲ 불대좌 및 텁재



당간지주



▲ 내삼문 앞 디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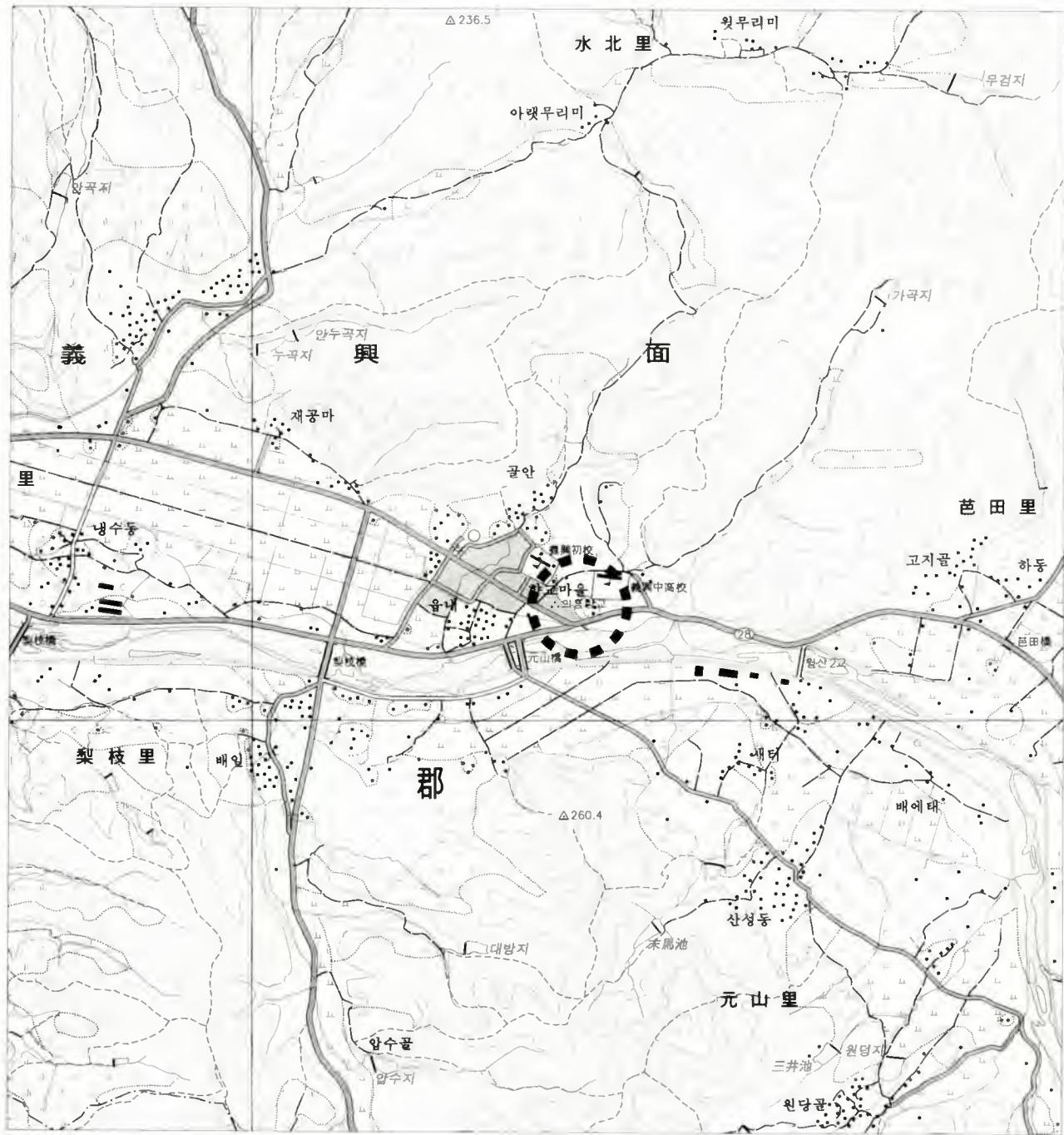


▲ 계생석

18. 의 흥 향교(義興鄉校)

- 지정사항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8호(대성전)
- 지정일 : 1985년 10월 15일
- 소재지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217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사주문, 광풍루, 화장실, 교직사

지형도



1. 연혁

의흥향교는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에 위치하고 있다. 의흥군은 본래 통일신라 시대 구산현(龜山縣)이라 하여 현청(縣廳)이 있었으나 부림현(缶林縣)을 병합하여 의흥군으로 칭하게 되었다. 고려 대에는 안동부(安東府)에 속하였다가 조선 태종 대에 현감(縣監)을 두었다. 이후 1914년에 군위군에 합병되어 의흥면으로 되었다.

의흥향교는 기록에 의하면 태조 7년(1398), 마을에서 3리 떨어진 간좌곤향(艮坐坤向)의 자리에 창건되었다고 하며, 임진왜란 당시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선조 34년(1601)에 같은 자리에 중건하였다고 한다. 이후 광해군 6년(1614)에 마을에서 서쪽으로 3리 떨어진 하리촌(下里村) 산정(山頂)에 이전 하였다가 인조 19년(1641)에 현재의 위치로 재차 이전 하였는데, 한국 전쟁 중에 명륜당과 삼성재(三省齋, 서재), 노사(奴舍, 교직사) 등이 이

義興縣



때 소실되었다. 1957년에 대성전을 보수하였으며, 1968년에 대성전과 광풍루를 중수하고 노사와 사주문(四柱門)을 재건하였으며 1977년 다시 대성전을 보수하였다. 1988년에 명륜당이 중건되었고, 담과 일주문도 이 당시에 신설되었다. 1989년도에 간행된『軍威 義興鄉校 大成殿 實測調查報告書』(軍威郡·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에 의하면 경상도에서는 유일하게 최초의 위패를 보존하고 있는 향교가 의흥향교라고 되어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98년	창건
임진왜란 중	소실
1601	중건
1614	이건
1641	이건(현 위치)
1871	광풍루 증건
한국 전쟁 중	명륜당, 삼성재(三省齋, 서재), 노사(奴舍, 교직사) 소실
1956	사물재(四物齋, 동재) 복원
1957	대성전 보수
1966	광풍루 증건
1968	대성전 단청, 광풍루 중수 및 노사, 사주문 재건
1977	대성전 보수(단청 및 번화)
1979	일과 담 보수
1982	광풍루 보수
1983	대성전 단청 및 광풍루 수리
1984	대성전 일과 담 설치
1988	명륜당 증건, 일주문 및 일부 담 신설
1989	실측조사보고서 간행
1991	동재 해체 및 복원
1992	대성전, 명륜당, 화장실 및 일과 담 보수
1995	대성전 계단 및 담 보수, 광풍루 중수
1996	교직사 신축
1997	대성전 일과 정비, 서재 복원
1999	대성전 내부 바닥 보수
2000	일과 정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양무(兩廡)가 생략된 채,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사주문, 광풍루, 화장실, 교직사 등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분향은 읍력 초하루와 보름 두 번에 걸쳐 하고, 제향은 가을 하정(下丁)

일에 치른다.

현재 향교 내외에는 '大成殿重修記' 등 다수의 중수기문 및 편액이 보존되어 있으며, 2000년에 이러한 향교 관련 기록을 종합 정리한『義興鄉校誌』(義興鄉校)를 간행하였다.

2. 입지 및 배치

의흥향교는 약간 경사진 구릉지에 정남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과 좌측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측면 일부와 후면 쪽에 민가와 비교적 넓은 면적의 농지가 자리잡고 있다.

배치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각각의 독립된 축을 가지되 대성전이 명륜당 후면에 위치하고 있다. 경사는 그리 신하지 않으나 외부에서 진입할 때 약간의 경사가 있는 편이고 내부에서는 사방 단 칸 규모의 내삼문(內三門)을 기준으로 두 단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향교 앞에 이르면, 성균관 의흥향교 유도회시부에서 세운 기념비석이 자리잡고 있고, 약간의 경사진 길을 올라가면 사방 단 칸 규모의 사주문이 자리잡고 있다. 사주문을 들어서면 바로 서재의 남측면을 맞닥뜨리며 서재의 후면으로 화장실이 자리잡고 있다. 서재 동편에는 동재가 있으며 그 남쪽으로 광풍루가, 마당의 중앙 북쪽에는 명륜당이 자리잡고 있다. 강학영역의 배치는 양재가 명륜당 전면에 위치한 전재후당(前齋後堂)형 배치를 따르고 있다. 동재와 명륜당이 사이로 난 길을 통해 명륜당 동측으로 돌아서면 내삼문이 자리잡고 있으며, 내삼문을 통해 들어가면 양부가 생략된 채 대성전이 제향영역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내삼문과 대성전 사이에는 자연석과 시멘트 탑돌로 만든 담도가 대성전 좌우 쪽 퇴칸 중앙에 맞추어 설치되어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聖과 宋朝 4賢 및 海東 18賢 등 모두 27위의 위패를 모셔 두었다.

기단은 거칠게 방형으로 다듬은 석재로 3단을 쌓은 단층기단으로, 전면 좌우 퇴칸 중앙에 맞추어 각각 3단으로 된 계단을 1개씩 두었으며, 이 계단들은 내삼문에서 이어지는 담도와 연결되어 있다.

자연석으로 된 초석 위에 원기둥을 세웠으며 주간은 3칸 모두 동일하다. 기둥 위에는 외2출복의 3익공으로 짜여진 공포를 구성하였는데, 살미의 외단은 짤막한 쇠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내단은 소로 없이 일체화된 초각 형식으로 되어 있다. 벽체는 측후면 모두 회사벽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만 창호를 구성하였는데 각 칸 중앙에 두 짹 판문을 달아 내었다.

가구는 5량가로 되어 있으며, 어간에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특히 한 점은 일반적으로 5량가에서 전면에 퇴칸을 구성할 때 중대공의 위치에 벽체를 구성하고 출입문 등의 창호를 구성하게 되는데 의흥향교 대성전의 경우, 중대공과 전면 평주 사이의 위치에 사잇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구성

하였다는 점이다. 중대공은 주두 위에 4단의 첨차와 살미를 결합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 위에 종보를 얹고 종대공은 파련대공에 도리방향으로 첨차를 결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측벽 가구 역시 5량가로 되어 있으나 어간 가구와 다른 점은 전후 중대공 사이에 대들보를 단일재로 두지 않고 맞보로 처리하고 접합 부분에 별도의 평기둥을 세웠다는 점과 종대공이 판대공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 바닥은 전돌로 되어 있다. 지붕은 전후면 겹처마로 되어 있고, 막새 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되어 있다. 단청은 창방 하부는 석간주 가칠로 마감되어 있으며 창방 이상은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다.

대성전 후면에는 축대 동편으로 4단으로 된 계단이 있다. 이 계단은 1989년 실측조사 당시 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여기에 별도의 건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성전 서편에는 작은 대리석으로 만든 망료 위(望燎位)가 설치되어 있다. 대성전의 건축연대와 관련되어 실측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척(用尺)에 따라 조선조의 용척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명륜당 동측 후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사방 단 간의 규모에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되어 있다. 전면에 7단의 계단이 놓여져 있으며, 내삼문은 자연석으로된 단층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자연석 초석 위에 원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3량가의 가구를 구성하였다. 전면에 두 짹 판문을 구성하였으며 측면에 반 칸에 걸쳐 외 짹 판문을 달아 별도의 출입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1968년에 신축하였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중앙 3칸은 당(堂)으로 되어 있으며 좌우 퇴간은 각각 동실(東室)과 서실(西室)로 구분되어 있다. 명륜당은 1988년에 중건되었다.

기단 전면에는 중앙에 3단으로 된 계단 1개를 설치하였으며, 자연석으로 3단을 쌓은 단층 기단 위에 원형의 다품은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삼벽으로 되어 있으며, 창호는 전후면에 두었는데 중앙 3칸의 경우 전면은 사분합문으로, 후면은 대청의 후면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당판문으로 되어 있다. 좌우 실은 전후면 모두 중방 상부에 두 짹 띠살창을 두었다. 기둥 상부에는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외단을 직절한 익공재와 창방을 결구한 뒤에 주두를 놓고, 보머리와 도리를 받았다.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였으며, 지붕은 전후면 모두 흘처마로 되어 있고 측면에 풍판을 설치하였다.

명륜당의 가구는 5량가로 전후면 평주에 대들보를 걸치고, 사분변작의 위치에 짤막한 동자주를 놓고 종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에 판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았으며, 측벽에서는 2고주 5량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내부는 중앙 당의 경우 우물마루에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좌우 실은 온돌과 지반자로 되어 있다. 온돌을 위한 시설로 좌우실 동측과 서측기단 상부에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 후면에는 기와를 쌓아 만든 굴뚝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2) 동서재(東西齋)

동재와 서재는 각각 사물재(四物齋)와 삼성재(三省齋)라는 당호(堂號)를 갖고 있으며, 동재는 1956년에 복원

되었으며, 서재는 원래 노사(奴舍) 1동과 명륜당 사이에 놓여있던 담 등이 있던 곳에 1997년에 동재를 모방하여 신축되었다. ‘義興鄉校西齋上樑文’에는 ‘孔紀貳千五百四拾八年 丁丑’(1997년에 해당함)으로 되어 있다.

동재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악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으로 1단을 쌓은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전면에는 원형, 고주 및 기타 다른 기둥은 방형 기둥을 세웠다. 전면에 반칸 퇴칸을 두었으며 퇴칸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벽체는 삼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 각 칸에 두 짹 띠살문을, 후면에는 각각 중방 상부에 두 짹 띠살창을 달았다.

내부는 각 칸을 구분하였으되 미닫이문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반자로 마감하여 상부의 구조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2000년 7월에 작성된 정우건축사사무소의 의흥향교 현황 배치도를 참고하면 3량가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는 전면 퇴칸에 벽체를 구성하기 위해 받침기둥을 두고 있다. 기단 남북측 상면에 아궁이 시설이 되어 있고 후면에 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지붕은 전후면 홀처마로 되어 있으며,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고 측면에 풍판을 설치하였다.

서재는 동재를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건축 내용은 동재와 동일하다.

(3) 광풍루(光風樓)

광풍루는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악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원래 누각 건물로서 누하진입(樓下進入)의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하나 1968년 보수시 하부의 썩은 부분을 깎아 내면서 높이가 낮아져 진입 기능을 상실하였다. 한다.

자연식으로 된 초식 위에 원기둥을 세웠는데, 후면은 워낙 높이가 낮아 상하층이 통주(通柱)로 되어 있으나 전면은 상하층 기둥이 별재(別材)로 되어 있다. 기둥머리에는 이익공의 공포를 구성하였으며, 주간에 화반을 놓고, 전면 좌측 협간 상부에 ‘光風樓’ 현판을 걸었다. 사방 모두 벽체나 창호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로, 상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포대공을 두고 종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에 파련대공과 첨차를 결구하여 종도리 장혀와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전후면 모두 겹쳐마로 처리하였고,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다.

좌측 협간 내부 종도리 장혀 하부에는 ‘檀君紀元 四千二百九十九年 丙午八月初年七日 癸未上樑’이라는 북서 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광풍루의 건립 연대는 1966년이다. 그러나 향교지에 수록된 ‘鄉校光風樓上樑文’ 말미에는 ‘(전략)... 高宗 辛未 ... (후략)’라 기록되어 있고 이는 1871년에 해당함으로 원래의 건립 연대는 이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에 한 차례 중수되었다.

(4) 사주문

사주문은 사방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3량가의 가구에 전면에 두 짹 판문을 달아 내었다.

다. 기타

서재 뒤편에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화장실이 자리잡고 있으며, 향교 담 남측 바깥쪽으로 콘크리트로 1996년에 지은 교작사 1동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서재 후면으로 외부로 연결되는 일주문이 1동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차수단위=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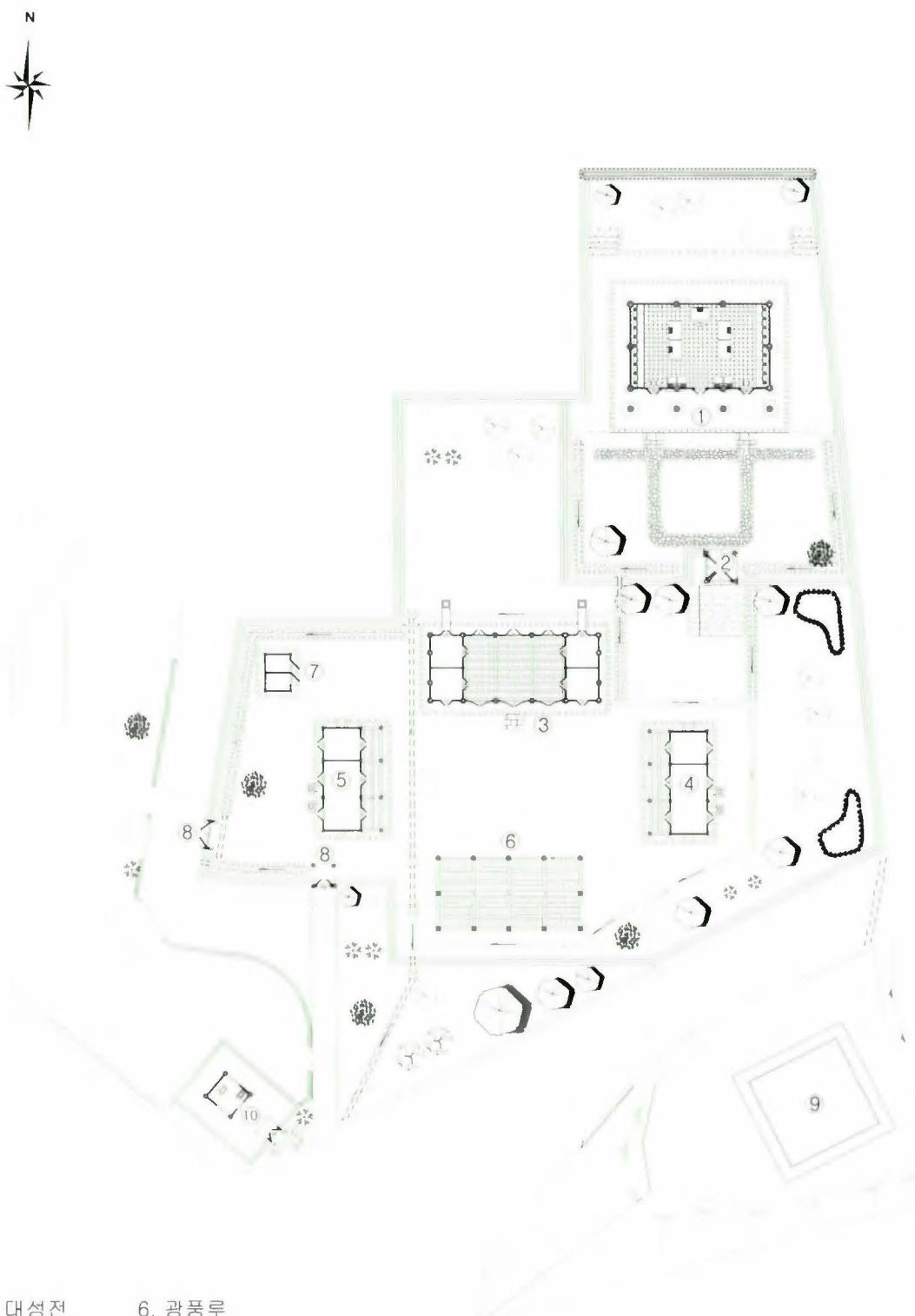
지정명칭	의흥향교(義興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8호 (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태조 7년(1398)	입 지	구릉지
소유자	향교재단	관 리 자	의흥향교
좌 향	정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중건시기	한국전쟁 이후 차례로 중간	대지조성	남북 종축 2개
설 위	5聖, 宋朝 4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2단 / 내삼문 기준
건축구성	대성전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광풍루 / 화장실 / 사주문 / 교직사		없음
특기사항	원래 누하진입이었으나 보수시 누각의 형상 변경되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x3칸, 전1 퇴칸 / 외2출목 3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측벽 2고주) / 전돌바닥 / 연등천장 주고 평주 2890 / 주칸 3400 / 수장폭 95 / 도리단면 Ø=265 / 보단면 : 대들보 540x590, 종보 330x330 주심처마길이 2760 / 기단높이 : 전면 650, 측후면 150 / 초석크기 900x800		
기 단	단층기단 / 3별내 / 자연석 바른층쌓기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 단	전면 2개(3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둉	원형기둥 / Ø=410 전후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중대공 : 파련대공(어칸), 판대공(측벽)
공 포	외2출목 3익공	창 방	말각방형 / 뺄목 첨차형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봉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심벽 / 모로단정 / 연등천장 / 전돌바닥		
특기사항	고주의 위치가 중대공의 위치와 어긋나 있음 건립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용척(用尺) 계산 결과 조선조 건물로 보임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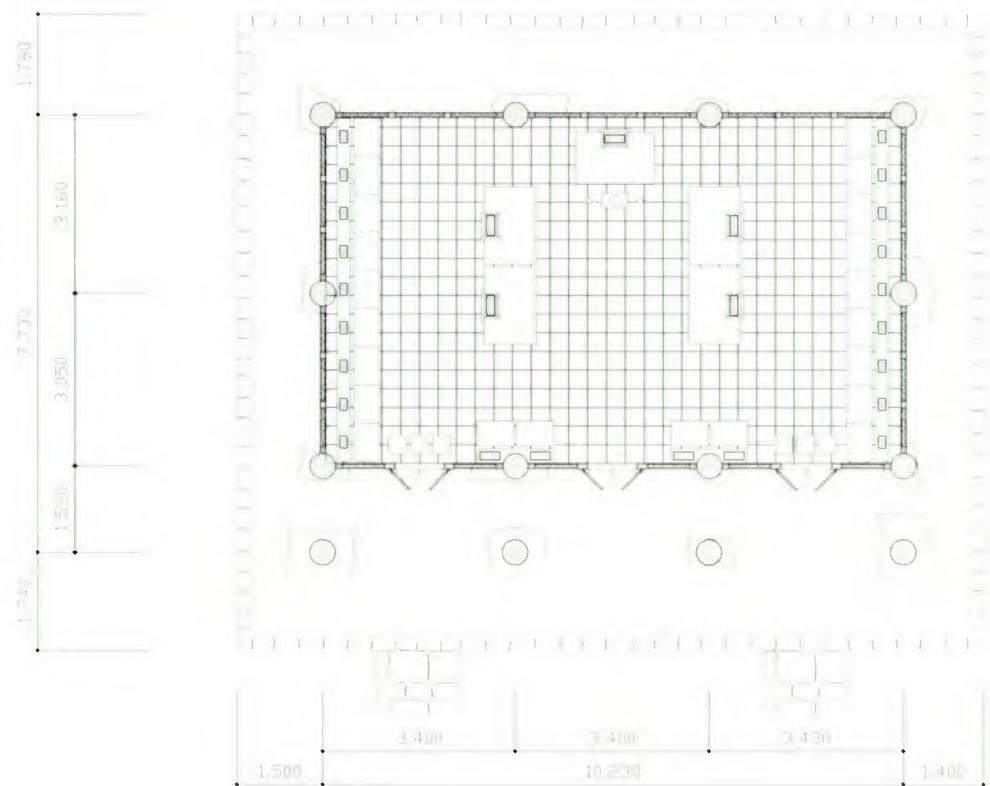
개 요	5x3칸 / 초익공 / 훌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연등천장 주고 평주 2730 / 주칸 : 어칸 3050, 협칸 2740 / 수장폭 85 / 도리단면 Ø=240 보단면 : 대들보 500x400, 종보 340x300 / 주심처마길이 1600 / 기단높이 900 / 초석크기 Ø=450		
기 단	단층기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 단	전면 1개(3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600x600, h=150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둉	원형기둥 / Ø=340 전후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중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익공재 외단 직절)	창 방	말각방형 / 뺄목 직절
처 마	훌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지 봉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심벽 / 백골청 / 연등천장 · 우물마루(당), 온돌 · 지반자(실)		
특기사항	1988년에 중건한 건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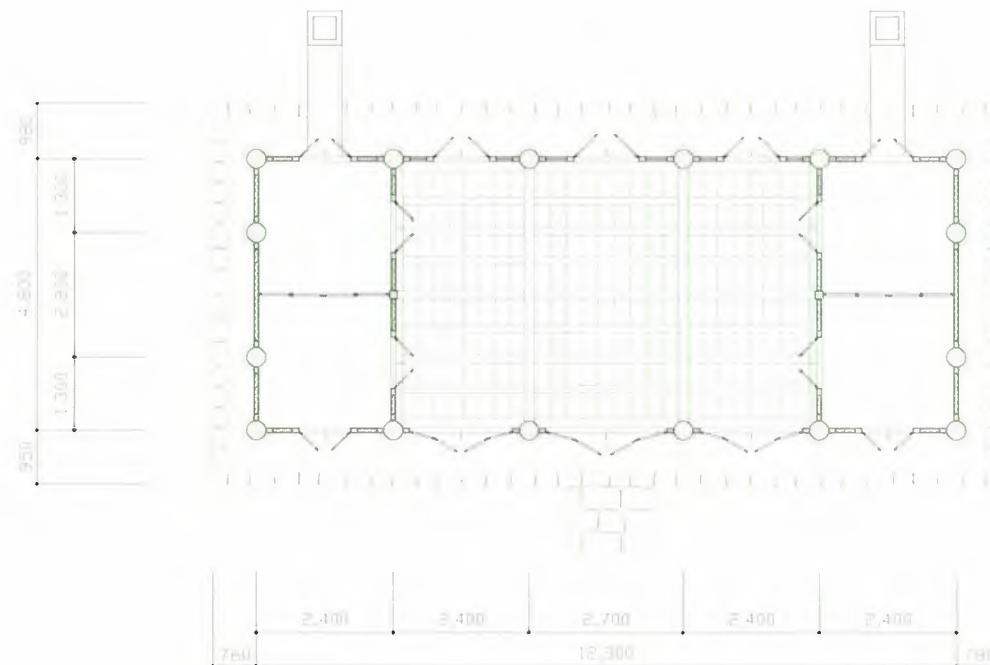
- | | |
|--------|---------|
| 1. 대성전 | 6. 광풍루 |
| 2. 사주문 | 7. 화장실 |
| 3. 명륜당 | 8. 협 문 |
| 4. 동 재 | 9. 교직사 |
| 5. 서 재 | 10. 비 각 |

의흥향교 배지도

0 2 5 10 M



의흥향교 대성전



의흥향교 명례당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대성전 전면 공포대



대성전 전면 퇴칸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전면 귀포



대성전 내부 가구



대성전 내부 가구 상세



대성전 내부 중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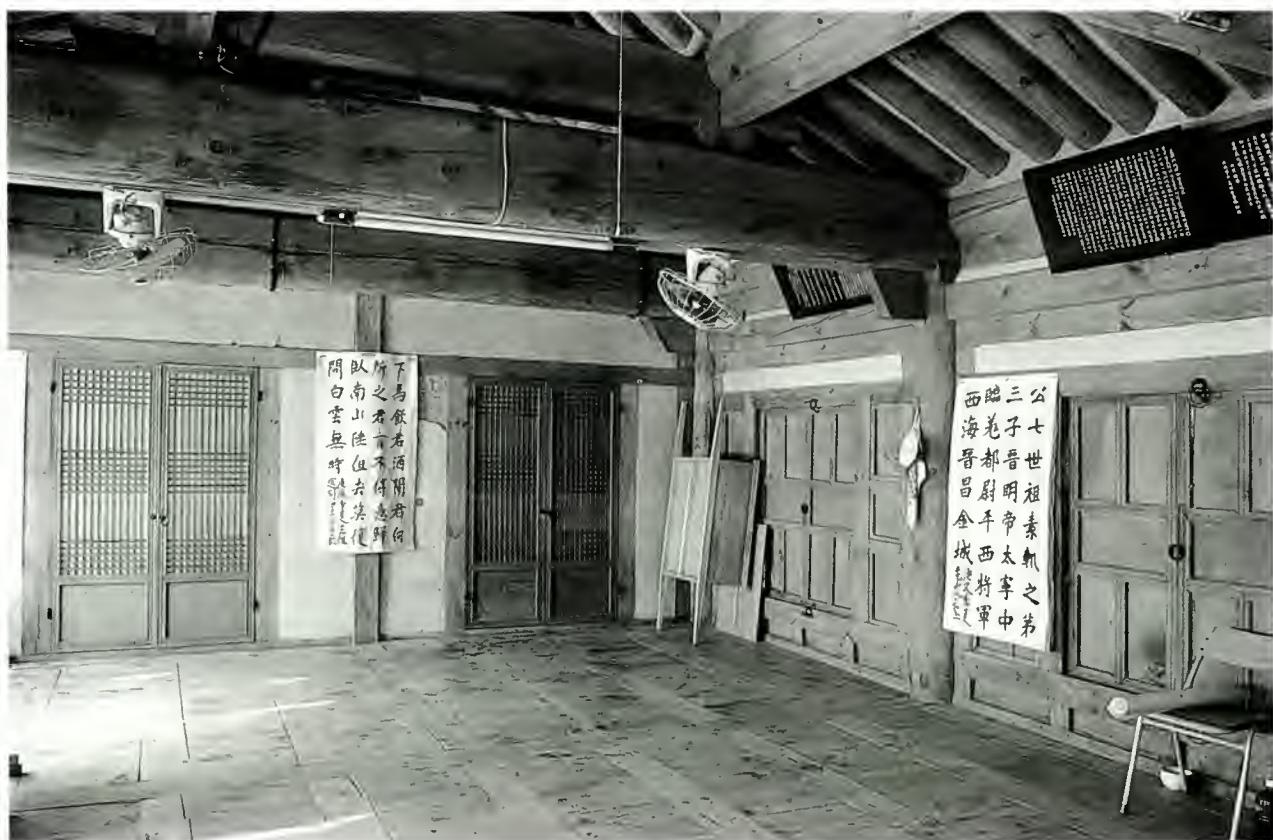
대성전 내부 중대공



명륜당



명륜당 후면



명륜당 내부



명륜당 내부 어칸 가구



▲ 대성전 내부 협칸 가구



▲ 대성전 내부 종대공



대성전 내부 종대공



광포루



광포루 내부



광풍루 내부 가구



광풍루 내부 중대공



광풍루 내부 종대공



동재



서재



비각



내삼문



외문



중수비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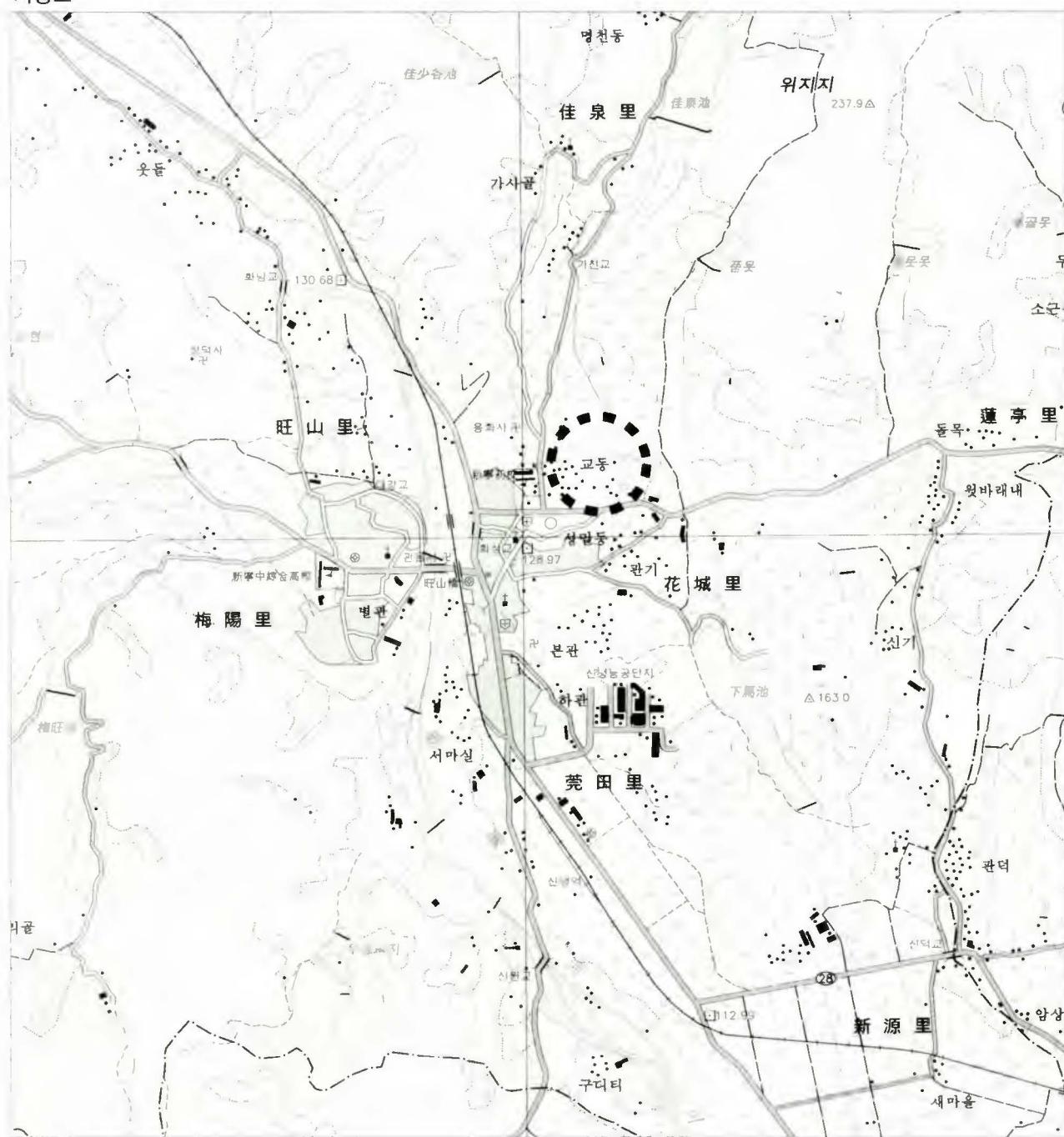


▲ 근경

19. 신령향교(新寧鄉校)

- 지정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2호(대성전)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8호(명륜당)
- 지정일 : 1983년 6월 20일
: 1985년 8월 5일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신령면 화성리 525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외삼문, 교직사, 화장실, 협문 등

지형도



1. 역할

신령향교의 창설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혼존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 그러나 향교의 역사는 그 고을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령의 연혁을 통해 그 대강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령은 본래 신라 사정화현으로서 경덕왕 때 임고군 영현이 되었다가, 고려 현종 때 경주부의 속현(屬縣)이 된 후 공양왕 때 감무(監務)가 파견됨으로서 비로소 외관이 파견되어 일읍(一邑)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현감이 파견되어 그 치소가 장수역에 두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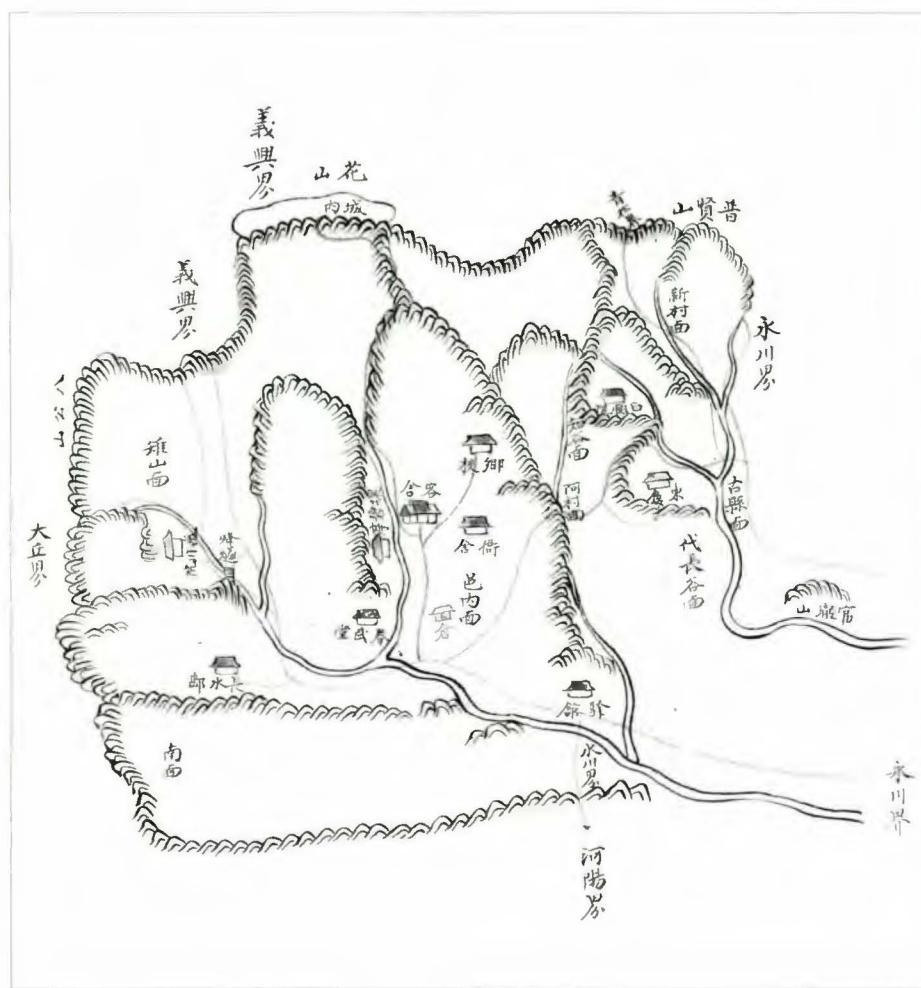
그 후 연산군 3년(1497)에 현리가 현감 길수의 포악함을 괴로워하여 읍을 비우고 도망함으로 인해 혁파되어 인근 읍에 소속되었다가 (북면 신촌은 의성에, 남면 이부는 하양에, 서면 치산은 의흥에 각각 소속됨) 동왕 9년(1503)에 복구되었다. 이러한 연혁을 가진 신령은 향교가 지방교육기관으로 처음 설치된 고려 인종 조는 물론 공양왕대까지도 향교가 건립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향교는 조선조에 들어서야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태조의 즉위 교서에 외방 향교의 설치에 관한 의지의 표명이 있었고, 태종대에는 지방수령의 중요한 임무로서 '수명학교'가 거론되는 등의 노력이 기울어진 결과 성종 대쯤이면 수령이 파견된 군현은 대체로 일음일교(一邑一校)의 원칙에 의거해

향교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령은 늦어도 성종조 이전에 향교가 설치되었다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령은 늦어도 성종조 이전에 향교가 설치되었다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현의 북쪽 1리에 향교가 있었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 후 신령향교는 병종
6년(1551)에 이곳의 현감
으로 부임한 황준량이 재
임시에 중수하였는데 화
산(華山) 밑 명천(鳴泉)
위에 있다고 한다. 그후
의 향교의 중수에 관해

新寧縣



연혁을 신령향교에 현존하는 <고왕록>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종 4년(1663)의 유문에 의하면 명종 때 중수된 향교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광해군 7년(1615)에 현 향교 뒤의 100보 가량 되는 곳에 이건되었지만 병란 직후의 물력의 부족과 저습지에 위치하여 완전하지 못하여 퇴락을 가져와 마침내 이때 중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해 백학서원 역시 창건되었으며, 숙종 11년에 구천서원이 창건되었고, 숙종 36년(1697)에는 향교 구기에 명계사가 이건되었다.

숙종 30년(1691)의 향교 중수 때 위패를 다른 곳에 옮기면서 올리는 이·환안례가 실시되었고, 경종 4년(1724)과 5년에 성묘의 기와를 수습하였다. 영조 9년(1733)에 중수에 따른 이·환안례가 실시되었고, 영조 13년(1736)에는 향교 이건의 논의가 있어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동왕 20년(1744) 7월에 제복을 새로 마련하였고, 이 달에 광풍과 큰 비로 인해 향교의 수습 또한 있었다.

영조 22년(1746)에는 조령에 의해 향교의 양정 50여명을 파정하여 양정 10명, 가속 20명을 확정하였고, 또 액외교생 20여명을 깎고 13명은 군으로부터 수강 후에 교안(校案)에 그대로 존속시켰다. 영조 23년(1747)에는 고사 및 마구간, 측간 등을 수습하였고, 동왕 33년(1757)에는 전사청을 전정 담의 서편으로 옮겼고, 동서재의 퇴락으로 인하여 개건하였고, 려단을 명천동 대복 위에 옮겼다. 그 후 동왕 46년(1770), 정조 2·5·18년(1778·1781·1794), 순조 15년(1815), 현종 5·7년(1839·1841), 철종 2년(1851), 고종 2·14·16·20·24·28년(1865·1877·1879·1883·1887·1891) 등에 걸쳐 크고 작은 향교의 수습이 이루어졌다.

1908년 향교의 전답을 기부하여 사립 영흥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그 후 이 학교는 명륜학교로, 다시 봉명보통학교로 바뀌었다가 1911년 영천공립보통학교로 탈바꿈하였다. 1914년 전국적인 군현 통폐합 때 신령은 영천에 합병됨으로써 일읍일교의 원칙에 의해 향교의 문부가 영천군수에게 인계되었다.

1974년과 1976년에 대대적인 일곽 보수가 진행되었으며, 1983년 6월 20일 명륜당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8호로 지정되었으며, 1985년 8월 5일 대성전이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2호로 지정되었다. 1990년에 대성전을 보수하였고, 1991년에 서재를 보수하였으며, 이듬해인 1992년에는 동재를, 1993년에는 교작사를 보수하였다. 1996년에는 명륜당을 보수하였으며, 1997년에 일곽을 정비하였다.

이상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추정)
1551	향교 일곽 중수
임진왜란 중	소실
1615	향교 이건
1663	향교 중건
1697	향교 구기(舊基)에 명계사 이건
1691	향교 중수, 위패 이·환안례 실시
1724	성묘(聖廟) 기와 수습
1725	성묘(聖廟) 기와 수습
1733	향교 중수, 이·환안례 실시

1736	향교 이건 논의, 자금 모집 시작
1744	제복 마련, 향교 일과 보수
1747	고사(庫舍) 및 마구간, 측간 수습
1757	전사청 이건, 동서재 증건
1770	향교 일부 보수
1778	향교 일부 보수
1781	향교 일부 보수
1794	향교 일부 보수
1815	향교 일부 보수
1839	향교 일부 보수
1841	향교 일부 보수
1851	향교 일부 보수
1865	향교 일부 보수
1877	향교 일부 보수
1879	향교 일부 보수
1883	향교 일부 보수
1887	향교 일부 보수
1891	향교 일부 보수
1974	일과 보수
1976	일과 보수
1983	명륜당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8호로 지정
1985	대성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2호로 지정
1990	대성전 보수, 외삼문 증건
1991	서재 증건
1992	동재 보수
1993	교직사 보수
1996	명륜당 보수
1997	일과 정비

2. 입지 및 배치

신령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래 신라 사정화현으로서 경덕왕 때 임고군 영현이 되었다가, 고려 현종때 경주부의 속현이 된 후 공양왕때 감무가 파견됨으로서 비로소 외관이 파견되어 일읍(一邑)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현감이 파견되어 그 치소(治所)가 상수역에 두어졌다.

신령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에 영천군에 병합되었으며 1995년 행정구역 통폐합 과정에서 영천군이 영천시에 소속됨에 따라 영천시로 편입되었다. 북쪽과 남서쪽은 태백산맥의 지류로 둘러싸여 있고 남동쪽의 신령천 하류 지역은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향교 주변은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삼문을 중심으로 약간의 경사를 이용하여 단 차이를 두었다. 신령향교는 전체 영역이 셋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면에 강학영역, 후면에 제향영역, 그리고 교직사 영역이 강학영역의 서편에 별도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담을 보수하고 외삼문을 신축하여 모양을 일신하였다.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완만한 경사지에 외삼문,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의 순으로 일축선 위에 남향으로 배치된 전학후묘(前學後廟) 방식이다. 명륜당 앞에 동·서재가 대칭으로 서 있으며 서쪽 담 바깥에 교직사가 있다.

교직사는 서재 후면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의 협문을 통해 외부로 연결되고, 서재 남측면으로는 담 일부를 끊어 강학영역으로 통하도록 되어 있다.

외삼문 전면 서편에는 최근에 조성한 하마비(下馬碑) 1개가 자리잡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祭享領域)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악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막돌 쌓기한 낮은 기단 위에 딥벙주초를 놓고 민흘림이 있는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워 기둥머리에 외1출복 2익공의 공포를 구성하였다. 기단 전면에는 각 칸 중앙에 각각 2단으로 구성된 계단이 1개씩 조성되어 있으며, 기단 서측에 망료위(望燎位)가 설치되어 있다.

벽체의 구성은 측후면을 모두 회사벽으로 꾸미고, 정면 이칸에 쌍여닫이 울거미널문을 달았으며 또한, 어칸문틀 상부에 격자살의 광창 2개를 이어 달았다. 광창은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위로 젖혀 열 수 있게 하였다.

기둥 상부에 창방을 결구하고 위에 화반을 깨웠는데, 화반의 상하면에 소로를 1개씩 끼워 놓아 색다르게 느껴진다. 살미의 형상은 초익공 외단을 날카롭게 하여 짧게 내밀고, 2익공 살미는 끝을 사절시키고 연봉을 올렸으며, 보머리는 살미두께로 하여 초각하여 2익공 살미 위에 올려놓았다. 행공첨차는 단부를 사절시켜 하부를 초각한 형태이고, 두공첨차는 교두형으로 되어 있다. 주간에는 상하부에 소로를 수장한 작은 화반을 전후면 모두 구성하였다.

가구의 구성은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그 위에 접시받침을 놓았으며, 3분변작의 위치에 보아지를 높게 하여 뜬창방과 첨차를 끼운 포대공을 구성하여 종보와 중도리를 받고 있다. 뜬창방과 장혀사이를 넓게 하여 화반을 끼운 흔하지 않은 수법을 보이고 있다. 종보 위에는 하부를 꽈 넓게 한 파련대공을 세워 뜬창방을 결구한 후 종도리를 올렸다. 좌우 측벽에서는 전후에 고주를 두었으며, 고주 악공의 형태만 어칸과 달리 외단은 직절, 내단은 사절한 형태로 되어 있다.

전후면 모두 겹쳐마로 되어 있으며,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으며, 암수막새로 마무리하였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로 최근에 신설하였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정면은 칸살을 넓게 잡아 번듯하게 꾸몄으며, 내

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聖)과 송조 4현, 해동 18현의 위패를 모셔놓고 있다.

공포의 구성 수법 등 전체적인 특징이 다포계와 익공이 혼합되어 있는 듯 하며, 대략 18세기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내삼문(內三門)

정면 3칸의 일각문으로 3량 가구의 겹쳐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나지막한 단층 기단 전면에는 3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이 있고, 상면이 평평한 자연석 초석을 사용하였다. 민흘림이 있는 기둥을 세웠으며 각 칸 모두 두 짹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기둥이 하나 뿐인 일각문으로 되어 있으나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화각한 살미 첨차를 전후로 길게 내밀어, 단부에 살미첨차와 도리방향으로 첨차를 결구시켜 대들보와 함께 도리를 얹었다. 첨차 하부에는 기둥에 밀착되게 판재(板材)를 대어 첨차를 지탱하고 있으며, 주심에서는 주두 위에 '十'자 형으로 첨차를 교차시키고 그 위에 대들보를 얹은 다음 도리방향으로 따내어 다시 단부에 소로를 수장한 첨차를 결구시켰다. 그리고 그 위에 짤막한 제형 판대공을 얹어 종도리를 받았는데, 원래 일각문(一脚門) 형식의 삼문을 후대에 좌우 측면으로 활주(活柱)를 세워 측면을 2칸과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초각 수법으로 보아 명륜당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시기는 1900년대 이후로 판단된다.

나. 강학영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결합지붕 건물이다. 전체적인 평면의 형태로 보면 원래 중앙 3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을 좌우에 실을 덧붙여 꾸미면서 3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을 옆으로 붙인 듯 하다. 내부는 중앙 3칸을 대청마루로 꾸미고 양측칸의 전면 1/3정도를 후퇴시켜 전퇴를 만들고 나머지는 온돌방을 들였다.

기단은 자연석을 2단으로 쌓은 단층 기단으로, 전면 중앙에 담도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2단으로 된 계단 1개를 놓고 다시 기단 상면에 마루로 오르는 2단으로 된 계단 1개를 두었다. 기단 중앙 서편에는 정료대(庭燎臺) 1개가 서 있으며, 건물은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민흘림이 있는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좌우 실 전면은 머름을 들이고 쌍여닫이 세살창을 두고 가운데 당(堂)과 면하는 부분은 좌측은 뒤쪽 칸에 외여닫이문을, 우측은 앞의 칸 벽체전면을 외깥으로 된 들장지로 하고 뒤쪽 칸을 문 크기가 다른 2분합 들장지로 하여 서로 다르게 구성하였다. 당 후벽은 판벽으로 한 후 하부는 머름을 넣고 위에 쌍여닫이 울거미널창을 달았는데 어칸은 다른 칸 보다 크게 하여 문으로 사용케 했다.

기둥 상부에는 2익공의 공포를 구성하였는데, 살미의 형상은 양서와 수서를 혼용하여 연봉과 연꽃으로 장식하고 보머리에는 봉두를 끼운 조선후기 양식이다. 주간에는 1개의 소로를 수장한 화반을 전후면 모두 두었다. 가구의 구성은 중앙 3칸은 5량가의 맞배지붕으로 한 후 양 측간은 3량 구조로 한 매우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칸 가구는 자연곡재를 그대로 사용한 대들보 위에 보아지와 첨차, 그리고 주두를 끼운 중대공을 세워 총보를 올리고, 그 위에 제형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측면의 3량가에서는 대들보의 한쪽 부분을 가운데쪽 평주 측면을 따고 끼워 넣었으며, 상부 중앙에 원형의 대공을 놓았는데 이는 중앙 3칸의 화반과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

(2) 동재(東齋)

정면 3간, 측면 1간의 홀처마 맞배지붕의 건물로 3량가 굴도리집이다. 정면 3칸 중 1/4칸 정도를 퇴칸으로 두고 어간과 북측간을 온돌방으로 구성하였으며 퇴칸과 남측간은 마루를 깔았다.

건물은 자연석을 2단으로 쌓은 단층기단 위에 상면이 비교적 평평한 자연석 주초를 놓았다. 전후면은 원형을, 퇴칸을 구성한 중간 설주는 방형으로 하였으며, 기둥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짤막한 보아지를 하나 놓은 다음 장혀와 대들보를 결구하고 그 위에 도리를 얹었다. 창호는 북측간 전면에 두 짝 띠살문을, 어칸 전면과 남측면에는 외짝 띠살문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이며, 중앙에 동자주를 놓고 종도리를 받았다. 내부 실은 온돌과 지반자로, 마루는 우물마루와 연등천장으로 처리하였다. 어칸 후면에 굴뚝을 달았고, 고색 가칠단청을 하였다. 1992년에 서까래 이상 해체 보수하였다.

(3) 서재(西齋)

서재는 동재와 평면 및 입면 형식이 동일한데 남측 마루 내부 종도리 장혀 하단에 '龍孔紀貳阡五百四拾貳年六月庚子立柱上樑'라는 상량묵서명이 남아 있어 건물의 건립연대가 1991년임을 알려주고 있다.

(4) 외삼문(外三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태를 갖고 있다.

나지막한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윗면이 평평한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각 간 좌우에 회사벽을 꾸몄으며, 중앙에 설주를 두고 각 칸 모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문 상부에는 홍살을 꾸몄으며, 홀처마로 단청은 하지 않았다. 바닥은 강회다짐 하였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어칸 종도리 장혀 하단에는 '龍孔紀二千五百四十一年庚午七月十三日己巳午時堅柱上樑龜'라고 쓴 상량묵서명이 있으며, 이는 이 건물의 건립연대가 1990년임을 알려주고 있다. 외삼문 어칸 후면에는 명륜당 전면 어칸으로 이어지는 담도가 설치되어 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와 화장실, 그리고 협문 1동이 있다.

교직사는 전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약간의 민흘림이 있는 방형 단면의 기둥을 세웠다. 평면은 중당협실(中堂夾室)형의 3칸 건물에 오른편으로 부엌 한 칸이 덧붙은 형태로 되어 있다. 부엌 부분은 벽체를 판벽으로 하고 나머지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귀기둥에서 도리 뺨목 쪽으로 뺨목 받침을 하나씩 두었다.

화장실은 전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서재 남측 후면에 자리잡고 있다. 협문은 외부에서 교직사로 통하며, 교직사 남측 담 가운데 서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신령향교(新寧鄉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2호(대성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8호(명륜당)	
창건시기 소유자	조선 초 추정 향교재단	입지 관리자	구릉지 신령향교	
좌향	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남북 종축 1개	
중건시기	1615년 이건 1663년 중건 1691년 중수, 위패 이·환안례 실시 1733년 중수, 위패 이·환안례 실시	대지조성	2단 구성 / 내삼문 기준	
설위 건축구성	5聖, 宋朝 4賢, 海東 18賢 대성전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외삼문 / 교직사 / 화장실 / 협문 등	인접시설	없음	
특기사항	동서무가 생략되어 있으며, 대성전과 명륜당의 향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 있음 내삼문 및 대성전, 명륜당 등의 건물이 일반적인 향교 건물과 다른 점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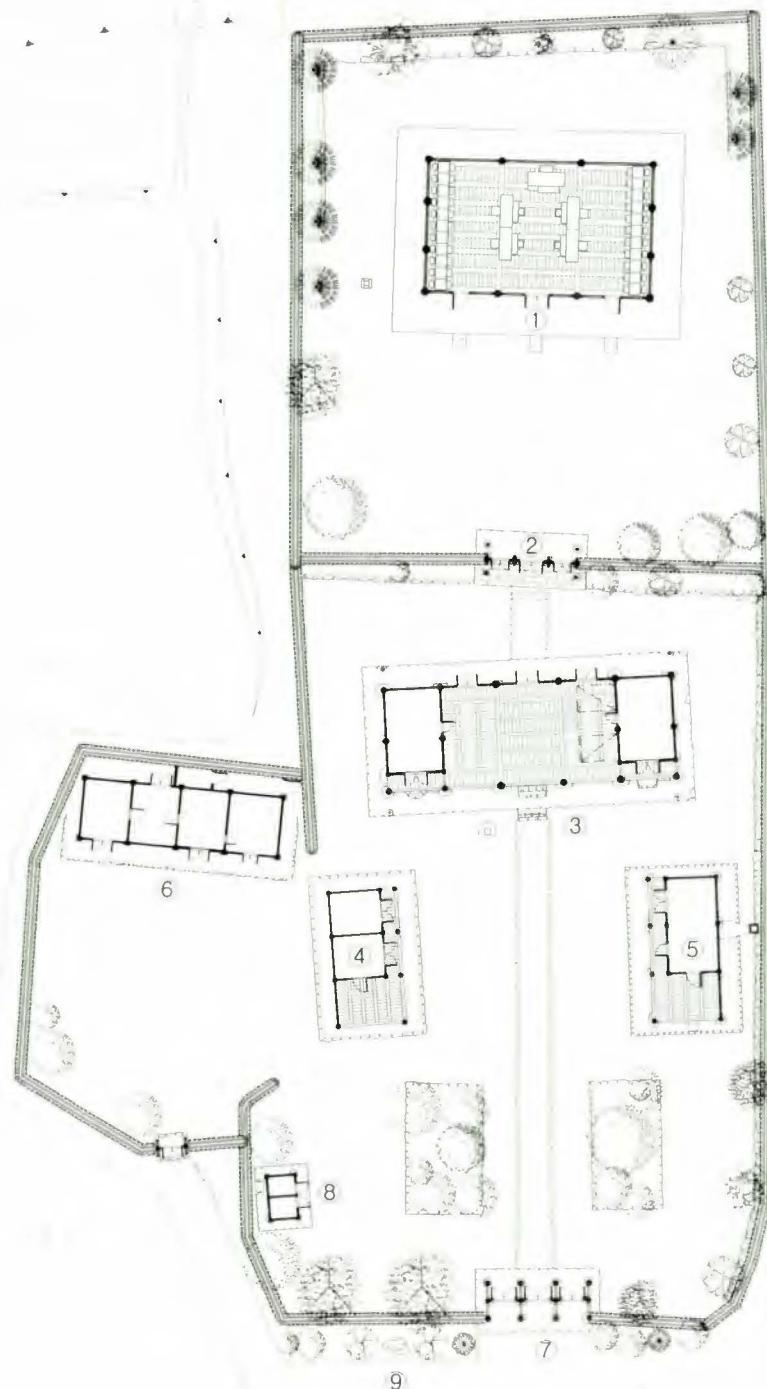
대성전 건축 요소

개요	3×3칸 / 외1출목 2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 주고 3550 / 주칸 4170 / 수장폭 115 / 도리단면 약 Ø=290 / 보단면 480×500 주심처마길이 2380 / 기단높이 400 / 초석크기 약 770×900 전후			
기단 계단 초석	단층기단 전면 3개(2단) 덤벙주초 / 자연석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보 : 3분변작	
기둥	원형기둥 / Ø=360 전후	도리	5량 / 굴도리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파련대공	
공포 처마 수장	외1출목 2익공 / 주간 화반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검기 회사벽 / 모로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 다포계와 익공계의 수법이 혼재되어 있음	대공 창방 지붕	밀각 방형 / 뺨목 첨차형 초각 맞배지붕 / 방풍판	
특기사항	중도리에 뜬창방을 결구하고 주간에 화반을 수장함			

명륜당 건축 요소

개요	5×3칸 / 2익공 / 겹처마 결합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주고 3230 / 주칸 328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Ø=225 / 보단면 430×430, 주심처마길이 1850 / 기단높이 전면 580 / 초석크기 약 670×1100 전후			
기단 계단 초석	단층기단 / 평축쌓기 전면 1개(2단) 덤벙주초 / 자연석(강돌)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보 : 3분변작	
기둥	원형기둥 / Ø=380	도리	5량 / 굴도리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판대공	
공포 처마 수장	이익공 / 주간 소로 수장 화반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검기 회사벽 / 단청 없음(흔적 잔존)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지반자(실) 단청은 없으나 원래 내부에 대나무 등 화려한 단청의 흔적이 남아 있음	대공 창방 지붕	장방형 / 뺨목 사절 결합지붕	
특기사항	좌우 실 모두 전면에 아궁이와 굴뚝을 나란히 두고 있음 중앙 3칸 지붕 용마루에는 숫기와를 한 단 덧댄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좌우 퇴칸의 창방 뺀목과 대들보가 만나는 부분에서 대들보를 뺀목에 맞게 따냄			

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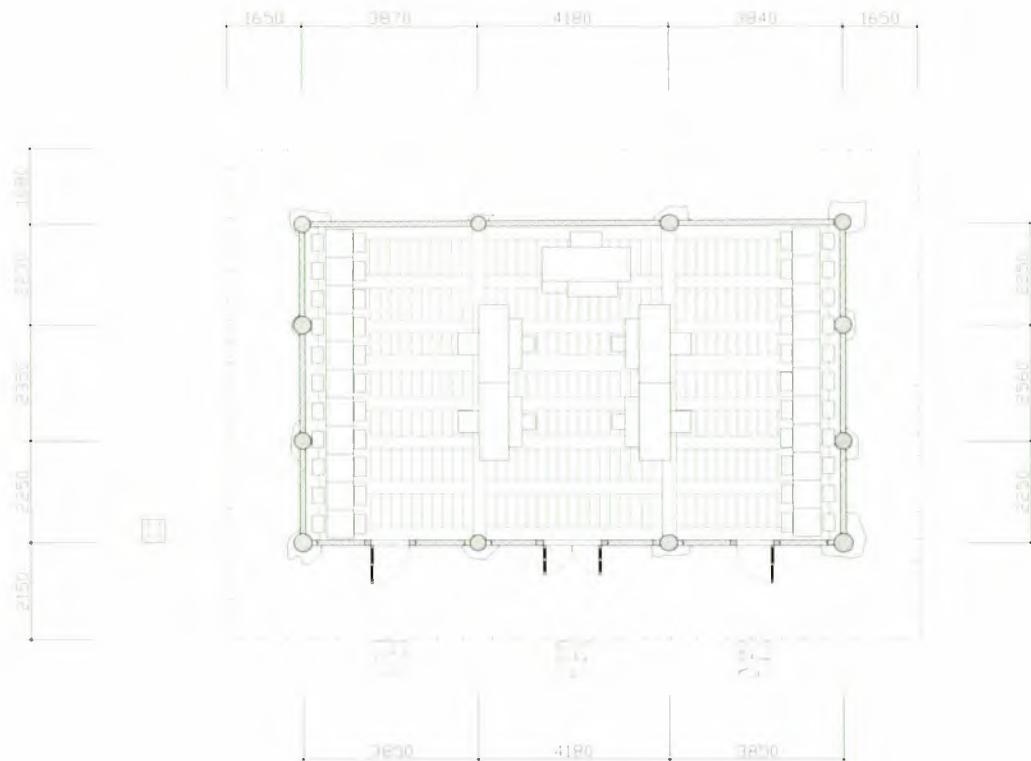


- 1 대성전
- 2 내삼문
- 3 명륜당
- 4 서재
- 5 동재
- 6 교직사
- 7 외삼문
- 8 변소
- 9 하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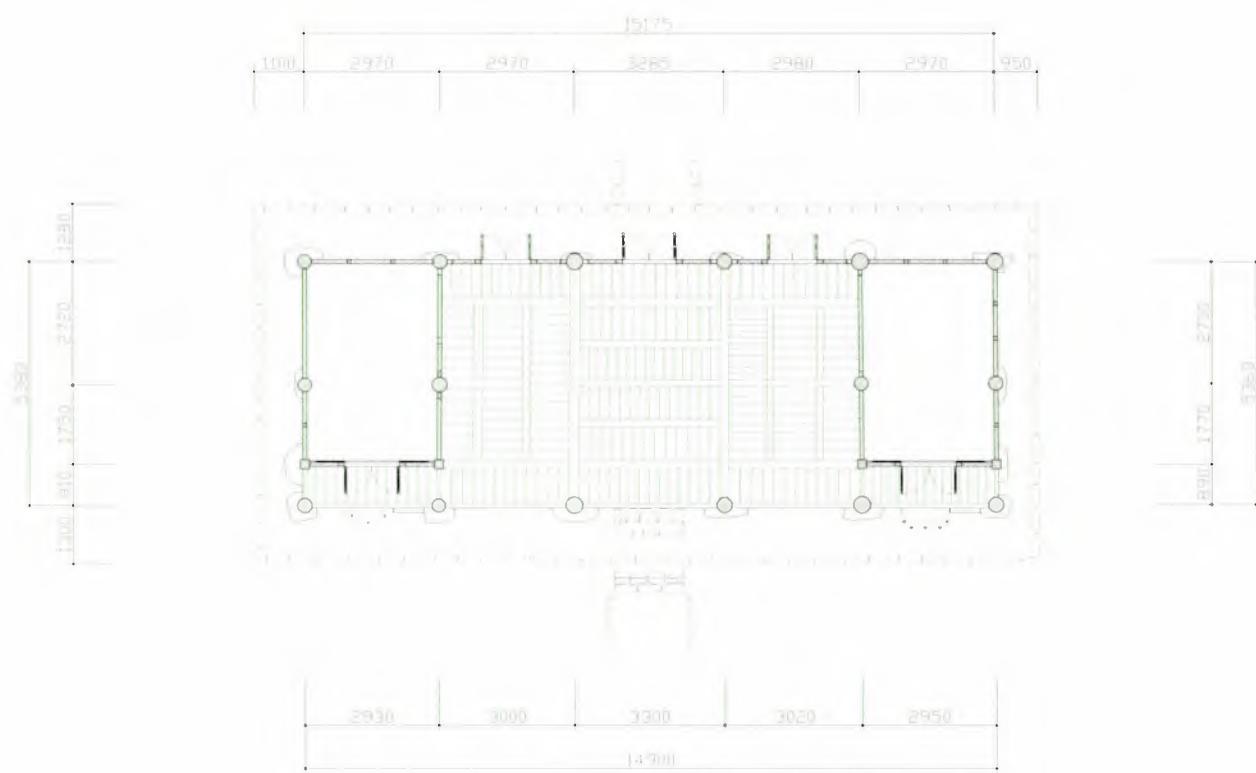
신령향교 배지도

0 2 5 10 M

신령향교



신령향교 대성전



신령향교 명륜당

0 0.5 1.0 2.0 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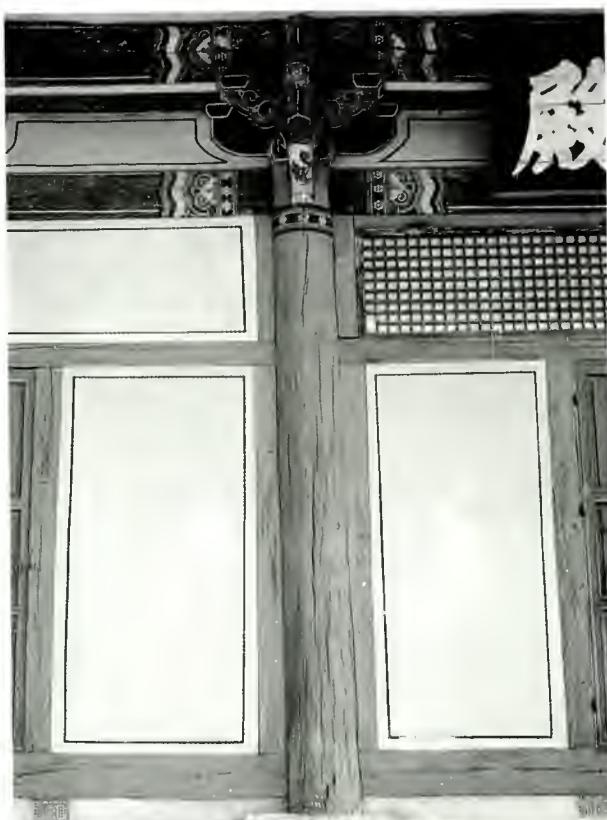
▲ 대성전



대성전 내부



▲ 대성전 전면 어칸 구성



▲ 대성전 전면 평주



▲ 대성전 전면 귀포



▲ 대성전 전면 주상포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대성전 내부 측벽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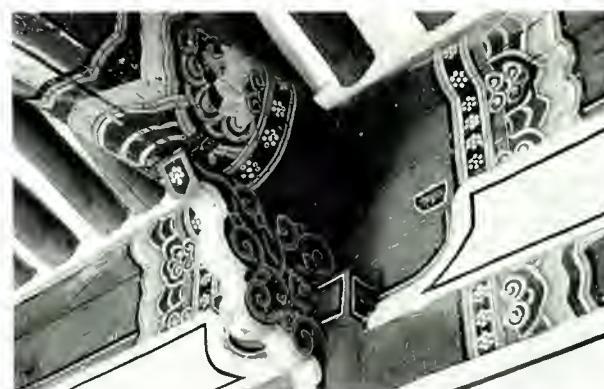
▲ 대성전 내부 협칸 구성



▲ 대성전 내부 어칸 구성



▲ 대성전 내부 중대공



▲ 대성전 대량 결구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명륜당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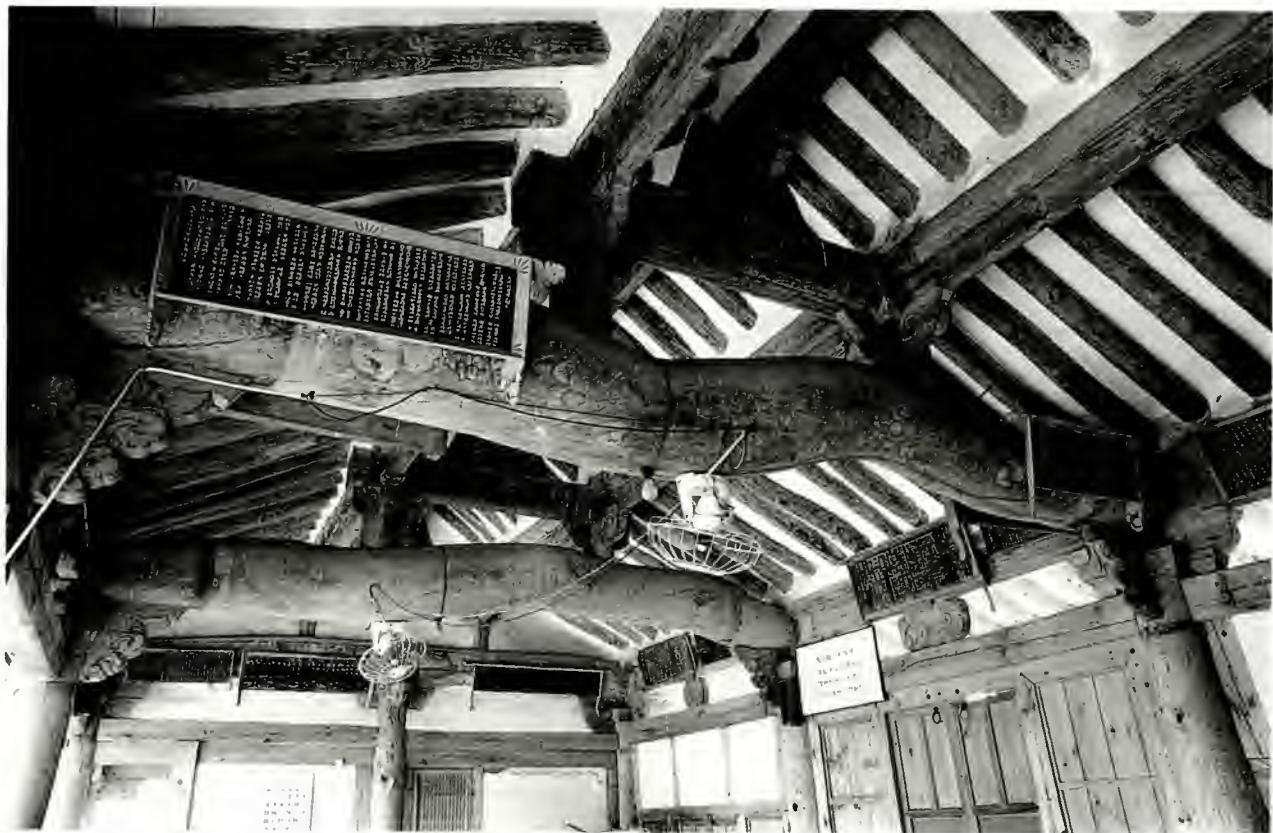
명륜당 퇴칸 후면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주간 화반



▲ 명륜당 내부 어칸 가구



명륜당 내부 협칸 가구



▲ 동재



▲ 서재 및 상량 목서명



내삼문



외삼문



교직사



정료대



협문



망료위

참고문헌

◆ 고문헌 및 향교지

尚州鄉校,『尚州鄉校誌』, 2001

義興鄉校,『義興鄉校誌』, 2000

漆谷鄉校,『漆谷鄉校誌』, 2001

◆ 단행본 및 논문류

◇ 논문

김자민,『鄉校建築의 营造規範에 關한 研究』,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83

조영화,『慶北地域 鄉校建築에 關한 研究』,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 단행본

慶尙北道·嶺南大學校,『慶北鄉校誌』, 1991

鳩尾文化院,『鳩尾市誌』,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서울·경기도의 향교건축』,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강원도의 향교건축』, 2001

文化財管理局,『한국의 향교건축』, 1998

文化財廳,『문화재수리공사보고서』, 1988~2001

儒敎辭典編纂委員會,『儒敎大辭典』, 博英社, 1990

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2

◇ 실측조사보고서

慶山鄉校移建復元推進委員會·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慶山鄉校 實測調查研究報告書』, 1995

軍威郡·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軍威 義興鄉校 大成殿 實測調查報告書』, 1989

人同鄉校·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人同鄉校 實測調查報告書』, 1989

慶尙北道 高靈郡·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高靈鄉校 實測調查研究報告書』, 1996

Abstract

Architecture of Hyanggyo in Gyeongsangbukdo province Southern and western part

(The Third Research Report about Confucian Architecture of Korea)

Hyanggyo (鄉校, Traditional Public Schools and Confucian Shrines) in Korea

The Hyanggyo was a public school built in each county and prefecture from late Goryo Dynasty (高麗, 918–1392) to Joseon Dynasty (朝鮮, 1392–1910). The aims of the Hyanggyo were to make a progress in Confucian ideology and to strengthen the ideas of the ruling classes.

The school consists of two main parts: a religious service area – Confucian shrine and a studying area – public school. Basically, the religious area consist of four buildings: a main shrine hall (Daesungjeon 大成殿), an east hall and a west hall for memorial services (Dongmu 東廡 and Seomu 西廡), and gate-building (Naesammun 內三門).

The studying area consists of four buildings: Myeongryundang (明倫堂), Dongjae (東齋) and Seojae (西齋) as well as Oesammun (外三門). The Myeongryundang is a main lecture hall, the Dongjae and the Seojae are dormitories on the east and the west housing a number of students studying at the Hyanggyo and the Oesammun is a main entrance of the Hyanggyo.

There are also other facilities in the Hyanggyo, such as administration office (Gyojiksa, 校直舍) for the school manager, and a two-storied pavilion on the main gate of the Hyanggyo.

1. The Hyanggyo in Daegu (大邱鄉校)

The Hyanggyo in Daegu is designated as Cultural Material No.1. The shrine facilities comprises Daesunjeon, Yangmu (兩廡, meaning Dongmu and Seomu) and Naesammun. The educational facilities comprise Myeongryundang, Yangjae (兩齋, meaning Dongjae and

Seojae) and Oesammun. There are also many other buildings in this complex. The Hyanggyo faces south with an axis. Two main areas are arranged in the east and the west of the axis.

The Daeseongjeon is a building of three by three bays in plan. It has a gabled roof and bracket sets Dapo (多包)-style. There is not any ceiling in the Daeseongjeon, and this is unusual for Dapo-style structures.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hree bays in size with a gabled roof. Its bracket sets are made in the Ikgong (翼拱) style. It is a building following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al style. The building was moved and rebuilt in 1605, finally moved to the present site in 1932.

2. The Hyanggyo in Chilgok (漆谷鄉校)

The Daesungjeon is designated as Cultural Material No.6. The Myeongryundang is located in front of the Daesungjeon. There is a Yangjae but without Yangmu. The Myeongryundang and the Daesungjeon are not located along the same axis. The Hyanggyo faces south.

The Daesungjeon is a three by three-bay building having a gabled roof. Its bracket sets are in the Jusimpo (柱心包) style. In fact, it was made in a fashion of combining the Jusimpo and the Dapo. It was repaired in 1907.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hree bays in size having a gabled roof. The bracket sets are in the Ikgong style. This building is now using for educational events which are related to the Confucianism.

3. The Hyanggyo in Cheongdo (淸道鄉校)

The Hyanggyo in Cheongdo is designated as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 207. The Daesungjeon and the Myeongryundang are positioned along the east-west axis. In general,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is oriented north-south. But, the Hyanggyo stands to the north. It might be determined by the village which is oriented to the north. There is a two-storied pavilion in front of the Myeongryundang. In the Hyanggyo, there are also many other buildings.

The Daesungjeon is three by two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Ikgong styled bracket sets.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hree bays having a gabled roof and Ikgong styled bracket sets. The Sarakru (思樂樓, a special name of a pavilion) is a two-storied pavilion which is three by two bays in plan having Ikgong styled bracket sets and a hipped-and-gabled roof. It rebuilt in 1996 is located in front of the Myeongryundang.

4. The Hyanggyo in Gyungsan (慶山鄉校)

The Hyanggyo in Gyungsan is designated as Cultural Material No. 105. It has been under moving to another place since 1997. In the religious area is in front.

The Daesungjeon is a three by two-bay structure having a gabled roof. It has excellent entasis-style columns and Jusimpo-style brackets sets. Its construction date is unclear. According to its basic scale, it might be built in the late 17th century. And a foundation stone is followed an old style.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hree-bay in plan, and has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d bracket sets. It was reconstructed in 1998. The roof shows members belongs to hipped-and-gabled roof frame, although it is a gabled roof.

The Yangjae, the Jungsinmun (a special name of Naesammun), the Sajumun (a gate with four columns, 四柱門) and the Gyojiksa were all rebuilt in september, 2002. Additionally, the Oesammun, Yangmu, Hyupmun (a small gate, 夾門) and another administration office are expecting to be built soon.

5. The Hyanggyo in Hayang (河陽鄉校)

The Hyanggyo in Hayang is designated as Cultural Material No.107. It shows a typical arrangement: the Daesungjeon at the back and the Myeongryundang at front.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axis of the religious area and that of the studying area. The Yangjae (dormitories) is located behind the Myeongryundang. It is an unusual pattern in Gyeongsangbukdo province (慶尚北道).

The Daesungjeon is three by three bays, having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d bracket sets. There is an office for managing the memorial service (Jeonsachung, 典祀廳) and a building to store things needed in the memorial service (Jegigo, 祭器庫) instead of a memorial service hall(Yangmu).

The Myeongryundang is three by three bays, having a gabled roof with Ikgong styled brackets sets. The Myeongryundang has a back door because a dormitory building (Yangjae) is located at the back.

6. The Hyanggyo in Jain (慈仁鄉校)

The Hyanggyo in Jain is designated as Cultural Material No.106. A pavilion called Mosungru (慕聖樓, a special name of a pavilion) stands on the south-north axis.

The Daesungjeon is a three by three-bay building which has a gabled roof and Ikgong-styled

12. The Hyanggyo in Jirye (知禮鄉校)

The Daesungjeon of the Hyanggyo in Jirye is designated as Cultural Material No.118. The Daesungjeon and the Myeongryundang are oriented to the south but with different axes. The Dongjae was built in 1990 and the Seojae was rebuilt in 1986. A two-storyed pavilion was constructed in the mid-19th century and repaired in 1980.

The Daesungjeon is three by three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 brackets. There is a small niche (龕室) in the wall and it contained the portrait of Confucius.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 brackets. It is located on the higher platform.

There is a two-storyed pavilion (Sanbanru, 惠泮樓, a special name of a pavilion) in front of the Hyanggyo. It is three by two bays having a hipped-and gabled roof with Ikgong-styled brackets.

13. The Hyanggyo in Goryeong (高靈鄉校)

The Hyanggyo in Goryeong is designated as Cultural Material No.229. The arrangement of the Hyanggyo is oriented to the southeast and the Daesungjeon with facilities is located in the rear, while the Myeongryundang with facilities is located in front. These two buildings stand on a south-north axis and there is not Yangjae.

The Daesungjeon is three by two bays and has a hipped-and gabled roof with Ikgong-style brackets. There are round foundation stones (礎石) and some of them are decorated with a turtle pattern. The building was originally built in the mid-17th century, and it had been repaired several times but still preserve its elegance.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 bays and has a gabled roof. The brackets are in Ikgong style. The building was moved to the present location in 1701. It was repaired in 1974 and keeps the characteristic of the architec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14. The Hyanggyo in Mungyung (聞慶鄉校)

The Daesungjeon is designated as Cultural Material No.132. There is not Yangmu. The Daesungjeon with facilities is located in the rear and the Myeoungyundang with facilities is located in front. They have different axes. The arrangement of the Hyanggyo is oriented to the south.

The Daesungjeon is three by two bays and has a gabled roof. Brackets are made in the Ikgong

style. The building has a window in upper part of the facade for daylight.

The Myeongryundang is four by two bays and has a gabled roof. Brackets are made in the Ikgong style. Two bays in the middle of the building are paved with wood panel and both end bays are the ondol rooms. It has an even number in front bays which is not a normal case in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The Yangjae is located in the back of the Myeongryundang. It looks like a two-storied building from a south view but it is a single-storied building.

15. The Hyanggyo in Hamchang (咸昌鄉校)

The Hyanggyo in Hamchang is designated as Cultural Material No. 124. There is an old gingko tree in front of the Hyanggyo. The Hyanggyo is oriented to the south.

The Daesungjeon with facilities is located in the rear and the Myeongryundang with facilities is located in front. There is not Yangmu. The Yangjae is located in the back of the Myeongryundang. The arrangement of the Hyanggyo inclines to the west one after another: Oesamnum, Myeongryundang, Naesammun and Daesungjeon.

The Daesungjeon is a three by three-bay building having a hip-and-gabled roof. Brackets are in the Ikgong style. A portrait of Confucius is hanging in the rear wall of the center bay.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 bays and has a hipped-and-gabled roof with Ikgong-style brackets. It is a two-storied building located in the front part. There are many records about the history of buildings, from the 18th century to the modern time. This building is restored last time in 1986.

16. The Hyanggyo in Seongju (星州鄉校)

The Daesungjeon is designated as Cultural Material No.114 and the Myeongryundang is designated as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165. The plan of the Hyanggyo is not a common case: religious area is located to the east and studying area to the west. The whole building is oriented to the south. There were a two-storied pavilion and a Yangjae. But, they were all destroyed by fire during the Korean War.

The Daesungjeon, three by three bays, has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 brackets. It has a characteristic of architec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such as paintings inside and outside, and the way of carving structural members.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hree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d brackets.

The columns of the center bay are thicker than others. It has many records about the history of the buildings. There is an attic in the top of the rooms for storing the books. There is a small well (Myeongryunjeong) in studying area.

17. The Hyanggyo in Hyunpung (玄風鄉校)

The Daesungjeon is designated as Cultural Material No.27. The Hyanggyo is oriented to the south, the Daesungjeon with Yangmu and Myeongryundang with Yangjae stand along the south-north axis. The Gyojiksa is located in the west of the Hyanggyo and shaped as a traditional Korean house.

The Daesungjeon is a three by three-bay building having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d brackets. It uses wide stone-panel for a foundation which was an elegant skill in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There are many materials believed to form a stone pagoda or a stone lantern, especially in foundation stone. Generally, it is presumed to be a building of the 18th century.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 brackets. It has a hanging board with calligraphy on it which was written by Lee Hwang (李滉, 1501~1570) who was a great confucian scholar in the Joseon dynasty. This building is believed to be built in the 19th century.

18. The Hyanggyo in Uiheung (義興鄉校)

The Daesungjeon is designated as Cultural Material No.198. The Hyanggyo is oriented to the south and religious area is in the east-north area of the school area. There is no Yangmu and a house for stone monument stands in the west of the entrance of the Hyanggyo.

The Daesungjeon is a three by three-bay building having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 brackets. It contains memorial tablets for 27 holly sages including Confucius.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wo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 brackets. The Dongjae was rebuilt in 1956 and the Seojae in 1993. It was possible to enter the Hyanggyo through the center bay of the first floor of the Gwangpungru(光風樓, a special name of a pavilion). The Gwangpungru was a two-storied building, four by two bays, having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 brackets. But in the 1968 repair, the height of first floor was reduced by cutting the rotten part of columns, so it lost its original passage.

19. The Hyanggyo in Sillyeong (新寧鄉校)

The Daesungjeon is designated as Cultural Material No.102. The Myeongryundang is also designated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168. The Hyanggyo is oriented to the south and it has not Yangmu. The Daesungjeon and the Myeongryundang stand on a south–north axis and the Gyojiksa is located at the rear of the Seojae.

The Daesungjeon is three by three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 brackets. It shows a mixed style of the Dapo and the Ikgong.

The Myeongryundang is five by three bays and has a gabled roof with Ikgong-styled brackets. It did not painted. However, one can find some scars of the painting pattern of flowers and bamboo in important members of the framework. It was heavily repaired in 1852. A little lofty stone stands in the left side of the front stairs. The Seojae was built in 1991 and the Oesammun in 1990.

| 집필 |

조영화 (대경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교수)
배병선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교수)
조상순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연구원)

| 도면 |

한주성, 조상순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 편집 |

정영훈, 김재준, 양윤식, 강현, 조은경, 조상순, 이성구, 문승현, 한주성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 사진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배병선, 정명섭, 조영화, 조상순

| 영문번역 |

강일권

| 영문감수 |

Qinghua Guo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儒教建築叢書 第3集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 남서부편

인쇄일 / 2002년 12월

발행일 / 2002년 12월

발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인쇄 / 일진사(2278-7995)

受 領 證

Receipt

이
곳
을
잘
라
서
보
내
주
십
시
요

儒教建築叢書 第3集을 정히 受領합니다.

We have delightfully received the Third Research Report about Confucian Architecture of Korea.

住所(Address) :

姓名(Name and Signature) :

日字(Date) : 200 部數(Quantity) :

이 受領證을 다음 住所로 보내주십시오.

You would send this receipt to the next address.

110-820 서울 特別市 鍾路區 世宗路 1-57番地
國立文化財研究所 美術工藝研究室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Art & Architecture Division
1-57, Sejongno, Jongno-gu, Seoul, 110-820 Rep. of Korea

이 受領證을 必히 보내주시기 바라며 住所變更時에는 書面이나 電話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02-737-6685, fax : 02-722-0417)

Please send this receipt. And if you have changed your address, just let me know it using by fax.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Division of Art and
Architecture, Phone : +82-2-737-6685, Fax : +82-2-722-0417, available 0900~17:00, GMT +0900)